

石蓮丁先生事蹟錄
석연정선생사적록

石蓮精舍採山齋發行
석연정사채산재발행

全南谷城石谷面蓮盤里
전남곡성석곡면연반리

目 次

목 차

石蓮丁先生事蹟錄序 曲阜孔鍊雄	7
望嶺臺記	9
武城書院望	10
採山齋指標	11
採山齋示學生文(并條約)	11
規約	12
講會序	14
示齋中學徒文	15
勸學示諸生辭	17
講會序	14
採山齋記 咸陽呂昌鉉	20
採山齋唱酬詩文集序 竹溪安塑	23
採山齋唱酬詩文集敘傳 善山柳鍾茂	26
相宜亭記 幸州奇老章	31
相宜亭重建記 眞城李家源	34
相宜亭重建次韻 成均館長崔昌圭	35
石蓮丁先生祭文 靈輻前小生李鍾璿	36
蓮盤丁氏三世文獻錄序 儒州柳漢相	37
蓮盤丁氏三世文獻錄祝刊辭 勉菴先生玄孫崔昌圭	40

石蓮丁先生事蹟錄

蓮盤丁氏三世文獻錄祝刊辭 蘆沙先生 胄孫 奇浩仲 42
연반 정씨 삼세 문헌 기록 간사 노사 선생 주손 기호중

石蓮丁公墓碣銘 玉川 趙敏植 43
석연 정공 묘갈명 옥천 조민식

石蓮丁公墓誌銘 長興 魏啓道 49
석연 정공 묘지명 장흥 위계도

石蓮丁先生遺墟碑文 恩津 宋在晟 54
석연 정선생 유허비문 은진 송재성

石蓮遺稿序 豐山 洪錫憲 57
석연 유고서 풍산 홍석희

石蓮丁先生祀壇碑文 星州 李栢淳 60
석연 정선생 사단비문 성주 이백순

石蓮丁先生門人錄序 坡平 尹丁鎬 62
석연 정선생 문인록서 파평 윤정복

石蓮丁先生淵源錄序 黃州 邊時淵 65
석연 정선생 연원록서 황주 변시연

石蓮丁先生淵源錄祝刊辭 勉菴先生 玄孫 崔昌圭 67
석연 정선생 연원 기록 간사 면암선생 현손 최창규

石蓮丁公梧岡祠奉安答通文 成均館長 金敬洙 69
석연 정공 오강사 봉안 답통문 성균관장 김경수

石蓮丁先生梧岡祠配享奉安文 羅鉀柱 70
석연 정선생 오강사 배향 봉안문 나갑주

梧岡祠廟庭碑文 國會議員 務安 朴錫武 72
오강사 묘정비문 국회의원 무안 박석무

石蓮丁先生梧岡祠配享由來 75
석연 정선생 오강사 배향 유래

石蓮丁先生望美臺碑文 公州 李泳福 76
석연 정선생 망미대비문 공주 이영복

石蓮丁先生行狀 務安 朴穰奎 78
석연 정선생 행장 무안 박양규

附錄
부록

府使公諱彦奎仁祖大王扈從加資錄 86
부사공휘연규인조대왕호종가자록

府使公諱彦奎記績 87
부사공휘연규기적

同知公諱夢佐慶燕狀 88
동지공휘몽좌경연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使羅州丁公諱夢佐墓表 星州 李栢淳 90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나주정공휘몽좌묘표 성주 이백순

杜谷處士公行狀 前進士 愚齋 鄭範 93
두곡처사공행장 전진사 우재 정범

野隱公行狀 長興 高光善	96
야 은 공 행 장 장 흥 고 광 선	
野隱公孝行碑文 原任奎章閣提學 安東 金宗漢	101
야 은 공 효 행 비 문 원 임 유 장 각 제 학 안 동 김 종 한	
野隱公墓碣銘 竹山 安秉柝	104
야 은 공 묘 갈 명 죽 산 안 병 탁	
教旨 (石蓮公考妣)	109
교 지 석 연 공 고 비	
羅州丁氏世德錄序 淵齋先生 玄孫 宋永文	110
나 주 정 씨 세 덕 록 서 연 재 선 생 현 손 송 영 문	
羅州丁氏世德錄發刊辭 前國會議員 朴錫武	112
나 주 정 씨 세 덕 록 발 간 사 전 국 회 의 원 박 석 무	
羅州丁氏世德錄祝刊辭 光山 金永雄	114
나 주 정 씨 세 덕 록 축 간 사 광 산 김 영 응	
羅州丁氏世德錄跋文 勉菴先生 冢孫 崔鎮弘	116
나 주 정 씨 세 덕 록 발 문 면 암 선 생 종 손 최 진 홍	
南耘丁君翼燮行狀 幸州 奇老章	117
남 윤 정 군 익 섭 행 장 행 주 기 노 장	
南耘公墓碣銘 豐山 洪錫憲	122
남 윤 공 묘 갈 명 풍 산 홍 석 희	
南耘公遺稿序 順興 安泰曾	125
남 윤 공 유 고 서 순 흥 안 태 증	
南耘公遺稿跋 長興 魏啓道	127
남 윤 공 유 고 발 장 흥 위 계 도	
豐川盧又玉女士孝烈碑文 眞城 李家源	130
풍 천 노 우 옥 여 사 료 열 비 문 진 성 이 가 원	
慕蓮說 樂軒 河東 鄭孝鉉	132
모 연 설 낙 현 하 동 정 효 현	
慕蓮私稿序 儒州 柳漢相	134
모 연 사 고 서 유 주 류 한 상	
慕蓮丁公私稿發刊辭 蘆沙先生 冑孫 奇浩仲	137
모 연 정 공 사 고 발 간 사 노 사 선 생 주 손 기 호 중	
慕蓮私稿跋文 光山 金永雄	139
모 연 사 고 발 문 광 산 김 영 응	
慕蓮私稿跋文 胞弟 奎完	141
모 연 사 고 발 문 모 제 규 완	
書 樂軒 河東 鄭孝鉉	143
서 낙 현 하 동 정 효 현	
書 儒州 柳漢相	144
서 유 주 류 한 상	
書 安東 權熙文	146
서 안 동 권 희 문	
書 羅州 丁 湜	147
서 나 주 정 식	

石蓮丁先生事蹟錄

功勞牌 丁氏宗會長 丁奎成 148
 공로패 정씨종회장 정규성

謹望 押海丁氏大宗會長 丁炳錫 148
 근망 압해정씨대종회장 정병석

表彰文 成均館 第08-126號 成均館長 崔根德 149
 표창문 성균관 제 호 성균관장 최근덕

委囑狀 成均館 家族法對策委員會 委員
 위촉장 성균관 가족법대책위원회 위원
 西紀1999年8月17日 成均館長 崔昌圭 151
 서기 년 월 일 성균관장 최창규

委囑狀 成均館 制度改革委員
 위촉장 성균관 제도개혁위원
 西紀2000年6月9日 成均館長 崔昌圭 151
 서기 년 월 일 성균관장 최창규

成均館副館長 告由文 寫真 151
 성균관부관장 고유문 사진

爲慕蓮 成均館副館長 清覽 清聲四達
 위모연 성균관부관장 청람 청성사달
 成均館長 孫晉瑤 謹呈 151
 성균관장 손진우 근정

成均館副館長 慕蓮 羅州丁公宗杓 紀績碑文 光山 金永雄
 성균관부관장 모연나 주정공종표기적비문 광산 김영웅
 (豎谷城鄉校) 152
 수곡성향교

慕蓮 隨藏錄序 珍原 朴景來 154
 모연수장록서진원 박경래

慕蓮 隨藏錄祝刊辭 曲阜 孔鍊雄 155
 모연수장록축간사 곡부 공연웅

慕蓮 隨藏錄祝刊辭 成均館顧問 朴來鎬 157
 모연수장록축간사 성균관고문 박래호

慕蓮 隨藏錄跋 文化 柳晏重 158
 모연수장록발 문화 류안중

採堂記 東江 柳漢相 160
 채당기 동강 류한상

採堂遺稿序 曲阜 孔鍊雄 163
 채당유고서 곡부 공연웅

採堂羅州丁公墓表 光山 金善駟 165
 채당나주정공묘표 광산 김선일

採堂羅州丁公行狀 文化 柳晏重 169
 채당나주정공행장 문화 류안중

跋文 石蓮先生 冢孫 宗杓 175
 발문 석연선생 총손 종표

石蓮丁先生事蹟錄序

석연정선생사적록서

湖之谷城.山水佳麗.自古文學行義之士續出.著顯于世.石
 호지곡성 산수가려 자고문학행의지사속출 저현우세 석
 蓮丁大暉先生其一也.公之才性穎悟.早年學業旣成.出入
 연정대현선생기일야 공지재성영오 조년학업기성 출입
 於宋淵齋.崔勉菴.奇松沙三先生之門.觀感請益者多.執贄
 어송연재 최면암 기송사삼선생지문 관감청익자다 집지
 于勉菴先生得聞尊攘之義.爲學之方.退以築室于別墅.日
 우면암선생득문존양지의 위학지방 퇴이축실우별서 일
 讀經傳.沈潛其意.自勉於實踐.至於諸子百家.無不究明以
 독경전 침잠기의 자면어실천 지어제자백가 무불구명이
 博其識.惟以導迪後進爲己任.其所教誨者.必以孝弟忠信
 박기식 유이도적후진위기임 기소교회자필이효제충신
 爲主.戊戌春.淵齋先生.來講于望峯亭.翌年己亥春.松沙
 위주 무술춘 연재선생 내강우망미정 익년기해춘 송사
 先生來訪于此.講義消日.一方儒風蔚然以興.時當國運不
 선생내방우차 강의소일 일방유풍을연이흥 시당국운불
 幸.倭寇強占.丙午.公參谷城梧枝里.勉菴先生倡義之策圖
 행 왜구강점 병오 공참곡성오지리 면암선생창의지책도
 謀.至淳昌倡義所.先生.聞公之親患危重.曰丁某歸家侍
 모 지순창창의소 선생 문공지친환위중 왈정모귀가시
 湯.奉命歸家.其後公被斥倭謀議.見辱於倭寇.當庚戌社
 탕 봉명귀가 기후공피척왜모의 견욕어왜구 당경술사
 屋.痛不自勝.兩度大喪.戴白衣縞.方喪如禮.公歿後依士
 옥 통불자승 양도대상 대백의호 방상여예 공몰후의사
 林通文得成均館答通.配享于梧岡祠.及門弟子.刊其遺稿
 린통문득성균관담통 배향우오강사 급문제자 간기유고
 與門人淵源錄.將公諸世.又百餘名士.讚揚公之事蹟.可見
 여문인연원록 장공제세 우백여명사 찬양공지사적 가견
 公之爲公矣.日公之胄孫慕蓮斯文.訪余於月桂書室.示先
 공지위공의 일공지주손모연사문 방여어월계서실 시선

生行狀. 請其事蹟錄弁文. 顧念以爲不佞與斯文. 有先誼交

契已深. 以不文固辭其請. 不顧文拙. 謹依狀略敘如右云爾

歲甲辰(2024)年 九月 上澣日 曲阜 孔鍊雄 謹撰

석연정선생사적록서

호남의 곡성은 산수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문학과 의리를 행한 선비들이 속출하여 세상에 저명하였으니 석연 정대현선생이 그 중 한 분이다. 공은 재주와 성품이 총명하여 일찍 학업이 이미 이루어졌다. 송연재 최면암 기송사 삼선생 문하에 출입하여 관감하고 청익한 바가 많았다. 면암선생을 스승으로 하여 존양의 대의와(존화양의) 학문의 방법을 자세히 듣고 물러와 조용한 곳에 서실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날마다 경전을 읽고 깊은 뜻에 감겨 실천궁행에 힘쓰며 제가백가서에 이르러 깊이 연구하고 지식을 넓혔다. 오롯이 후진을 개도한 것으로 자기의 책무를 삼고 교회한 바는 효제충신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무술년 봄에 연제선생이 망미정으로 오시어 강의하였고 다음 해 기해년 봄에 송사선생이 또 이곳에 오시어 강의하며 몇날을 보내니 일방의 유품을 성하게 일으켰다. 국운이 불행할 때를 당하여 공이 곡성 오지리에 참여하여 면암선생과 창의책을 도모하고 순창 창의소에 이르러 선생이 공의 친환이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정모는 귀가하여 시탕하라” 하니 명을 받들어 귀가하였다. 그 후 공은 왜구를 배척했다는 혐의를 입어 왜구에게 갓은 곤육을 당했다.

경술년 국치를 당하여 통분을 참지 못하였고 두 차례나 국상을 당하였을 때 백의로 상복을 지어 입고 친상을 당한 것처럼 지냈다. 공이 몰한 후로

사람의 통문에 의거하여 성균관의 답통을 받고 오강사에 배향하였다. 문인들이 공의 유고와 문인연원록을 간행하여 공의 사행을 후세에 전하고 또 백여명사들이 시문으로써 공의 사적을 찬양하였으니 가히 공의 공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다.

어느 날 공의 장손 묘연 사문이 나의 월계서실로 찾아와 선생의 행장을 보이면서 이르기를 이제 사적록을 편간하려 하니 그 서문을 지어달라 청함으로 돌이켜 생각하니 불녕이 사문과 선의가 있고 교제가 깊어 그 청을 고사하지 못하였다. 나의 문졸함을 돌아보지 않고 삼가 위와 행장에 의거하여 위와같이 약술하노라.

갑진년(2024)년 구월 상한일 곡부 공연음 지음

望岬臺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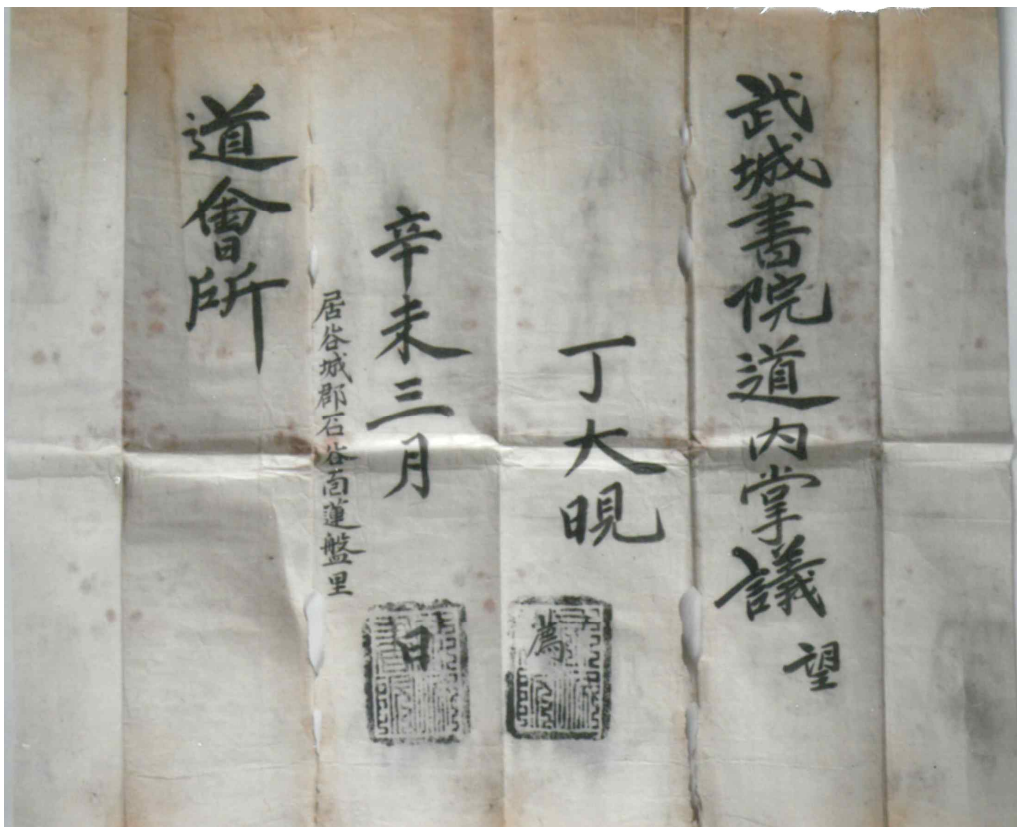
망 미 대 기

望岬臺는 谷城郡 石谷面 蓮盤里에 所在하는 石蓮 丁大暉 先生 別墅이다. 高宗 戊戌(1898年)에 淵齋 宋秉璿 先生이 이곳에서 講學을 하고 庚子(1900年)에 松沙 奇宇萬 先生도 여기에서 講學을 하였으므로 그 後 鄉里의 講學하는 곳이 되었다. 그 後 望岬臺라 하였고, 石蓮先生 誕辰日이면 門人들이 相揖禮와 講學을 하였으며, 高宗 賓天에 服을 입으니 안 입으니 兩論이 粉粉 하자 石蓮先生이 臺에 올라 域內士林에게 服을 입을 것을 倡言

石蓮丁先生事蹟錄

하며 設位通哭하고 服喪三年하다. 癸酉(1933)年 石蓮先生門人
설 위 통 곡 복 상 삼 년 계 유 년 석 연 선 생 문 인
이 그곳에 亭子를 지어 相揖禮와 講學하였다.
정 자 상 읍 례 강 학

望狀
망 장



武城書院(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1931年)
무 성 서 원 년
配享人物：崔致遠 申潛 丁克仁 宋世琳 鄭彦忠 金若默 金灌
배 향 인 물 최 치 원 신 잠 정 극 인 송 세 림 정 언 중 김 약 묵 김 관

採山齋指標

채 산 재 지 표

自修道義 스스로 도와 의를 닦아 감
자 수 도 의

採山齋.示學生文 井條約
채 산 재 시 학 생 문 정 조 약

今諸生之從余於荒山寂寞之濱.相守枯淡者.其意居何.豈
금 제 생 지 종 여 어 황 산 적 막 지 빈 상 수 고 담 자 기 의 거 하 깨
 不以學文一事乎.所謂學問者.學爲人之道也.而古昔聖賢
불 이 학 문 일 사 호 소 위 학 문 자 학 위 인 지 도 야 이 고 석 성 현
 千言萬語中.曰孝悌忠信.曰仁義道德.曰敬曰誠云云者.布
천 언 만 어 중 왈 효 제 충 신 왈 인 의 도 덕 왈 경 왈 성 윤 운 자 포
 在方冊.皆說與後人爲人之道者也.今諸生講習之矣.可無
재 방 책 개 설 여 후 인 위 인 지 도 자 야 금 제 생 강 습 지 의 가 무
 待乎余之說.余亦可以無贅說矣.惟恐諸生之立志.或有所
대 호 여 지 설 여 역 가 이 무 체 설 의 유 공 제 생 지 입 지 혹 유 소
 不堅.踐履或有所未篤.故茲手鈔朱夫子滄洲精舍論學者.
불 견 천 리 혹 유 소 미 독 고 자 수 초 주 부 자 창 주 정 사 논 학 자
 前後二文.貼付于齋之壁.繼之爲書齋規約幾條.以付于下.
전 후 이 문 첩 부 우 재 지 벽 계 지 위 서 재 규 약 기 조 이 부 우 하
 願諸生.朝夕視爲警.各自惕念.以資躬踐實行之地.庶勉捕
원 제 생 조 석 시 위 경 각 자 척 념 이 자 금 천 실 행 지 지 서 변 포
 風捉月之歸矣
풍 착 월 지 귀 의

오늘날 제생들이 거친 산 적막한 물가에서 나를 따라 서로 고담을 지키는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로지 글을 배우려는 한 가지 일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른바 학문이란 사람이 되는 도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옛 성현의 천 마디 만 마디의 말 속에 「효제충신」 이니 「인의도덕」 이니 「경」 이니 「성」 이니 말한 것들이 여러 서적에 실려 있다. 모두가 후인들에게 사람되는 도를 말해준 것이다.

오늘날 제생들은 그것을 강습했으리니 어찌 내 말을 믿지 않으리요 나 또한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지 않으리라.

오직 제생들의 입지가 혹 견고하지 못한 바가 있을까 실천함이 혹 돈독하지 못한 바가 있을까 두려워서 이에 손수 주자가 창주정사에서 학자들을 깨우쳤던 전후 두 문첩을 베껴서 재의 벽에 붙이고 이어서 재의 규약 몇 가지를 써서 아래에 붙이노라.

제생들은 아침 저녁으로 보고 경계를 삼아 각자 생각을 두렵게 하여 몸소 실천하고 실행하는 바탕으로 삼는다면 바람과 달을 거머잡고 돌아오는 보람이라 할 수 있으리라.

規 約

규 약

- 一. 凡吾齋同硯者. 要立志鞏固. 母或爲時俗汚. 中途自廢事
일 범 오 재 동 연 자 요 입 지 공고 모 혹 위 시 속 오 중 도 자 폐 사
- 二. 凡讀書要體. 驗于身. 躬踐于行. 母使書自書我自我. 諸生
이 범 독 서 요 체 험 우 신 궁 천 우 행 모 사 서 자 서 아 자 아 제 생
 自今日. 撞刻意力行. 自愛親敬長隆師親友. 及灑掃應對一切.
자 금 일 당 각 의 력 행 자 애 친 경 장 롱 사 친 우 급 쇄 소 응 대 일 절
- 行小學書自居. 以小學童子. 以備他日大學工夫之基礎事
행 소 학 서 자 거 이 소 학 동 자 이 비 타 일 대 학 공 부 지 기 초 사
- 三. 諸生各自一日行一善決意. 假使今日決行不妄言. 明日決
삼 제 생 각 자 일 일 행 일 선 결 의 가 사 금 일 결 행 불 망 언 명 일 결
 行不妄戲. 如此積日. 以日日遷善. 作之不止. 以至久久成性事
행 불 망 희 여 차 적 일 이 일 일 천 선 작 지 부 지 이 지 구 구 성 성 사
- 四. 寫字及作文. 亦儒者不可廢之一事. 則諸生自今日一定
사 사 자 금 작 문 역 유 자 불 가 폐 지 일 사 즉 제 생 자 금 일 일 정
 課程. 日時每日朝午飯後寫字. 畧一日間作詩一首. 每五日間
과 정 일 시 매 일 조 오 반 후 사 자 약 일 일 간 작 시 일 수 매 오 일 간
 作文一首. 嚴立課程. 無違遵行事
작 문 일 수 엄 립 과 정 무 위 준 행 사

五. 諸生中或有鬪爭及遊戲等事. 妨於修業者. 則相規以善

오 제 생 중 혹 유 투 쟁 급 유 희 등 사 방 어 수 업 자 즉 상 규 이 선

途. 至再至三而猶不悛. 則不容貸黜學事

도 지 재 지 삼 이 유 불 천 즉 불 용 대 출 학 사

六. 上記規約格別嚴守事

육 상 기 규 약 격 별 엄 수 사

- 一. 무릇 나의 재산재에서 함께 공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뜻을 공고히 세울 것이며 후시라도 시속의 더러움 때문에 증도에서 자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二. 무릇 독서는 요컨대 몸으로 체험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니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가 되지 않도록 하라. 제생들은 오늘부터 마땅히 마음에 새기고 힘써 행하여 스스로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벗에게 친히 하라. 그리고 청소하고 응대하는 일체를 소학대로 행할 것이며 소학을 배우는 동자로서 자처하여 다음 날 대학 공부의 기초가 되도록 준비할 것.
- 三. 제생들은 각자 하루에 한가지씩 선을 행할 것을 결의하라. 가령 오늘은 망녕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을 결행하고 내일은 망녕된 장난을 하지 않을 것을 결행하라. 이런 날이 날마다 거듭됨으로써 선행이 그치지 않고 쌓이므로 해서 영원한 품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四. 글자를 베끼고 글을 짓는 것은 또한 선비로서 폐할 수 없는 일 중의 한 가지이니 제생들은 오늘부터 적당한 과정을 정하여 매일 아침 밥과 점심 밥을 먹은 후에 글자 베끼기를 대략 한 시간 매일 하루 중에 시를 한 수 짓고 5일 간격으로 글(文)을 한 수 짓는다. 엄격하게 과정표를 세워 놓고 어김없이 준행할 것.
- 五. 제생 중에 혹 싸우거나 장난치는 등의 일이 있어서 수업에 방해하는 자는 타이르되 두 번에 이르고 세번째 이르러도 잡히지 않으면 용서 없이 내쫓을 것.
- 六. 위에 기록한 규약을 각별히 엄수할 것.

講會序

강회서

契以講會名. 會英才講古書也. 自島夷侵凌. 縫掖之林. 喪氣落
계 이 강 회 명 회 영 재 강 고 서 야 자 도 이 침 능 봉 액 지 임 상 기 락
 魄. 會合猶難. 又奚暇於講古書乎. 惟往而必復. 天道有定. 亂極
백 회 합 유 난 우 해 가 어 강 고 서 호 유 왕 이 필 복 천 도 유 정 난 극
 思治. 人心之所同也. 去乙酉七月七日. 島夷撤世. 則姑未大定
사 치 인 심 지 소 동 야 거 을 유 칠 월 칠 일 도 이 철 세 즉 고 미 대 정
 而民則有小康之幸. 於是村秀才子. 二十餘人. 負笈來學. 伊吾
이 민 즉 유 소 강 지 행 어 시 촌 수 재 자 이 십 여 인 부 급 내 학 이 오
 之聲. 依若前日之絃誦. 上天孔仁. 不欲終喪斯文者歟. 余謂諸
지 성 의 약 전 일 지 현 송 상 천 공 인 불 욕 종 상 사 문 자 여 여 위 제
 君曰. 夫君子之學. 爲能變化氣質. 人一能之己百之. 人十能己
군 왈 부 군 자 지 학 위 능 변 화 기 질 인 일 능 지 기 백 지 인 십 능 기
 千之. 擇善固執. 日夕惕若. 何患乎難與適道也. 惟在諸君. 用力
천 지 택 선 고 집 일 석 척 약 하 환 호 난 여 적 도 야 유 재 제 군 용 력
 如何耳. 乃設旬講. 一月而三次. 蓋一日積而爲旬. 一旬積而爲
여 하 이 내 설 순 강 일 월 이 삼 차 개 일 일 적 이 위 순 일 순 적 이 위
 三旬. 三旬則一月也. 月而復月則年也. 從此不撤. 溫故知新之
삼 순 삼 순 즉 일 월 야 월 이 부 월 즉 년 야 종 차 불 철 온 고 지 신 지
 工. 必有可觀矣. 因書講案. 願與諸君. 做去無間之工. 以底于
공 필 유 가 관 의 인 서 강 안 원 여 제 군 주 거 무 간 지 공 이 저 우
 道. 諸君其勉之哉
도 제 군 기 면 지 재

계를 강회라고 이름한 것은 영재를 모아 고서를 가르치는 까닭이다.
 섬 오랑캐가 침략함으로부터 도포 입은 선비들이 기개를 잃고 넋을 잃어
 회합하는 것도 어려우니 또 어느 겨를에 고서를 강 할 수 있었겠는가?
 오직 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천도의 정해진 이치가 있고 난이 극심하면
 정치를 생각함은 인심도 똑같은 바이다. 지난 을유(1945)년 칠월 칠일에
 섬 오랑캐가 물러나니 세상은 아직 크게 안정되진 못했어도 백성은 다행
 히도 약간 편안해졌다. 이에 마을의 수제들 20여명이 책을 짚어지고 왔다.

글 읽는 소리가 마치 지난날의 노래 소리와 현송하던 것과 같았으니 하늘 나라의 어진 공자님이 끝내 사문(儒學)을 읽지 않으려 하심인가?

내 제군들에게 이르노니 무릇 군자의 학문이란 능히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니 남이 한가지 능하거든 자기는 백 가지를 능해야 하고 남이 열 가지 능하거든 자기는 천 가지를 능해야 한다. 선을 가려 고집하여 밤낮으로 두려웁게 생각하면 어찌 근심하겠는가? 어려움이 곧 도에 가는 것이니 오직 제군들이 힘쓰는 것이 어느 정도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에 순강을 개설하여 한 달에 세 차례씩 강하겠다. 대체로 하루가 쌓여서 열흘이 되고 열흘이 쌓여서 삼십일이 되니 삼십일이 곧 한 달이다. 한 달에 다시 한 달이 일년이니 이대로 그치지 않으면 온고지신의 공부가 반드시 불만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강안을 쓰노라.

원컨대 제군들과 더불어 설새없이 공부를 하여서 도에 이르고 싶으니 제군들은 그야말로 힘쓸지어다.

示齋中學徒文

시 재 중 학 도 문

紫陽夫子曰.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而而亦賦焉.
자 양 부 자 왈 천 이 음 양 오 행 화 생 만 물 기 이 성 형 이 이 역 부 언

蓋物有變化. 人有賢愚. 人於其間. 受天地之氣. 氣稟不齊. 或賢
개 물 유 변 화 인 유 현 우 인 어 기 간 수 천 지 지 기 기 품 부 제 혹 현

或愚. 又有過不及之弊. 是亦理固然也. 王制曰. 愚者得書而賢.
혹 우 우 유 과 불 급 지 폐 시 역 이 고 연 야 왕 제 왈 우 자 득 서 이 현

賢者得書而利. 大抵人之爲人. 莫善於學. 學而成器. 亦莫善於
현 자 득 서 이 이 대 저 인 지 위 인 막 선 어 학 학 이 성 기 역 막 선 어

質. 質乃玉之璞也. 器乃璞之玉也. 爲璞而不琢. 則棄玉也. 爲玉
질 질 내 옥 지 박 야 기 내 박 지 옥 야 위 박 이 불 탁 즉 기 옥 야 위 옥

而不磨. 則棄器也. 豈玉然也. 人之學文亦然. 人而不學. 則無以
이 불 마 즉 기 기 야 기 옥 연 야 인 지 학 문 역 연 인 이 불 학 즉 무 이

爲人. 故禮記曰. 玉不琢不成器. 人不學不知義. 夫人之學問而
위 인 고 례 기 왈 옥 불 탁 불 성 기 인 불 학 부 지 의 부 인 지 학 문 이

知道.卽玉之琢磨而成器也.然則學問.乃成人之錐鑿.講習.乃
지 도 즉 옥 지 탁 마 이 성 기 야 연 즉 학 문 내 성 인 지 추 학 강 습 내
研精之沙石也.諸君.素以璞玉之質.幾造乎裁琢之域.而方營
연 정 지 사 석 야 제 군 소 이 박 옥 지 질 기 조 호 재 탁 지 역 이 방 영
研精.如此做去.則去不器不遠矣.可畏且敬.然夫何今日天篤
연 정 여 차 주 거 즉 거 불 기 불 원 의 가 외 차 경 연 부 하 금 일 천 독
降災.舉中國而夷之.驅人類而獸之.體髮冠裳.非復我先王之
강 재 거 중 국 이 이 지 구 인 류 이 수 지 체 발 관 상 비 복 아 선 왕 지
舊.則豈不誠痛哭寒心哉.然而行己行心.可期淳朴.待人接物.
구 즉 기 불 성 통 곡 한 심 재 연 이 행 이 행 심 가 기 순 박 대 인 접 물
德量含洪焉.則孰不謂讀書之力乎.讀書起家之本.循理保家
덕 량 함 홍 언 즉 숙 불 위 독 서 지 역 호 독 서 기 가 지 본 순 리 보 가
之本.勤儉治家之本.和順齊家之本也.此四本字.真是自成之
지 본 근 검 치 가 지 본 화 순 제 가 지 본 야 차 사 본 자 진 시 자 성 지
樞機也.惟願諸君子.以四本字爲一心準的.着力變遷工夫.則
추 기 야 유 원 제 군 자 이 사 본 자 위 일 심 준 적 착 력 변 천 공 부 즉
豈非自疆不息君子歟
기 비 자 강 불 식 군 자 여

자양 주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화생시키고 기로써 모양을 이루고 이 또한 부여했다.” 라고 했다. 모든 물건은 변화가 있고 사람은 어짐과 우매함이 있다. 사람이 그 사이에서 천지의 기운을 받았으나 기쁨이 똑같지 않아 혹은 어리석고 또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있으니 이것이 또한 정해진 자연의 이법인 것이다.

왕제에 이르길 “어리석은 자는 책을 얻어서 어질어지고 어진 자는 책을 얻어서 이로워진다.” 라고 했다. 대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배움보다 좋은 것이 없고 배워야만 성공한다. 그릇은 또한 바탕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바탕은 바로 옥은 가다듬이며 그릇은 가다듬은 옥이다.

박인데 쪼르지 않으면 옥을 버리는 것이요 옥인데 갈지 않으면 그릇을 버리는 것이다. 어찌 옥만이 그러하겠는가? 사람이 글을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 사람으로서 배우지 않으면 사람다움이 없다.

그러므로 예기에 이르길, “옥은 쪼이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 무릇 사람이 학문하여 도를 아는 것이 곧 옥이 탁마되어 그릇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문이 바로 사람 만드는 퇴착(옥을 다듬는 꼴의 종류)이며 강습이 바로 연정하는 사석(옥을 가는 기구)이다. 제군들은 평소 박옥의 바탕으로 가다듬어져야 한다. 바야흐로 경영하고 갈아 정밀함이 이갈지 않으면 갈수록 머지않아 불기가 되어 가리니 두려워하고 경건해야 할 것이다.

무릇 어찌서 오늘날 하늘이 두터이 재앙을 내리고 온 나라를 오랑캐로 만들며 인류를 몰아다 짐승으로 만드는가? 체발과 의관이 다시 우리 선왕의 옛것이 아니니 어찌 참으로 통곡하고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그러나 몸을 행하고 마음을 행하는데 순박함을 기대할 수 있고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하는데 도덕과 사려가 넓다면 누가 독서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며 순리는 집안을 보호하는 근본이며 근검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화순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이 네가지 본이란 글자는 진실로 자기성장(自成)의 기틀이다.

오직 원컨대 제군자들은 이 네가지 본이란 글자으로써 한 마음의 표준으로 삼아 변천하는 공부에 힘을 쓴다면 어찌 자강불식하는 군자가 아니겠는가?

勸學示諸生辭

권 학 시 제 생 사

詩書執禮. 慕孔子之雅言. 忠信不欺. 睠胡公之主本. 誓以朝益

暮習. 期在日就月將. 既不識歲月莫虛擲也. 又不見春草漸看

長乎. 誠實毋欺. 誦曾子之傳戒. 講習不惰. 茲羲皇之卦辭. 惟在

患爲人師。何莫學夫小子。手稱習字。執筆如在背之芒。名託讀
 환 위 인 사 하 막 학 부 소 자 수 칭 습 자 집 필 여 재 배 지 망 명 탁 독
 書。對卷視脫足之屣。第觀底心統情。以可止以無止。且臨其行
 서 대 권 시 탈 족 지 극 제 관 저 심 통 정 이 가 지 이 무 지 차 임 기 행
 與事。則當行而不行。浪遊浮遊。奚以爲好慰。茶肆酒肆。此何等
 여 사 즉 당 행 이 불 행 낭 유 부 유 해 이 위 호 벽 다 사 주 사 차 하 등
 勝區。星移物換。天惟有白日之復明。年與時馳。人必無青春之
 승 구 성 이 물 환 천 유 유 백 일 지 복 명 년 여 시 치 인 필 무 청 춘 지
 恒少。放心度日。教不就習鳥之數飛。看花探香。戒莫禁豪蝶之
 항 소 방 심 도 일 교 불 취 습 조 지 삭 비 간 화 탐 향 계 막 금 호 접 지
 狂舞。或叅淫樂地。勇於妓酒花柳之遊。每至文墨場。慟於江山
 광 무 흑 참 음 락 지 용 어 기 주 화 류 지 유 매 지 문 묵 장 겁 어 강 산
 風月之軸。路逢豪荒臂膺之士。愛釣如魚。門到文章車馬之人。
 풍 월 지 축 노 봉 호 황 비 응 지 사 애 조 여 어 문 도 문 장 거 마 지 인
 畏避以虎。資託時制剃髮而非僧爲僧。變遷儒儀幻面。而不獸
 위 피 이 호 자 탁 시 제 체 발 이 비 승 위 승 변 천 유 의 환 면 이 불 수
 而獸。惟事如斯。必不免道路以目。所習至此。孰肯爲丈夫行儀。
 이 수 유 사 여 사 필 불 면 도 로 이 목 소 습 지 차 숙 승 위 장 부 행 의
 胡爲乎自暴自棄。勉旃矣。先正先誠。苟無悔悟。必所惡於亡心。
 호 위 호 자 폭 자 기 면 전 의 선 정 선 성 구 무 회 오 필 소 악 어 망 심
 若不聽從。可以撻之流血。漸進教誨。聖言尚存。恆苦談論。吾舌
 약 불 청 종 가 이 봉 지 유 혈 점 진 교 회 성 언 상 존 금 고 담 론 오 설
 欲蔽。我自我書自書。愧彼下愚難化。年復年日復日。惜汝中塗
 욕 폐 아 자 아 서 자 서 괴 피 하 우 난 화 년 복 년 일 복 일 석 여 중 도
 廢工。所以有此利導之語。抑或勉夫放逸之心。誓無十寒一曝。
 폐 공 소 이 유 차 이 도 지 어 억 흑 면 부 방 일 지 심 서 무 십 한 일 폭
 庶爲上知。務進五書六經。少勿間斷。實用力者。何詐何僞乎。心
 서 위 상 지 무 진 오 서 육 경 소 불 간 단 실 용 역 자 하 사 하 위 호 심
 誠求之。不中不遠矣。行爲事業。聖人道之存心。志無虛邪。弟子
 성 구 지 불 중 불 원 의 행 위 사업 성 인 도 지 존 심 지 무 허 사 제 자
 職之遺教。克勤無逸。願隨周元聖之明言。旣切以磋。可復衛武
 직 지 유 교 극 근 무 일 원 수 주 원 성 지 명 언 기 체 이 차 가 복 위 무
 公之盛道。展也大成。謀爲程伊川之畫贊。不是小事。著在劉屏
 공 지 성 도 전 야 대 성 모 위 정 이 천 지 화 찬 불 시 소 사 저 재 유 병
 山之論文。顧我老夫。不是荒誕。嗟汝小子。宜以專精
 산 지 유 문 고 아 노 부 불 시 황 탄 차 여 소 자 의 이 전 정

여러 학생께 학문을 권하신 말씀

시서와 예를 지킴은 공자의 아언(바르고 우아한 말)을 사모함이요 충신하여 속이지 않음은 호공의 주본을 돌아봄일세. 아침으로 더하고 저녁으로 익히길 맹세하고 날로 나아가고 달로 나아가길 기대했네. 벌써 세월은 헛되이 보내면 안 될 것을 알지 못했나? 또 봄풀이 점점 보이게 자라남을 보지 못했나? 성실히 속임 없이 증자의 전계를 외우고 강습에 게으르지 않아 의황의 패사를 가려냈네. 오직 근심은 남의 스승되는데 있으니 어찌 소자를 배우지 않겠나? 손수 습자 한다 칭했으나 붓을 잡으니 등에 가시를 짚어진 듯 명분은 독서에 부쳤으나 책을 대함에 벗어 버린 헌신짝 보듯 단지 마음이 정을 거느림을 보고서 그칠 만한데 그침이 없고 또 그 행실과 일에 임하여는 마땅히 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아 난만히 놓고 헛되히 노는걸 어찌 좋은 버릇이라 생각하며 찻집과 술집이 이곳이 어찌 좋은 곳일거나?

별자리 바뀌고 물건이 바뀌어도 하늘엔 오직 밝은 해가 다시 밝고 해가 가고 때가 달리니 사람은 반드시 항상 젊은 시절이 없다네. 마음을 놓고 날을 보내면 가르쳐도 비상을 익히는 새의 잣은 날개깃을 이루지 못하고 꽃을 보고 향기를 찾으면 경계해도 호접의 미친듯한 날개 춤을 막지 못하네. 혹 음탕한 음악이 있는 곳에 끼어서 기생과 술로 화류 놀음에 용감하면 매양 글 짓고 글 쓰는 곳에 이르러 강산 풍월의 시축에 겁이 나지.

길에서 호황하게 팔에 매를 가진 선비를 만나면 뉘시밥 사랑하는 고기 같고 문장이나 거마탄 사람이 오면 피하길 호랑이 보듯 시체에 의지하여 머리를 깎으니 증 아난 증이 되고 유의를 바꾸고 얼굴을 바꾸니 짐승 아난 짐승일레라. 오직 일이 이 같으면 반드시 길에서 눈치받는 걸 면치 못하고 익힌 바가 이 지경이 되면 누가 장부의 행의라 하겠나?

어찌하여 자포자기하는가? 힘쓸지어다. 먼저 바르고 먼저 참될 것을 참으로 후회하고 깨닫지 않으면 반드시 망심함을 미워할 것이며 만약 들어

주고 따라주지 않으면 매 때려 피흘리게 할만 하리. 점차 가르침에 나아가면 성인의 말이 오히려 보존되나 항상 담론을 괴롭게 하면 내 혀만 찢어질 듯하리.

나는 나대로 책은 책대로면 저 하우(아주 어리석고 못남)를 고치기 어렵다 함에 부끄럽고 해가 또 가고 날이 또 가면 너 증도에서 공(工)을 폐한걸 아까와 하리.

이 이롭게 인도하는 말을 두는 까닭은 또한 방일한 마음을 권면함 일세. 맹세코 십한일푼(일이 증간에 많이 끈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없으면 거의 상지(聖人)가 되리니 힘써 오서 육경에 나아가 조금도 간단치 말라. 실지로 힘쓰는 자 왜 속이고 왜 거짓부리겠나. 마음으로 참되게 구하면 맞지는 않아도 동떨어지진 않으리. 행실이 사업이 되면 성인의 도가 마음에 보존되고 뜻이 허사가 없는 것은 제자의 직의 끼친 교훈이리.

능히 부지런하여 방일함이 없는 것은 주원성의 명언을 따라서며 이미 자르고 갈면 위무공(춘추시대의 제후. 90세에 더욱 덕을 닦아서 「억(抑)」이라는 시를 지어 경계하였는데 『시경』에 들어있다.)의 성도를 회복할 수 있네.

전야대성은 정이천의 화상찬을 도모함이요 불시소사는 유병산의 유문에 나타나 있네. 돌아보건데 우리 늙은이가 황탄하지만은 않으니

아! 너희 소자들아 마땅히 전일하고 정미할지어다.

採山齋記

채 산 재 기

登山可採者. 非一而齋曰採山. 未知所採者何歟. 所貴乎採

薇者. 夷齊之後. 凡廉退者皆尚焉. 所美乎採玉者. 以玉比德

而採非玉之玉也. 至於採藥則從古隱淪之士. 往往託於此

而韜光鏟跡.然則藥也玉也薇也.其所採皆一貫事.石蓮丁
이 도 광 산 적 연 죽 약 야 옥 야 미 야 기 소 채 개 일 관 사 석 연 정
 居士.讀書養閒.凡倥倥然問字者.亦誠心授讀.樂於進取.
거 사 독 서 양 한 범 공 공 연 문 자 자 역 성 심 수 독 낙 어 진 취
 不似世人舌耕者樣.自勝冠至于今老白首.不渝不怠.昔日
불 사 세 인 설 경 자 양 자 승 관 지 우 금 노 백 수 불 투 불 태 석 일
 之蒼然豎髮.今則峨峨然弁髦.乃相與托契結齋.春秋會講.
지 창 연 수 발 금 죽 아 아 연 변 모 내 상 여 탁 계 결 재 춘 추 회 강
 其曰採山者.蓋自處以松下之童子.而擬其師於採藥歌咏.
기 왈 채 산 자 개 자 처 이 송 하 지 동 자 이 의 기 사 어 채 약 가 영
 其簾退高尚.懷玉自珍之雅操.於是乎遠近賡和者.殆盈箱
기 렫 퇴 고 상 회 옥 자 진 지 아 조 어 시 호 원 근 갱 화 자 태 영 상
 篋.皆蒼鬱可誦.吁今世而有如是之美舉也耶.夫執經問業.
협 개 창 울 가 송 우 금 세 이 유 여 시 지 미 거 야 야 부 집 경 문 업
 以求是正.固資於師承而其於初上學時.塾師之從容節度.
이 구 시 정 고 자 어 사 승 이 기 어 초 상 학 시 숙 사 지 종 용 절 도
 警策啓發.使之涵養氣質.薰陶德性.其功渠遜於他人哉.叔
경 책 계 발 사 지 함 양 기 질 훈 도 덕 성 기 공 거 손 어 타 인 재 숙
 世人情偏急.讒解小微通鑑半部.便作七律.妄自尊大.背其
세 인 정 편 급 재 해 소 미 통 감 반 부 편 작 칠 률 망 자 존 대 배 기
 塾師而之他.稍有不合.亦悻悻自好.此豈師生隆親之道也
숙 사 이 지 타 초 유 불 함 역 행 행 자 호 차 기 사 생 음 친 지 도 야
 哉.其間採山之說.當顛滋而知愧矣.抑有一焉.道理無窮.
재 기 간 채 산 지 설 당 상 자 이 지 괴 의 억 유 일 언 도 리 무 궁
 見識難明當益聞其所未聞.益見其所未見.使吾德崇業廣.
견 식 난 명 당 익 문 기 소 미 문 익 견 기 소 미 견 사 오 덕 승 업 광
 則門路之正.淵源之的.自然彰著.所謂報佛恩其在是矣.此
즉 문 로 지 정 연 원 지 적 자연 창 저 소 위 보 불 은 기 재 시 의 차
 齋上諸君.所不可不知也.行當以一筇一屐.訪採山翁於蓮
재 상 제 군 소 불 가 부 지 야 행 당 이 일 공 일 극 방 채 산 응 어 연
 山之陽.則或不以採藥去三字据我否.先以此寄聲焉
산 지 양 즉 혹 불 이 채 약 거 삼 자 거 아 부 선 이 차 기 성 언

乙酉春三月上澣 咸陽 呂昌鉉 記
을 유 춘 삼 월 상 한 함 양 여 창 현 기

채산재기

산에 올라 켈만한 것이 하나가 아닌데 재를 채산이라 했으니 모르겠다. 켈 바의 것이 어떤 것인가? 고사리 캐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바는 백이 숙제의 뒤에 청렴하여 물러난 모든 자가 모두 숭상해서 이고 옥을 캐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바는 옥으로써 덕에 비유하여 옥이 아닌 옥을 캐어서 이며 약을 캐는 것에 이르러서는 예로부터 은둔하는 선비가 왕왕 이것에 의탁하여 빛을 감추고 자취를 숨겨 버려서이다. 그러니 약이나 옥이나 고사리가 그 캐는 바는 모두 한 께미의 일이다. 석연 정거사는 책을 읽고 한가함을 기르면서 무릇 바쁘게 와서 글자를 묻는 자라면 또한 성심으로 읽기를 가르쳐 나아가 취하는 것을 즐겨하였으니 세인 중의 선생 모양과는 같지 않고 스무살 때부터 오늘날 늙어 흰머리가 됨에 이르러서도 게으르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날에 새까맣게 쉬었던 머리가 이제는 험하게도 쓸모없이 되어 버렸다. 이에 서로 마음을 맞추어 재를 지어 촛추로 모여 강을 하기로 했다. 그것을 채산이라 한 것은 아마도 소나무 아래 동자로 자처하고 그의 스승을 채약간 것에 비기어서 청렴하여 물러난 것을 노래하고 옥을 생각하는 것을 높이 숭상하여 스스로 우아한 절조를 보배롭게 여긴 것이리라. 이에 원근에서 운을 이어 화답한 것이 거의 상자를 가득 채웠으니 모두가 성대하여 외울만한 것들이었다.

아! 금세에 이같이 아름다운 거사가 있던가? 무릇 경서를 갖고 가서 학업을 물어 옳게 고칠 것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스승을 받들었던 덕택이고 그들이 처음 학문을 시작할 때에 글방 스승의 조용한 절도가 경책하고 제발하여 기질을 함양하고 덕성을 훈도케 하니 그 공이 무엇이 타인보다 못하겠는가? 말세의 인정이 오로지 조금 아는데 시급하여 소미통감 반부라도 조금 알면 곧 칠언율시를 지으며 망령되이 스스로를 존대하여 그 글방 스승을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조금이라도 함당치 않으면 발끈 화를 내어 자신만을 좋다 하니 이러니 어찌 스승과 제자가

높이며 친하는 도가 되겠는가? 그들이 채산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마땅히 이마에 땀을 흘리며 부끄러움을 알리라. 또 한 가지가 있다. 도리가 무궁하고 전식은 밝히기 어려우니 마땅히 아직 듣지 못한 바를 더욱 듣고 아직 보지 못한 바를 더욱 보아 나의 덕이 높아지고 일이 넓어지게 한다면 문로의 바름과 연원의 뚜렷함이 자연히 드러나리니 이른바 부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이 그것이 여기에 있으리니 이 재 위의 제군들은 몰라서 안 될 바이다. 조금 더 있다가 한 지팡이와 한 짚신으로 연산의 남쪽에 채산옹을 찾으리니 혹시 약 캐러 갔다는 세 글자로써 나를 거절이나 얹으려는가? 먼저 이것으로 소식을 전하노라.

을유 1945년 봄 3월 상순에 함양 여창현은 서하노라.

採山齋唱酬詩文集序

채 산 재 창 수 시 문 집 서

山自雪山而南馳遙遙. 至谷城石谷之坊. 有峰峭秀映空精
 산 자 설 산 이 남 치 요 요 지 곡 성 석 곡 지 방 유 봉 초 수 영 공 정
 光. 若可掬者曰國師. 蜿蜒下趨于地. 岡隴彎回. 竹樹葱蒨.
 광 약 가 극 자 왈 국 사 완 정 하 추 우 지 강 롱 만 회 죽 수 총 천
 差碩人之藹軸者. 曰蓮洞. 丁石蓮翁大覲居之. 翁自中歲以
 차 석 인 지 과 축 자 왈 연 동 정 석 연 응 대 현 거 지 응 자 중 세 이
 後. 深自韜晦. 絕今不爲. 惟與古人唯諾. 署其室曰採山. 有
 후 심 자 도 회 절 금 불 위 유 여 고 인 유 낙 서 기 실 왈 채 산 유
 詩以見志. 遠近士友. 知不知和者. 惟恐或後而殆牛腰之束
 시 이 견 지 원 근 사 우 지 부 지 화 자 유 공 후 후 이 래 우 요 지 속
 矣. 翁之友吳君采泳. 徵余弁其首曰. 翁於詩. 非直非其長.
 의 응 지 우 오 군 채 영 징 여 변 기 수 왈 응 어 시 비 직 비 기 장
 雅所不屑. 但臨境賦懷. 遇物遣興. 不規規於聲病. 陶寫天幾
 아 소 불 설 단 입 경 부 회 우 물 전 흥 불 규 규 어 성 병 도 사 천 기
 之發而止. 無甚膾炙於人口. 若其安清素息. 趨營隨分. 自適
 지 발 이 지 무 심 회 구 어 인 구 약 기 안 청 소 식 추 영 수 분 자 적

徜徉.嘯傲於泉石雲月之間者.有足以感動人.故人自和之.
상 양 소 오 어 천 석 윤 월 지 간 자 유 족 이 감 동 인 고 인 자 화 지
 初非翁之所與也.然卷已成編矣.不可委諸篋衍.任他厄於
초 비 응 지 소 여 야 연 권 기 성 편 의 불 가 위 제 협 연 입 타 액 어
 蟲鼠.思欲與及門者印而藏之.子其圖之.余曰唯唯.叔世文
충 서 사 욱 여 급 문 자 인 이 장 지 자 기 도 지 여 왈 유 유 숙 세 문
 僞日滋.苟得山水佳者.置一亭舍.可以棲息而悅適焉.則必
위 일 자 구 득 산 수가 자 치 일 정 사 가 이 서 식 이 열 적 언 즉 필
 力導羣言以張之.揭版而隘牆壁.印帙而峙諸案弊也久矣.
력 도 군 언 이 장 지 개 판 이 애 장 벽 인 질 이 치 제 안 폐 야 구 의
 吾恐人之薄觀乎其外而不察其中者.將是卷之比而同之
오 공 인 지 박 관 호 기 외 이 불 찰 기 중 자 장 시 권 지 비 이 동 지
 也.且念翁旣號以蓮.則蓮之爲物.出淤泥濯清漣.不而無人
야 차 념 응 기 호 이 연 즉 연 지 위 물 출 어 니 락 청 연 불 이 무 인
 而不芳.而人之樂聞而樂道之者.如古人愛蓮之作也.蓮豈
이 불 방 이 인 지 악 문 이 낙 도 지 자 여 고 인 애 연 지 작 야 연 기
 有求而得之耶.蓋其亭亭淨植.香遠益清者.自有以感人之
유 구 이 득 지 야 개 기 정 정 정 식 향 원 익 청 자 자유 이 감 인 지
 愛也.是卷也無乃類之然耶.余矇於詩者也.殊未知諸作之
애 야 시 권 야 무 내 유 지 연 야 여 몽 어 시 자 야 수 미 지 제 작 지
 互有能否之如何.然其不藏人之善則一也.獨余以固陋.爲
호 유 능 부 지 여 하 연 기 불 장 인 지 선 즉 일 야 독 여 이 고 루 위
 子雲書中西蜀富人.是則可愧
자 윤 서 중 서 축 부 인 시 즉 가 괴

惟乙未黃陽之月下澣 竹溪 安 塑 序
유 을 미 황 양 지 월 하 한 죽 계 안 소 서

채산재창수시문집서

산이 설산으로부터 남쪽으로 달려 멀리멀리 곡성의 석곡 동네에 이르러
 산봉우리가 가파르고 빼어나 하늘에 어리어 정미한 빛이 움킬 만한
 것이 있으니 극사이다. 구불구불 땅으로 치달아 산과 언덕이 굽었고 대와
 나무가 푸르러 석인이 은거하기에 마땅한 것이 연동이니 정석연옹 대현이
 살았다. 옹이 증세로부터 이후 깊이 스스로 은둔하여 금세의 일을 끊어

행하지 않고 오직 고인에게 응답했다. 그 집을 채산이라 현판하고 시를 지어 뜻을 보이니 “원근 사우 중의 아는 자건 모르는 자이건 화답하는 음속을 살피지 않는 자가 장차 이 책도 똑같이 비유할까 두렵다.” 라고 했다.

옹의 벗 오군 채영이 나에게 시문집 서문을 구하면서 말하기를, 옹은 시에 잘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본래 좋게 여기지 않고 다만 경치에 입하면 회포를 읊고 물건을 만나면 흥을 보내어 시짓는 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짓기 때문에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명시는 없다. 그 편안하고 맑은 마음으로 분수를 따라 스스로 천석운월지간에 소요하며 지은 시가 사람을 감동시키는지라 사람들이 저절로 화답한 것이요. 당초부터 옹이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은 시가 한권을 이룬지라 상자속에 버려둘 수도 없고 별레들이 침식하게 할 수도 없어 문인들로 더불어 책을 만들어 소장코자 하니 그때는 도모하여 주라 하거늘 내가 그리하자고 대답하였다. 말세에 거짓 글들이 더욱 많아서 구차히 산수의 아름다운 곳을 얻으면 한 정자를 지어 거처하고 기뻐하나니 반드시 여러 말을 끌어다가 과장하고 현판을 걸되 벽을 다 가리고 책을 만들어 산처럼 쌓아 둔 지 오래되었다. 나는 사람들이 밖에 것은 넓게 보되 그 마음을 살피지 않음이 이와 같음을 두려워하노라. 또 생각건대 옹은 벌써 연으로써 호를 했으니 연의 물성이 진흙에서 나와서 맑은 잔물결에 씻겨 사람이 없다 하여 향기롭지 아니함이 없고 사람들이 즐거이 듣고, 즐거이 말하는 자가 옛사람의 애연설을 지었던 작자와 같이 여기지 않았다면 연을 어찌 구하여 호로 얻었겠는가? 아마도 그것이 정정하게 깨끗이 서서 향기가 멀수록 맑아지는 것이 스스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랑이 있어서 일 것이다. 이 책이 바로 그 같은 종류가 아니겠는가? 나는 시에 어두운지라 다만 여러 작품이 서로 가진 것과 못하고 능치 못한 것이 어떠한지를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선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이다. 다만 나는 고루한 사람인데 양자운 책속의 서촉 부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부끄럽다.

을미 1955년 윤 3월 황양의 달 하순에 죽제 안소는 서 하노라.

採山齋唱酬詩文集敘傳

채 산 재 창 수 시 문 집 서 전

丁石蓮大暎氏. 隱居教授於浴川蓮洞山中. 一日其門生表
정 석 연 대 현 씨 은 거 교수 어 욱 천 연 동 산 중 일 일 기 문 생 표
 相洙吳鏞根. 訪余南江書室. 示所錄氏之先系及行事大略
상 수 오 용 근 방 여 남 강 서 실 시 소 록 씨 지 선 계 금 행 사 대 략
 曰. 生等爲吾師門. 將刊行採山齋唱酬詩文集. 竊觀古人有
왈 생 등 위 오 사 문 장 간 행 채 산 재 창 수 시 문 집 절 관 고 인 유
 自爲其詩文集敘傳者. 多自傳亦可. 况他人之爲乎. 而况詳
자 위 기 시 문 집 서 전 자 다 자 전 역 가 황 타 인 지 위 호 이 황 상
 吾師門. 卽莫如丈人. 是以請. 余於石蓮翁. 素有心悅誠服.
오 사 문 즉 막 여 장 인 시 이 청 여 어 석 연 응 소 유 심 열 성 복
 於其行義之善矣. 顧何敢辭哉. 謹就其所錄. 輒槩括而爲之
어 기 행 의 지 선 의 고 하 감 사 재 근 취 기 소 록 첩 은 팔 이 위 지
 筆曰. 丁大暎字. 自旻. 石蓮其號也. 押海之丁. 來自中國. 後
필 왈 정 대 현 자 자 경 석 연 기 호 야 압 해 지 정 래 자 중 국 후
 爲東方著姓. 上世有諱聖徽. 高麗朝以都堤調. 佐翼功臣. 銀
위 동 방 저 성 상 세 유 휘 성 휘 고 려 조 이 도 제 조 좌 익 공 신 은
 青光祿大夫. 封錦陽府院君. 四傳至諱允宗. 太子太傅. 諡忠
청 광 록 대 부 봉 금 양 부 원 군 사 전 지 휘 윤 종 태 자 태 부 시 충
 烈累傳. 至諱克隆. 我端宗朝文科. 官司諫院大司諫. 兼知製
렬 누 전 지 휘 즉 롱 아 단 종 조 문 과 관 사 간 원 대 사 간 겸 지 제
 教. 丙子禍作. 契家南下. 入永平聖德山. 以守罔僕之義. 每
교 병 자 화 작 설 가 남 하 입 영 평 성 덕 산 이 수 망 복 지 의 매
 當端宗諱辰. 東向寧越痛哭而歸. 時人. 名其地曰越峴臺. 至
당 단 종 휘 진 동 향 영 월 통 곡 이 귀 시 인 명 기 지 왈 월 현 대 지
 今有遺蹟. 七世祖諱彥奎號思菴. 仁祖丙子亂. 以端川府使.
금 유 유 촉 칠 세 조 휘 언 규 호 사 암 인 조 병 자 란 이 단 천 부 사
 扈從南漢. 累立戰功. 朝廷嘉之賜錄券. 高祖諱道一號南隱.
호 종 남 한 누 입 전 공 조 정 가 지 사 록 권 고 조 휘 도 일 호 남 은
 學問精博. 專治性理之學. 南方學者. 至今矜式之. 曾祖諱翊
학 문 정 박 전 치 성 리 지 학 남 방 학 자 지 금 금 식 지 증 조 휘 익
 相. 祖諱獻斗號杜谷. 隱居行義. 事載道誌逸士編. 考諱碩
상 조 휘 현 두 호 두 곡 은 거 행 의 사 재 도 지 일 사 편 고 휘 석

璜. 一諱文教. 號野隱. 蘆沙奇正鎮門人. 以孝行登儒薦. 後
 황 일 휘 문 교 호 야 은 노 사 기 정 진 문 인 이 효 행 등 유 천 후
 蒙別恩典. 贈通政大夫敦寧府都正. 妣淑夫人全州李氏. 此
 몽 별 은 전 증 통 정 대 부 돈 념 부 도 정 비 숙 부 인 전 주 이 씨 차
 其所自出之系也. 生而穎悟絕倫. 性孝友. 事親愉婉. 無所
 기 소 자 출 지 계 야 생 이 영 오 절 윤 성 효 우 사 친 유 완 무 소
 違. 及上學. 不煩程督而自能刻意力學. 成童之年. 已涉獵經
 위 급 상 학 불 번 정 독 이 자 능 각 의 력 학 성 동 지 년 기 섭 령 경
 史而盡顧於著述. 不甚留意. 曰士貴實行. 文藝抑末耳. 所居
 사 이 진 고 어 저 술 불 심 유 의 왈 사 귀 실 행 문 예 억 말 이 소 거
 家後. 有一區小阜. 俯野臨溪. 眺望甚好. 暇日登臨. 仍築一
 가 후 유 일 구 소 부 부 야 임 계 조 망 심 호 가 일 등 임 임 즉 일
 別墅. 名之曰望峯臺. 而以境景之美. 聞於鄉省. 戊戌春. 淵
 별 서 명 지 왈 망 미 대 이 이 경 경 지 미 문 어 향 성 무 슬 춘 연
 齋宋先生. 過浴川. 與從者登臨. 設講會于臺上. 翌年己亥.
 재 송 선 생 과 욱 천 여 종 자 등 림 설 강 회 우 대 상 익 년 기 해
 松沙奇先生. 又歷臨于臺. 爲一日之遊. 大覲之得謁淵齋松
 송 사 기 선 생 우 력 임 우 대 위 일 일 지 유 대 현 지 득 알 연 재 송
 沙兩先生. 蓋因此而其專意爲爲己之學者. 有所觀感於兩
 사 양 선 생 개 인 차 이 기 전 의 위 위 기 지 학 자 유 소 관 감 어 양
 先生矣. 及遭前後喪. 哀毀幾危身而猶率禮俯就. 自送終至
 선 생 의 급 조 전 후 상 애 훼손 기 위 신 이 유 슬 레 부 취 자 송 종 지
 免喪. 一遵古禮而行. 丁氏始自南平徙來. 故先世墳墓. 皆在
 면 상 일 준 고 레 이 행 정 씨 시 자 남 평 사 내 고 선 세 분 묘 개 재
 南平而多祭田未備. 石儀未具. 處嘗慨恨于此. 中年減家產
 남 평 이 다 제 전 미 비 석 의 미 구 처 상 개 한 우 차 중 년 감 가 산
 三分之一. 別途營畜十餘年. 頗得贏餘. 七八處先墓. 各置祭
 삼 분 지 일 별 도 영 축 십 여 년 파 득 영 여 칠 팔 처 선 묘 각 치 제
 田又具石儀而畢. 又嘗以國文鈔記來則孝經列女傳. 及四
 전 우 구 석 의 이 필 우 상 이 국 문 초 기 내 즉 효 경 렬 녀 부 급 사
 禮便覽中. 最切於婦行者. 爲一冊. 名之曰閨範. 以資其家閨
 레 편 램 중 최 절 어 부 행 자 위 일 책 명 지 왈 규 범 이 자 기 가 규
 門之學. 士友家. 傳相謄書. 得行于鄰近數處. 與弟大瑢友愛
 문 지 학 사 우 가 전 상 등 서 득 행 우 린 근 수 처 여 제 대 용 우 애
 甚篤. 雖相析箸異爨. 一生有無共之. 寢處不相離. 晚年築一
 심 독 수 상 석 저 이 찬 일 생 유 무 공 지 침 처 불 상 이 만 년 축 일

亭而兄弟同處. 名曰相宜亭. 賦詩以述其志. 遠近士友爲之
정 이 형 제 동 처 명 율 상 의 정 부 시 이 슬 기 지 원 근 사 우 위 지
 廣和者. 詩文至數百篇. 自中年卽絕意榮利. 於一切世味泊
광 화 자 시 문 지 수 백 편 자 중 년 즉 절 의 영 리 어 일 절 세 미 박
 如也. 而惟以教育後進爲己任. 非爲世俗人舌耕之爲. 而每
여 야 이 유 이 교 육 후 진 위 기 임 비 위 세 속 인 설 경 지 위 이 배
 年開書塾于廊舍. 凡遠近負笈而來者. 皆收容焉. 故鄉里之
년 개 서 숙 우 랑 사 범 원 근 부 급 이 내 자 개 수 용 언 고향 리 지
 文風日益開. 門下之弟子日益衆. 於是諸生. 設一契名曰採
문 풍 일 익 개 문 하 지 제 자 일 익 중 어 시 제 생 설 일 계 명 율 채
 山契. 擬以營建一書齋. 故先定齋名以採山. 而自師生以及
산 계 의 이 영 건 일 서 재 고 선 정 재 명 이 채 산 이 자 사 생 이 급
 遠近士友. 皆有齋之詩與文. 裒然成一卷. 卽古人所謂詩成
원 근 사 우 개 유 재 지 시 여 문 부 연 성 일 권 즉 고 인 소 위 시 성
 屋未就也. 然而近復門生諸人. 將先刊其詩文集者. 盖欲使
옥 미 취 야 연 이 근 부 문 생 제 인 장 선 간 기 시 문 집 자 개 육 사
 其師見於生前也云. 論曰昔蘇文忠. 爲陳季常. 作方山子傳.
기 사 견 어 생 전 야 윤 논 율 석 소 문 충 위 진 계 상 작 방 산 자 전
 爲生前人立傳. 盖始於此. 而後人亦多倣而爲之. 然蘇文. 則
위 생 전 인 입 전 개 시 어 차 이 후 인 역 다 방 이 위 지 연 소 문 즉
 其敘事. 只一枝亭相見一段. 而今余於此文. 不得不臚列. 翁
기 서 사 지 일 지 정 상 전 일 단 이 금 여 어 차 문 부 득 불 여 열 움
 平生諸事者. 以諸事之善. 皆不可掩. 且以諸生之請. 在於此
평 생 제 사 자 이 제 사 지 선 개 불 가 업 차 이 제 생 지 청 재 어 차
 而不在彼. 其意亦可尚也爾
이 부 재 파 기 의 역 가 상 야 이

乙未首夏日 善山 柳鍾茂 撰
을 미 수 하 일 선 산 류 중 무 찬

채산재창수시문집서전

정석연 대현씨는 은거하여 옥천 연동 산중에서 교수하였다.

어느 날 그 제자 표상수와 오용근이 남강서실로 나를 찾아와 기록했던 정씨의 선계 및 행사 대략을 보이며, “저희들이 우리 사문을 위해서 장차

채산재 창수시문집을 간행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건데 옛 사람 중에 스스로 시문집서전을 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을 하는 것도 또한 가하거늘 하물며 타인이 함이리오? 게다가 우리 사문을 자세히 아는 이는 곧 어르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 때문에 청합니다” 라고 했다.

내가 석연옹에 대해 평소부터 그가 의로움을 행했던 좋은 점에 대해 심열하고 성복했으니 돌아보건데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삼가 그 기록한 바에 나아가 곧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글을 쓰노라.

정대현의 자는 자경이며 석연은 그의 호이다. 압해정씨는 중국으로부터 온 이후 동방의 두드러진 성이 되었다. 상세에 휘 성휘는 고려조의 도제주 좌익공신은 청광록대부로서 금양부원군에 봉해졌다. 4대를 전하여 휘 윤종에 이르러서는 래자태부를 하였으니 시호는 충열이다. 여러 대를 전하여 휘 극응에 이르러서 단종조에 문과로 사간원 대사간 겸 지재교를 벼슬했다. 병자(1455년)사화가 일어나자 가족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영평 성덕산에 들어가 절의를 굽히지 않는 의를 지켰다. 단종의 기일을 만날 적마다 동쪽으로 영월을 향하여 통곡하고 돌아왔으니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땅을 이름하여 『월현대』 라고 하여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다.

7세조 휘 언규는 호가 사암이다. 인조 병자난 때 단천부사로 남한산성에 호종하여 여러 번 전공을 세워 조정에서 하례하여 녹권을 내렸다. 고조 휘 도일은 호가 남은이다. 학문이 정박하고 오로지 성리학을 다스려 남방 학자들이 지금도 본받고 있다. 증조는 휘 익상이요 조는 휘 현두이며 호는 두곡이다. 은거하여 의를 행했으니 일이 도지의 일사편에 실려있다. 고는 휘 석황 일휘 문교이며 호는 야은이다. 노사 기정진 문인이니 선비의 천거에 오른 후 특별한 은전을 입어 통정대부 돈영부 도정에 증직되었다. 비 숙부인은 전주이씨니 이것이 소자출의 혈통이다. 나면서 부터 영오하여 무리에서 뛰어났고 성품은 효우했다. 사친에는 부드럽고 아름다워 어기는 바가 없었다. 처음 학문을 배울 때에 미쳐서 일과의 감독에 번거롭지 않았고 스스로 마음에 새겨 학문에 힘썼고 열다섯살이 되었을 때 이미 경서와

사기를 섭렵하여 다 읽었다. 돌아보건데 저술에 대하여는 심히 유의하지 않고 이르길, 「선비는 실행을 귀히 하고 문예는 곧 말단일 뿐이다.」 라고 했다. 살던 집 뒤의 한 구역에 작은 언덕이 들을 굽어보고 시냇가에 임하여 있어서 조망이 심히 좋다. 한가한 날 올라 이에 한 별장을 짓고 이름하여 『망미대』라 하였으니 경치의 아름다움으로 마을에 소문이 났다. 무술(1898년) 봄에 연재 송선생이 옥천을 지나다가 종자들과 더불어 올라서 강의를 베풀고 대 위에 모였다.

다음 해 기해(1899년)에 송사 기선생이 또 대에 역림하여 하룻날의 놀이를 즐겼다. 대현이 연재, 송사 두 선생을 뵈 수 있었던 것이 대체로 이로 인해서이고 그가 오로지 자신의 몸을 위한 학문을 할 것을 생각한 것이 두 선생에게서 관감한 바가 있었으리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사를 당하여는 슬퍼하다 몸을 훼손하여 거의 몸이 위태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예를 따라서 굽혀 나아가 스스로 보내었고 끝까지 면상에 이르도록 한결같이 고례를 따라 행했다. 정씨가 처음에 남평으로 부터 이사해 왔던 연고로 선세의 분묘가 모두 남평에 있어서 흔히 제전이 준비되지 못했고 빗돌이 갖추어지지 않아 곳곳에서 일찍이 이것을 한탄했다. 중년에 가산의 삼분의 일을 덜어서 별도로 경영하고 저축한 십여 년에 자못 여유를 얻어 7~8곳의 선묘에 각기 제전을 두고 또 빗돌을 갖추기를 다했다. 또 일찍이 국문으로써 내척, 효경, 열녀전 및 사례편람을 초하여 기록한 것 중에서 부행이 가장 절실한 것을 한 책자로 만들어 이름하여 『규범』이라 하여 그의 집안 여자들 교육의 바탕으로 삼았고 사우들이 집집이 전하여 서로 책을 보고서 인근의 여러 곳에서 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우 대용과는 우애가 깊어서 비록 젓가락을 나누고 부뚜막을 달리하기는 했으나 일생 동안 있고 없는 것을 함께하고 잠자리를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만년에 한 정자를 지어 형제가 함께 살았으니 이름하여 『상의정』이라 하고 시를 지으면서 그들의 뜻을 슬회하니 원근 사우들이 운을 이어 화답한 시문이 수 백편에 이르렀다. 중년으로부터 곧 영리에 대해 생각을

끓고 일체의 세상맛에 대하여는 담백한 듯 했고 오직 후진의 교육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으니 세속의 선생들이 하는 것과는 같지 않았다. 그리고 매년 낭사에서 글방을 열어 무릇 원근에서 책가방을 짊어지고 온 자들을 모두 수용하여 향리의 문풍이 날이 갈수록 열리고 문하의 제자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이에 여러 학생들이 한 계를 설립하여 이름하여 『채산계』 라 하여 한 서재를 설계해 세울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먼저 재의 이름을 채산이라 정하고 선생과 학생으로 부터 원근 사우에 미치기까지 모두 재의 시문을 지어 모아 한 권의 책을 이루었으니 곧 고인이 이른바 “시가집을 이루는데 아직 이루지 못했다.” 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근래에 다시 문하의 학생 여러 사람들이 장차 먼저 그 시문집을 간행하려 하니 대체로 그 스승이 생전에 보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말하겠다. 논에 이르길, “옛날 소문충이 진계를 위해서 일찍이 방산자의 전을 지었으니 생전의 사람을 위해서 전을 세운 것이 대체로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후인들이 또한 흔히 모방하여 지었다. 그러나 소의 글은 그 서사를 단지 한 높은 정자에서의 한 발단을 보였을 뿐인데 오늘날 내가 이 글에서 옹의 평생의 여러 일들을 여열(진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 일들의 좋은 점을 다 덮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여러 학생들의 칭이 이것에 있고 저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니 그 뜻이 또한 승상할 만할 따름이다.

을미(1955년) 첫 여름에 선산 류종무는 찬하노라.

相宜亭記

상 의 정 기

石蓮居士丁公. 與其弟大瑢. 結亭於通明山下蓮溪上. 泉石
석 연 거 사 정 공 여 기 제 대 용 결 정 어 통 명 산 하 연 계 상 천 석
 之美. 眺望之勝. 頗有可觀而不取. 取相宜爲顏. 盖曰宜兄宜
지 미 조 망 지 승 파 유 가 관 이 불 취 취 상 의 위 안 개 왈 의 형 의

弟之義而存戒於斯. 須範於後進. 非自標榜於世也. 然居士
 제 지 의 이 존 계 어 사 수 범 어 후 진 비 자 표 방 어 세 야 연 거 사
 湛洽之行. 旣稔聞于浴川士友. 余亦一造而見其同卓連衾
 담 흡 지 행 기 임 문 우 옥 천 사 우 여 역 일 조 이 전 기 동 탁 연 금
 之相愛. 出入起居之相須. 出於尋常等夷也. 於焉歲逝. 二公
 지 상 애 출 입 기 거 지 상 수 출 어 심 상 등 이 야 어 언 세 적 이 공
 俱作千古. 亭上之雲. 相應慘淡而無光. 亭下之水. 亦應嗚咽
 구 작 천 고 정 상 지 운 상 응 참 담 이 무 광 정 하 지 수 역 응 오 열
 而失聲. 爲之愴然者久矣. 日公之孫宗杓來言曰. 我祖築亭
 이 실 성 위 지 창 연 자 구 의 일 공 지 손 종 표 래 언 왈 아 조 축 정
 未幾. 遽棄不肖. 我輩孤露. 不忍荒廢. 願賜一言以記名亭之
 미 기 거 기 불 초 아 배 고 로 불 인 황 폐 원 사 일 언 이 기 명 정 지
 意. 且指引我輩. 前頭從事者如何. 余躍如而進曰. 有是哉.
 의 차 지 인 아 배 전 두 종 사 자 여 하 여 약 여 이 진 왈 유 시 재
 子之言也. 見今薄態. 甚至於借父鋤而爲德色. 分米折薪. 滔
 자 지 언 야 전 금 박 태 심 지 어 차 부 서 이 위 덕 색 분 미 절 신 도
 滔爭先. 子能存先王大人之遺戒. 思欲丹艸而增美之. 以是
 도 쟁 선 자 능 존 선 왕 대 인 지 유 계 사 옥 단 확 이 증 미 지 이 시
 心做去. 何患於近親之相疎. 何恤乎永世之不相宜也. 夫如
 심 주 거 하 환 어 근 친 지 상 소 하恤 호 영 세 지 불 상 의 야 부 여
 是則. 曩之慘淡者復怡然. 嗚咽者. 復作洪鍾. 而亭於是乎不
 시 즉 남 지 참 담 자 복 이 연 오 열 자 복 작 홍 종 이 정 어 시 호 불
 朽矣. 吾復何言. 以是爲記足矣
 후 의 오 복 하 언 이 시 위 기 죽 의

辛丑春二月上澣 幸州 奇老章 記
 신 축 춘 이 월 상 한 행 주 기 로 장 기

상의정기

석연거사 정공이 그의 아우 대용과 통명산 밑 연계 위에 정자를 지었다. 천석의 아름다움과 조망의 승경이 자못 불만한 것이 있었으나 이름을 이에서 취하지 않고 상의를 취하여 현판을 삼았으니 아마도 「형에게 마땅하게 하고 아우에게 마땅하게 한다」는 뜻으로써 여기에 경계를 두고 모름지기 후진에게 본받도록 함이지 스스로 세상에 표방함이

아니리라. 그러나 거사의 침착하고도 두루 미치는 행실은 이미 육천의 사우에게 넉넉히 소문이 나 있고 나 또한 한번 이르러서 그가 식탁을 함께하고 이불을 함께하여 서로 사랑하던 것과 나들이와 기거를 서로 기다리던 것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보았었다. 그런데 세월이 어언 멀어져 두 분이 함께 서거함에 정자 위의 구름이 서로 참담하여 빛이 없고 정자 아래의 물도 또한 목이 메어 실성한 듯 창연함이 오래였다. 어느 날 공의 손자 종표가 와서 말하길, “우리 할아버지가 정자를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불초한 우리들이 어려서 부모를 잃었지만 차마 황폐하게 버려둘 수가 없으니 원컨대 한마디 말씀을 주시어 정자를 이름했던 뜻을 기록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앞에서 종사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다. 나는 떨 듯이 나아가서 “옳구나! 그대의 말이며” 오늘날 보건데 야박한 작태가 심하여 아비의 호미를 빌려 주고도 덕을 베푸는 낮빛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쌀을 나누고 땀나무를 갈라 도도하게 앞을 다투는데 그대는 선왕대인이 남긴 경계를 보존하여 단청하고도 더욱 아름답게 하고자 함을 생각하니 이것으로 마음을 지어 간다면 어찌 근친들이 서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근심할 것이며 어찌 영세토록 서로 마땅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겠는가?

무릇 이와 같으면 지난날에 참담했던 정자 위의 구름이 다시 편안해지고 목이 메었던 정자 아래의 물이 다시 큰 종이 되리니 정자가 이에 썩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리오. 이로써 기를 삼는 것이 넉넉하리라” 라고 했다.

신축 후 1961년 2월 상순에
 행주 기노장은 기 하노라.

相宜亭重建記

상의정 증건기

湖南谷城之蓮盤里. 羅州丁氏之世居而至帝韓之季年. 有
 호남곡성지연반리 나주정씨지세거이지제한지계년 유
 石蓮居士大覲. 師事宋淵齋奇松沙崔勉菴諸老師. 以文學
 석연거사대현 사사송연재기송사최면암제노사 이문학
 行義. 聞於時. 後配食梧岡祠. 居士嘗與其弟大瑢. 構一小
 행의 문어시 후배식오강사 거사상여기제대응 구일소
 亭於通明山下. 蓮溪之上. 顏之以相宜. 據其實事. 不之媵
 정어통명산하 연계지상 안지이상의 거기실사 부지과
 飾也. 歲久而壞. 今茲重建. 其更則出於本郡. 事既集. 居
 식야 세구이과 금자증건 기갱즉출어본군 사기집 거
 士之孫宗杓君. 以僉君子之意. 齋蓮盤丁氏三世文獻錄.
 사지손종표군 이첨군자지의 재연반정씨삼세문헌록
 請就據而爲重建之記. 余嘗稔聞居士. 世傳儒術. 學有淵
 청취거이위증건지기 여상임문거사 세전유술 학유연
 源. 世競浮華. 揭厲古操. 始終不擅. 其風獻靄然可掬也.
 원 세경부화 게려고조 시종부천 기풍현애연가극야
 乃敢不爲之張皇. 據其實而簡敍之
 내감부위지장황 거기실이간서지

庚辰歲之浴佛日文學博士學術院會員

檀國大學校碩座教授 眞城 李家源 撰

상의정 증건기

호남 곡성의 연반리는 나주정씨의 세거지니 대한제국 말년에 석연거사 휘 대현이 송연재 기송사 최면암 등 제노사를 사사하여 문학과 행의로 당시에 알려졌더니 뒤에 오강사에 배식하였다. 거사가 일찍이 그 아우 대응과 더불어 작은 정자를 통명산 아래 연계지상에 얹어 상의로써 현판 하니 그 사실을 근거하고 조금도 과장하거나 꾸밈이 없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지는지라 이제 증건하여 새로 고침은 그 경비를 모두
 군에서 보조하였다. 일이 끝남에 거사의 손 종표 군이 여러 군자의 뜻
 으로 연반정씨삼세문헌록을 싸 가지고 와서 증건기를 청하니 내 일찍이
 거사의 집안이 세전 유술하고 학문이 연원이 있음을 익히 들어왔다.
 세상이 부화스러움을 다투거늘 고조를 굳게 지켜 시종 조심하니 그가
 품의 훌륭함을 가히 알 수가 있다. 이에 감히 장황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간략히 서술하노라.

경진 석가탄신일 문학박사 학술원회원
 단국대학교석좌교수 진성 이가원 찬하다.

相宜亭重建次韻

상의정증건차운

成均館長 海史 崔昌圭 慶州人 勉菴先生 玄孫

宜亭重建古城東 옛고을 동쪽에 상의정 증건하니
의 정 증 건 고 성 동
 兩石壩簾籟此中 두분의 형제가 이곳에서 노래하네
양 석 호 호 유 차 중
 對軸衿紳追慕切 축시 쓴 선비들 추모마음 간절하고
대 축 금 신 추 모 절
 巡簷鷺雀賀情同 처마머리 재비참새 한마음으로 축하하네
순 첩 연 작 하 정 동
 靈山永保千秋色 신령한 상은 천추빛을 영원히 간직하고
영 산 영 보 천 추 색
 活水長含萬里風 예활발히 흐른물은 萬年風을 길이부네
활 수 장 함 만 리 풍
 賢倅裔孫誠意篤 어진원님 후손들 성의가 독실하니
현 쉬 예 손 성 의 독
 將知百世樂無窮 백세토록 즐거움 무궁함을 알수있네
장 지 백 세 락 무 궁

石蓮丁先生祭文

석연정선생제문

嗚呼.人生世間.如塵棲陌.彭脩顏短.同歸寂寞.乘化返眞.
 오호 인생 세간 여진서맥 팽수안단 동귀적막 승화반진
 先生所樂.只爲我私.我今慟哭.緬惟先生.靈威仙源.押海
 선생소락 지위아사 아금통곡 면유선생 영위선원 압해
 古族.受品淳厚.不務彫刻.治心養性.日乾夕惕.處世慥慥.
 고족 수품순후 불무조각 치심양성 일건석척 처세조조
 義方敬直.鄉黨楷範.斯門老宿.遭值不辰.懷寶遯跡.暮歸
 의방경직 향당해범 사문노숙 조치불진 회보둔적 모귀
 讀書.朝出採藥.不厭不倦.開陳後學.捫衣多年.恩同覆育.
 독서 조출채약 불염불권 개진후학 구의다년 은동복육
 面命耳提.諄諭緊喫.詎料无妄.永隔黃壤.天理難諶.萬事
 면명이제 순유긴킵 거료무망 영격황양 천리난심 만사
 荒荒.我疑誰解.我塞誰通.小子尠福.無處牖蒙.先生有後.
 황황 아의수해 아새수통 소자선복 무처용몽 선생유후
 餘慶洋洋.遺風餘韻.山高水長.奠雖菲薄.鑑我虔誠.尚饗
 여경양양 유풍여운 산고수장 전수비박 감아건성 상향

歲戊戌七月二十日靈輻前 小生 李鍾璿
 세무술칠월이십일영이전 소생 이종선

석연선생 제문

아! 사람의 세상에 사는 것이 길거리에 티끌 구르는 것과 같아 오래 산
 팽조나 일찍 죽은 안자가 모두 적막에 돌아갔도다. 죽어서 참으로 돌아
 가는 것은 선생이 즐기신 바거늘 다만 나의 사심을 위하여 내 지금 통곡
 하도다. 아득히 생각하건데 선생은 영위의 선원이요 압해의 고족이로다.

받은 자품이 순후하여 조각함은 힘쓰지 않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기름에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하고 두려워하였도다. 처세함을 진실하게
 하여 의로 모나게 하고 경으로 곧게 하여 향당에서 모범이 되고 사문에
 서는 원로가 되시도다. 좋지 못한 때를 만나서 보배를 품고 자취를

감추어 아침에는 약을 캐고 저녁에는 글을 읽었으며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아니하였도다. 후학을 가르침에 여러 해 교수하였으니 은혜가 부모 같아 낮에 고하고 귀를 당겨 말씀하셨도다. 진실한 것을 자세히 깨우쳐 주시니 어찌 기척함을 헤아리리오. 황천에 길이 막히니 천리라 전디기 어렵도다. 만사가 어두우니 나의 의심 누가 풀어주며 나의 막힘을 누가 통하게 하리오. 소자는 복이 적어 어두움을 깨우칠 곳이 없도다. 선생은 후손이 있어 여경이 성 하리도다. 유품과 여운이 산고수장 하듯 영원하리도다.

올린 음식 박하나 나의 정성 살피소서. 거의 흠향하소서.
 무술 7월 20일 상여 앞에서 이종선

蓮盤丁氏三世文獻錄序

연 반 정 씨 삼 세 문 헌 록 서

湖之浴鄉. 文物之淵藪也. 院祠林林. 儒風彬彬. 輝人耳目
 호 지 욱 향 문 물 지 연 수 야 원 사 임 립 유 품 빈 빈 휘 인 이 목
 者. 甚不尠而蓮盤丁氏之三世文獻. 世所罕有. 而林林彬彬
 자 심 불 선 이 연 반 정 씨 지 삼 세 문 헌 세 소 한 유 이 임 립 빈 빈
 中之可屈指也. 蓮盤羅丁之世居仁里. 而入居浴川二百餘
 중 지 가 굴 지 야 연 반 나 정 지 세 거 인 리 이 입 거 욱 천 이 백 여
 禋. 以忠孝詩禮世其家. 興起斯文. 表正人紀. 負重望於當
 사 이 충 효 시 례 세 기 가 흥 기 사 문 표 정 인 기 부 중 망 어 당
 時. 而有不可掩者存焉. 有若野隱丁公. 崛起於畎畝之間. 劬
 시 이 유 불 가 엄 자 존 언 유 약 야 은 정 공 굴 기 어 전 묘 지 간 구
 經力學. 眞積力久. 以聖賢君子爲期. 以孝悌忠信爲本領. 孜
 경 역 학 진 적 역 구 이 성 현 군 자 위 기 이 효 제 충 신 위 본 령 자
 孜不怠. 如恐不及. 充於中而溢於外. 名聲洋溢. 人皆心悅誠
 자 불 태 여 공 불 급 충 어 증 이 일 어 외 명 성 양 일 인 개 심 열 성
 服. 加之以受學于蘆沙先生. 講明疑難. 辨析同異. 晚暮以孝
 복 가 지 이 수 학 우 노 사 선 생 강 명 의 난 변 식 동 이 만 모 이 효
 聞而際都正. 公之胤子石蓮先生. 亦以勉菴先生之高足. 早
 문 이 제 도 정 공 지 윤 자 석 연 선 생 역 이 면 암 선 생 지 고 족 조

知君君臣臣父父子子之道. 節義學德. 超出尋常萬萬而範
지 군 군 신 신 부 부 자 자 지 도 절 의 학 덕 초 출 심 상 만 만 이 범
 世勵俗者多矣. 而妥享于梧岡祠. 公之肖孫南耘公. 以弦窩
세 려 속 자 다 의 이 타 향 우 오 강 사 공 지 초 손 남 윤 공 이 현 와
 先生之傳鉢. 優於詩禮. 篤於志操. 有遺稿. 上所云蓮盤丁氏
선 생 지 전 받 우 어 시 례 독 어 지 조 유 유 고 상 소 윤 연 반 정 씨
 之三世文獻是已. 而尤不覺芝醴之有根源也. 丁門之文獻.
지 삼 세 문 헌 시 기 이 우 불 각 지 예 지 유 근 원 야 정 문 지 문 헌
 可云充棟汗牛. 而鄉之多士. 輒懷丁門之徽德. 願讀丁門之
가 운 충 동 한 우 이 향 지 다 사 첩 회 정 문 지 휘 덕 원 독 정 문 지
 文獻者. 車載斗量耳. 浴川之文化院長金吉榮甫. 嘉其鄉士
문 헌 자 거 채 두 량 이 육 천 지 문 화 원 장 김 길 영 보 가 기 향 사
 友之願讀. 而拔萃丁門三世文獻之珍要者. 而裒稴成冊. 將
우 지 원 독 이 받 채 정 문 삼 세 문 헌 지 진 요 자 이 부 졸 성 책 장
 欲登梓. 亦以譯解. 以便新進之要讀而囑于湖山朴穰奎斯
욕 등 재 역 이 역 해 이 편 신 진 지 요 독 이 촉 우 호 산 박 양 규 사
 文. 譯解文獻. 湖山之費數百日而盡精入神. 尤可尚也. 可賀
문 역 해 문 헌 호 산 지 비 수 백 일 이 진 정 입 신 우 가 상 야 가 하
 也. 使浴鄉之士友. 家藏戶弄. 讀三世之文獻. 模三世之德
야 사 육 향 지 사 우 가 장 호 거 독 삼 세 지 문 헌 모 삼 세 지 덕
 行. 則浴鄉之儒風彬蔚. 不待卜於詹尹而可算矣. 公之孝曾
행 즉 육 향 지 유 풍 빈 을 불 대 북 어 침 윤 이 가 산 의 공 지 효 증
 孫宗杓君. 亦以名門肖裔. 善繼善述而克家者也. 謁余于瑞
손 종 표 군 역 이 명 문 초 예 선 계 선 술 이 극 가 자 야 알 여 유 서
 石寓居. 請以弁卷之文. 此所謂問路於盲也. 以余人微文拙.
석 유 거 청 이 변 권 지 문 차 소 위 문 로 어 맹 야 이 여 인 미 문 졸
 焉敢當也. 余與宗杓髦士. 交契深矣. 不敢愒忘僭敘之佛頭
언 감 당 야 여 여 종 표 모 사 교 계 심 의 불 감 팔 망 참 서 지 불 두
 之穢. 甚爲慚慙
지 예 심 위 참 늑

歲丁丑之陽復節 儒州 柳漢相 敘
세 정 축 지 양 복 절 유 주 류 한 상 서

연반정씨삼세문헌록서

호남의 옥향(곡성)은 문화에 관한 사물이 많은 곳이다. 서원이나 사우가

때를 지어 모여있고 유학의 풍속이 찬란하여 사람의 이목을 빛나게 함이 심히 적지 않은데 연반정씨삼세문헌은 세상에서 드물게 있는 것이거니와 때 지어 있고 찬란한 것 중에서도 가히 손가락을 꼽을만 하다.

연반은 나주정씨가 대대로 살아오는 아름다운 마을로 옥천(곡성)에 들어와 살아온지 이백여년에 충효와 시례로써 그 가문을 이어오며 사문을 일으키고 사람의 기강을 바로 세워 당시에 중망의 위치를 부하하였기에 그 빛을 가려서는 안될 것이 존재하니 야은정공 같은 이는 이 도량 안에서 우뚝 솟아나 경서에 힘들이고 학문에 힘쓰며 참됨을 쌓기에 오래도록 힘쓰고 성현군자로서 기약하고 효제충신으로서 본영을 삼아 부지런하고 게을리하지 않길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 같이하니 중심에 채워지고 밖으로 넘어 명성이 넘쳐지니 사람이 다 마음으로 기뻐하고 정성스레 외복하였는데 거기에 더하여 노사선생에게 수학하여 의심나고 어려운 곳을 강하며 밝히고 같거나 다른 점을 분별하여 가려 내고 만년에 효자로 들리어 도정에 제수되었다.

공의 큰아들 석연선생도 또한 면암선생의 제자로 일찍 임금은 임금 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는 도리를 알고 절의와 학덕이 보통의 많은 수에서 뛰어나 세상의 모범이 되고 풍속을 가다듬음이 많았고 오강사에서 타향되고 있고 공의 초손인 남윤공은 현외선생의 제자로 시례에 넉넉하고 지조에 돈독하였으며 유고가 있으니 위에서 말한 연반정씨삼세문헌이 이것이라. 더욱 영지나 예천이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알겠도다.

정문의 문헌은 가히 쌓으면 마룻대에 닿고 소가 끌면 땀을 흘릴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 고을의 많은 선비들이 문득 정문의 아름다운 덕을 그리워하고 정문의 문헌을 읽기를 원하는 자가 차에 싣고 말로 될 정도로 많으니 곡성의 문화원장 김길영 보가 고을 사우들이 읽길 원하는 것을 가상하게 여기고 정문삼세문헌의 진귀하고 요긴한 것을 발췌하여 차례로 모아 책을 완성하고 인쇄하려고 하면서 번역하여 신진들이 읽기 편하게 하려고 호산

박양규 사문에게 의족하여 문헌을 해석케 하니 호산이 수백일을 소비하여 정성을 드렸으니 더욱 가상하고 치하할 일이다.

곡성의 사우들이 집집마다 소장하고 호호마다 저장하여 삼세의 문헌을 읽고 삼세의 덕행을 본받는다면 곡성의 유품이 빛나고 율창할 것은 점술가에 점칠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가히 계산할 만하다.

공의 효증손 종표군도 또한 명문의 어진 후예로써 잘 이르고 잘 좇아가문을 능히 지켜가고 있다. 나를 서석우거에 찾아뵈고 책머리의 서문을 청하니 이는 이른바 맹인에게 길을 묻는 것이다.

나는 위인이 희미하고 문학이 졸렬하니 어찌 감당하리오 만은 나와 다만 종표 선비와는 사귀어 온 교분이 깊은지라 감히 괘시할 수 없어 참람함을 잊고 서문을 지으나 부처님 머리에 오물로 더럽힌 것 같아 심히 부끄럽다.

정축년 십이월 유주 류한상 서

蓮盤丁氏三世文獻錄祝刊辭

연 반 정 씨 삼 세 문 헌 록 축 간 사

謹按_{근 안}컨데 本_본 丁氏_{정 씨}三世_{삼 세}文獻_{문 헌}錄_록에는 仁者_{인 자}壽_수(仁者壽)로 傳_전하는

君子國_{군 자 국}의 三統_{삼 통}이 실로 燦燦_{찬 찬}有倫_{유 윤}하다. 蓮盤_{연 반}古家_{고 가}에서 그 丁氏_{정 씨}

野隱_{야 은} 石蓮_{석 연} 南耘_{남 윤} 三世_{삼 세}의 文統_{문 통}은 그대로 孝忠_{효 충}凡節_{범 절}로 一貫_{일 관}한

湖南_{호 남}一鄉_{일 향}의 體統_{체 통}이요 그 師統_{사 통}은 그대로 蘆沙_{노 사} 奇先生_{기 선 생} 勉菴_{면 암} 崔_최

先生_{선 생} 弦窩_{현 와} 高先生_{고 선 생}으로 이어지니 바로 이 겨레 有韓_{유 한}季年_{계 년}에 빛

나는 衛正_{위 정}斥邪_{척 사}의 道統_{도 통}이며 다시 그 體統_{체 통}과 道統_{도 통}은 移孝_{이 효}思忠_{사 충}을

通_통해_해 憂_우國_국如_여家_가의 活_활力_력으로 綿_면綿_면하니 그 法_법統_통 또한 今_{오늘}의 이
 民_민國_국綱_강常_상으로 結_결코 無_무關_관하지가 않다. 일찍이 蘆_노沙_사先_선生_생은 그 衛_위正_정
 斥_척邪_사의 精_정神_신實_실德_덕으로 晦_회塞_색하는 吾_오東_동의 道_도統_통을 確_확立_립扶_부持_지하였고
 吾_오先_선 勉_면菴_암先_선生_생은 다시 그 三_삼統_통을 앞세워 저 日_일帝_제의 侵_침略_략 不_불義_의
 앞에 拮_의내 義_의兵_병殉_순國_국으로써 立_입謹_근樹_수節_절하였으니 今_{오늘}의 本_본 文_문獻_헌錄_록을
 通_통해 그 尚_상新_신하는 三_삼統_통의 感_감懷_회는 더욱 새롭기에 그 遺_유風_풍餘_여香_향
 또한 여기 이어서 欽_흠慕_모롭다. 여기서 本_본 文_문獻_헌을 通_통해 吾_오東_동三_삼韓_한의
 今_{오늘}의 三_삼統_통이 그 道_동軌_계를 가고 車_거同_동軌_계 그 道_동文_문을 읽고
 書_서同_동文_문 그 行_행은 同_동倫_륜을 걷는 行_행同_동倫_륜 民_민國_국一_일統_통의 統_통一_일 앞날에
 크게 淵_연源_원補_보裨_비할 것을 간절히 所_소願_원期_기待_대하면서 이 뜻깊은 鄉_향黨_당風_풍
 化_화를 懇_간切_절히 物_물心_심兩_양面_면으로 至_지極_극盡_진力_력해 주신 趙_조亨_형來_래 郡_군守_수님과
 金_김吉_길榮_영 文_문化_화院_원長_장님을 비롯한 諸_제賢_현大_대方_방님께 아울러 遠_원慕_모致_치賀_하를
 드리나니 이로써 由_유來_래文_문鄉_향 谷_곡城_성一_일圓_원에서의 그 道_도德_덕風_풍化_화와 興_흥慕_모
 感_감發_발은 日_일新_신又_우日_일新_신으로 길이 悠_유長_장하여라.

檀_단紀_기 4330年_년 丁_정丑_추歲_세暮_모 大_대韓_한民_민國_국國_국家_가像_상徵_징諮_자問_문委_위員_원長_장

勉_면菴_암玄_현孫_손 崔_최昌_창圭_규 謹_근識_지

蓮盤丁氏三世文獻錄祝刊辭

연 반 정 씨 삼 세 문 헌 록 축 간 사

文獻이 人間에 있어 매우 所重한 것은 그 사람의 精神과 思想
문 헌 인 간 소 중 정 신 사 상
과 學德과 行義를 文獻으로써 남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학 덕 행 의 문 헌

일찍이 孟子께서 말씀하시길, “誦其文讀其書 不知其人이 可
乎아” 하시었으니 이 말씀은 그 文獻을 보고 그 사람의 精神과
호 문 헌 정 신
思想과 學德과 行義 等 모든 部分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 상 학 덕 행 의 등 부 분
러한 文獻을 어찌 所重히 여기지 않을 수 있으랴. 한 家門에
문 헌 소 중 가 문
있어 一世의 文獻을 得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況且 三世의 文獻을
일 세 문 헌 득 황 차 삼 세 문 헌
得하는 것은 옛날에도 찾아보기 드문 일이다.
득

全南 谷城郡 石谷面 蓮盤里 羅州丁氏 一家門에 連三世의
전 남 곡 성 군 석 곡 면 연 반 리 나 주 정 씨 일 가 문 연 삼 세
文獻이 保藏되어 있으니 野隱公 諱 文教, 石蓮先生 諱 大暉,
문 헌 보 장 야 은 공 휘 문 교 석 연 선생 휘 대 현
南耘公 諱 翼燮 三世의 文獻이다.
남 윤 공 휘 익 섭 삼 세 문 헌

이를 大略 살펴보면 野隱公은 吾先子 蘆沙先生의 門人으로
대 략 야 은 공 오 선 자 노 사 선생 문 인
資性이 高潔하고 孝行이 至極하여 孝薦으로 通政大夫 敦寧府
자 성 고 결 효 행 지 극 효 천 통 정 대 부 돈 념 부
都正의 別恩典을 받았고 石蓮先生은 崔勉菴 先生의 門人으로
도 정 별 은 전 석 연 선생 최 면 암 선생 문 인
德高行潔하여 世人之 景仰한 바 되어 梧岡祠에 配享되었으며
덕 고 행 결 세 인 경 앙 오 강 사 배 향
南耘公은 高弦窩 先生의 門人으로 文行이 具備하여 遺稿를
남 윤 공 고 현 와 선생 문 인 문 행 구 비 유 고
刊行하였으며 그의 配 豐川盧女士 또한 孝烈之行으로 여러 차례
간 행 배 풍 천 노 여 사 효 열 지 행
鄉道薦에 올라 孝烈碑를 세웠다.
향 도 천 효 열 비

이와 같이 丁門의 一家에서 野隱公, 石蓮公, 南耘公 三世의
 孝友志節과 文學行義는 當世垂範은 物論이요 傳後의 龜鑑이
 될 것이므로 碩學名儒들의 撰文이 燦爛하다. 大抵 家庭의 文獻
 을 모아 鄉方의 文獻을 이룩하고 鄉方의 文獻을 모아 邦國의 文
 獻을 이룩한 것인즉 이三公의 文獻은 어찌 丁門一家의 光榮에
 그칠뿐 이리오.

오늘 谷城文化院長 金吉榮 氏께서 丁門三世의 文獻을 拔萃
 發刊함에 注力한 것은 가까이는 本坊文獻을 빛나게 함이요 나
 아가서는 世人들로 하여금 本 文獻에 실린 嘉言善行과 文學行
 義를 想慕케 함으로써 오늘의 樹風勵俗之資로 삼고자 하는 意
 의에 敬意를 표함과 아울러 祝賀해 마지않는 바이다.

檀紀 4330年 丁丑 12月 上旬 蘆沙 胄孫 奇浩中 謹識
 단 기 년 정 축 월 상 순 노 사 주 손 기 호 중 근 지

石蓮丁公墓碣銘

석 연 정 공 묘 갈 명

丁生宗杓. 草其王考遺事而來. 告于不佞曰. 王考墓草再宿
 矣. 將豎石于羨門銘文. 茲敢貽勞于先生. 翁乃余之畏友. 忍
 可辭諸. 竊惟翁之友能文家多矣. 今不求諸彼而反求諸如
 我大訥者. 蓋以其志氣之相孚也. 按公諱大睨. 字自旻. 號石

蓮.姓丁氏.羅州人.以高麗光祿大夫錦城府院君諱聖徽爲
연 성 정 씨 나 주인 이 고 려 광 록 대 부 금 성 부 원 군 휘 성 휘 위
 上祖.至諱允宗.太子太傅諡忠烈公.至諱宗甲號白隱.文科
상 조 지 휘 윤 종 태 자 태 부 시 종 열 공 지 휘 종 갑 호 백 은 문 과
 官至昭格署令.入我朝徵命不就.與吉冶隱林卓.同歸田里.
관 지 소 격 서 령 입 아 조 징 명 불 취 여 길 야 은 입 탁 동 귀 전 리
 守罔僕義.至諱克隆號恥齋.司諫院大司諫.端廟遜位.入聖
수 망 복 의 지 휘 극 용 호 치 재 사 간 원 대 사 간 단 묘 손 위 입 성
 德山中.隱淪而終.號思菴諱彦奎.仁祖丙子胡亂.扈從南
덕 산 중 은 룬 이 종 호 사 암 휘 연 규 인 조 병 자 호 란 호 종 남
 漢.累立奇功除端川府使.三傳諱道一號南隱.出入近齋朴
한 루 립 기 공 제 단 천 부 사 삼 전 휘 도 일 호 남 은 출 입 근 재 박
 公門.丁氏之居谷城公始.曰翊相.曰獻斗.曾祖祖諱也.考
공 문 정 씨 지 거 곡 성 공 시 왈 익 상 왈 헌 두 증 조 조 휘 야 고
 諱文教.一諱碩璜.號野隱.蘆沙奇公門人.贈通政大夫敦寧
휘 문 교 일 휘 석 황 호 야 은 노 사 기 공 문 인 증 통 정 대 부 둔 념
 府都正.妣淑夫人全州李氏信茂女.高宗甲申十月十五日.
부 도 정 비 숙 부 인 전 주 이 씨 신 무 녀 고 종 갑 신 십 월 십 오 일
 生公于蓮洞里第.器宇雋爽.穎悟邁倫.幼不戲狎.色笑動
생 공 우 연 동 리 제 기 우 준 상 영 오 매 룬 유 불 희 압 색 소 동
 止.不離途轍.纔上學.尋行數墨.課誦無闕.沿文索義.輒驚
지 불 리 도 철 재 상 학 심 행 수 묵 과 송 무 결 연 문 색 의 칩 경
 師長.塾中曹偶.與之甲乙者鮮矣.旣而腹笥富贍.遊學于域
사 장 숙 중 조 우 여 지 갑 을 자 선 의 기 이 복 사 부 섬 유 학 우 역
 內長德.如淵齋宋先生.松沙奇先生門.觀感請益者.頗云頻
내 장 덕 여 연 재 송 선 생 송 사 기 선 생 문 관 감 청 익 자 파 운 빈
 矣.贅謁于勉菴崔先生.講義質難.經史子集.參互考訂.得
의 지 알 우 변 암 최 선 생 강의 질 난 경 사 자 집 참 호 고 정 득
 聞修己治人.閉邪尊聖.華夷尊攘之義.庚戌屋社後.築愛蓮
문 수 기 치 인 폐 사 존 성 화 이 존 양 지 의 경 술 옥 사 후 축 애 연
 亭.雪月良辰.與一二同志.酣觴賦詩.以泄慷慨悲墳之懷.
정 설 월 양 진 여 일 이 동 지 감 상 부 시 이 설 감 개 비墳 지 회
 戊午高宗之喪.一邊凶論有服不服之說.公毅然不撓而設
무 오 고 종 지 상 일 변 흉 론 유 복 불 복 지 설 공 의 연 불 요 이 설
 哭班位.北望痛哭.時輩僞貳之論.不敢肆焉.聲譽日滋.宗
곡 반 위 북 망 통 곡 시 배 준 이 지 론 불 감 사 언 성 예 일 자 종

師之望. 洽然自歸. 隣近負笈之徒. 隨日踏至. 隨其才而叩竭
사 지 망 흠연 자 귀 린 근 부 급 지 도 수 일 답 지 수 기 재 이 고 갈
 兩端. 而諄諄誘掖. 期至成就. 而不知老之將至也. 性於孝
양 단 이 순 순 유 액 기 지 성 취 이 부 지 노 지 장 지 야 성 어 효
 養. 在側抑搔. 先意承順. 期得親心之歡喜. 遭艱哀毀逾禮.
양 재 측 억 소 선 의 승 순 기 득 친 심 지 환 희 조 간 애 훼손 유 예
 廬于墓側. 晨夕攀號. 哀動傍人. 且篤於友愛. 晚築相宜亭.
려 유 묘 측 신 석 반 호 애 동 방 인 차 독 어 우 애 만 측 상 의 정
 與弟大瑑寢與不離. 春津假寐. 君實附背. 不獨專美矣. 域中
여 제 대 용 침 여 불 이 춘 진 가 매 군 실 부 배 불 독 전 미 의 역 중
 士友. 或詩而讚之. 或文而贊之者. 溢于篋笥. 尤致力於追
사 우 혹 시 이 찬 지 혹 문 이 찬 지 자 일 우 협 사 우 치 력 어 추
 遠. 累世墓途之儀衛. 香火之物土. 或創或修. 極其周備. 無
원 루 세 묘 도 지 의 위 향 화 지 물 토 혹 창 혹 수 극 기 주 비 무
 至餘憾. 此乃公之實事之梗槩也. 嗚呼. 人之道. 不過日用云
지 여 감 차 내 공 지 실 사 지 경 개 야 오 호 인 지 도 불과 일 용 운
 爲. 當於理己而公之所行. 槩而言之. 夙夜一念. 慥慥乎職分
위 당 어 이 기 이 공 지 소 행 개 이 언 지 숙 야 일 녘 조 조 호 직 분
 之所當爲. 動遵規道而孝於父母. 友於昆季. 忠以處己. 恕以
지 소 당 위 동 준 규 도 이 효 어 부모 우 어 곤 계 충 이 처 기 서 이
 待人. 而憂道之不振. 勸獎來學. 而道之以孝弟忠信. 精思力
대 인 이 우 도 지 불 진 권 장 래 학 이 도 지 이 효 제 충 신 정 사 력
 踐. 俾得知爲學階程. 有補於風教者多矣. 可不歛衽哉. 戊戌
천 비 득 지 위 학 계 정 유 보 어 풍 교 자 다 의 가 불 감 임 재 무 슬
 七月十八日. 考終于寢. 葬于石谷面蓮洞枕坤原. 配全州崔
칠 월 십 팔 일 고 종 우 침 장 우 석 곡 면 연 동 침 곤 원 배 전 주 최
 氏三淳女. 癸丑四月七日卒. 墓公墓合兆. 生一男一女. 男翼
씨 삼 순 녀 계 축 사 월 칠 일 졸 묘 공 묘 합 조 생 일 남 일 녀 남 익
 燮. 女青松沈景植妻. 繼配全州李氏東宇女. 丁巳正月二十
변 녀 청 송 침 경 식 처 계 배 전 주 이 씨 동 우 녀 정 사 정 월 이 십
 二日卒. 墓公墓合兆. 無育. 繼配咸陽吳氏基萬女. 癸未正月
이 일 졸 묘 공 묘 합 조 무 육 계 배 함 양 오 씨 기 만 녀 계 미 정 월
 二十九日卒. 墓公墓合兆. 生一男三女. 男曰洪燮. 女玉川趙
이 십 구 일 졸 묘 공 묘 합 조 생 일 남 삼 녀 남 월 홍 섭 녀 옥 천 조
 東善. 順興安正燮. 慶州金基信妻. 長房孫宗杓. 性杓. 京杓.
동 선 순 흥 안 정 섭 경 주 김 기 신 처 장 방 손 종 표 성 표 경 표

直杓.完杓.女延日鄭京澤.密陽朴宗甲妻.餘幼不學.銘曰
직 표 완 표 니 연 일 정 경 택 밀 양 박 종 갑 처 여 유 불 거 명 왈
萬善原於孝.推孝餘可識.學足以師傅可紹.行足以神明可
만 선 원 어 효 추 효 여 가 식 학 족 이 사 부 가 소 행 족 이 신 명 가
質.左右經史.寤寐是究.誘掖來徒.兩端竭叩.簞瓢處巷.我
질 좌 우 경 사 오 매 시 구 유 액 래 도 양 단 갈 고 단 표 처 향 아
樂誰知.視彼青紫.太虛雲垂.兄及弟矣.怡怡湛翁.孝友爲
낙 수 지 시 피 청 자 태 허 운 수 형 급 제 의 이 이 담 흠 효 우 위
政.扶紀振俗.繼家有孫而光來百代.積厚裕後.宜爾振振.
정 부 기 진 속 계 가 유 손 이 광 래 백 대 적 후 유 후 의 이 진 진
截彼蓮洞.肆是仁人之阡.苟有好彝之性者.孰不景慕而式
절 피 연 동 사 시 인 인 지 천 구 유 호 이 지 성 자 숙 불 경 모 이 식
焉
인

歲在庚子初下浣 玉川 趙敏植 撰
세 재 경 자 초 하 완 옥 천 조 민 식 찬

석연정공묘갈명

정생 종표가 그의 왕고 유사를 초하여 와서 나에게 고하여 말하길 “왕고 묘의 풀이 두 번이나 묵었으니 장차 이문에 빗돌을 세우고 글을 새기려고 합니다. 이에 감히 선생께 수고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옹은 나의 두려운 벗이니 차마 사양할 수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옹의 친구 중에 글에 능한 사람이 많을텐데 오늘날 저들에게서 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나같이 아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은 지기를 서로 믿었기 때문이다. 살펴 보건데 공은 휘대현이며 자는 자경이며 호는 석연이며 성은 정씨니 나주 사람이다.

고려 때 광록대부 금양부원군 휘 성휘를 상조로 삼는다. 휘 윤종은 태자 태부였으며 시호는 충열공이다. 휘 종갑의 호는 백은이며 문과로 관직이 소격서령에 이르렀다. 우리 조정에 들어와서 소명이 있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길야은 임탁과 함께 시골로 돌아와 고려를 생각하는 절의를

지켰다. 휘 극룡의 호는 치재며 사간원 대사간이었다. 단종이 손위하자 성덕산 가운데로 들어가 은거하다 죽었다. 휘 언규에 이르러서 호가 사암이니 인조 병자 1636년에 남한산성에 호종하여 여러 번 기이한 공을 세웠다. 고조 휘 도일은 호가 남은이니 박근재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정씨가 곡성에서 살았던 것은 공로부터 시작되었다. 익상과 현두는 증조와 조의 휘이다.

고 휘 문교는 호가 야은이니 노사 기공 문인으로 효로써 통정대부 돈녕부도정에 증직되었다. 비 숙부인 전주이씨는 신무의 딸이니 고종 갑신 1884년 10월 15일 공을 연동리 집에서 낳았다. 타고난 기쁨이 존상하고 빼어나게 총명함이 무리에서 뛰어나 어려서도 희압하는 낮빛이나 웃음이 없었고 행동거지가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겨우 공부를 시작하자 행실을 찾고 글쓰기를 자주하며 과송을 빠뜨리지 않았다. 글을 연마하고 뜻을 찾아 문득 스승과 어른들을 놀라게 했으니 글방의 친구들과는 비교될 만한 것이 없었다. 이윽고 학문의 축적이 넉넉해지자 역내의 장덕인 송연재와 기송사의 문하에서 유학했으니 관감하여 더 가르쳐 주기를 청한 것이 자못 번거로웠다고 말들을 했다. 면암 최선생에게 폐백을 가지고 가 뵈옵고 의를 배우고 어려움을 묻고 경사와 자집을 서로 고정하여 수기치인과 폐사 존성과 증화와 오랑캐의 존경하고 물리쳐야 할 뜻을 들을 수 있었다.

경술 1910년의 나라가 망한 뒤에 애연정을 짓고 눈 내리고 달뜨는 좋은 시절엔 한두 동지들과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면서 강개 비분한 회포를 풀었다. 무오 1918년 고종이 돌아가셨을 때 한편에서 복을 입느냐 복을 입지 않느냐의 말을 흥하게 논했으나 공이 의연히 흔들리지 않고 곡을 할 반위를 설치하고 북쪽을 바라보고 통곡했다. 그러니 시배들이 두 가지로 끝던 논을 감히 펴지 못했다. 명성이 날로 불어나 큰 스승이 될 것으로 기대함이 흡연히 절로 돌아왔고 인근에서 유학하려는 무리들이 날마다 이르러 오니 그의 재주에 맞추어 두 끝을 두드려

다 가르쳤고 순순히 유액하여 성취할 때까지 기약했으니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도 알지 못했다. 효양에 천성적 이어서 곁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 드리면서 먼저 승순하는데 뜻을 두고 부모가 마음으로 기뻐할 때까지를 기약했다. 부모의 상사를 만나서는 슬픔에 몸을 상하고 예를 넘었으며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나무를 붙들고 호곡하니 슬픔이 옆 사람을 감동케 했다. 또 우애가 돈독하여 늙으막에 상의정을 지어서 아우 대응과 더불어 자고 일어나는 것을 떨어지지 않았으니 춘진이 자는 척하고 군실이 등을 어루만지던 것이 오로지 두 사람만이 차지할 수 없었다. 그 지역 사우들이 더러 시를 지어 칭찬하고 더러 글을 지어 칭찬한 것이 상자에 넘쳤다. 더욱이 먼 조상을 추모하여 여러 대 무덤가는 길의 의례와 향화를 보호할 물건과 토지에 힘을 다하여 어떤 것은 창건하고 어떤 것은 수리하여 그야말로 두루 갖추는데 지극하여 서운함을 남김이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공의 실질적인 일 중의 대강이다.

오호라! 사람의 도가 일용에 불과하다 말하니 자기를 다스리는데 마땅해야 하리라. 공의 행한 바를 대강 말한다면 밤낮으로 진실하게 직분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한결같이 생각하여 행동은 법도를 따랐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충성으로써 처신하고 용서로써 사람을 대하였고 도가 진작되지 않음을 근심하여 후학을 장려하되 효제 충신으로 인도하고 고요히 생각하고 힘써 행하여 학문을 하는 과정을 알게 하여 풍교에 보탬이 있었던 것이 많았으니 가히 웃것을 여미지 않으리요.

무술 1958년 7월 18일에 돌아가시니 석곡면 연동촌후 곤을 등진 언덕에 장사지냈다. 배는 전주최씨 삼순의 딸이니 계축 1913년 4월 7일에 돌아가셨다. 묘는 공묘와 합조이다. 1남 1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익섭이요 딸은 청송 심경식의 아내다. 계배는 전주이씨 동우의 딸이니 정사 1917년 정월 20일에 돌아가셨다. 묘는 공묘와 합조이니 자식이 없다. 계배는 함양오씨 기만의 딸이니 계미 1947년 정월 29일에 돌아가셨다. 묘는 공묘와 합조이다. 1남 3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흥섭이며 딸은 옥천

조동선과 순승 안정섭과 경주 김기신의 아내이다. 큰 아들의 손자는
종표와 성표와 경표와 직표와 완표이며 딸은 연일 정경택과 밀양 박종
갑의 아내이다. 나머지는 어려서 거론하지 않는다. 명에 이르길,

만선은 효도에서 근본하니 / 효를 미루어보면 나머지는 알만하다. /
학문은 넉넉히 스승을 이을 수 있고 / 행실은 넉넉히 신명에게 물을 수 있네.
/ 경사를 좌우에 두고 자나깨나 연구하고 / 후진을 이끌어서 두 끝을 다 두
드렸네. / 단표로 시골에 사니 나의 즐거움 뉘 알리오 / 저 벼슬을 보기를
하늘에 구름같이 하였네. / 형과 아우가 화락하게 지냈고 효우로 정치를
하니 / 강기를 부지해 풍속을 떨쳤네. / 가정을 이을 손자가 있으니
영광이 백대를 가리라. / 덕을 두터이 쌓아 후사가 넉넉하니 마땅히 후세에
떨치고 떨치리라. / 저 높고 높은 적치의 골짜기여! / 어진 사람의 무덤
이여라. / 참으로 인류를 좋아하는 성품을 지닌 자 / 누가 경모하여 절하지
않으리까?

해는 경자 1960년 초여름 하순에 옥천 조민식은 찬하노라.

石蓮丁公墓誌銘

석 연 정 공 묘 지 명

石蓮丁公歿後三十一年. 公之嗣孫宗杓. 以柳南江狀及趙
석 연 정 공 몰 후 삼 십 일 년 공 지 사 손 종 표 이 류 남 강 장 급 조
一軒碣來曰. 天道無常. 陵谷之變. 不可豫測. 而吾祖之幽
일 현 갈 래 월 천 도 무 상 릉 곡 지 변 불가 예 측 이 오 조 지 유
宅. 尚闕誌刻. 徵余以銘. 余曰二公之文. 足以不朽公. 又何
택 상 결 지 각 징 여 이 명 여 월 이 공 지 문 족 이 불 후 공 우 하
敢贅爲. 辭不獲. 謹按公諱大睨. 字自旻. 石蓮號也. 系出羅
감 체 위 사 불 획 근 안 공 휘 대 현 자 자 경 석 연 호 야 계 출 나
州. 以高麗錦陽府院君諱聖徽爲上祖. 忠烈公諱允宗. 太子
주 이 고 려 금 양 부 원 군 휘 성 휘 위 상 조 충 열 공 휘 윤 종 태 자

太傅.白隱諱宗甲.文科昭格署令.守罔僕義.與吉冶隱同歸
태부 백은 회종 갑 문과 소격서령 수망복의 여길야은 동귀
 田里.入韓朝恥齋諱克隆.大司諫.端廟遜位.入聖德山中.
전리 입한조치재회극음 대사간 단묘손위 입성덕산중
 思菴諱彦奎.丙子胡亂.扈駕南漢立懂.除端川府使.三傳而
사암회연유 병자호란 호가남한입근 제단천부사 삼전이
 南隱諱道一.從近齋朴公胤源學.晚移于石谷之蓮洞.於公
남은회도일 종근재박공윤원학 만이우석곡지연동 어공
 高祖.曾祖諱翊相.祖諱獻斗.號杜谷.考諱文教號野隱.以
고조 증조회익상 조회헌두 호두곡 고회문교호야은 이
 孝贈通政大夫敦寧府都正.妣淑夫人全州李氏.靜貞有婦
효증통정대부돈녕부도정 비숙부인전주이씨 정정유부
 德.信茂.外大父也.公生而器宇雋爽.穎悟超夷.幼不妄言
덕 신무 외대부야 공생이기우준상 영오초이 유불망언
 笑.與凡兒異.就塾學.日立課無闕時.或分曹鬪藝.無能出
소 여범아이 취숙학 일입과무결시 혹분조투예 무능출
 其右者.人皆器之.既而博通經史.遊學于邦內長德.若其於
기유자 인개기지 기이박통경사 유학우방내장덕 약기어
 宋淵齋.奇松沙兩先生.書疏往復.質難不己.又復贅謁于勉
송연재기송사양선생 서소왕복 질난불기 우부지알우면
 菴崔先生.講論尊攘大義.國恥以後.築愛蓮亭而與二三同
암회선생 강론존양대의 극치이후 축애연정이여이삼동
 志.酌酒賦詩.憂時憫俗.而以洩壹鬱不平之氣.如謝翱之西
지작주부시 우시민속 이이설일을불평지기 여사고지서
 臺慟哭.聞高宗賓天.有服不服之凶論.公獨毅然設哭班如
대통곡 문고종빈천 유복불복지흉론 공독의연설곡반여
 禮.携貳輩.莫敢肆焉.自是鄉坊宗之.遠近來學日衆.公乃
예 휴이배 막감사언 자시향방종지 원근래학일중 공내
 嚴約規.以身先之.誰盛署必冠帶終日.且隨其賢愚而誘之
엄약규 이신선지 수성서필관대종일 차수기현우이유지
 掖之.激勵漸磨.使就成其業.暇又拔萃古今人修身齊家治
액지 격려점마 사취성기업 가우발취고금인수신제가치
 國之要言至論.以供學者之龜鑑.此所謂養工心獨苦也.性
국지요언지론 이공학자지구감 차소위양공심독고야성
 素孝友.事親極其誠敬.遭艱廬墓.與弟湛和.築相宜以同寢
소효우 사친극기성경 조간려묘 여제담화 축상의이동침

處.可比揚播姜肱之風.推而至於奉先.具石儀以衛墓途.置
처 가 비 양 파 강 평 지 풍 추 이 지 어 봉 선 구 석 의 이 위 묘 도 치
 祭田以備香火.此蓋公之大畧也.卒以戊戌七月十八日.距
제 전 이 비 향 화 차 개 공 지 대 략 야 졸 이 무 술 칠 월 십 팔 일 거
 生高宗甲申十月十五日.享年七十五.葬于石谷坊蓮洞村
생 고 종 갑 신 십 월 십 오 일 향 년 칠 십 오 장 우 석 곡 방 연 동 촌
 後先考堦下.三配全州崔氏三淳女.生一男翼燮.一女青松
후 선 고 계 하 삼 배 전 주 최 씨 삼 순 녀 생 일 남 익 섭 일 녀 청 송
 沈景植妻.全州李氏東宇女.無育.咸陽吳氏基萬女.生一男
침 경 식 처 전 주 이 씨 동 우 녀 무 육 함 양 오 씨 기 만 녀 생 일 남
 洪燮.三女玉川趙東善.順興安正燮.慶州金基信妻.餘蕃不
홍 섭 삼 녀 옥 천 조 동 선 순 흥 안 정 섭 경 주 김 기 신 처 여 번 불
 錄.噫滄桑累變.民爲日滋.猶以儒衣儒冠之士.亦如脂韋.
록 희 창 상 루 변 민 위 일 자 유 이 유 의 유 관 지 사 역 여 지 위
 若聞公獨立不懼之風.豈不奮然自勵哉.爲之銘.銘曰國師
약 문 공 독 입 불 구 지 풍 기 불 분 연 자 려 재 위 지 명 명 왈 국 사
 峯下兮窈窕可宅.中有碩人兮寬邁可法.春秋大義兮慄然可
봉 하 헤 절 조 가 택 중 유 석 인 헤 관 매 가 법 춘 추 대 의 헤 름 연 가
 肅.勸學諸規兮.井井可服.修治要語兮.愛然可掬.孝弟爲
숙 권 학 제 규 헤 정 정 가 복 수 치 요 어 헤 애 연 가 국 효 제 위
 本兮.事事可則.作銘昭眎兮.來世可百
본 헤 사 사 가 칙 작 명 소 시 헤 래 세 가 백

壇君紀元四千三百二十一年戊辰夏至 日
단 군 기 원 사 천 삼 백 이 십 일 년 무 진 하 지 일

長興 魏啓道 撰
장 흥 위 계 도 찬

석연정공묘지명

석연 정공이 돌아가신 후 31년에 공의 사손 종표가 유남강의 행장과
 조일헌의 묘갈문을 가지고 찾아와 이르길, “천도가 떳떳하지 않아 세상
 변천의 심함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유택에 아직도 묘지를
 새긴 것이 빠졌습니다” 라고 하며 나에게 명를 구했다. 나는 말하길,

“두 분의 글이 넉넉히 공을 잊혀지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또 무엇 하려 감히 근대기를 덧붙이겠오” 라고 하고 사양했으나 얻지 못하고 삼가 살펴 본다. 공의 휘는 대현 자는 자경이니 석연은 호이다. 나주에서 가계가 출발하여 고려 때 금양부원군 휘 성휘를 상조로 삼는다. 충열공 휘 윤종은 태자 태부였으며 백은 휘 종갑은 문과로 소격서령이었는데 신하로 굴복하지 않는 의를 지키다가 야은 길재와 함께 시골로 돌아왔다.

조선에 들어와서 치재 휘 극응은 대사간이었는데 단종이 손위할 때 성덕산 속으로 들어갔다. 사암 휘 언규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임금을 호종하고 가서 공훈을 세워 단천부사에 제수되었다. 3대를 전해 내려와 남은 휘 도일이 근재 박윤원의 학문을 쫓아서 만년에 석곡 땅 연동으로 이사하였으니 공에 대해 고조가 된다. 증조는 휘 익상이며 할아버지는 휘 현두 호가 두곡이며 아버지는 휘 문교 호가 야은이니 호로써 통정대부 돈녕부도정에 증직되었다. 어머니 숙부인 전주이씨는 정정하여 부덕이 있었으니 신무가 외할아버지이다.

공은 나면서부터 기우가 매우 장건하고 영오함이 무리에서 뛰어나서 어려서도 망령되이 말하거나 웃지 않았으니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서당에 나가 글을 배울 적에 날마다 과정을 세워 놓고 빼먹지를 않았다. 어느 때 흑편을 갈라서 문예를 다룰 적에 공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지를 못했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릇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이윽고 경사에 널리 통하자 나라 안의 장덕들을 찾아다니며 배웠으니 그 송연재 기송사 같은 두 선생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어려운 곳을 물기를 그치지 않았다. 또 다시 폐백을 가지고 면암 최익현 선생을 찾아가 존왕양이의 대의를 강론하였다. 경술국치 이후에 애연정을 지어놓고 두서너 동지들과 술을 나누고 시를 지으며 때를 근심하고 풍속을 걱정하면서 우울하고 불평스런 기를 덜었으니 마치 사고가 서대에서 통곡했던 것과 같았다. 고종이 서거하자 복을 입을 것이냐 입지 않을 것이냐의 흉론이 있을 때 공은 홀로 용감하게 곡을 할 자리를 설치하길

예와 같이 하니 의견이 갈라졌던 무리들이 감히 방자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고을에서 으뜸으로 존증하게 되었다. 원근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니 공이 이에 엄격하게 규범을 만들어서 몸소 솔선했고 비록 대단한 더위라 해도 반드시 하루종일 관을 쓰고 떠를 떠었다. 또 현우에 따라 이끌어 주고 격려하여 점점 타마되어 그들의 학업이 성취하게끔 해주었다. 한가할 때에 또 고금의 사람 중에서 수신제가 치국에 대해 말했던 요어와 지론을 발췌하여 배우는 사람들의 귀감으로 이바지 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양공은 마음이 혼자만 고생스럽다는 것이다. 성품이 평소에 효우하여 부모를 섬기는 일에 그 성경을 극진히 하였으며 상을 만나서는 여묘 살이를 했다. 아우와 더불어 매우 화목하여 상의정을 지어놓고 잠자리를 함께 했으니 양파와 강굉의 품속과 비교할 만 했다. 미루어서 선사를 받드는 일에 이르러서도 빗돌을 갖추어서 무덤가는 길을 호위했고 제전을 마련하여 향화에 대비했으니 이것이 대저 공의 대략이다. 무술 1970년 7월 18일에 졸하고 고종 갑신 1884년 10월 15일에 태어났으니 향년 75세이다. 석곡면 연동촌 후선고계하에 장사했다. 세 아내인데 전주최씨는 삼순의 따님이니 아들 익섭과 딸 청송 심경식의 아내를 낳았고 전주이씨는 동우의 따님이니 자식이 없었다. 함양오씨는 기만의 따님이니 한 아들 흥섭과 세딸 옥천 조동선 순흥 안정섭 경주 김기신의 아내를 낳았다. 나머지는 번거로워 기록하지 않는다.

아아! 심한 세상의 변천이 자주 바뀌니 백성의 거짓이 날로 더하여 오히려 선비의 옷과 선비의 관을 쓴 사람도 또한 아침을 잘한다. 만약 공의 우뚝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은 품모를 듣는다면 어찌 분명히 스스로 힘쓰지 않겠는가? 그를 위해 명을 하니 명에 이르길...... 국사봉 아래가 움푹하여 유택을 지을 만하고 그 중에 석인이 있었으니 너그럽고 뛰어난 본받을 만하네. 춘추의 대의는 당당하여 공경할 만하고 학문을 원하던 여러 규약은 정연하여 따를만하네. 수신 치국의 요어는 사랑

스러워 음킬만하고 효제를 근본으로 삼아 일마다 본받을 만하네.
묘명을 지어서 밝게 보이니 후세에 백세를 전하리.

단군 기원 4321년 무진 1988년 하지일에
장흥 위계도는 찬한다.

石蓮丁先生遺墟碑文

석연정선생유허비문

惟此谷城縣石谷面蓮洞. 卽石蓮丁公藏修講學之所也. 其
유 차 곡 성 현 석 곡 면 연 동 즉 석 연 정 공 장 수 강 학 지 소 야 기
 門徒諸人與公之孫宗杓. 以水不忍廢. 地不忍荒之宜. 合謀
문 도 제 인 여 공 지 손 종 표 이 수 불 인 폐 지 불 인 황 지 의 합 모
 豎碑于遺墟. 令宗杓謁文于余. 辭不獲已. 謹按公諱大暉. 字
수 비 우 유 허 령 종 표 알 문 우 여 사 불 획 이 근 안 공 휘 대 현 자
 自旻. 石蓮其自號也. 系出羅州. 以高麗錦陽府院君聖徽爲
자 경 석 연 기 자 호 야 계 출 나 주 이 고 려 금 양 부 원 군 성 휘 위
 上祖. 奕世冠冕不絕. 曰道一號南隱. 近齋朴文獻公門人. 自
상 조 혁 세 관 면 불 절 왈 도 일 호 남 은 근 재 박 문 헌 공 문 인 자
 公始居谷城. 曰翊相曰獻斗. 高曾祖三世. 考曰文教號野隱.
공 시 거 곡 성 왈 익 상 왈 헌 두 고 증 조 삼 세 고 왈 문 교 호 야 은
 以孝贈都正. 妣淑夫人全州李氏信茂女. 公以高宗甲申生.
이 효 증 도 정 비 숙 부 인 전 주 이 씨 신 무 녀 공 이 고 종 갑 신 생
 穎悟絕倫. 動止凝重. 就學塾師. 不煩而甚勤. 儕流推重. 稍
영 오 절 룬 동 지 응 중 취 학 숙 사 불 번 이 십 근 제 유 추 중 초
 長從學于吾王考淵齋先生. 勉菴崔先生. 泊松沙奇公宇萬.
장 증 학 우 오 왕 고 연 재 선 생 면 암 최 선 생 계 송 사 기 공 우 만
 而於崔先生. 服勤講義. 厚蒙獎詡. 退益慥慥. 學瞻行篤. 蔚
이 어 최 선 생 복 근 강 의 후 몽 장 후 퇴 익 조 조 학 섭 행 독 울
 然爲洛州之望也. 當庚戌屋社. 杜門自靖. 乃築愛蓮亭. 花月
연 위 낙 주 지 망 야 당 경 술 옥 사 두 문 자 정 내 축 애 연 정 화 월
 良辰. 呼朋觴詠. 以暢慷慨幽懷. 逮高宗賓天. 或有服不服之
양 진 호 봉 상 영 이 창 강 개 유 회 체 고 종 빈 천 혹 유 복 불 복 지

說.公倡言排之.與門徒設位.痛哭持服.志者稱善.事親孝
설 공 창 언 배 지 여 문 도 설 위 통 곡 지 복 지 자 칭 선 사 친 효
 順.遭艱廬墓.極盡誠敬.昆季友篤.晚築相宜亭.同處共案.
순 조 간 려 묘 극 진 성 경 근 계 우 독 만 축 상 의 정 동 처 공 안
 薰簾和樂.奉先殫誠.以忠信篤敬.處鄉接人.咸服其賢.接
훈 지 화 락 봉 선 탄 성 이 충 신 독 경 처 향 접 인 함 복 기 현 접
 引來學.導之以孝悌.諄諄誘掖.至老不倦.壽得七十五.戊
인 래 학 도 지 이 효 제 순 순 유 액 지 로 불 권 수 득 칠 십 오 무
 戌卒.公有三配.全州崔氏三淳女.全州李氏東宇女.咸陽吳
술 졸 공 유 삼 배 전 주 최 씨 삼 순 녀 전 주 이 씨 동 우 녀 함 양 오
 氏基萬女.崔氏吳氏.各有一子.翼燮洪燮.孫男.宗杓.性杓.
씨 기 만 녀 최 씨 오 씨 각 유 일 자 익 섭 홍 섭 순 남 종 표 성 표
 京杓.直杓.完杓.噫公志操之清.造詣之高.可謂一方之表
경 표 직 표 완 표 희 공 지 조 지 칭 조 예 지 고 가 위 일 방 지 표
 準.鄒聖所謂一鄉之善士.公其人歟.公其人也.一片貞珉.
준 추 성 소 위 일 향 지 선 사 공 기 인 여 공 기 인 야 일 편 정 민
 庶可與公之徽蹟.同其不虧歟.公衣履之藏.亦在相望一喚
서 가 여 공 지 휘蹟 동 기 불 휴 여 공 의 리 지 장 역 재 상 망 일 환

地云
지운

時辛丑重陽節 恩津 宋在晟 撰
시 신 축 중 양 절 은 진 송 재 성 찬

석연정공유허비문

이 곡성현 석곡면 연동은 곧 정석연 공이 장수하고 강학하던 곳이다.
 그 문하의 제자 여러 사람과 공의 손자 종표가 선생이 살던 곳에 물을
 차마 펴하지 못하고 땅을 차마 황폐하게 못한다는 뜻으로 유허에 빗돌
 을 세울 것을 함께 도모하여 종표로 하여금 나에게 찾아와 글을 구하게
 하였다. 사양을 했으나 부득이 했다. 삼가 살펴 보건데 공의 휘는 대현
 이요 자는 자경이며 석연은 그의 자호이다. 기계는 나주에서 출발했다.
 고려 금양부원군 성취로서 상조를 삼으니 여러 대 벼슬이 끊이지 않았다.

도일은 호가 남은이며 근재 박문헌 공의 문인이었으니 공 때부터 곡성에서 처음 살게 되었다. 익상과 현두까지 고조와 증조 조 3세이다. 고는 문교이니 호는 야은이다. 효로써 도정에 증직되었다. 숙부인은 전주이씨 신무의 딸이다. 공은 고종 갑신 1884년에 태어났다. 훗날 깨달음이 무리보다 뛰어났고 행동거지가 침착하고 신중하였다. 학문에 나아가서는 글방 스승을 번거롭게 아니했고 매우 부지런하여 친구들의 추증이 되었다. 약간 자라서 우리 왕고 연재선생과 면암 최선생 및 송사 기공 우만에게 종학했다. 최선생에게 부지런히 의를 배워 깊이 장려해 칭찬해줌을 받았고 물러 나와서는 더욱 정성을 쏟아 학문이 넉넉해지고 행실이 돈독하여 왕성하게 낙주의 증망이 되었다. 경술 1910년에 나라가 망하는 일을 당하자 문을 닫고 스스로 편안히 살았다.

이에 애연정을 짓고 꽃 피고 달뜨는 좋은 시절엔 벼를 불러 술 마시고 시를 지으면서 강개한 회포를 풀었다. 고종이 서거하였을 때 혹은 복을 입어야 한다느니 복을 입지 않아야 한다느니 하는 말이 있었다. 그때 공은 큰 소리로 물리치고 문하의 제자와 더불어 배위를 설치하여 통곡하고 복을 입었다. 뜻있는 자들이 잘했다고 칭찬했다. 부모를 섬기는데 효순하여 부모상을 당하여 무덤에 초막을 짓고 성경을 지극히 다했다. 형제에게는 우애가 돈독하여 늙은이에 상의정을 짓고서 함께 살고 함께 먹으면서 형과 아우가 화목하고 화락했다. 선조를 받드는데에 충·신·독·경으로써 정성을 다하였다. 마을에 살면서 사람을 접할 때엔 그의 어진 것에 모두 감복했다. 후학을 인도할 때엔 효제로써 인도하고 순수하게 이끌어 주어 늙도록 게으르지 않았다. 나이는 75세를 살고 무술 1946년에 돌아가셨다. 공에게는 세 아내가 있었으니 전주최씨 삼순의 딸과 전주이씨 동우의 딸과 함양오씨 기만의 딸이다. 최씨와 오씨는 각각 한 아들을 가졌으니 익섭과 흥섭이다. 손자는 종표 성표 경표 직표 완표이다.

아! 공의 맑은 지조와 고상한 조예는 한 지방의 표준이라 말할 수 있다.

맹자에게서 이른바 한 고을의 어진 선비라 하였으니 공이 바로 그런 사람 이던가? 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한 조각 빛돌은 아마도 공의 빛나는 자취와 더불어 똑같이 사라지지 않을지이다. 공의 무덤 또한 서로 바라 보고 한번 부를 만한 땅에 있다고 말하노라.

때는 신축 1961년 중앙절에 은진 송재성은 찬하노라.

石蓮遺稿序

석연유고서

抱經矻矻于窮山寂寞之濱. 其適也枯矣. 其生也泊矣. 而以
 포경 골골 우궁 산적막지빈 기적야고의 기생야박의 이이
 畢其年. 內而不得於家. 妻嘲子笑. 外而見侮於人. 聞訕見
 필기연 내이부득어가 처조자소 외이견모어인 문산견
 咄. 究厥生平. 果無所爲. 前韓末. 暨外寇僞政四十年間. 讀
 돌 구결생평 과무소위 전한말 기외구위정사십년간 독
 書爲名者. 概多此類. 是蓋不惟執政之蔑裂. 禮法弁髦. 儒術
 서위명자 개다차류 시개불유집정지멸렬 예법변모 유술
 之致. 抑以士而立志不固. 處事無義. 壅滯而不通. 黏着而不
 지치 억이사이입지불고 처사무의 응체이불통 점착이불
 揚. 只以抗高爲自賢之禍也. 惟於其間. 能卓然自立. 奮然邁
 양 지이항고위자현지화야 유어기간 능락연자립 분연매
 征. 有拔於俗士. 而持己敬謹. 御家以和. 接人以信. 不以利
 정 유발어속사 이지기경은 어가이화 접인이신 불이이
 害動其心. 榮辱渝其節則. 可爲一方之翹楚. 而鄉少從學. 師
 해동기심 영욕투기절즉 가위일방지교초 이향소종학사
 道立焉. 德之高下. 學之淺深. 雖有大小之殊. 均爲補於警世
 도입언 덕지고하 학지천심 수유대소지수 균위보어경세
 扶俗也. 石蓮丁公. 殆其儔也歟. 公少也. 師勉菴淵齋松沙三
 부속야 석연정공 태기주야여 공소야 사면암연재증사삼
 先生. 門路正而趨向明矣. 義理定而氣節高矣. 自古國不祀.
 선생 문로정이추향명의 의리정이기절고의 자고극불사

足不到城闈.索居究經.鄉少稍稍進學.公立規定程.循循提
족 불 도 성 인 색 거 구 경 향 소 초 초 진 학 공 립 규 정 정 순 순 제
 覺.其所悲歡憂戚.一於詩發.辭質而忠.意切而暢.至於書
각 기 소 비 환 우 척 일 어 시 발 사 질 이 충 의 절 이 창 지 어 서
 尺.不飾華藻.惟以情到理順爲主.以其人則慷慨之士.語其
척 불 식 화 조 유 이 정 도 리 순 위 주 이 기 인 즉 강 개 지 사 어 기
 文則忠厚之言也.公之孫宗杓與其門徒.粹爲遺稿四編.請
문 즉 충 후 지 언 야 공 지 손 종 표 여 기 문 도 졸 위 유 고 사 편 칭
 余校閱而敍弁.摩挲嘆賞.略加點綴.而授之曰.方今蔑聖棄
여 교 열 이 서 변 마 사 탄 상 약 가 점 철 이 수 지 왈 방 금 멸 성 기
 學.滔滔一世.而諸家集稿.出如雨筍誰能多者.以世道則固
학 도 도 일 세 이 제 가 집 고 출 여 우 순 수 능 다 자 이 세 도 즉 고
 有如此者.然自其子孫而視之則.先人精神之所湊.言行之
유 여 차 자 연 자 기 자 손 이 시 지 즉 선 인 정 신 지 소 주 언 행 지
 所形.自其門徒而視之則師門學術之所敷.義理之所蘊.固
소 형 자 기 문 도 이 시 지 즉 사 문 학 술 지 소 부 의 리 지 소 운 고
 營玩繹.不捨于日夕者也.況先王考之敦本懋實.尤非他人
영 완 역 불 사 우 일 석 자 야 황 선 왕 고 지 돈 본 무 실 우 비 타 인
 可比者乎.願亟刊布.與中外同志之士共焉
가 비 자 호 원 급 간 포 여 중 의 동 지 지 사 공 언

龍集庚戌季冬 豊山 洪錫憲 序
용 집 경 술 계 동 풍 산 홍 석 회 서

석연유고서

궁산 적막한 물가에서 경을 안고서 부지런했으며 그의 쫓아가는 방
 향이 메말랐고 그의 생은 담백하게 하며 해를 마쳤기 때문에 안으로는
 집안에서 아내의 비웃음과 자식의 웃음을 얻지 못했고 밖으로는 남에게
 모멸을 당하여 비방을 듣고 질책을 당하였다. 그의 평생을 헤아려 본
 다면 과연 해 놓은 바가 없다. 전 한말로부터 왜구들이 위정한 40년간에
 미치도록 책을 읽는다고 이름하는 자들이 대체로 거의가 이런 류이다. 이는
 대체로 집정이 멸렬했고 예법이 무용의 물건이 되어버린 유술의 소치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선비가 뜻을 세움이 굳건하지 못하고 일을 처리

함이 의가 없어서 막혀 불통하고 접촉하여 들쳐나지 못한 때문이며 단지 항거하여 높은 체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어질다고 여긴 재앙이었다. 오직 그러한 틈에서도 능히 타연히 자립하고 분연히 힘써 나아가 속사증에서 빼어나고 몸가짐이 경근하여 화로써 집을 거느리고 믿음으로써 사람을 접하며 이해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육이 그의 절개를 더럽히지 않았으니 가히 한 지방의 교초가 될 만했으며 마을의 젊은이들이 쫓아가 배우니 사도가 세워졌다. 덕의 고하와 학문의 천심이 비록 대소의 구별이 있기는 하나 다같이 세상을 경계하고 세속을 부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니 석연 정공이 아마도 그런 사람일지어다. 공은 젊어서 면암과 연재와 송사 세 선생에게서 배워서 문로가 바르고 취향이 분명했고 의리가 정하여지고 기절이 고상했다. 고국이 제사를 지내지 못한 때로부터 발이 성문에 이르지 않았고 쓸쓸히 살면서 경을 연구했으며 고을의 젊은이들이 조금씩 학문에 나아가니 공은 규정을 세워놓고 순순히 이끌어 깨우쳐 주었다. 그는 비환과 우척한 바를 시에다 한결같이 표현하였는데 말이 질박하고 충성스럽고 뜻이 간절하고 화창했다. 편지에 있어서는 한 자도 화려한 문체로 꾸미지 않았고 오직 정이 지극하고 이치가 순한 것을 주로 하였다. 그는 사람으로는 강개한 선비요 글로 말한다면 충후한 말이다. 공의 손자 종표가 그의 문하의 제자들과 함께 유고 4편을 간행하기 위해 나에게 교열하고 서문을 써 줄 것을 청하였다. 손을 문지르며 감탄하여 감상하고 대략 점철을 더하여 주면서 이르길, “바야흐로 오늘날 성인을 능멸하고 학문을 버리는 것이 도도한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원고를 모아 내 놓으니 비 온 뒤 죽순이 누가 더 많이 나오는가 하는 듯하다. 세도로는 참으로 이 같은 일이 있으나 그러나 지손으로부터 본다면 선인의 정신이 펼쳐진 바요 언행이 나타난 바다. 그 제자들로부터 본다면 사문의 학술이 펼쳐진 바요 의리가 쌓인 바이니 참으로 마땅히 음미하고 실마리를 찾아서 밤낮으로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인데 하물며

할아버지께서 근본을 돈독히 여기고 실지를 힘쓰던 것을 우선으로 여기
시던 것이 더더욱 남에게 비교할 자가 아닌 것이야! 원컨대 “간행하여
빨리 배포하여 증외의 뜻을 같이한 선비들과 더불어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다.

해는 경술 1970년 늦겨울에 풍산 홍석희는 서 하노라.

石蓮丁先生祀壇碑文

석 연 정 선생 사 단 비 문

嗚呼. 此石蓮丁先生祀壇也. 公以韓末巨匠. 勉菴先生之高
오 호 차 석 연 정 선생 사 단 야 공 이 한 말 거 장 면 암 선생 지 고
弟. 講道于欲川之蓮洞. 一方學者. 覲德請業爭先恐後. 莫不
제 강 도 우 욱 천 지 연 동 일 방 학 자 적 덕 청 업 쟁 선 공 후 막 불
以公之言行. 爲著蔡大尺. 凡五十年. 其所處探山齋. 戶屢常
이 공 지 언 행 위 시 채 대 척 범 오 십 년 기 소 처 채 산 재 호 주 상
滿. 化導攸暨. 鄉風丕變. 隱然迄于今未弛. 公旣沒. 及門諸
만 화 도 유 기 향 풍 비 변 은 연 흘 우 금 미 이 공 기 몰 급 문 제
公. 慕公不置. 歲壬子春. 收議設壇于此. 逐年上香. 越五年
공 모 공 불 치 세 입 자 춘 수 의 설 단 우 차 축 연 상 향 월 오 년
丁巳. 又與謀曰. 先生遠矣. 吾輩雖此畧伸微衷. 世變靡常.
정 사 우 여 모 왈 선생 원 의 오 배 수 차 탁 신 미 충 세 변 미 상
人事不可知. 孟立石紀實. 以徵諸後也. 於是衆議歸一. 使表
인 사 불 가 지 맹 입 석 기 실 이 징 제 후 야 어 시 중 의 귀 일 사 표
相洙. 吳明煥. 遠來要文於余. 余服公之風舊矣. 託名爲榮.
상 수 오 명 환 원 래 요 문 어 여 여 복 공 지 풍 구 의 탁 명 위 영
爲敍如右. 系以言曰. 願諸公. 無徒以此爲吾事已了. 更與奮
위 서 여 우 계 이 언 왈 원 제 공 무 도 이 차 위 오 사 기 료 갱 여 분
發振勵. 講服遺訓. 光大德業. 是崇獨爲報佛大. 抑亦爲一道
발 진 려 강 복 유 훈 광 대 덕 업 시 숭 독 위 보 불 대 억 역 위 일 도
之幸矣. 願諸公之勉之也. 公諱大暉. 字自炅. 丁氏籍羅州.
지 행 의 원 제 공 지 변 지 야 공 휘 대 현 자 자 경 정 씨 적 나 주

大司諫克隆之后.居南平.又徙于此.祖道一有學行.考文教

一諱碩瓊.蘆沙奇先生門人.孝薦官都正.高宗甲申歲生公.

公美風貌.愛弟甚.有相宜亭.終身同起居云

丁巳春二月日 星州 李栢淳 謹撰

석연정선생사단비문

오호라! 여기는 석연 정선생의 사단이다.

공은 한말 거장인 면암 선생의 고제로 다만 옥천 연동에서 강도하여 그 지방에 배우는 자들이 덕을 보고 학업을 청했으니 앞설 것을 다투어 뒤설까 두려워하여 공공의 언행을 귀감으로 삼지 않음이 없었다. 무릇 50년 동안 그가 살았던 곳 재산재 문밖에 신밭이 항상 가득했고 교화 하고 인도함이 미친 곳에 고을의 풍속이 크게 변하여 은연히 오늘날에 이르도록 해이되지 아니했다. 공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문하의 여러 제자들이 공을 사모하여 버려두지 아니하고 임자 1972년 봄에 의논을 모아 여기에 단을 세워 해마다 향을 올리더니 다음 5년 정사 1977년에 또 더 붙여 도모하길, “선생이 가신지 오래이니 우리들이 비록 여기에서 약간 조그만 속 마음을 편다 해도 세상은 변하여 떳떳함이 없고 인사는 알 수가 없으니 먼저 빗돌을 세우고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증거로 남겨야 한다” 라고 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의론이 하나로 귀착되어 표상수 오명환로 하여금 멀리서 와서 나에게 글을 구하게 하였다. 나는 공의 풍모를 따르니 오래라 이름을 붙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른쪽과 같이 서하노라. 말을 맺노니 “돌아보건데 여러분은 다만 이것으로 우리의 일이 이미 끝났다고 하지 말고 다시 더불어 분발하고 힘을 합쳐 남긴 교훈을 강하고 따라서 공대한 덕업을 바로 승상함이 다만 부처의

은혜에 보답함이 은혜가 클 것이고 또한 한 도의 다행히 될 것입니다. 원컨대 여러분은 힘 쓰십시오” 라고 했다. 공은 휘 대현이요 자는 자경이다. 정씨는 본적이 나주이니 대사간 극릉의 후손이다. 남평에서 살다가 또 이곳에 이사한 선조는 도일이니 학행이 있었다. 고는 문교니 또 하나의 휘는 석환이다. 노사 기선생의 문인으로 효도로 천거되어 도정 벼슬을 했다. 고종 갑신 1884년에 공을 낳으니 공은 아름다운 품모였다.

아우를 사랑함이 깊어서 상의정을 두고 종신토록 함께 기거했다.

정사 1977년 봄 2월 일에 성주 이백순은 삼가 찬하노라.

石蓮丁先生門人錄序

석 연 정 선 생 문 인 록 서

爲一國之師者.有一國之弟子.爲一鄉之師者.有一鄉之弟子.
위 일 국 지 사 자 유 일 국 지 제 자 위 일 향 지 사 자 유 일 향 지 제
子.觀於弟子之衆寡.可知其師之教育之廣狹也.石蓮丁公
자 관 어 제 자 지 중 과 가 지 기 사 지 교 육 지 광 협 야 석 연 정 공
諱大暉字自旻.其先.羅州人.以雋爽之器宇.有穎悟之才
휘 대 현 자 자 경 기 선 나 주 인 이 준 상 지 기 우 유 영 오 지 재
性.早出入于宋淵齋崔勉菴奇松沙三先生之門.斥邪扶正.
성 조 출 입 우 송 연 재 최 환 면 암 기 송 사 삼 선 생 지 문 척 사 부 정
尊華攘夷之義.治己治人.爲學爲文之要.他弟子所未嘗聞
존 화 양 이 지 의 치 기 치 인 위 학 위 문 지 요 타 제 자 소 미 상 문
者.無不聞之.犁然而心有所悟.哀然而體有所胖.退而築一
자 무 불 문 지 이 연 이 심 유 소 오 부 연 이 체 유 소 반 퇴 이 축 일
屋于幽靜處.日寢處其中.沉潛乎四書吾經.修齊治平之道.
옥 우 유 정 처 일 침 처 기 중 침 잠 호 사 서 오 경 수 제 치 평 지 도
無不心得而躬驗之.參考于百家諸子治亂興亡之故.無不
무 불 심 득 이 궁 험 지 참 고 우 백 가 제 자 치 란 흥 망 지 고 무 불
曲暢而旁通之.然遭天地之翻覆.無所施其蘊抱.日與經生
곡 창 이 방 통 지 연 조 천 지 지 번 복 무 소 시 기 운 포 일 여 경 생

學者.談理說經.存師道于旣亡.扶線陽於窮陰.隱然有強艱
학 자 담 리 설 경 존 사 도 우 기 망 부 선 양 어 궁 음 은 연 유 강 간
 扶抑之勢.而一方之儒風.蔚然以興.衣冠而後出者.莫非其
부 억 지 세 이 일 방 지 유 풍 을 연 이 흥 의 관 이 출 입 자 막 비 기
 門徒.人之不問而知之.如胡文定之弟子焉.公歿之三十餘
문 도 인 지 불 문 이 지 지 여 호 문 정 지 제 자 언 공 물 지 삼 십 여
 年.其門人及私淑于公者二百餘人.錄其姓名將刊.門人表
년 기 문 인 급 사 숙 우 공 자 이 백 여 인 록 기 성 명 장 간 문 인 표
 相洙吳明煥與公嗣孫宗杓.來問頭語于不佞.竊念師道之
상 수 오 명 환 여 공 사 손 종 표 내 문 두 어 우 불 념 절 념 사 도 지
 廢.蓋已久矣.唐之李翱張籍輩.皆學于韓文公.而愧其稱
폐 개 기 구 의 담 지 이 고 장 적 배 개 학 우 한 문 공 이 괴 기 칭
 師.每於言語書翰之間.不曰先生而曰兄.況今之世乎.而自
사 매 어 언 어 서 한 지 간 불 왈 선생 이 왈 형 황 금 지 세 호 이 자
 職業教師之出.所謂弟子者.視師如路人.一離教庭.不相問
직 업 교 사 지 출 소 위 제 자 자 시 사 여 노 인 일 이 교 정 불 상 문
 焉.噫空山荒茅之下.木食澗飲.而執一策兀然坐.皐比如公
언 희 공 산 황 모 지 하 목 식 간 음 이 집 일 책 을 연 좌 고 비 여 공
 者.有何所施乎.而爲其門徒者雖沒世不能忘.嘗刊其師稿.
자 유 하 소 시 호 이 위 기 문 도 자 수 물 세 불 능 망 상 간 기 사 고
 樹其師碑.今又成此錄.可知公所嘗懇懇斥斥諭之誨之者.
수 기 사 비 음 우 성 차 록 가 지 공 소 상 간 간 척 척 유 지 회 지 자
 莫非以孝悌忠信禮義廉恥之道而然也
막 비 이 효 제 충 신 예 의 엄 치 지 도 이 연 야

光復四十戊辰立夏節 坡平 尹丁鍍 敘
광 복 사 십 무 진 입 하 절 파 평 윤 정 복 서

석연정선생문인록서

한 나라의 스승이 되는 사람은 한 나라의 제자가 있고 한 고을의 스승이
 되는 사람은 한 고을의 제자가 있으니 제자가 많고 적은 것을 보고서
 그 스승이 교육한 것이 넓은가 좁은가를 알 수 있다. 석연 정공의 휘는
 대현 자는 자경이니 그 선계는 나주인이다. 준결차고 굳센 기품으로 뛰어난

나게 총명한 재성이 있었으니 일찍이 송연재 최면암 기송사 세분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여 간사함을 배척하고 정도를 부지하며 증화를 높이고 이적을 물리치는 뜻과 자기를 다스리고 남을 다스려서 학문하고 글을 짓는 요령을 다른 제자들은 일찍이 듣지도 못한 것을 듣지 아니함이 없었다. 위엄스럽게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었으며 듚직하게 몸이 살찌 퍼진 바가 있었다. 물러 나와 그윽하고 고요한 곳에 한 집을 짓고 밤낮으로 그 속에 살면서 사서오경을 깊이 음미하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도를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증험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제자 백가를 참고하여 치란 흥망의 연고를 자세히 통달하여 곡진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천지가 번복한 때를 만나 그 마음에 쌓은 포부를 베풀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날마다 경를 배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리와 경지를 담설하며 이미 사라진 속에서 사도를 보존하고 궁음 속에서 실날같은 양기를 부지하여 위엄스럽게 괴로움을 참고 억눌린 것을 부지해 주는 기세가 있어서 한 지방의 유품이 성대하게 일어났었다. 의관하고 출입한다는 사람치고 그 문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을 사람들은 묻지 않아도 알았으니 마치 호문정의 제자들과 같았다.

공이 돌아가신지 30여년에 그의 문인 및 공을 사숙한 사람 200여명이 한 책에 그의 성명을 적어서 장차 간행하려고 할 적에 문인 표상수 오명환과 공의 사손 종표가 찾아와서 나에게 서문을 청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도가 폐해진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당나라의 이고와 장적 등이 모두 한문공 퇴지에게서 배웠는데 그 스승이라 일컫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항상 말할 때나 편지 보내는 사이에도 선생라 말하지 않고 형이라 말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같은 세상이겠는가? 그런데 교사라는 직업이 나옴으로 부터 떠나기만 하면 서로 묻지도 아니한다.

아아! 쓸쓸한 산속 쓰러져가는 띠집 아래서 나무 열매를 먹고 냇물을 떠 마시면서 한 책을 잡아 오뚜기 강석에 앉은 공 같은 사람은 어느 곳에

베플 곳이 있겠는가. 그 문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이 비록 죽는다 해도 잇을 수가 없어서 그 스승의 원고를 베껴 간행하고 그 스승의 빚돌을 세우고 오늘날 또 이 석연문인록을 만들었다. 공이 일찍이 간절히 삼가했던 바를 알 수 있으니 깨우쳐 주고 가르친 것이 효제 충신 예의 염치의 도로써 하지 않음이 없었다.

광복 44년 무진 1988년 입하절에 파평 윤정복은 쓴다.

石蓮丁先生淵源錄序

석 연 정 선 생 연 원 록 서

維我東國壤地雖小.羣賢輩出.郁郁文明.與有宋相伯仲焉.
유 아 동 국 양 지 수 소 군 현 배 출 옥 옥 문 명 여 유 송 상 백 중 언

華西李先生.崛起私淑.以其道授後人.及門有重菴.省齋.
화 서 이 선 생 굴 기 사 숙 이 기 도 수 후 인 금 문 유 중 암 성 재

勉菴之賢.勉菴之門.又多忠信篤敬之士.若石蓮丁公大暉
면 암 지 현 면 암 지 문 우 다 충 신 독 경 지 사 약 석 련 정 공 대 현

其一也.早年抱贄.得聞尊攘大義.白狗之變.痛不自勝.兩
기 일 야 조 년 포 지 득 문 존 양 대 의 백 구 지 변 통 불 자 승 양

度大喪.戴白衣縞.方喪如禮.惟以導迪後進.爲己任.立規
도 대 상 대 백 의 호 방 상 여 예 유 이 도 직 후 진 위 기 임 입 규

定程.眷眷乎存養實踐.期勉乎日行一善.一方多化之.入其
정 정 권 춘 호 존 양 실 천 기 면 호 일 행 일 선 일 방 다 화 지 입 기

鄉稱先生.不問可知爲公也.公歿後.及門諸子.刊厥遺稿.
향 칭 선 생 불 문 가 지 위 공 야 공 불 후 금 문 제 자 간 결 유 고

今又蒐輯公修身齊家治政等要語.與夫身後文字.門生名
금 유 수 집 공 수 신 제 가 치 정 등 요 어 여 부 신 후 문 자 문 생 명

錄.首以華勉兩先生行蹟.簽爲淵源錄.將公諸世.玄晏之
록 수 이 화 면 양 선 생 행蹟 침 위 연 원 록 장 공 제 세 현 안 지

託.及於不佞.蓋行道垂訓.雖有高下淺深之或差.其能有助
탁 금 어 불 념 개 행 도 수 훈 수 유 고 하 천 심 지 혹 차 기 능 유 조

於扶植斯文之功則.固不可無傳後之圖.此日此役.誠不可
어 부 식 사 문 지 공 즉 고 불 가 무 전 후 지 도 차 일 차 역 성 불 가

己也. 亦可以觀公教化之及人者深矣. 嗚呼. 諸子其欲加勉
기야 역가이관공교화지급인자심의 오호 제자기욕가면
 於邁守師訓. 以爲卒業之地耶. 余雖不得承咳於當日. 欽仰
어매수사훈 이위졸업지지야 여수부득승해어당일 흠앙
 者深. 而又有所期望於諸子敢以是爲弁語
자심이우유소기망어제자감이시위변어

戊辰 四月 日 黃州 邊時淵 序
무진 사월 일 황주 변시연 서

석연연원록서

우리 동국이 땅덩어리가 비록 작으나 못 현인들이 배출되어 찬란한 문명이 송나라와 더불어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화서 이항로 선생이 우뚝이 사숙으로 일어나서 그의 도를 후인에게 전수하였으니 문인 중에 증암 김평묵과 성재 류석린과 면암 최익현이란 현인이 있었고 면암의 문인 중에 또 충신 독경의 선비들이 많았는데 석연 정대현 공과 같은 이가 그 중 한 사람이다. 공은 어린 나이에 폐백을 안고 가서 왕실을 높이고 이적을 배척하는 대의를 듣고 경술 1910년의 변에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더니 두 번의 대상에서 흰 건을 쓰고 흰 상복을 입고서 임금의 상을 예와 같이했다.

오직 후진을 인도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삼아 법규를 세우고 과정을 정하여 부지런히 존심양성하고 정도를 실천하며 날마다 한가지 선을 행할 것을 기약하여 힘썼으니 한 지방이 많이 교화 되었었다. 그 고을에 들어가서 선생이라 일컬으면 묻지 않아도 공인 것을 알 수 있다.

공이 돌아가신 후 문인 여러 사람들이 그의 유고를 간행하고 오늘날 또 공의 수신제가 치정 등의 중요한 말씀과 돌아가신 후의 문자와 문하생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수집하여 화서 면암 두 선생의 행적을 첫머리에 싣고 표제를 연원록이라 했다. 장차 세상에 간행하여 내놓으려고 할 적에 서문의 부탁이 나에게 왔다. 대저 도를 행하고 훈교를 드리움이 비록 고하심천

으로 혹 차이가 나기는 하나 그야말로 사문을 부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덕이 있으니 참으로 후세에 전할 계획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의 이 일이 참으로 그만둘 수가 없고 또한 공의 교화가 남에게
미친것이 깊음을 볼 수 있으리라.

오호라! 여러 제자들은 그 스승의 교훈을 더욱 힘써서 학업을 마칠
때으로 삼고자 하는가? 내 비록 당일에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으나 흠양
함이 깊고 또한 여러 제자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어서 감히 이것으로 서두의
말로 삼는다.

무진 1988년 4월 일 황주 변시연은 서한다

石蓮丁先生淵源錄祝刊辭

석 연 정 선생 연 원 록 축 간 사

石蓮 丁大睨 先生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의 敦寧府都
석 연 정 대 현 선생 돈 념 부 도
正野隱 諱 文教와 숙부인 전주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石蓮 先
정 야 은 휘 문 교 석 연 선
生은 일찍이 仲父 晚隱 諱 碩教를 비롯하여 松沙 奇宇萬 淵齋
생 중 부 만 은 휘 석 교 송 사 기 우 만 연 재
宋秉璿 같은 여러 先生에게 수업하고 吾先祖 勉菴先生에게
송 병 선 선 생 오 선 조 면 암 선 생
贅謁하여 많은 학덕과 경륜을 쌓으시고 을사늑약 후 勉菴先生
지 알 면 암 선 생
과 義擧를 圖謀하였으나 親患이 위증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憂國
의 거 도 모 친 환 우 국
傷道하던 중 高宗이 界退하자 域內士林에게 服 입을 것을 倡言
상 도 고 종 계 퇴 역 내 사 립 복 창 언
하고 服을 입고 望峯臺에 올라 設位通哭하다 倭兵에게 발각
복 망 미 태 설 위 통 곡 왜 병
되어 심한 拷問 끝에 기절하였으나 하늘의 보살핌을 받아 6~7시간
고 문

石蓮丁先生事蹟錄

뒤에 회생하였다. 그러나 그 뜻을 굽이지 아니하였으며 남달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법도를 지키는 마음이 깊어 가혹한 왜정의 斷髮令에도 斷髮하지 아니하고 採山齋에 은거하여 我東道 剛의 전통사상을 고수하고 오직 후진양성을 其任으로 여기시며 밤을 새워 책을 騰하여 무상분배하는 등 무상교육에 일생을 바치셨다. 草根木皮로 근근이 생활하면서 利害로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니 雍不失氣요 富貴貧賤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친절과 謙遜으로 한결같이 對하니 一視同仁이라. 부귀영화를 浮雲같이 여기고 孝友勤儉 禮義廉耻를 몸소 實踐하여 教育의 자료로 하시니 先生의 節義操行 學德을 좋아하여 遠近士林이 서로 앞을 다투어 先生을 따랐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斯文은 石蓮先生의 門人됨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華西 勉菴 石蓮 三先生의 일을 새기며 門人의 姓名字號生年顯祖 및 子孫을 收錄하고 隆師親友의 道를 圖謀하기 위하여 門人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石蓮淵源錄을 刊行하오니 훌륭한 先生에 훌륭한 門人이라 敬賀하오며 끝으로 石蓮先生의 淵源錄이 千秋에 傳하여 우리 學界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삼가 蕪辭로 發刊을 頌賀하는 바이다.

戊辰 正月 日 成均館長 慶州 崔昌圭 謹製
 무진 정월 일 성균관장 경주 최창규 근제

石蓮丁公梧岡祠奉安答通文

석연정공오강사봉안답통문

今按全羅南道谷城鄉校通告文則. 管內石谷面蓮盤里. 石
금안전라남도곡성향교통고문즉 관내석곡면연반리 석
 蓮丁公大睨. 系出羅州. 忠烈公諱允宗之后. 敦寧府都正諱
연정공대현 계출나주 충열공휘윤종지후 돈녕부도정휘
 文教之子也. 以天賦之材. 早習庭訓. 性本誠孝. 事親志體.
문교지자야 이천부지재 조습정훈 성본성효 사친지체
 從師崔勉菴先生. 而心得大經大義. 欲從義所. 以遂大志. 因
종사최면암선생 이심득대경대의 욕종의소 이수대지인
 於母病危急. 未達其志. 歸家看病. 竟當庚戌國恥. 切齒腐
어모병위급 미달기지 귀가간병 경당경술국치 절치부
 心. 而謀議斥倭求國之策. 事前發覺. 甚當拷問. 至於死境.
심 이모의척왜구국지책 사전발각 심당고문 지어사경
 纔得回生. 起居草廬. 扁其額曰採山. 講道不倦. 教人無厭.
재득회생 기거초려 편기액왈채산 강도불권 교인무염
 養成後輩. 彬彬之士. 輩出其門. 至於感化其道. 繼往開來.
양성후배 빈빈지사 배출기문 지어감화기도 계왕개래
 有補於現下匡風正俗之資. 而未得俎豆之典. 湖南儒論相
유보어현하광풍정속지자 이미득조두지전 호남유론상
 應. 追配於梧岡祠之意. 甚幸幸事. 惟願諸章甫. 敬奉勉旃
응 추배어오강사지의 심행행사 유원제장보 경봉면전

壬申三月上浣 成均館長 金敬洙
임신삼월상완 성균관장 김경수

석연정공오강사 봉안답통문

이제 전라남도 곡성향교 통고문을 살펴본 즉 관내 석곡면 연반리의
 석연 정공 대현은 계통이 나주에서 나오고 충열공 휘 윤종의 후예요
 돈녕부도정 휘 문교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타고난 재주로 일찍 가정의
 교훈을 익히고 천성이 본래 진실한 효자여서 아버지의 뜻과 몸을 섬겼다.

최면암 선생을 스승으로 좇아 마음에 대경과 대의를 얻고 의병의 장소에 따라가 큰 뜻을 이루려고 했으나 어머니 병환이 위급함으로 인하여 그 뜻을 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병을 간호했다. 끝내 경술 극치를 당하여 이를 갈며 마음을 씩히고 왜놈을 물리치고 나라 구할 계책을 모의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겨우 회생하고 초가집 여막에서 기거하면서 그 액호를 쓰길 “채산재”라 하고 도를 강하길 게으르지 않고 사람 가르침을 싫어함이 없이 후배를 양성하니 빈빈한 선비들이 그 문하에서 배출되었다. 그 도를 감화시키는데 이르러선 지나간 이를 이르고 오는 이를 깨우쳐 오늘날 풍기를 강정하고 풍속을 바로 세우는 자료에 보탬이 있었으나 사우에서 제사지내는 은전을 얻지 못했는데 호남 유림의 논의가 서로 오강사에 추배할 뜻으로 응하니 심히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니 오직 바라건데 모든 선비들은 공경하게 받들기에 힘쓸지어다.

임신 3월 상순 성균관장 김경수

石蓮丁先生梧岡祠配享奉安文

석연정선생오강사배향봉안문

石蓮丁先生.生于儒家.詩書世業.自幼刻苦.羣經涉躐.淵
 석연정선생 생우유가 시서세업 자유각고 군경첩렵연
 松講學.俱往同參.自乙巳後.贅謁勉菴.德行爲本.文藝爲
 송강학 구왕동참 자을사후 지알면암 덕행위본 문예위
 末.專務實踐.不事著述.薰陶德性.涵養氣質.想公儀像.雲
 말전무실천 불사저술 훈도덕성 함양기질 상공의상운
 鶴松月.採山齋立.開門納徒.朝晡唯喏.一方垂模.築亭相
 학송월 채산재입 개문납도 조포유야 일방수모 축정상
 宜.和樂且湛.卷中閒日.林下清談.跡公平生.樂在安貧.大
 의화락차담 권중한일 임하청담 적공평생 낙재안빈대

可善俗. 小可淑身. 教導攸暨. 鄉風丕變. 後死設壇. 籩豆有
 가 선 속 소 가 속 신 교 도 유 기 향 풍 비 변 후 사 설 단 변 두 유
 薦. 爰及今春. 衆議齊發. 瞻彼梧岡. 師弟同苾. 多士駿奔. 虔
 천 원 금 금 춘 중 의 제 발 첨 피 오 강 사 제 동 필 다 사 준 분 건
 奉清酌. 來假來饗. 無疆降福
 봉 청 작 내 격 내 향 무 강 강 복

癸酉驚蟄節 羅州 羅鉀柱 撰
 계 유 경 칩 절 나 주 나 갑 주 찬

석연정선생오강사배향봉안문

석연 정선생은 유가에서 태어나니 시서를 대대로 업으로 했다. 어려서 부터 비상한 노력으로 경서를 두루 읽고 송연재와 기송사께서 강학하 는데 같이 가서 동참하였고 을사 후로부터 폐백으로 최면암을 뵈옵고 덕행으로 근본을 삼고 문예는 끝으로 삼아 오로지 실천에 힘쓰고 저 술은 일삼지 않았다. 덕성으로 사람을 교화하고 기질을 함양하였네. 공의 의상을 상상하니 구름 위의 학이요 술 위의 달이다.

채산재를 세우고 문을 열어 학도들을 맞아 드렸네. 아침저녁으로 공손히 대답하니 한 지방에 모범을 드렸네. 상의정을 지어 화락하고 또 즐기니 책속의 한가한 날이요 숲 아래 맑은 담화다. 공의 평생 발자취는 즐거움이 안빈에 있었으니 크게는 가히 풍속을 선하게 하였고 적게는 가히 몸을 맑게 했네. 교도의 미친 바에 고을 풍속을 크게 변화시켰다.

죽은 뒤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 지내다가 올 봄에야 여러 사람의 논의가 함께 발의되어 저기 우러러 보이는 오강사에 스승과 제자를 같이 제사 지내기로 하고 다사들이 서둘러 정성스럽게 맑은 술을 받드오니 오셔서 흠향하시고 무궁한 복을 내려주소서.

계유 경칩절 나주 나갑주 지음

나라 안에 가득하였다. 그러한 先生의 勞苦에도 끝내 나라는 國權
 을 喪失했다. 乙巳勒約(1905)에 決死反對하는 의병대장이 되었
 으나 戰爭에 敗한 先生은 倭兵에 끌려가 對馬島에 拘留되었다.
 倭兵의 물 한모금, 쌀 한 톨인들 먹을 수 없다면서 斷食으로 抗拒하
 다가 끝내는 病이 나 殞命하였으니 千秋의 恨을 어떻게 풀 수 있으
 라. 함께 義兵에 參與했던 省菴, 攄軒, 石蓮先生은 先生과 함께
 殉國은 못했지만 온갖 수모와 苦草를 겪으며 朝鮮 義兵으로서의
 氣概를 한 치도 굽힌 적이 없었다. 省菴 先生의 發議로 勉菴 先
 生의 位牌를 모신 祠宇가 創建된 이래 民族의 受難史와 함께
 梧岡祠 또한 悲運의 受難을 겪어야 했다. 1921年 倭警이 強制
 로 祠堂을 毀撤하자 弟子들과 鄉儒들의 抗拒로 그 다음 해인
 1922年 祠堂은 다시 세워졌다.

1937年 마침내 두 번째로 祠堂이 強制로 毀撤되자 省菴 先生은
 鬱憤을 참지 못해 목을 매어 自決하는 悲運을 맞아야 했다. 스승
 은 나라를 위해 殉國하고 弟子는 스승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름답
 고 빛나는 歷史가 梧岡祠에서 일어났다. 正義와 眞理는 끝내 이기
 고 만다. 마침내 1945年 祖國은 光復을 맞고 1946年 弟子들과 儒林
 들의 뜻을 모아 祠堂은 다시 세워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는 사
 이 1954年 省菴 先生이 追配되고, 1956年 攄軒 先生과 1993

石蓮丁先生事蹟錄

年石蓮先生이 追配되어 한 스승에 세 弟子가 祭享을 받게 되었
년 석연 선생 추배 제자 제향
 다. 스승은 殉國하고 나라는 亡해 버린 悲慟한 時節 스승의 뜻을
순국 망 비통 시절
 이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고 民族解放을 맞으려던 세 弟子의
민족 해방 제자
 愛國心과 獨立精神은 또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省菴 趙愚植
애국심 독립정신 성암 조우식
 先生은 忠獻公 趙元吉 先生의 後孫으로 玉川人이다. 젊어서부
선생 충헌공 조원길 선생 후손 옥천인
 터 慷慨 한 마음과 큰 뜻을 지녔고 膂力이 過人하여 큰 인물로 우
강개 여력 과인
 러러보는 사람이 많았다. 儒學에 高明하여 勉菴의 門下에서 受學
유학 고명 면암 문하 수학
 한 뒤에는 學問과 義氣가 함께 높아 義兵活動에 기등 役割을 하
학문 의기 의병활동 역할
 였다. 祠宇 建立과 勉菴集 刊行에도 主導的으로 일하여 弟子로서
사우 건립 면암집 간행 주도적 제자
 의 職分을 다하여 스승 곁에 配食함은 當然한 일이다. 拜軒 趙泳
직분 배식 당연 배현 조영
 善 先生 또한 忠獻公의 後孫으로 타고난 資質이 英特하고 才器
선 선생 충헌공 후손 자질 영특 재기
 가 明敏하여 일찍부터 學問도 높고 義氣도 뛰어 났는데 勉菴의 門
명민 학문 의기 면암 문
 下에서 受學한 뒤에는 더욱 德行이 높아졌다. 스승의 義兵活動에
하 수학 덕행 의병활동
 同參하여 大義를 天下에 떨쳤으니 스승의 祠堂에 追配함은 참으
동참 대의 천하 사당 추배
 로 뒤편한 일이다. 石蓮 丁大暉 先生은 羅州人으로 忠烈公 丁
석연 정대현 선생 나주인 충렬공 정
 允宗 先生의 後孫으로 어려서부터 氣宇가 秀傑하고 動止가 有度
윤종 선생 후손 기우 수결 동지 유도
 하여 큰 인물로 期約되었다. 勉菴의 門下와 松沙 奇宇萬 先生과
기약 면암 문하 송사 기우만 선생
 淵齋 宋秉璿 先生의 門下에서 두루 學問을 익혀 學德이 높았으며,
연재 송병선 선생 문하 학문 학덕
 勉菴 先生과 함께 義兵에 參與하였으니 스승의 祠堂에 함께 血
면암 선생 의병 참여 사당 혈

食君子로 配享함은 古禮에도 맞는 일이다. 勉菴 先生과 省菴
식 군 자 배 향 함은 고례 면암 선생 성암
 拜軒 石蓮 先生의 學德과 忠義精神을 기리려는 南州 儒林들
배 현 석 연 선생 학 덕 충 의 정 신 남 주 유 림
 의 精誠은 至極하기 그지없다. 石蓮 先生의 肖孫 丁宗杓翁은
정 성 지 극 석 연 선생 초 손 정 종 표 용
 노인인데 멀리 서울까지 찾아와 錫武 또한 勉菴 先生의 淵源家
석 무 면암 선생 연원가
 後孫임을 想起시키며 廟庭碑文을 請託하였다. 글 못하는 부끄러움
후 손 상 기 묘 정 비 문 청 탁
 을 免할 길이 없지만 淵源世誼를 저버리지 못해 네 賢人들의 義烈
면 연원세의 현인 의열
 과 祠宇의 內歷을 記述하여 梧岡祠廟庭碑文으로 礎한다.
사 우 내 렷 기 술 오 강 사 묘 정 비 문 초
 山高水長한 血食君子들의 忠義와 德行을 崇慕하는 後人들이 많
산 고 수 장 혈 식 군 자 충 의 덕 행 숭 모 후 인
 이 나와 우리나라가 外勢에 시달림 없이 統一國家를 이루고 國泰
외 세 통 일 국가 국 태
 民安의 平和로운 나라로 發展하기를 祈願해 마지않는다.
민 안 평 화 발 전 기 원

2019年 1月 高山書院 院長 前 國會議員 朴錫武 謹撰
년 월 고 산 서 원 원 장 전 국 회 의 원 박 석 무 근 찬

石蓮丁先生梧岡祠配享由來

석 연 정 선생 오 강 사 배 향 유 래

先生께서 苛酷한 倭政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단발령, 창씨개명에
선 생 가 혹 왜 정
 불응하며 우리나라 법도를 지키면서 義롭게 살아온 높은 德을 받들어
의 덕
 一九四七年 정해에 門人이 設契하여 이름을 採山이라 하고 매년
일 구 사 칠 년 문 인 설 계 채 산
 십월 십오일 先生의 誕辰日에 望峯臺에서 講學하여 오던 중
선 생 탄 신 일 망 미 태 강 학
 一九五八年 무술에 先生이 逝去하자 문인의 합의로 십월 십오일
일 구 오 팔 년 선 생 서 거

石蓮丁先生事蹟錄

靈位에서 行祀함.

영 위 행 사

一九六〇年 경자 봄에 門人의 합의로 十月 十五日 相宜亭에
일 구 육 십 년 문 인 십 월 십 오 일 상 의 정

設位하여 行祀함.

설 위 행 사

一九六二年 임인에 門人과 儒林의 공론으로 相宜亭 위에
일 구 육 이 년 문 인 유 림 상 의 정

設壇하여 三月 二十日 釋菜의 禮로 行祀함.

설 단 삼 월 이 십 일 석 채 예 행 사

一九六六年 丙午에 祭日을 변경하여 매년 陰歷 三月 十日에
일 구 육 육 년 병 오 제 일 음 력 삼 월 십

釋菜의 禮로 行祀함.

석 채 예 행 사

谷城儒林의 공론에 의거 光州 羅州 全州 南原 四掌管 추천
곡 성 유 림 광 주 나 주 전 주 남 원 사 장 관 추 천

으로 成均館 答通을 받아 一九九三年 계유 三月 中丁日에
성 균 관 답 통 일 구 구 삼 년 계 유 삼 월 중 정 일

勉菴先生祠宇 梧岡祠에 追配하게 되었음.

면 암 선 생 사 우 오 강 사 추 배

石蓮丁先生望美臺碑文

석 연 정 선 생 망 미 대 비 문

此谷城之蓮盤里峙坪峯. 石蓮丁大暉先生望美亭遺墟也.
차 곡 성 지 연 반 리 치 평 봉 석 연 정 대 현 선 생 망 미 정 유 허 야

先生. 庚戌國恥. 悲憤慷慨. 將謀義舉. 事前發覺被逮. 緘口
선 생 경 술 국 치 비 분 감 개 장 모 의 거 사 전 발 각 피 체 함 구

無言. 因酷毒拷問. 至於氣絕. 倭兵撤收後. 纔得復甦. 登望
무 언 인 혹 독 고 문 지 어 기 절 왜 병 철 수 후 재 득 부 소 등 망

美亭. 攄不平之懷. 逮高宗賓天. 時輩有服不服之說. 先生毅
미 정 터 불 평 지 회 체 고 종 빈 천 시 배 유 복 불 복 지 설 선 생 의

然不撓. 倡言持服. 登望美臺. 設位痛哭. 服喪如禮. 攜貳論
연 불 요 창 언 지 복 등 망 미 대 설 위 통 곡 복 상 여 예 휴 이 론

莫敢肆焉.倭政布強力斷髮令.且創氏制.先生不應.隱居採
막감사언 왜정포강력 단발령 차창씨제 선생불응 은거채
 山齋.無償教授後進.不厭不倦.固守節義終世.湖之儒論.
산재 무상교수 후진 불염불권 고수절의 종세 호지유론
 配享于梧岡祠.先生節義操行德業.嘗聞仰慕已久.日慕蓮
배향우오강사 선생절의 조행덕업 상문앙모기 구 일모연
 斯文.訪余書室.吾王考望美亭.崩壞已久.竊恐後日失其
사문 방여서실 오왕고망미정 붕괴이구 절공후일실기
 徵.樹碑云.請碑文.與慕蓮交分情深.不敢辭.依於全南道
징 수비운 청비문 여모연 교분정심 불감사 의어전남도
 誌.谷城鄉校誌及各文獻.略記其實焉
지곡성향교지급각문헌 약기기실언

光復後 再己丑年 菊秋節
광복후 재기축년 국추절

原任成均館副館長 光州全南忠義士顯彰會長
원임성균관부관장 광주전남충의사현창회장

公州 李泳福 謹記
공주 이영복 근기

前成均館典儀 裕堂書藝研究院長 幸州 奇浩仲 敬書
전임성균관전의유담서예연구원장 행주 기호중 경서

建立推進委員長 成均館儒道會全南本部會長 平山 申斗千
건립추진위원장 성균관유도회전남본부회장 평산 신두천

석연선생 망미대 비문

이곳 곡성군 연반리 치평 봉우리는 석연 정대현 선생이 지은 망미정의 유허이다. 선생이 경술국치에 강개비분하여 의거를 도모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되고 함구무언하니 혹독한 고문으로 기절하셨다

왜병 철수 후 겨우 소생하여 망미정에 올라 회포를 풀었다. 고종 빈천에 시배들이 복을 입은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자 선생은 굳세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을 입을 것을 창언하며 망미대에 자리를 정하고 통곡하며 복상을 예와 같이하니 양분란이 없었다. 왜정이 강력하게 펼친 단발령 및 창씨 제도에 선생은 불응하고 재산재에 은거하며 무상으로 교수 후진에

매진하시고 굳게 절의를 지키며 종세하시니 호남유림의 공론으로 오강사에 배향하였다. 선생의 절의 조행덕업을 일찍이 듣고 앙모하였는데 어느 날 모연 사문이 나의 서실로 찾아와 우리 할아버지 망미정이 붕괴된지 오래되어 후일 그 증거를 잊을까 두려워 비를 세우겠다며 비문을 청하였다 모연과 사권 정분이 깊어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전남도지와 곡성향교지 및 각 문헌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사실을 기록한다.

서기 2009년 9월 일

원님 성균관부관장 광주전남 총의사 현창회장 공주 이영복 삼가 기록함
전)성균관전의 유당서예연구원장 행주 기호중 경서함
건립추진위원장 성균관유도회 전남본부장 평산 신두천

石蓮丁先生行狀

석 연 정 선생 행 장

先生の諱는 大睪이요 字는 自冕이며 石蓮은 自號요 姓貫은
선 생 휘 대 현 자 자 경 석 연 자 호 성 관
羅州丁氏다. 上世의 諱 悅은 號가 檜軒인데 大別相都元帥로
나 주 정 씨 상 세 휘 열 호 회 현 대 별 상 도 원 수
平章事에 拜命되고 三傳하여 諱 允宗 檢校大將軍에 太子太
평 장 사 배 명 삼 전 휘 윤 종 검 교 대 장 군 태 자 태
傅로 諡號는 忠烈)이요 諱 公壽는 上將軍門下侍中이요 諱 純
부 시 호 충 열 휘 공 수 상 장 군 문 하 시 중 휘 순
佑는 佐命功臣으로 麗史에 登載된 顯祖요 三傳하여 諱 宗甲은
우 좌 명 공 신 여 사 등 재 현 조 삼 전 휘 종 갑
號가 白隱으로 恭愍王朝에 昭格署令이었는데 國革後 朝鮮太祖
호 백 은 공 민 왕 조 소 격 서 령 국 혁 후 조 선 태 조
께서 召命이 있었으나 不就하고 吉冶隱과 더불어 田里에 돌아
소 명 불 취 길 야 은 전 리
가기로 同盟하여 冶隱은 金烏山으로 들어가고 公은 錦城山下로
동 맹 야 은 금 오 산 공 금 성 산 하
돌아와 林卓과 함께 不僕의 節義를 지켰고 三傳하여 諱 克隆은
입 탁 불 복 절 의 삼 전 휘 국 롱

號가 耻齋로 端宗朝에 大司諫이었는데 端宗遜位 時에 棄官南
호 치재 단종조 대사간 단종순위 시 기관남
 下하여 永平聖德山으로 들어가 杜門自靖하고 端宗께서 昇遐하
하 영평성덕산 두문자정 단종 승하
 심에 三年服을 입고 每年 諱辰을 當하면 寧越을 向하여 痛哭
삼년복 매년 휘신 당 영월 향 통곡
 하고 돌아오니 사람들이 그 곳을 越峴臺라 命名하였는데 羅州
월현대 명명 나주
 官民이 세운 遺蹟碑가 있다. 七世祖 諱 彦奎의 號는 思菴인데
관민 유적비 칠세조 휘 인규 호 사암
 丙子胡亂 때 南漢山城으로 御駕를 모신 功으로 端川府使에
병자호란 남한산성 어가 공 단천부사
 除授되고 高祖 諱는 道一이요 號는 南隱인데 近齋 朴文獻公의
제수 고조 휘 도일 호 남은 근재 박문헌공
 門人으로 南平에서 谷城으로 移居하였는데 學行이 著世하였다.
문인 남평 곡성 이거 학행 저세
 曾祖의 諱는 翊相이요 祖 諱 獻斗며 號는 杜谷인데 隱居行義하
증조 휘 익상 조 휘 헌두 호 두곡 은거행의
 여 世人이 杜谷處士라고 稱했다.
세인 두곡처사 칭

考의 諱는 文教며 또 다른 諱는 碩璜이요 號는 野隱이며 奇
고 휘 문교 휘 석황 호 야은 기
 蘆沙 先生의 門人인데 孝行薦으로 敦寧府都正에 贈職되고 妣
노사 선생 문인 효행천 둔녕부도정 증직 비
 는 淑夫人 全州李氏 信茂의 女로 幽閑靜貞하여 女士의 風이 있
숙부인 전주이씨 신무 여 유한정정 여사 풍
 었다. 先生이 甲申(一八八四) 十月 十五日에 蓮洞本第에서 誕
선생 갑신 십월 십오일 연동본계 탄
 生하니 氣宇가 高傑하고 穎悟가 絶倫하여 自幼로 一動一靜이
생 기우 고걸 영오 절륜 자유 일동일정
 法度가 있어 類輩와 遊戲 時에도 鶴立群鷄의 儀表가 있었다.
법도 유배 유희 시 학립군계 의표
 就學하여선 스승의 督察이 없어도 스스로 科程대로 進陟하여 文
취학 득찰 과정 진척 문
 理가 通透해지니 同僚間에 甲乙을 겨룰 者 없이 經史子集을 涉
리 통투 동료간 갑을 겨를 자 없이 경사자집 섭
 獵하였다. 처음엔 仲父 晚隱公 諱 碩教에게 배우고 未弱冠에 國
렵 중부 만은공 휘 석교 미약관 국
 內長德인 崔勉菴, 宋淵齋, 奇松沙 三先生에게 從遊하며 觀感
내장덕 최면암 송연재 기송사 삼선생 종유 관감

石蓮丁先生事蹟錄

請益者 많았고 書札로 往復하며 難疑를 質正하였다. 집 뒤에
 한 別墅를 짓고 이름을 望峯臺라 하니 戊戌(一八九八)年 봄에 宋
 淵齋 先生이 從學者와 더불어 이 臺에서 講했고 翌年 己亥(一
 八九九)年 봄에는 奇松沙 先生이 이 臺에서 하루 노시니 一方의
 儒風이 振作되었다. 그 후 乙巳(一九〇五)年에 幣帛으로 崔勉
 菴 先生을 뵈고 聖經賢傳을 質疑應答하고 修己治人과 閉邪尊
 聖과 尊華攘夷의 大義를 講論하면서 學問은 實踐窮行이 貴重
 함을 認識하고 詞章的著述에 注力하지 않았다. 丙午(一九〇六)
 年에 崔勉菴 先生의 倡義所에 쫓아가 舉義에 加擔코자 하니
 勉菴先生께서 “丁某는 親患이 危重하다 하니 歸家하여 侍湯하
 라” 고 하시며 “孝가 곧 義이라” 하시므로 命을 받들어 歸家하였
 다. 庚戌(一九一〇) 國耻 以後로 切齒腐心하여 斥倭의 謀議를
 하다가 事前發覺으로 倭兵에 逮捕되어 默秘權을 行事하니 全
 貌를 밝히려는 酷毒한 拷問으로 거의 氣絶함에 村前에 버리고
 갔는데 多幸히 天佑神助로 回生하였다. 氣力이 回復된 後로
 愛蓮亭을 짓고 一二同志와 더불어 술을 나누고 詩를 지으며 慷
 慨悲憤한 懷抱를 풀었다.

高宗께서 昇遐하심에 服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兩論이 孜孜할 때
 先生은 毅然히 뜻을 흔들리지 않고 望峯臺에 올라가 哭位를 設
 置하여 北望痛哭하니 以後엔 服의 有無에 對한 두 가지 論議가

再發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先生의 名聲이 날로 불어나 師表의
 觸望이 洽然히 돌아오니 遠近에서 學徒들이 雲集함에 그 才能
 에 따라 淳淳하게 敎育하고 引導하길 늘도록 게을리 않으니 많은
 人才가 그 門下에서 輩出되었다. 先生이 採山齋에서 起居하시
 며 我東의 傳統的 綱綸과 思想을 굳게 지키면서 後進養成을
 自身의 任務로 여기니 四鄰에서 詩로 贊揚하고 또는 文으로
 稱贊한 文件이 箱子에 넘치므로 門人들이 採山齋 唱酬詩文集
 을 發刊하여 頒布하였다. 先生의 素性이 誠孝篤友하여 愉婉承
 順과 志體兼養으로 아버지를 侍奉하였고 특히 慈堂께서 眼疾로
 十餘年間 戶庭出入을 못하니 百方으로 周旋한 끝에 新藥을 얻
 어 效驗을 보니 모두가 孝誠의 感應이라고 했다. 親喪을 當할
 때마다 昊天罔極의 슬픔으로 거의 滅性之境에 이르렀다. 送終
 之節은 家禮에 準하여 行하고 朔望省墓도 闕하지 않았으며 매
 양 忌祭時에는 散齋와 致齋로 如在之誠을 다 하였다. 또 이우
 石峰 大瑑과 더불어 友愛가 敦篤하여 늦으막에 相宜亭을 짓고 同
 卓連衾하며 塤簾로 湛樂하니 옛날 春津과 君實만이 專美하다
 고 하겠는가. 域中士友가 或은 詩로 或은 文으로 贊揚한 文獻이
 篋筥에 가득했다. 뿐만 아니라 더욱 追遠의 事業에 힘을 쏟아 累
 代의 先山에 石儀와 祭田을 周備하여 香火之節에 餘感이 없게
 하고 族戚間에 依托할 곳 없는 幼孤를 撫育하여 成婚시키고

石蓮丁先生事蹟錄

分產成家한 者도 數三名이다. 孝經과 烈女傳과 四禮便覽과
 內則 中에서 婦女子에게 가장 切實한 部分을 拔萃하여 一冊을
 編製하고 閨範이라고 이름 지어 婦女行動 守則으로 提供하니
 鄉里 各處에서 謄書하여 서로 傳하였다. 戊戌(一九五八)年 七
 月 朔朝에 그 孫 宗杓를 불러 今月 十八日 나의 大歸日이니
 豫知하라고 하시고 吾年이 七十五니 壽도 또한 많다. 그러니 너무
 슬퍼 말라고 하는 그의 儀容이 儼然清秀하여 白鶴在雲格이
 더니 果是 十八日 早朝에 家中을 集會하여 沐浴을 請하고 새
 옷으로 갈아 입을 뒤에 父母 墓所에 永訣人事를 하겠다고 扶腋
 케 하여 望拜의 禮를 마치고 弟 石峰公에게 “내가 죽으면 三日
 을 넘기지 말고 成服하라” 고 命하시고 卽日申時에 易筮하시니
 門人과 士林이 모여서 石谷面 蓮盤里 先考墓下 坤坐之原에
 葬禮 지내고 난 後 喪마가 十餘日을 繼續하니 모두가 先生의
 豫知에 感嘆하였다.

配는 全州崔氏 三淳의 女인데 持身以德하여 女士之風이 있
 었다. 甲申에 生하고 癸丑 四月 七日에 卒하니 墓는 先生墓
 右側에 合兆하고 繼配는 全州李氏 東宇의 女인데 丁酉生이며
 丁巳 正月 二十二日에 卒하니 墓는 先公墓 右側에 合兆하고
 繼配는 咸陽吳氏 基萬의 女인데 和順無違하였다. 壬寅에 生하고
 癸未 正月 二十九日에 卒하니 墓는 先公墓 右側에 合兆이다.

先配崔氏는 생一男一女하니 男은 翼燮이요 女는 靑松 沈景
선 배 최 씨 생 일 남 일 여 남 의 섭 여 청 송 심 경
植 妻다. 翼燮의 一名은 海鵬이요 字는 遠翼이며 號는 南耘인데
식 처 의 섭 일 명 해 봉 자 원 익 호 남 윤
高弦窩 光善의 門人으로 文學이 富瞻하여 遺稿가 刊行되었고
고 현 와 광 선 문 인 문 학 부 섭 유 고 간 행
豐川盧氏 準鉉 女를 娶하니 孝烈碑가 세워졌고 五男二女를
풍 천 노 씨 준 현 여 취 효 열 비 오 남 이 녀
두니 男은 宗杓, 奎赫, 奎重, 奎淳, 奎完이요 女는 延日 鄭京澤
남 종 표 규 혁 규 중 규 순 규 완 여 연 일 정 경택
密陽 朴鍾甲 妻다. 繼配李氏는 無育하고 繼配吳氏는 一男三
밀 양 박 중 갑 처 계 배 이 씨 무 육 계 배 오 씨 일 남 삼
女를 낳으니 男은 洪燮이요 女는 玉川 趙東善, 順興 安正燮,
녀 남 홍 섭 여 옥 천 조 동 선 순 흥 안 정 섭
慶州 金基信 妻다. 洪燮의 字는 洪奇요 號는 秋坡인데 珍原
경 주 김 기 신 처 홍 섭 자 홍 기 호 추 파 진 원
朴氏 泰阡 女를 娶하여 二男四女를 두니 男은 奎文, 奎成이요
박 씨 태 천 여 취 이 남 사 녀 남 규 문 규 성
女는 羅州 羅然和, 慶州 李在亮 妻요 餘 二女는 未笄하다. 曾
여 나 주 나 연 화 경 주 이 재 량 처 여 이 녀 미 계 증
孫은 又鎭, 圭鎭, 允鎭, 仲鎭, 昌鎭, 元鎭, 京鎭, 光鎭, 茂鎭,
손 우 진 규 진 윤 진 중 진 창 진 원 진 경 진 광 진 무 진
甲鎭, 虎鎭, 堂鎭, 一鎭, 三鎭, 乙鎭, 範鎭, 台鎭이요 餘는 어
갑 진 호 진 당 진 일 호 삼 진 을 진 범 진 태 진 여
려서 記錄하지 않는다.
기 록

嗚呼라! 先生이 庭學이 있는 儒門에서 生長하여 淵源이 深
오 호 선생 정 학 유 문 생 장 연 원 심
長한 學問으로 世人이 景仰하는 師表의 位置에서 거저가는 儒
장 학 문 세 인 경 앙 사 표 위 치 유
學을 守護하는 堡壘로서의 役割을 다하면서 남기신 業績은 實
학 수 호 보 루 역 할 다 하 면 서 남 기 신 업績 은 實
로 至大하다. 庚戌國耻와 南北分斷과 六·二五事變 等의 蒼
지 대 경 술 국 치 남 북 분 단 육 이 오 사 변 등 창
桑累變의 逆境속에서도 秉心을 固守하고 儒者의 本分을 지켜
상 누 변 역 경 병 심 고 수 유 자 본 분
孝事父母하고 友于兄弟는 處身의 指標로 하고 衣冠整齊와 謹
효 사 부모 우 우 형 제 처 신 지 표 의 관 정 제 근
獨危坐는 持身의 符로 삼아 晝夜一念을 後進養成에 두고 敎學
독 위 좌 지 신 부 주 야 일 념 후 진 양 성 교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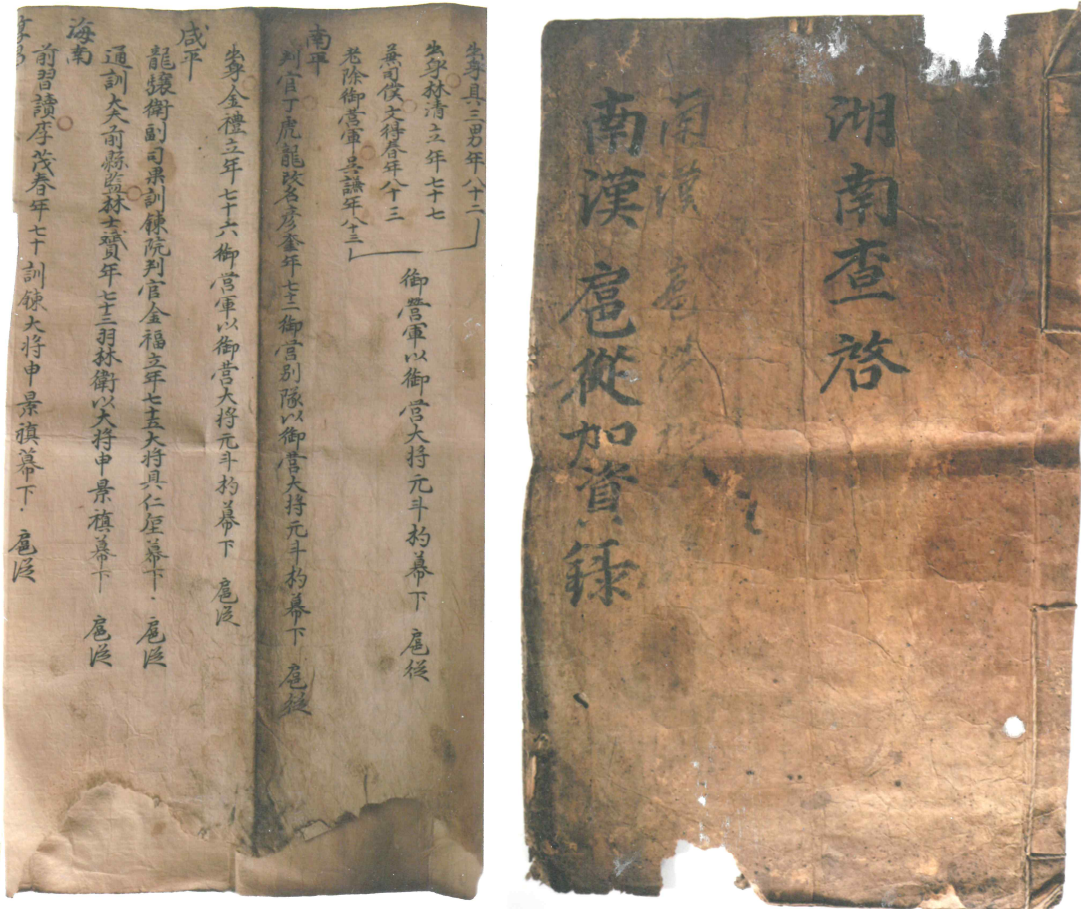
不倦의 精神으로 先儒의 嘉行懿德을 筆寫하여 無償供與하고 孝
불 권 정신 선 유 가 행 의 덕 필 사 무 상 공 여 효
 悌忠信과 精思力踐의 道로 教導하여 浴川一方에 士風이 彬
제 충 신 정 사 역 천 도 교 도 욱 천 일 방 사 풍 빈
 彬하게 振興케 하니 그 清德과 賢勞에 누군들 웃짓을 여미지 않
빈 진 흥 청 덕 현 로
 으리오. 不幸하게 六·二五事變時 遺稿가 燒失되어 重要文字가
불 행 육 이 오 사 변 시 유 고 소 실 중 요 문 자
 淚落된 채 殘餘散稿 若干을 蒐輯하여 辛亥(一九七一年)年 春
누 락 잔 여 산 고 약 간 수 집 신 해 년 춘
 에 刊行하였고 戊辰(一九九〇)年 春에 淵源錄을 刊行하였다.
간 행 무 진 년 춘 연 원 록 간 행
 辛丑(一九六一)年 春에 門人과 士林들이 祭壇을 設置하고 芬
신 축 년 춘 문 인 사 립 제 단 설 치 문
 苾의 禮를 行하다가 癸酉(一九九三)年 春에 梧岡祠에 追配하
필 예 행 계 유 년 춘 오 강 사 추 배
 여 景慕의 禮를 다하고 있다. 日에 先生의 冑孫 宗杓 兄이나
경 모 예 일 선 생 주 손 종 표 형
 에게 家狀을 보이면서 現代文으로 狀德之文인 行狀을 記述해
가 장 현 대 문 장 덕 지 문 행 장 기 술
 주길 請하기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辭讓했으나 宗杓 兄과는
청 사 양 종 표 형
 同庚友라 情誼孔敦할 뿐만 아니라 先生과 吾先子 敏齋先生
동 경 우 정 의 공 돈 선 생 오 선 자 민 재 선 생
 諱 琳相과는 同門淵源이요 또 勉菴先生 主壁의 梧岡祠와 平
휘 임 상 동 문 연 원 면 암 선 생 주 벽 오 강 사 평
 山祠에 各各 配享되어 있어 世誼上 不顧文拙하고 이와 같이
산 사 각 각 배 향 세 의 상 불 고 문 졸
 記錄하였으나 사람의 德을 記述하는 것은 畫工이 사람의 肖像
기 록 덕 기 술 화 공 초 상
 을 그리는 것 같아서 만일 一莖의 터럭이라도 差異가 있으면 다
일 경 차 이
 른 사람이 된다고 하신 程子님의 教訓처럼 先生의 眞面에서 얼마
정 자 교 훈 선 생 진 면
 나 멀게 記錄되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 立言君子의 質訂에
기 록 입 언 군 자 질 정
 一任한다.

丁丑(一九九七) 至月 日 後學 務安 朴穰奎 謹撰
정 축 지 월 일 후 학 무 안 박 양 규 근 찬

附 錄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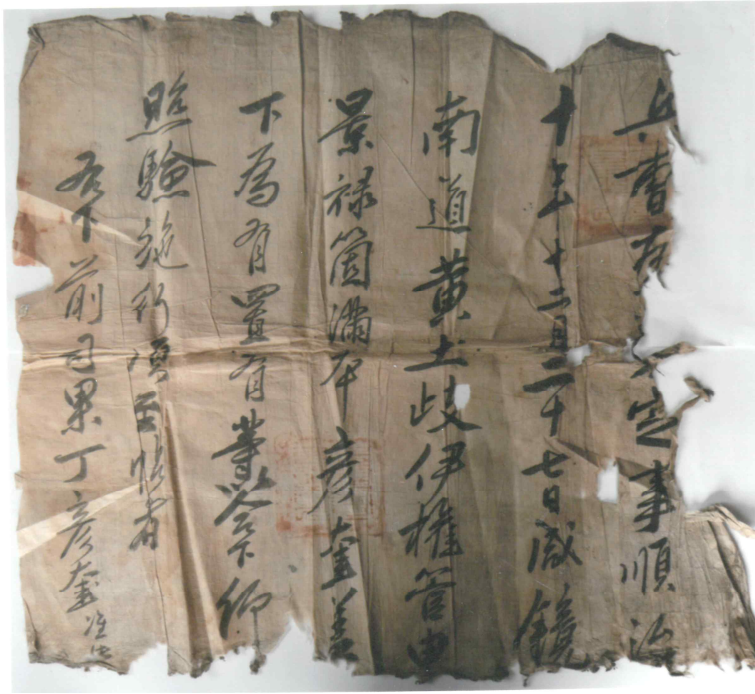
奎彦諱公使府
奎彦諱公使府

錄資加從扈 王祖大仁 亂胡子丙
錄資加從扈 王祖大仁 亂胡子丙



錄資加從扈 時山城南漢避 王祖大仁 亂胡子丙
錄資加從扈 時山城南漢避 王祖大仁 亂胡子丙

祖代七 (大 石) 使府川端官 奎彦諱庵思
祖代七 (大 石) 使府川端官 奎彦諱庵思



府使公(諱彦奎)記績
 부사공휘연규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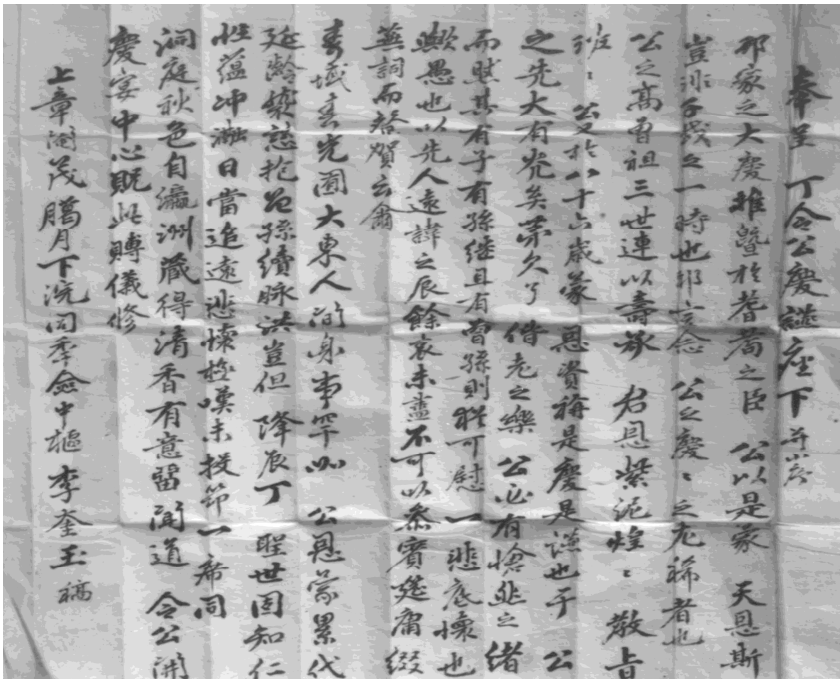
公諱彦奎. 一諱虎龍. 字子震. 號思菴. 羅州丁氏. 大司諫諱克
 공휘연규일휘호용자자진호사암나주정씨대사간휘극
 隆後. 司議諱雲男子. 勇力過人. 智略絕倫. 受業于明齋尹拯
 용후사의휘운남자용력과인지략절륜수업우명재윤증
 先生. 仁祖壬申. 登別試武科. 丙子胡亂. 以軍器寺判官. 與弟
 선생인조임신등별시무과병자호란이군기시판관여제
 縣監諱彦甲. 率五十九伍. 扈從南漢. 累立大功. 特授折衝將
 현감휘연갑솔오십구오호종남한루립대공특수절충장
 軍. 保功將軍. 龍驤衛副護軍. 朝廷嘉之. 賜祿券. 尋除端川府
 군보공장군용양위부호군조정가지사록권심제단천부
 使. 政清治平. 吏民畏服. 立碑頌德. 事載錄券扈從錄. 永平
 사정침치평이민외복립비송덕사재녹권호종록영평
 誌. 全南道誌. 寰輿勝覽. 浴川誌. 現潭陽郡昌平面儒村里. 五
 지전남도지환여승람욕천지현담양군창평면유촌리오
 亂功臣忠義士塔
 난공신충의사탑

부사공 휘 언규 기적

공의 휘는 언규요 일휘는 호용이요 자는 자진이요 호는 사암이니 나주 정씨라 대사간 휘 극음 후요 사의 휘 윤남 자라 용력이 과인하고 지략이 절륜하며 수업우 명재 윤증 선생하다 인조 임신에 별시무과하고 병자 호란에 구기시판관으로 아우 현감 휘 언갑과 솔 오십구오하여 호종 남한 하여 여러번 대공을 세우니 절충장군 보공장군 용양위부호군에 특별히 제수하였다. 조정에서 아름답게 여기어 녹권을 내리고 단천부사에 제수 하였다. 맑은 정치로 공평하니 관민이 외복하여 입비송덕하다. 이 기록은 녹권 호종록 영평지 전남도지 환여승람 옥천지와 현 담양군 창평면 유촌리 오란공신 증의사탑에 실려있다.

狀 燕 慶 佐 夢 諱 公 知 同

장 연 경 좌 몽 좌 공 휘 동 지



同知公諱夢佐慶燕狀李奎玉稿 (石蓮公五代祖)
 동 지 공 휘 몽 좌 경 연 장 이 규 옥 고 석 연 공 오 매 조

동지공 휘 몽좌 경연장

서계정령 2품 이상 공의 경연좌하에 글을 받들어 올리면서
(겸하여 소서를 씀)

방가의 큰 경사가 늙은 90세의 신에까지 미루어 미치게 됨에 공이 이로써 천은을 무릅썼으니 이 어찌 천재만에 한번 있는 때라 아니하겠는가. 생각 하건데 공의 경사는 경사 중에도 더욱 드문 경사라 하겠다.

공의 고증조는 3세가 연연하여 장수로서 군은을 이어 품모가 황황히 빛나고 교지가 반반히 내려졌으며 공은 또 86세로 은자를 무릅썼으니 이 경사와 이 연차를 공의 선대에 대해서도 크게 빛남이 있다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다가 부부해로의 낙을 길이 누리지 못하므로 공께서 창연스러운 한 구석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그 자식을 두고 손자를 두고 또한 이어갈 증손을 두었으니 오히려 한 구석의 저 슬픈 회포를 위로받을 수 있다 하겠다. 우 본인은 선인의 휘일을 맞이하여 아직도 애훼의 마음이 그치지 않아 가히 빈객들의 모이는 경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에 무사를 얹어 영공의 빛난 경연을 칭찬하고 축하드립니다. 수역의 봄빛이 대동에 빛나는데 인간의 즐거운 일이 공 같은 분이 드물도다. 천은을 누대에 무릅쓰니 연령의 연장을 승습했고 자애로움으로 증손을 안으니 혈맥의 연속함이 넓도다. 어찌 다만 태어난 때가 성세만을 만났다고 하리오. 참으로 어진 성품의 맑고 평화로움을 쌓았도다. 이 몸은 선인의 휘일을 당하여 비회가 끝나지 않으니 지팡이 짚고 공의 즐거운 경연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네. 동정호의 가을빛이 삼신산으로부터 찾아와서 맑은 향기가 집짓 주인의 뜻을 알아 머무른 것 같구려. 들리는 소식에 영공께서 경연을 열었다 하니 마음속으로 이 글을 주어 부의의 예를 닦고저 하오.

경술년 단기 4123년 서기 1790년 음력 12월 하순

동년첨지증추 이규옥 삼가 씀

嘉善大夫同知中樞府使羅州丁公諱夢佐墓表
가 선 대 부 동 지 중 추 부 사 나 주 정 공 휘 몽 좌 묘 표

此卜谷城之石谷面蓮洞村庚坐原之墓。故嘉善大夫同知中樞
차 북 곡 성 지 석 곡 면 연 동 촌 경 좌 원 지 묘 고 가 선 대 부 동 지 중 추
 羅州丁公之攸藏也。公諱夢佐。字聖則。號書溪。生于朝鮮肅宗
나 주 정 공 지 유 장 야 공 휘 몽 좌 자 성 즉 호 서 계 생 우 조 선 숙 종
 乙酉十一月十五日。所居羅州之南平面書山里。就學于陶庵李
을 유 십 일 월 십 오 일 소 거 나 주 지 남 평 면 서 산 리 취 학 우 도 암 이
 先生繹門下。先生見公天資之溫雅。儀度之端正。愛獎備至。公
선 생 재 문 하 선 생 견 공 천 자 지 온 아 의 도 지 단 정 애 장 비 지 공
 篤學力行。士類推重。英宗丙午。以耆老推恩。除嘉善大夫折衝
득 학 력 행 사 유 추 중 영 종 병 오 이 기 로 추 은 제 가 선 대 부 절 충
 將軍同知中樞府使。正祖戊申。移居谷城之蓮洞。至辛亥十一
장 군 동 지 중 추 부 사 정 조 무 신 이 거 곡 성 지 연 동 지 신 해 십 일
 月十日。偶以奇疾不起。得年八十七。初葬于谷城之如雲陰地
월 십 일 우 이 기 질 불 기 득 년 팔 십 칠 초 장 우 곡 성 지 여 운 음 지
 酉原。後移葬于今地。公事行載永平誌及浴川誌。配位貞夫人。
유 원 후 이 장 우 금 지 공 사 행 재 영 평 지 금 옥 천 지 배 위 정 부 인
 濟州梁氏。父諱時聖。祖諱應河。癸未三月五日生。戊午正月九
제 주 양 씨 부 휘 시 성 조 휘 응 하 계 미 삼 월 오 일 생 무 오 정 월 구
 日卒。別窆于南平之金堂里周枝峯先山下子坐原。育三男二
일 졸 별 편 우 남 평 지 금 당 리 주 지 봉 선 산 하 자 좌 원 육 삼 남 이
 女。男長道一。字德章。號南隱。朴近齋門人。以學行聞。次道義。
너 남 장 도 일 자 덕 장 호 남 은 박 근 재 문 인 이 학 행 문 차 도 의
 字德寬。號竹隱。次道臣。字德敏。同知中樞。婿金振玉李東臣。
자 덕 관 호 죽 은 차 도 신 자 덕 민 동 지 중 추 서 김 진 옥 이 동 신
 嗚呼。今踞公之世。已三百有餘年矣。子孫繁庶。克守家風。儼爲
오 호 금 거 공 지 세 기 삼 백 유 여 년 의 자 손 번 서 극 수 가 풍 엄 위
 南中巨族。考其先世則。唐大陽君諱德盛。始自唐朝東來。爲丁
남 중 거 족 고 기 선 세 족 당 대 양 군 휘 덕 성 시 자 당 조 동 래 위 정
 氏初祖。時新羅文聖王十五年癸酉也。忠勳封君。繼以名卿碩
씨 초 조 시 신 라 문 성 왕 십 오 년 계 유 야 충 훈 봉 군 계 이 명 경 석
 德。閥閱相承。至高麗有諱允宗。爲檢校大將軍。上柱國太子太
덕 별 열 상 승 지 고 러 유 휘 윤 종 위 검 교 대 장 군 상 주 국 태 자 태

傳.諡忠烈.是爲得貫記世之祖.繼而有若曰諱公壽.禦倭有功.
부 시 충 열 시 위 득 관 기 세 지 조 계 이 유 약 왈 회 공 수 어 왜 유 공
 位至侍中.諱純佑.佐命功臣.諱宗甲.官昭格暑令.以麗末節
위 지 시 중 휘 순 우 좌 명 공 신 휘 종 갑 관 소 격 서 령 이 려 말 절
 臣.聞入李朝.諱克隆.端宗朝登科.至大司諫知製教.丙子禍.
신 문 입 이 조 휘 극 용 단 종 조 등 과 지 대 사 간 지 제 교 병 자 화
 棄官蟄居.每當諱辰.痛哭聳身.諱彦奎號思菴.明齋尹拯門人.
기 관 칩 거 매 당 휘 신 통 곡 용 신 휘 언 규 호 사 암 명 재 윤 증 문 인
 仁祖丙子亂.以軍器判官.扈從入功.特除龍驤衛副護軍.移端
인 조 병 자 란 이 군 기 판 관 호 종 입 공 특 제 용 양 위 부 호 군 이 단
 川府使.吏民頌德立去思碑.是爲公祖也.考諱元夏.字汝興.以
천 부 사 이 민 송 덕 입 거 사 비 시 위 공 조 야 고 휘 원 하 자 여 흥 이
 壽除通政大夫.忠武衛司正.妣淑夫人完山李氏.忠武衛那馨
수 제 통 정 대 부 충 무 위 사 정 비 숙 부 인 완 산 이 씨 충 무 위 나馨
 女.嗚呼.公之先世.其善行美蹟.有如是之富.靈芝有根.醴泉
녀 오 호 공 지 선 세 기 선 행 미蹟 유 여 시 지 부 영 지 유 근 예 천
 有源.豈不信哉.余三歎而爲之書.凡諸昆裔.宜圖克承而勉之
유 원 기 불 신 재 여 삼 탄 이 위 지 서 범 제 곤 예 의 도 극 승 이 면 지
 哉
재

韓光復六十八年壬辰 正月 日 星州 李栢淳 撰
한 광 복 육 십 팔 년 임 진 정 월 일 성 주 이 백 순 찬

가선대부동지증추부사나주정공휘몽좌묘표

이곳 곡성의 석곡면 연동 뒷산 경좌 명당 묘는 고가선대부 동지증추인
 나주정공이 영면한 곳이다. 공의 휘는 몽좌 자는 성척 호는 서계니 조선
 숙종 을유년에 나주군 남평면 서산리에 출생하여 도암 이재 선생 문하
 에 취학할 때 선생이 공의 천자가 온화하며 의도가 단정함을 보고 심히
 사랑하며 권면하였더니 공이 독실역행하여 사림이 추증하였다.

영조 병오에 기로로 추은하여 가선대부 절충장군 동지증추부사에 제수
 되고 정조 무신에 곡성 연동에 이거하여 신해년에 기질로 별세하니 향년
 87세라. 곡성 여운 읍지 유좌에 초장하고 뒤에 차지로 이장하니 사행이

영평지 및 옥천지에 등재되었다. 배위 정부인은 제주양씨니 부는 시성이며 조는 응하라. 계미년 생하고 무오년 졸하니 나주시 남평면 금당리 주지봉 선산하 자좌에 안장되었다. 3남 2녀를 길렀으니 장남 도일의 자는 덕장 호는 남은이니 박근재 문인으로 학행이 나타났고 차남 도의의 자는 덕관 호는 죽은이요 3남 도신의 자는 덕민이니 동지중추요 사위는 김진옥 이동신 이라. 아! 공공의 재세가 거금 300여년이라. 자손이 번창하고 가풍을 지켜서 공경스러이 남주의 거족이 되었으니 그 선세를 고찰하면 당 대양군 휘 덕성이 자당동래하여 정씨가 비롯되었다. 그 때가 신라 문성왕 15년이니 충훈봉군 명경송덕이 상승하여 문벌이 혁혁하였다. 고려에 이르러 휘 윤종은 검교대장군 상주극래자태부로 시는 총렬이니 득관기세지조라. 재전하여 휘 공수는 왜적을 막아 공을 세워 시중에 이르고 휘 순우는 좌명공신이요 휘 종갑은 소격서령이니 고려말 절신으로 저문하였다. 조선에 들어와 휘 극음은 단종조에 등과하여 대사간지제교에 이르고 병자화에 기관칩거하며 매양 단종 기신을 당하면 종신토록 통곡하였고 휘 언규 호 사암은 명제 윤증 선생 문인이니 인조 병자란에 군기판관으로 시종하여 공을 세움으로써 용양위부호군에 특배 되었다가 단천 부사로 이임하자 이민이 송덕하여 거사비를 세웠으니 공의 조부이다. 고 휘는 원하 자는 여흥이니 수로 통정대부 총무위사정이요 비 숙부인은 완산이씨 총무위 휘 나형의 여라. 슬프다. 공의 선세에 선행미적이 이와 같이 훌륭한 영지는 뿌리가 있고 예천은 근원이 있음을 어찌 믿지 아니하라. 내 삼탄하고 이 표문을 쓰노니 모든 후손은 마땅히 계승할 것을 도모하여 힘쓸지어다.

광복 서기 2012 년 임진 정월
광산 김영웅 역, 성주 이백순 찬

杜谷處士丁公行狀
두곡처사정공행장

範於杜谷丁公. 竊謂未面而見心. 古語曰不見其山. 願見其
 범어 두곡정공 절위 미면이견심 고어 왈 불견기산 원견기
 木. 範南行之路. 廁門屏之. 未見其木美. 忖其山高. 且於士
 목 범남행지로 측문병지 미견기목미 촌기산고 차어사
 大夫. 耳之稔矣. 敢信耳而保之以見心也. 公之令孫大暉. 奉
 대부 이지임의 감신이이보지이견심야 공지형손대현 봉
 家狀而來. 謬屬於範矣. 公諱獻斗. 字誠七. 羅州氏. 系出高
 가장이래 류속어범의 공휘헌두 자성칠 나주씨 계출고
 麗. 檢校大將軍諱允宗二十五代孫也. 洎乎我朝. 顯祖文章
 려 검교대장군휘윤종이십오대손야 계호아조 현조문장
 道德. 昭載史冊. 諱彥奎. 丙亂功臣. 官至端川府使. 子諱元
 도덕 소재사책 휘언규 병란공신 관지단천부사 자휘원
 夏. 官通政大夫. 孫諱夢佐. 官同知. 曾孫南隱公. 諱道一之
 하 관통정대부 손휘몽좌 관동지 증손남은공 휘도일지
 孫. 考諱翊相之第三子也. 妣綾城具氏鳳格之女. 公生于谷
 손 고휘익상지제삼자야 비능성구씨봉격지녀 공생우곡
 城石谷面蓮洞里第. 純廟壬戌四月四日也. 自幼有異質. 氣
 성석곡면연동리제 순묘임술사월사일야 자유유이질기
 宇軒昂. 資稟凝重. 年甫八九. 晨定昏省. 一依小學. 及長. 天
 우현앙 자품응중 년보팔구 신정혼성 일의소학 급장천
 竅幼通. 器畧宏遠. 不可與俗例常調同一論也. 州閭士大夫.
 규유통 기약굉원 불가여속례상조동일론야 주려사대부
 見其孝友自勉之誠. 隨事處義之行. 至於平居. 少無懈怠之
 견기효우자면지성 수사처의지행 지어평거 소무해래지
 容. 接人益有謙遜之能. 莫不稱嘆. 隣里亦爲之觀感. 其後世
 용 접인익유겸손지능 막불칭탄 인리역위지관감 기후세
 居本坊. 棲遲蓮峯之下. 始構精舍. 因以自號曰杜谷. 愛其山
 거본방 서지연봉지하 시구정사 인이자호왈두곡 애기산
 水之深邃. 泉石之瀟灑. 且沼魚田雉別樣. 甘旨日供. 親廚以
 수지심수천석지소쇄 차소어전치별양 감지일공 친주이
 盡孝思. 時以嘉言善行. 訓誨於家庭之間. 松竹梅菊. 雜蒔于
 진효사 시이가 언선행 훈회어가정지간 송죽매국 잡시우

庭砌.以寓清趣.逍遙於其間.自分爲聖代遺逸民矣.于時雙
 정 체 이 우 청 취 소 요 어 기 간 자 분 위 성 대 유 일 민 의 우 시 쌍
 親年皆耄耄.焦心慮.恐或違撰.柔聲婉容.以丞愼爲.丁
 친 년 개 모 질 초 심 려 공 혹 위 섭 유 성 완 용 이 승 순 위 정
 亥.考以宿患猝斃.煎粥侍湯.衣不解帶.足不正履.晨昏進
 해 고 이 숙 환 졸 각 전 죽 시 탕 의 불 해 대 족 부 정 이 신 혼 진
 獻.終未售誠.晝夜禱天.願以身代.誠之所格.天必有感.而
 헌 종 미 수 성 주 야 도 천 원 이 신 대 성 지 소 격 천 필 유 감 이
 沉淪轉綿.奄至不佑.未幾丁內艱.送終百事.盡制而奉行.
 침 잠 전 변 엄 지 불 우 미 기 정 내 간 송 종 백 사 진 제 이 봉 행
 其仁孝敦睦之道.公平精密之義.鄉里莫不歎賞.聖上卽祚
 기 인 효 돈 목 지 도 공 평 정 밀 지 의 향 리 막 불 탄 상 성 상 즉 조
 十五年戊寅五月四日.以天年終.享年七十七.衰事於本縣
 십 오 년 무 인 오 월 사 일 이 천 년 종 향 년 칠 십 칠 쇠 사 어 본 현
 石谷面天皇峯下積泊洞負庚之原.其藏也.配興德張氏忠
 석 곡 면 천 황 봉 하 적 박 동 부 경 지 원 기 장 야 배 흥 덕 장 씨 충
 獻公貞弼后.錫圭之女.早卒.墓公墓合兆.有一男諱燁教.
 헌 공 정 필 후 석 규 지 녀 조 졸 묘 공 묘 합 조 유 일 남 휘 업 교
 繼配慶州金氏樹隱公冲漢后.諱墁之女.甚有婦德.有二男.
 계 배 경 주 김 씨 수 은 공 충 한 후 휘 만 지 녀 심 유 부 덕 유 이 남
 長碩教.次文教盧光輔吳致基二婿.外內孫不盡錄.公后十
 장 석 교 차 문 교 노 광 보 오 치 기 이 서 외 내 손 불 진 록 공 후 십
 一年戊子八月二十四日卒.壽六十九.墓公之墓合兆.令孫
 일 년 무 자 팔 월 이 십 사 일 졸 수 육 십 구 묘 공 지 묘 합 조 령 손
 大覲.懼其事蹟之泯沒無傳.要以一言狀之.範乃忘拙.謹据
 대 현 구 기 사 적 지 민 몰 무 전 요 이 일 언 장 지 범 내 망 졸 근 거
 家狀.不敢剛正.竊附所聞.撮其大要如右

歲強圍闕菊秋上浣前進士愚齋鄭範 謹識
 세 강 위 알 국 추 상 완 전 진 사 우 재 정 범 근 지

두곡처사정공행장

범이 두곡 정공에 대하여 그윽히 씬지는 못하였지만 마음만은 보았
 다고 말할 수 있다. 옛말에 말하기를, “그 산은 보지 못하나 그 나무는

보기를 원한다” 하니 범이 남쪽으로 가는 길에 문 앞을 지나다가 그 나무가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산의 높음을 헤아렸고 또 사대부들에게 귀로 익히 들었는지라 감히 귀로 들음을 믿고 그 마음을 보았다고 하노라. 공의 영손 대현이 가장을 받들고 와서 자못 나에게 부탁하였다.

공의 휘는 현두요 자는 성철이니 나주정씨 고려검교대장군 휘 윤종의 25대손이다. 조선에 이르러 현조의 문장도덕이 사책에 소재하니 휘 언규는 병란공신으로 관이 단천부사에 이르렀으니 자 휘 원하는 관이 통정대부며 손의 휘 몽좌는 관이 동지니 손이요 증손 남은공 휘 도일의 손이요 고 휘 익상의 제 3자라. 비는 능성주씨 봉격의 따님이다. 공을 곡성군 석곡면 연동리 집에서 낳으니 순종 임술 4월 4일이라. 어려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어 기운이 높고 몸가짐이 신중하였다.

나이 겨우 8·9세에 신정훈성을 한결같이 소학을 의지하였고 자람에 미쳐서는 기극과 계략이 깊고 커서 보통의 아이들과 크게 달랐다. 고을의 사대부들이 그 효우로 자면하는 정성과 일을 함에 의를 따르는 행실과 평상시 거처할 때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는 모습과 남을 대함에 더욱 겸손한 태도를 보고 칭송하지 아니한 이가 없었고 이웃 마을에서도 모두 감동하였다. 그 후로 본 면에서 세거하며 연봉아래 터를 잡아 처음으로 정사를 짓고 인하여 두곡이라 자호하였으니 그 산수의 깊음과 천석의 깨끗함과 소어와 전치의 풍족함을 사랑하였다. 맛있는 음식을 부모님께 받들어 효를 극진히 하였고 때때로 가연과 선행으로 가정에서 훈회하였으며 송죽과 매국을 뜨락에 섞여 심어 맑은 지취로 그 사이에서 소요하면서 태평성대에 유일한 백성이라 하고 지분자족 하였다. 당시에 양친의 연세가 80에 가까운지라 노심초사하여 혹 모시기를 잘못할까 두려워하며 부드러운 음성과 공손한 모습으로 받들었다. 정해년에 아버지의 오랜 병이 갑자기 심해지자 죽을 쫓여 드리고 옷의 띠를 풀지 않았으며 발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조석으로 드리는 음식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다. 주야로 하늘에 기도하여 자신이 대신 애프는 것을 원하니 정성이

지극함에 하늘이 감동하여 병이 조금 차도가 있었는데 얼마 뒤에 상을 당하자 송증지례를 극진히 봉행하였고 또 그 인효돈목의 도와 공평 정밀한 의를 향리가 칭송하였다.

임금이 즉위한지 15년째인 무인 5월 4일에 천명으로 종하니 향년 77세다. 곡성군 석곡면 천황봉 아래 적박동 부경지원은 그 묘요 배 흥덕 장씨는 충헌공 정필의 후손인 석규의 여로 일찍 죽음에 같은 변 여운동 가선공 묘 아래 부경지원에 장사하였다. 1남을 두었으니 휘 엽교다. 계배 경주김씨는 수은공 증한의 후손인 휘 만의 따님으로 매우 부덕이 있었다. 2남을 두었으니 장은 석교 차는 문교며 노광보 오치기는 두 시위다. 외내손은 다 기록하지 못하고 공보다 11년 지난 무자 8월 24일에 졸하니 수가 69세요 공의 묘좌록침곤지천에 장사하였다. 영손 대현이 그 사적이 없어져 전해지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행장을 지어주라고 청하거늘 범이 이에 응졸함을 잊고 삼가 가장에 근거하여 감히 산정하지 않고 그윽히 들은 바를 붙여서 그 대요만을 모아 놓기를 위와 같이 하노라.

정묘 9월 상순에 전 진사 우재 정범은 삼가 기록하노라.

野隱丁公行狀

야 은 정 공 행 장

公諱碩璜. 一諱文教. 字明彦. 號野隱. 丁氏系押海. 押海之
공 휘 석 황 일 휘 문 교 자 명 언 호 야 은 정 씨 계 압 해 압 해 지
丁. 來自中國. 在麗朝有諱悅號檜軒. 以大別相都元帥. 拜平
정 래 자 중 국 재 려 조 유 휘 열 호 회 현 이 대 별 상 도 원 수 배 평
章事. 有諱宗甲. 文科官昭格署令. 累徵不起. 曰安作二姓
장 사 유 휘 종 갑 문 과 관 소 격 서 령 누 징 불 기 왓 안 작 이 성
臣. 遂南下錦城. 終守西山之節. 有諱克隆. 大司諫. 八傳諱
신 수 남 하 금 성 종 수 서 산 지 절 유 휘 극 용 대 사 간 팔 전 휘
彦奎. 有勇略. 當丙子扈從南漢有功. 朝廷嘉之. 賜勳券. 除
언 규 유 용 략 당 병 자 호 종 남 한 유 공 조 정 가 지 사 훈 권 제

端川府使. 生諱元夏. 司僕正. 生諱夢佐. 僉中樞. 生諱道一
 단 천 부 사 생 회 원 하 사 부 정 생 회 몽 좌 첨 중 추 생 회 도 일
 號南隱. 近齋朴胤源門人. 始居于谷城. 子姓仍居焉. 寔公之
 호 남 은 근 재 박 윤 원 문 인 시 거 우 곡 성 자 성 임 거 언 식 공 지
 曾祖也. 祖諱翊相. 考諱獻斗號杜谷. 妣慶州金氏. 父塏. 樹
 증 조 야 조 회 익 상 고 휘 헌 두 호 두 곡 비 경 주 김 씨 부 만 수
 隱冲漢後. 以哲廟己酉八月十九日. 生公于石谷坊蓮洞里
 은 충 한 후 이 철 묘 기 유 팔 월 십 구 일 생 공 우 석 곡 방 연 동 리
 第. 孝友穎慧. 良知愛敬. 家窶不得專工. 或釣或採. 事親盡
 제 효 우 영 혜 양 지 애 경 가 구 부 득 전 공 흑 조 흑 채 사 친 진
 職. 敦友伯仲. 睦婣族戚. 敬信賓朋. 一無虛禮. 親癢憂形于
 직 돈 우 백 중 목 인 족 척 경 신 빈 붕 일 무 허 예 친 제 우 형 우
 色. 湯餌扶持. 暫不離側. 唾洩便尿. 躬親不使家人. 三十丁
 색 탕 이 부 지 잠 불 리 측 타 이 변 뇨 궁 친 불 사 가 인 삼 십 정
 外憂. 四十遭內艱. 哭擗之痛. 幾至滅性. 初終之節. 克遵禮
 외 유 사 십 조 내 간 곡 벽 지 통 기 지 멸 성 초 종 지 절 극 준 예
 制. 朔望展墓. 寒暑不廢. 每當喪餘. 日三齊沐. 雖脯果一楮.
 제 삭 망 전 묘 한 서 불 폐 매 당 상 여 일 삼 제 목 수 포 과 일 접
 躬自奉進. 盡其如在誠. 兄弟之喪. 喪葬凡節. 親自經紀. 撫
 궁 자 봉 진 진 기 여 재 성 형 제 지 상 상 장 범 절 친 자 경 기 무
 養孤姪. 嫁娶出產. 無異己子. 至於親戚憂患疾苦. 極力周
 양 고 질 가 취 출 산 무 이 기 자 지 어 친 척 우 환 질 고 극 력 주
 章. 先墓守護之節. 緬襄之禮. 躬者擔分. 不委於諸族. 傍先
 장 선 묘 수 호 지 절 면 양 지 예 궁 자 담 분 불 위 어 제 족 방 선
 無后之墓. 極誠守護. 省楸無闕. 性且好施. 必先於人而後於
 무 후 지 묘 극 성 수 호 성 추 무 결 성 차 호 시 필 선 어 인 이 후 어
 己. 見寒則推衣衾. 聞飢則推. 務農業出入. 餘穀糴則平. 糴
 기 견 한 즉 추 의 금 문 기 즉 추 무 농 업 출 입 여 곡 적 즉 평 조
 則高. 坊曲多賴而生活. 食報天餉. 竟以孝薦. 通政大夫敦寧
 즉 고 방 곡 다 퇴 이 생활 식 보 천 향 경 이 효 천 통 정 대 부 돈 님
 府都正. 受業于蘆沙奇先生門. 教子姪以義方. 雖他人年小.
 부 도 정 수 업 우 노 사 기 선 생 문 교 자 질 이 의 방 수 타 인 년 소
 諄諄勸學曰. 人不學無以立. 設塾而勸四方來學者. 此足以
 순 순 권 학 왈 인 불 학 무 이 입 설 숙 이 권 사 방 내 학 자 차 족 이
 振衰俗矣. 乙亥春. 詣望菑山. 謁勉菴崔先生. 講學難疑. 多
 진 쇠 속 의 을 해 춘 예 망 신 산 알 면 암 최 선 생 강 학 난 의 다

有獎詡. 及終. 戒門子弟曰. 墳墓. 先祖之所宅. 不可不盡誠
유 장 후 급 종 계 문 자 제 율 분 묘 선 조 지 소 택 불 가 불 진 성
 保守. 文學. 立身行己之方. 不可不務. 汝曹. 慎無妄此言. 己
보 수 문 학 입 신 행 기 지 방 불 가 불 무 여 조 신 무 망 차 언 기
 已正月十四日物. 享年八十一. 葬于本坊蓮洞後麓負坤原.
사 정 월 십 사 일 물 향 년 팔 십 일 장 우 본 방 연 동 후 록 부 곤 원
 夫人全州李氏父信茂. 桃平君后. 有閨範. 墓公墓合兆. 舉三
부 인 전 주 이 씨 부 신 무 도 평 군 후 유 규 범 묘 공 묘 합 조 거 삼
 男一女. 男長大睨號石蓮. 崔勉菴高弟. 峨飾有文學. 次大旭
남 일 녀 남 장 대 현 호 석 연 최 면 암 고 제 아 식 유 문 학 차 대 욱
 礪山宋明凡婿. 次大瑢. 光山金在浩婿也. 長旁孫翼燮洪燮.
여 산 송 명 범 서 차 대 용 광 산 김 재 호 서 야 장 방 손 익 섭 홍 섭
 次旁孫水燮寶燮. 次旁孫日燮星燮. 餘幼. 翼燮袖其大人所
차 방 손 수 섭 보 섭 차 방 손 일 섭 성 섭 여 유 익 섭 수 기 대 인 소
 草事行. 屬狀德於光善. 想不溢美而誣先. 故遂刪略而序次
초 사 행 속 장 덕 어 광 선 상 불 일 미 이 무 선 고 수 산 략 이 서 차
 之. 以俟立言君子考徵焉
지 이 사 립 언 군 자 고 징 언

崑閣逢閣仲秋 長興 高光善 謹述
시 알 봉 업 중 추 장 흥 고 광 선 근 술

야은정공행장

공의 휘는 석황 일휘 문교요 자는 명언이며 호는 양은이다. 정씨는 압해의 계통인데 압해의 정은 중국에서 왔다. 고려조에 휘 열은 별호가 회헌인데 대별상 도원수로 평장사에 배수되고 휘 종갑은 문과로 관이 소격서령이었으나 여러번 조정에서 나오도록 불렀지만 일어서지 않고 이르길 어찌 두 왕조의 신하가 되겠는가 하고 드디어 남쪽 금성으로 내려와 서산(백이 속재의 절개)의 절개를 지키다 일생을 마쳤고 휘 극용은 대사간이며 8대를 내려와 휘 언규는 용맹과 지략이 있어 병자호란을 당하여 왕을 남한산성에서 모셨고 조정에 공이 있어 가상히 여기는 훈장을 주어 단천부사에 제수하였고 그의 아들 휘 원하는 사복정이요 그의 아들

휘 몽좌는 침중추요 그의 아들 휘 도일은 별호가 남은이며 근재 박운원의 문인으로 처음 곡성에 살기 시작하여 자손이 세거하게 되었는데 이 분이 공의 증조이시다. 조부의 휘는 익상이요 아버지 휘는 현두요 별호는 두곡이며 어머니는 경주김씨인데 아버지는 만이요 수은 충한의 후손이다.

헌종 기유 8월 19일에 공이 석곡면 연동리 집에서 낳으니 효도하고 우애하며 영민하고 재주 있었고 본래부터 사랑하고 공경하는 도리를 알았던 분이다. 집안이 가난하여 학문에 전념하지 못하고 혹 뉘시질하고 혹 나물을 캐서 어버이 섬기는 자식의 직분을 다 하였고 백형이나 증형과의 우애가 돈독하였으며 일가 친척간에 화목하고 손님과 벗을 공경과 신의로 대하였으며 한가지도 허례허식이 없었다. 어버이가 병들면 근심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내고 약을 다리고 미음 쓰며 몸을 불드는 일로 잠시도 결을 떠나지 않았으며 침과 콧물을 닦는 것과 대변과 오줌 누이는 일을 몸소 행하고 집안사람에게 시키지 않았다. 나이 서른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마흔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심에 울부짖는 슬픔으로 거의 실성하다시피 했다. 초상과 장례지내는 절차를 예에 따라 행하였고 삭망에 성묘하는 일을 추위와 더위로 폐하지 않고 언제나 제사날을 당하면 날마다 세 번씩 목욕재계하였으며 비록 어포나 과일 하나라도 몸소 봉진하면서 곁에 계시는 듯한 정성을 다 하였다. 형제의 초상에도 초상치고 장례 치르는 모든 절차를 친히 경륜하여 처리했고 여러 조카들을 길러 시집 장가를 보내고 살림을 차려주길 내 자식과 똑같이 하였으며 친척 간에도 우환이나 병고가 있으면 힘을 다하여 두루 보살폈다. 선대의 묘소를 수호하는 일이나 면례(무덤을 옮겨서 다시 묘를 쓰는 일)하는 예절 등을 자신이 담당하여 처리하고 제족들에게 위임하지 않았다. 방조 중 후손이 없는 묘소도 정성을 다하여 수호하고 성묘도 꺾이지 않았다. 성품이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여 반드시 남에게 먼

저하고 자기에게는 뒤에 하였고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보면 옷과 이불을 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음식을 주었고 농사에 힘쓰면서 출입하였다. 남은 곡식을 내 드림에 있어 받아드릴 때는 평승을 썼고 쌀을 밖으로 낼 때는 고승으로 하니 동리에서 모두 신뢰하고 살아가니 하늘이 깊아 복으로 먹어 온 것이다. 마침내 효행으로 추천되어 통정대부 돈녕부도정이 되었다. 노사 기선생의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자질들을 의리로 가르쳤으며 비록 다른 사람의 젊음이라도 지성스럽게 학문하길 권하면서 이르길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설 땅이 없다 하고 서당을 설립하고 사방에서 배우러 온 학도에게 학문을 권장하니 이는 족히 쇠잔해 가는 풍속을 진흥시킴이다. 을해 1878년 봄에 채산(경기도 포천)에 가서 면암 최선생을 뵈고 어렵거나 의심난 점을 배우고 익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죽음에 즈음하여 문자제들을 경계하길, “묘소는 선조의 집이니 정성을 다하여 보존하고 지켜야 하고 학문은 입신양명의 길이니 힘써야 한다. 너희는 삼가하여 이 말을 잊지말라” 하고 기사 1929년 정월 14일에 타계하니 나이가 81세다. 본면 뒷산 곤좌원에 장사 지내다. 부인은 전주이씨이니 아버지는 신무요 도평군의 후예로 규범이 있었다. 묘는 공의 묘와 합조라. 3남 1녀를 두니 장남은 대현인데 호는 석연이며 최면암의 제자로 행실이 우아하고 정재되어 문학의 깊이가 있었다. 차남은 대옥, 대용이요 광산 김재호는 사위다. 큰집 손자는 익섭, 흥섭이요 작은집 손자는 수섭, 보섭, 일섭 성섭이다. 나머지 여리다.

익섭이 그의 부친이 기초한 사적을 가지고 와서 광선에게 행장을 부탁하기에 생각컨대 과찬하여 선조를 속이지 않았으므로 드디어 깎고 덜어내어 차례대로 쓰고 말을 제대로 할 군자가 고증하길 기다린다.

갑술 증추 장흥 고평선 삼가 기록함

野隱丁公孝行碑文
야 은 정 공 효 행 비 문

夫孝貴乎自盡.名成乎闡揚.苟自盡矣.奚須於闡揚乎.顧今
부 효 귀 호 자 진 명 성 호 천 양 구 자 진 의 해 수 어 천 양 호 고 금
天步移躔.橫流滔滔.一點陽脉.不絕如綫者.豈非天彝人紀
천 보 이 천 횡 류 도 도 일 점 양 맥 불 절 여 선 자 기 비 천 이 인 기
者歟.谷郡人士.爲揄揚丁孝子異蹟.鐫貞珉以表閭.徵余以
자 여 곡 군 인 사 위 유 양 정 효 자 이 적 천 정 민 이 표 려 징 여 이
記其事.余雖昏洳於孝子事.爲可辭諸.孝子曰文教.羅州之
기 기 사 여 수 혼 혁 어 효 자 사 위 가 사 저 효 자 왈 문 교 나 주 지
氏.官通政.字明彥號野隱.檜軒公諱悅后.司諫公克隆十三
씨 관 통 정 자 명 언 호 야 은 회 현 공 휘 열 후 사 간 공 극 용 십 삼
世孫.杜谷處士諱獻斗其考也.慶州金氏樹隱公之后塏之
세 손 두 곡 처 사 휘 헌 두 기 고 야 경 주 김 씨 수 은 공 지 후 만 지
女.其妣也.生而性孝怡愉.母或違拂.其天姿之純摯乎也.
녀 기 비 야 생 이 성 효 이 유 무 흑 위 불 기 천 자 지 순 지 호 야
長而事父母.盡志體之養.篤友兄弟.晨昏定省.其藻行之夙
장 이 사 부모 진 지 체 지 양 독 우 형 제 신 혼 정 성 기 조 행 지 숙
著也.侍癘百方調治.願以身代.唾洩便尿.不替於人.及至
저 야 시 제 백 방 조 치 원 이 신 대 타 이 편 뇨 불 체 어 인 급 지
遭艱.攀號擗踊.頓絕方蘇.幾至滅性.泣血三霜.盡禮無憾.
조 간 반 호 벽 용 둔 절 방 소 기 지 멸 성 음 혈 삼 상 진 예 무 감
占吉安窆.寘田栽松.奄遭內艱.哀毀哭泣.一如前喪.朔望
점 길 안 평 치 전 재 송 엄 조 내 간 애 휘 곡 음 일 여 전 상 삭 망
展墓.風雨不尼者.八十年.四代忌日.日三齊沐.脯果祭需.
전 묘 풍 우 불 니 자 팔 십 년 사 대 기 일 일 삼 제 목 포 과 제 수
親自奉獻.其伯氏內外喪.凡百諸具.躬執經紀.撫育孤姪男
친 자 봉 헌 기 백 씨 내 외 상 범 백 제 구 궁 집 경 기 무 육 고 질 남
妹.嫁娶分產.無踰均衡.仲兄無產.迎嫂婚姪.隨事負擔.且
매 가 취 분 산 무 유 균 형 중 형 무 산 영 수 혼 질 수 사 부 담 차
使子姪.不出市場.顧問擔任.諸家所用物品.供給有規.務
사 자 질 불 출 시 장 고 문 담 임 제 가 소 용 물 품 공 급 유 규 무
農治產.幸有餘裕則.糶高糶平.鄉里士女.咸稱寬弘也.其
농 치 산 행 유 여 유 족 조 고 적 평 향 리 사 녀 함 칭 관 홍 야 기

配全州李氏.桃平君后信茂女.持身以德.治家有法.教子義
배 전 주 이 씨 도 평 군 후 신 무 녀 지 신 이 덕 치 가 유 법 교 자 의
 方.遂成大儒.臨終招門子姪曰.墳墓祖先之所宅.不可不盡
방 수 성 대 유 림 종 초 문 자 질 왈 분 묘 조 선 지 소 택 불가 불 진
 心.文學立身之方.不可不務.汝曹毋忘此言.此公之治命
심 문 학 입 신 지 방 불가 불 무 여 조 무 망 차 언 차 공 지 치 명
 也.嗚呼.以公之德之行.未始不闡揚.而綽楔殊典.無地可
야 오 호 이 공 지 덕 지 행 미 시 불 천 양 이 작 설 수 전 무 지 가
 尋.宜鄉人士.慥慥於彝好也.銘曰經殘教弛.天步移躔.誠
심 의 향 인 사 조 조 어 이 호 야 명 월 경 잔 교 이 천 보 이 전 성
 孝竭力.公復何嘆.一有扶綱.耀後光前.片石不磨.過者是
효 갈 력 공 복 하 겸 일 유 부 강 요 후 광 전 편 석 불 마 과 자 시
 欽
흠

上章敦牂春分節上浣

상 장 둔 장 춘 분 절 상 완

崇錄大夫前禮曹判書原任奎章閣提學安東人金宗漢撰
송 륙 대 부 전 예 조 판 서 원 임 규 장 각 제 학 안 동 인 김 종 한 찬

야은정공 효행비문

대개 효도란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데서 귀하게 되고 이름은 세상에 널리 떨쳐지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진실로 자신의 도리를 다 하였다면 어찌 들쳐나갈 기다릴 것인가. 요즘 세상을 돌아 보건데 천운이 쾌도를 벗어나고 멋대로 흐르는 물이 범람하는데 한 점의 양맥이 끊어지지 않고 실날같이 이어지니 어찌 하늘의 떳떳한 법과 사람이 행할 도리가 아닌가. 곡성군 선비들이 정효자의 기적을 끌어 올리어 돌에 새겨 이 선행을 칭찬하고자 나에게 그 사실을 기록하라 하니 내 비록 흥미하지만 효자의 일에 어찌 사양하리요. 효자 이름은 문교요 나주정 씨로 벼슬은 통정대부며 자는 명언이며 호는 야은인데 회헌공 휘 열의 후예로 사간공 즉응의 13세손이요 두곡처사 휘 현두는 그의 부친이며

경주김씨 수은공 후손 만의 따님은 그의 모친이다. 태어나서부터 천성이 효성스러워 온화하고 유순하여 흑시라도 뜻을 거역하지 않았음은 그의 타고난 바탕이 순수함이었고 자라서 부모를 섬기되 뜻과 몸을 봉양하는 정성을 다하였으며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고 밤이면 잠자리를 정하고 새벽이면 안부를 살핌은 그의 조행이 일찍 나타난 것이다. 병을 간호할 때는 백방으로 조리하여 치료하였으며 자신이 대신하여 아프길 원하였다. 침과 콧물을 닦고 대소변 받아내는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다. 부친께서 작고했을 때는 울부짖으며 땅을 치고 발을 구르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하였으나 거의 실성하다 싶이 되었다. 피눈물로 3년동안 예절을 다하여 유감없이 하였고 좋은 명당을 잡아 안장하고 버려둔 밭에 소나무를 심었다. 모친상을 당하여서도 슬퍼하고 울부짖음을 부친상과 똑같이 했다. 삭막 성묘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치지 않고 행한 것이 80년이 되었다. 4대에 걸친 조상의 제삿날이 닥치면 날마다 세 번씩 목욕재계하고 어포나 과일 등의 제수를 손수 마련하여 받들어 헌상하였다. 그의 백씨 내외의 초상 때에도 장례 절차에 따른 모든 기구를 몸소 경륜하여 다스렸고 부모 잃은 어린 조카 남매를 길러 혼인을 시키고 재산을 나누어 살림을 차려주되 균형을 넘지 않게 하였으며 증형께서 재산이 없는지라 형수를 맞이하고 조카를 결혼시키는데 비용을 일에 따라 부담하고 또 아들과 조카들에게 시장엘 가지 못하게 하고 고문을 담당하고 여러 집에서 소용될 물품을 공급하는데 유율이 있었다. 농사에 힘쓰며 살림을 하다가 다행히 식량의 여유가 있어 밖으로 낼 때는 고승으로 하고 받아드릴 때는 평승으로 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량이 넓은 분이라고 칭찬하더라. 그의 부인은 전주이씨 도평군의 후예인 신무의 따님인데 몸가짐이 덕스러웠고 집안을 다스리는데 법도가 있었으며 자식들을 옳은 도리로 가르쳐 드디어 큰 선비가 되게 하였다. 죽음에 이르러 자식과 조카들을 불러놓고 말하되 묘소는

조상들의 유택이니 마음을 다하여 보존치 않을 수 없고 글을 배우는 것은 입신의 방법이라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인즉 너희들은 이 말을 잊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공의 유언이다. 아! 공의 덕과 행실이 처음 부터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지만 효행을 표창하는 정표를 내릴 곳이 없으니 마땅히 향중의 인사들이 덕을 좋아하는 떳떳한 길에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명하노라. 경전이 쇠잔해지고 교화가 해이 되어 천운이 과도를 벗어났지만 정성스러운 효성은 힘을 다하였으니 공은 다시 무엇을 겸손해 하리요. 한가지 강상을 붙잡음이 있으니 후인들을 빛나게 하고 앞 사람에게 빛나네. 조그맣게 새겨놓은 돌은 갈아 뭉개지지 않으리니 여기를 지나는 이 공경스러워 하리라.

경오년장 춘분절 상완

승록대부 전례조판서 원임 규장각제학 안동인 김종한 찬

野隱丁公墓碣銘

야 은 정 공 묘 갈 명

野隱丁公 以孝聞於世 而竟達于天聰 褒之以通政大夫
야 은 정 공 이 효 문 어 세 이 경 달 우 천 총 포 지 이 통 정 대 부

敦寧府都正 於以見孝之至 而此足以不朽千秋矣 後雖
둔 념 부 도 정 어 이 견 효 지 지 이 차 족 이 불 후 천 추 의 후 수

有作者 何以加此 嗚呼偉矣 公之沒久矣 玄堂尚無係牲
유 작 자 하 이 가 차 오 호 위 의 공 지 물 구 의 현 당 상 무 계 생

之石 諸孫以爲憂 今年始具旣磨 其曾孫宗杓 奎哲 奉
지 석 제 손 이 위 우 금 년 시 구 기 마 기 증 손 종 표 규 철 봉

高弦窩光善狀訪余請記陰之文 辭不獲 謹按公諱石璜 又
고 현 와 광 선 장 방 여 청 기 음 지 문 사 불 획 근 안 공 휘 석 황 우

文教. 字明彥. 丁氏籍羅州. 來自中國. 麗朝檜軒悅. 以都元
문교 자명언 정씨적나주래자중국려조희현열이도원
 帥拜平章事至季世諱宗甲. 官昭格署令. 國亡守西山之節.
수배평장사지계세회종갑 관소격서령 국망수서산지절
 累徵不就. 南遯錦城. 數傳克隆. 大司諫. 彥奎. 丙子扈從南
누징불취 남둔금성 수전극음 대사간 언규 병자호종남
 漢. 賜勳券除守令. 又至道一號南隱. 以朴近齋胤源門人. 始
한사훈권제수령 우지도일호남은 이박근재윤원문인시
 居于谷城. 是公之曾祖. 祖翊相. 考獻斗號杜谷. 妣慶州金氏
거유곡성 시공지증조 조익상 고헌두호두곡 비경주김씨
 父塤. 樹隱忠漢后. 憲宗乙酉八月十九日. 生公于石谷蓮洞
부만 수은충한후 헌종을유팔월십구일 생공우석곡연동
 里第. 公自幼孝心純至. 常承順父母之志. 無一時之拂言戾
리제 공자유효심순지 상승순부모지지 무일시지불언려
 色. 供養口體必盡其力. 或採或釣. 既溫且涼. 各適其宜. 至
색 공양구체필진기력 혹채혹조 기온차량 각적기의지
 於愆節. 憂形于色. 湯餌扶持. 暫不離側. 唾洩便尿. 躬除不
어건절 우형우색 탕이부지 잠불이측 타이변뇨 궁제불
 人. 外內丁憂. 哀痛過禮. 幾至滅性. 送終之節. 克遵禮制. 朔
인 외내정우 애통과예 기지멸성 승종지절 극준예제삭
 望展墓. 寒暑不廢. 每當祭日. 齊戒散致. 必盡如在之誠. 兄
망전묘 한서불폐 매당제일 제계산치 필진여재지성형
 弟喪葬. 親自經紀. 撫養諸姪. 嫁娶制產. 親戚憂患疾苦. 極
제상장 친자경기 무양제질 가취제산 친척우환질고극
 力周章. 先墓之節. 緬襄之事. 躬自擔夯. 不委諸族. 傍先無
력주장 선묘지절 변양지사 궁자담항 불위제족방선무
 后. 省墓無闕. 性且好施. 見人飢寒. 推衣與食. 務農餘穀. 糴
후성묘무결 성차호시 견인기한 추의여식 무농여곡적
 平糶高. 鄉里多賴保活. 士林以孝廉薦蒙褒. 向晚益致意於
평조고 향리다뇌보활 사림이효렴천몽포 향만익치의어
 學. 乃受業于蘆沙奇先生門. 對子姪與年少. 諄諄勸勉曰. 人
학내수업우노사기선생문 대자질여연소 순순권면왈인
 不學無以立. 設塾以處四方來學者. 謁勉菴崔先生. 講學難
불학무이입 설숙이처사방내학자 알면암최선생 강학난

石蓮丁先生事蹟錄

疑. 多蒙獎詡. 臨終戒子孫曰. 墳墓. 先祖之幽宅. 不可不盡
의 다 몽 장 후 임 종 계 자 손 왈 분 묘 선 조 지 유 택 불 가 불 진

誠. 文學. 立身之方法. 不可不專務. 卒己巳正月十四日. 墓
성 문 학 입 신 지 방 법 불 가 불 전 무 졸 기 사 정 월 십 사 일 묘

蓮洞後麓負坤之原. 夫人全州李氏信茂女. 有規範. 別葬天
연 동 후 록 부 곤 지 원 부 인 전 주 이 씨 신 무 녀 유 규 범 별 장 천

皇山下乾坐原. 長男大暉. 有文學. 次大旭礪山宋明凡壻大
황 산 하 건 좌 원 장 남 대 현 유 문 학 차 대 욱 여 산 송 명 범 서 대

瑤. 光山金在浩壻. 長房男翼燮洪燮. 次房男水燮寶燮. 次房
용 광 산 김 재 호 서 장 방 남 익 섭 홍 섭 차 방 남 수 섭 보 섭 차 방

男日燮星燮. 餘不錄. 銘曰. 孝親友弟兄. 睦于族與戚. 周窮
남 일 변 성 변 여 불 록 명 왈 효 친 우 제 형 목 우 족 여 척 주 궁

又獎學. 六行兼一身. 嗟爾樵牧兒. 須愛墳前木
우 장 학 륝 행 겸 일 신 차 이 초 목 아 수 애 분 전 목

歲壬申大壯月上澣 竹山 安秉柝 撰
시 임 신 대 장 월 상 한 죽 산 안 병 탁 찬

야은정공묘갈명

야은 정공은 효자로 세상에 소문이 났고 마침내 임금에게까지 도달되어
통정대부 돈녕부도정으로 포상되니 이에서 효성이 지극하면 즉시 써 천
추에 씌지 않음을 보겠다. 뒤에 비록 글을 지을 사람이 있더라도 어찌
이에 더 하리요.

아! 위대하도다. 공이 돌아가신지 오래 되었으나 묘소에 아직 희생을
매어들 돌이 없어 여러 자손들이 걱정하여 오다가 금년에 비로소 비석을
구비하고 그 증손 종표와 규철이 고헌와 광선이 지은 행장을 받들고
나를 찾아와 묘비문을 청하기에 사양하였지만 사양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삼가 살펴보니 공의 휘는 석황 또는 문교요 자는 명언이며
정씨의 본관은 나주인데 중국으로부터 왔다. 고려조 때 회헌 열은 도원

수로 평장사에 배명되고 고려말엽에 이르러 휘 종갑은 벼슬이 소격서령이었으며 고려가 망함에 서산(백이 속제가 숨은 산)의 절개를 지키느라 여러번 불렀지만 나아가지 않고 남쪽 금성으로 피해 왔다. 여러 대를 거쳐 극음은 대사간이요 언규는 병자호란 때 왕을 남한산성으로 모시니 공훈장을 주어 수령으로 제수하였고 또 도일은 호가 남은인데 박근재 윤원의 문인으로 처음 곡성에서 살기 시작하였는데 이 분이 공의 증조 이시다. 조부는 익상이요 아버지는 현두인데 호는 두곡이며 어머니는 경주김씨인데 아버지는 만이요 수는 충한의 후손이다. 현종 기유 1849년 8월 19일에 공을 석곡면 연동마을 집에서 낳으니 공이 어려서부터 효심이 순결하고 지극하여 항상 부모의 뜻을 이어 받들고 한시도 거스르는 말과 어그러진 낫빛이 없었다. 어버이를 공양할 때 그 정성을 다해 혹 나물도 캐고 혹 뉘시질도 하였으며 덩어나 서늘하게 하는 것을 그때그때 적당하게 맞추었고 병이 들면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약 다리고 미음 쓰며 붙잡아 드리는 일로 잠시도 결을 떠나지 않았다. 침과 콧물을 닦으며 대소변 누이는 일을 몸소 행하고 남에게 시키지 않았다. 부모가 돌아가서는 슬픔이 지나쳐 거의 실성하다 싶이 하였고 장례 지내는 절차는 예절에 맞게 하고 삭망의 성묘는 추위나 더위로써 폐하지 않았다. 언제나 제삿날을 당하면 산제(밖에 나가 하는 행동의 유제) 치제(집안에서 근신하는 것)로 재계하고 꼭 곁에 계시는 것 같은 정성을 다 하였다. 형제의 초상과 장례에도 친히 다스렸고 여러 조카들을 양육하여 시집장가를 보내고 살림을 차려 주었다. 친척간에 병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힘을 다하여 두루 보살폈고 선대의 묘소를 수호하는 절차나 변례하는 일 등을 몸소 담당하였고 제족들에게 위임하지 않았으며 방조 가운데 후손이 없는 묘소도 성묘를 꺾하지 않았다. 성품이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여 굶주리거나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옷과 밥을 주었고 농사짓고 남은 곡식을 받아드릴 때는 평승으로, 밖으로 낼 때는 고승으로 하니 이웃들이 많이 신뢰하고 살아가니 고을 선비들이 효도와 청렴으로 천거하여 포상을 받았다. 늙은이에 더욱 학문에 뜻을 두어 노사 기선생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자식이나 조카며 청소년들을 대할 때마다 지성스럽게 공부하길 권하면서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입신할 수 없다 하고 서당을 설립하여 사방에서 오는 학도들을 가르쳤다. 면암 최선생을 뵈고 어렵거나 의심난 곳을 배우고 익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입종할 때에 자손들을 경계하기를 무덤은 선조의 유택이니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고 글을 배우는 것은 입신양명의 방법이니 전념하여 힘쓰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돌아가시니 기사 1929년 1월 14일이요 묘는 연동 뒷산 곤좌의 언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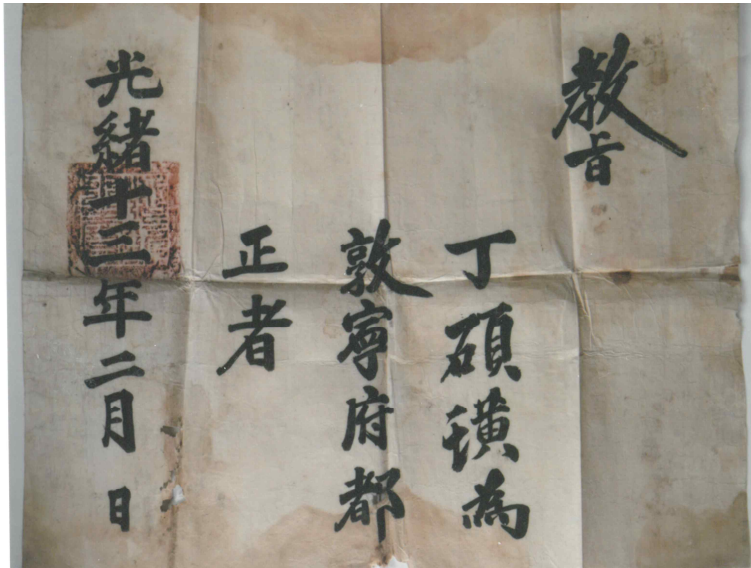
부인은 전주이씨 신무의 따님인데 여자의 법도가 있었다. 묘는 별도로 썼는데 천황산 밑 건좌원에 있다. 큰 아들 대현은 문학이 있었고 작은 아들은 대욱이며 여산송명범의 사위다. 대용이며 광산 김재호의 사위다. 큰 아들의 아들은 익섭과 흥섭이요 작은 아들의 아들은 수섭, 보섭, 일섭과 성섭이요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명하노라. 어버이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일가와 친척간에 화목하였고 궁한 사람 도와주고 학문을 장려하니 여섯가지 행실을 한 몸에 겸비하였네.

아! 나무하고 소치는 아이들도 모름지기 무덤 앞에 서 있는 나무를 사랑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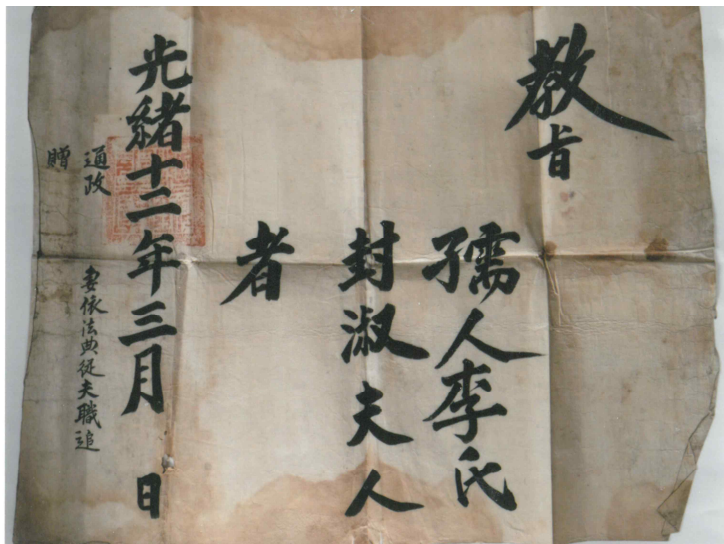
임신 1932년 3월 일

즉산 안병탁 지음

教旨
교지



野隱諱文教一諱碩璜字明彦奇蘆沙先生門人
야 은 휘 문 교 일 휘 석 황 자 명 언 기 노 사 선 생 문 인
 通政大夫敦寧府都正石蓮公先考)
통 정 대 부 돈 념 부 도 정 석 연 공 선 고



淑夫人全州李氏父信茂女石蓮公先妣
숙 부 인 전 주 이 씨 부 신 무 녀 석 연 공 선 비

羅州丁氏世德錄序文

나 주 정 씨 세 덕 록 서 문

國家에 國史가 있고 宗族에 世譜가 있는 것은 人間의 根源을
국 가 국 사 종 족 세 보 인 간 근 원
 分明히 하고 우리 固有의 崇祖愛族과 民族正統의 美風良俗을
분 명 고 유 숭 조 애 족 민 족 정 통 미 풍 양 속
 여기에서 考證하고 찾아볼 수 있으며 未來를 開拓하는데 과거를
고 증 미 래 개 척
 回顧치 않을 수 없고 후손을 교양하는데 또한 조상의 遺訓을
회 고 유 훈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니 과거의 文獻이 後人을 위하여 考證의
문 헌 후 인 고 증
 影響을 주는 힘은 실로 큰 것이며 더구나 先代祖上의 거룩한 事蹟과
영 향 선 대 조 상 사蹟
 빛난 遺訓을 자손이 알지 못한다면 이는 밝지 못한 일이요 이를 後孫
유 훈 후 손
 에게 傳하지 못한다면 이는 더욱 어질지 못한 일이 될진데 蓮盤里
전 연 반 리
 丁氏는 오직 大義만을 삶의 길로 삼고 忠誠과 孝道로써 국가에
정 씨 대 의 충 성 효 도
 盡心竭力하였고 家道를 바로 잡아온 先代祖上들의 훌륭한 精神
진 심 갈 력 가 도 선 대 조 상 정 신
 遺産이 千秋不滅의 燈불이 되어 燦爛하게 비추어 주고 있을 것이다.
유 산 천 추 불 멸 등 찬 란

옛부터 내려오는 많은 文獻이 散在되어 있음에도 그 內容을
문 헌 산 재 내 용
 정리하지 못해 안타까워 하던 次 금번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차
 과감히 世德錄을 集大成시켜 여기에 담겨 있는 先代祖上들의
세 덕 록 집 대 성 선 대 조 상
 높은 學問과 忠성심과 百折不屈의 崇義精神은 많은 사람들의
학 문 백 절 불 굴 숭 의 정 신
 마음속에 脉脉히 傳해질 것이며 時代가 바뀐 오늘날 일수록
맥 맥 전 시 대
 더욱 그리워질 것이다.

谷城에는 많은 文人들로 儒學의 風俗이 찬란하여 世人들의
곡 성 문 인 유 학 풍 속 세 인

耳目을 集中시킨 곳인데 羅州丁氏가 대대로 起居해 온 아름다운
 이 목 집 중 나 주 정 씨 기 거
 마을로 谷城에 奠居한지 二百餘年에 忠孝와 詩禮로써 家門을
 목 성 천 거 이 백 여 년 충 효 시 예 가 문
 이어오고 학문을 일으키는데 努力하였다. 野隱 丁公 같은 분은
 노 력 야 은 정 공
 經典과 文學에 힘써 學者로 推仰을 받으며 孝悌忠信으로 명성이
 경 전 문 학 학 자 추 앙 효 제 충 신
 넘치고 더하여 蘆沙先生에게 受學하였고 晩年에 孝子로 들리어
 노 사 선 생 수 학 만 년 효 자
 都正에 除授되었다.

공의 큰아들 石蓮先生도 晩年の 孝子로 많은 분야에서 뛰어
 공 석 연 선 생 만 년 효 자
 나 世上의 모범이 되어 梧岡祠에 妥享되고 공의 肖孫인 南耘
 세 상 오 강 사 타 향 공 초 손 남 윤
 공은 弦窩先生의 門人으로 詩禮에 밝았으며 遺稿가 있다. 그 外
 공 현 와 선 생 문 인 시 예 유 고 외
 丁門의 文獻은 가히 말할 수 없이 書庫에 가득하니 先代祖上
 정 문 문 헌 서 고 선 대 조 상
 들의 偉訓遺跡을 모든 子孫이 다같이 배우고 알아서 祖上님들
 위 훈 유 작 자 손 조 상
 의 가르치심이 무엇이었으며 또 子孫으로서 해야 할 道理가
 자 손 도 리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認識하고 自己 省察에 더욱 매진하려 함에
 인 식 자 기 성 찰
 있어 丁門의 珍貴하고 珍요한 文籍을 拔萃하여 차례로 모아
 정 문 진 귀 문 적 발 취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編輯을 完成하여 印刷에 부치려하는
 편 집 완 성 인 쇄
 慕蓮 丁宗杓 선비님께 敬意를 表하면서 丁氏 德門의 永遠한
 모 연 정 종 표 경 의 표 정 씨 덕 문 영 원
 發展을 祈願드린다.

識見과 德이 不足한 不肖에게 책머리에 序文을 請하니 높은
 식 견 덕 부 족 불 초 서 문 청
 教訓과 맑은 遺風에 累가 될까 두려움이 앞설 뿐이다. 다만 尊
 교 훈 유 풍 누 존
 敬하는 慕蓮 丁宗杓 斯文과 사귀어 온 交分이 깊은지라 敢히
 경 모 연 정 종 표 사 문 교 분 감

거절치 못하여 僭濫함을 잊고 序文을 지으니 심히 부끄럽다.

戊戌年 八月 淵齋玄孫 宋永文 謹識
무술년 팔월 연재현손 송영문 근지

羅州丁氏世德錄發刊辭
나 주 정 씨 세 덕 록 발 간 사

湖南의 谷城 蓮盤 羅州丁氏 一門의 世德은 世上에 크게 알
 려졌다. 押海의 大陽君 諱 德盛 以來 忠義와 孝悌로 뛰어난
 인물이 배출되었고, 學問家의 전통이 끊이지 않아 훌륭한 學者들
 이 배출되어 家聲을 연면히 이어오고 있다. 近世에는 杜谷處士
 諱 獻斗, 野隱 諱 文教, 石蓮先生 諱 大暉 등 뛰어난 분들이 德
 行과 學問으로 가문을 빛내고 고을을 이롭게 하였으니, 一門의
 榮譽이자 한 고을의 榮譽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 분들 모두 淵源
 또한 正脉을 이었으니, 野隱公은 蘆沙 奇正鎭 先生의 門人이
 였고 石蓮先生은 勉菴 崔益鉉 先生의 高足으로 朝鮮末 正統의
 衛正斥邪派의 學脉을 이은 분들이었으니 萬人의 崇仰을 받음
 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더구나 石蓮先生은 儒林들의 公論
 으로 勉菴 先生의 祠宇인 梧岡祠에 追配되어 血食君子에 올랐
 으니 家門의 名聲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羅州丁氏世德錄은 押海의 大陽君 神道碑銘으로부터 石蓮
 나 주 정 씨 세 덕 록 압 해 대 양 군 신 도 비 명 석 연
 先生의 肖孫 慕蓮 丁宗杓 翁의 文字에 이르기까지 家傳의 모든
 선 생 초 손 모 연 정 종 표 옹 문 자 가 전
 문자를 整理하여 丁氏家門의 世德으로 收錄해 놓은 貴한 記錄
 정 리 정 씨 가 문 세 덕 수 록 귀 한 기 록
 이다. 杜谷處士의 誄詞, 野隱公의 壽筵孝行祝詩文 石蓮先生
 두 곡 처 사 퇴 사 야 은 공 수 연 효 행 축 시 문 석 연 선 생
 의 挽詞 등은 當代의 文士들 수백 명이 참여하여 그 분들의 學
 만 사 당 대 문 사 학
 德을 稱頌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그런 내용에 丁氏家門의
 덕 칭 송 정 씨 가 문
 世德은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인다. 遺風을 이을 줄 아는 傳統
 세 덕 유 풍 전 통
 的인 家門만이 아름다운 家門의 德行을 이어가고 또 記錄으로
 적 가 문 가 문 덕 행 기 록
 남길 줄을 아는 것이다. 石蓮先生의 슬하에서 학문을 익힌 胄孫
 석 연 선 생 주 손
 慕蓮 宗杓 翁의 뛰어난 孝心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책을 刊行
 모 연 종 표 옹 효 심 간 행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先祖들의 遺訓을 지키고 쌓아놓은
 선 조 유 훈
 學門을 繼承하면서 이러한 큰 業積을 남기는 慕蓮 翁의 孝誠
 학 문 계 승 업 적 모 연 옹 효 성
 에 감복하여 글 못하는 부끄러움을 참으며 貴한 책의 發刊의
 귀 발 간
 말씀으로 가름한다.

丁氏의 後承은 물론 世上의 모든 家門들은 이 世德錄을 본받
 정 씨 후 승 세 상 가 문 세 덕 록
 아 先祖들의 學德을 繼承하고 遺訓들을 이행하는데 게으르지
 선 조 학 덕 계 승 유 훈
 말기를, 빌고 또 바라노라.

戊戌 重陽節
 무 술 중 양 절

高山書院 院長, 前 國會議員 務安 朴錫武
 고 산 서 원 원 장 전 국 회 의 원 무 안 박 석 무

羅州丁氏世德錄發刊辭

나 주 정 씨 세 덕 록 발 간 사

浴川의 國師峯 아래 溪山이 窈窕하고 土俗이 淳厚하여 碩人
욕천 국사봉 계산 요조 토속 순후 석인
 高士가 隱居할 만한 곳은 곧 羅州丁氏의 菟裘인 蓮盤洞이다.
고사 은거 나주정씨 토구 연반동
 羅州丁氏는 唐나라 大陽君 諱 德盛을 鼻祖로 삼고 麗朝에 都
나주정씨 당 대양군 휘 덕성 비조 려조 도
 元帥로 平章事를 지낸 諱 悅이 上祖가 되며 麗末에 文科로 昭
원수 평장사 휘 열 상조 려말 문과 소
 格暑습이 된 諱 宗甲은 罔僕之義를 지켜 李太祖의 累徵에도 二
격서령 휘 종갑 망복지의 이태조 루징 이
 姓之臣이 될 수 없다 하여 不就하고 錦城으로 南下하였으며 諱
성지신 불취 금성 남하 휘
 道一 號 南隱이 自南平으로 始居于 谷城하니 곧 慕蓮翁의 六
도일 호 남은 자남평 시거우곡성 모련옹 육
 代祖이다. 이후 代代로 이곳에서 不求榮利하고 隱居行義하며 오
대조 대대 불구영리 은거행의
 직 學問과 忠孝로 家業을 심아 躬行實踐함으로서 南州의 名門巨
학문 충효 가업 궁행실천 남주 명문거
 族이 되었다. 翁의 曾祖이신 野隱 諱 文教는 孝行이 特出하여 조
족 응 증조 야은 휘 문교 효행 특출
 정에서 通政大夫 敦寧府 都正을 포상하였고 蘆沙 奇先生 門人
통정대부 둔녕부 도정 토사 기선생 문인
 으로 만년에는 書堂을 열어 鄉里 및 門子弟들을 教授하였으니
서당 향리 문자제 교수
 遺集이 있으며 王考이신 石蓮先生 諱 大暉께서는 庭訓을 承襲하
유집 왕고 석연선생 휘 대현 정훈 승습
 여 孝事父母하고 友愛兄弟하였으며 勉菴 崔先生을 師事하여
효사부모 우애형제 면암 최선생 사사
 大義를 들었고 先生の 倡義所 梧枝里에 달려가 周旋하고 淳昌
대의 선생 창의소 오지리 주선 순창
 에까지 모시고 갔으나 母夫人 病患으로 先生の 挽留 命을 받고
모부인 병환 선생 만류 명
 不得히 歸家하였으며 庚戌國恥에는 討倭를 모의하다가 체포되
부득 귀가 경술국치 토왜
 어 모진 고문으로 여러번 기절하였다. 만년에는 採山齋 相宜亭을
채산재 상의정

지어 後生을 訓導하고 國中之士와 交遊하며 兄弟間에 友愛하는
후생 훈도 국중지사 교류 형제간 우애
 장소로 活用하니 後學들이 勉菴先生을 享祀한 梧岡祠에 配享하
활용 후학 면암선생 향사 오강사 배향
 였으며 遺集이 있다. 先府君 南耘 諱 翼燮도 父與祖의 家風을
유집 선부군 남운 휘익섭 부여조 가풍
 이어 弦窩 高先生께 執幣하여 學門을 이루고 儒者의 삶을 살
현와 고선생 집행 학문 유자
 으시다가 早歿함으로써 약간의 遺集만 남기고 平生의 蘊抱를 펴
조물 조물 유집 평생 운포
 지 못하였다. 慕蓮翁께서도 純實한 資質로 家學을 이어 修己治
모연옹 순실 자질 가학 수기치
 人하고 追遠報本하며 衛道護聖하고 扶植綱常으로 平生의 事
인 추원보본 위도호성 부식강상 평생사
 業을 삼았다. 王考를 梧岡祠에 配享하고 先亭先齋를 補修 守
업 왕고 오강사 배향 선정선재 보수수
 護하며 曾祖 以下 三代의 遺稿를 蓮盤丁氏 三世文獻錄으로 合
호 증조이하삼대 유고 연반정씨 삼세문헌록 합
 刊하여 세상에 頒布하였으며 또 先歿한 賢弟 採堂遺稿集을 發
간 반포 선물 현제 채당유고집 발
 刊하고 年前에는 翁의 私稿集도 발간하였으니 실로 四世 五人
간 년전 응 사고집 사세오인
 의 遺稿를 發刊하였으며 校任과 門任이 되어서도 진심갈력하
유고 발간 교임 문임
 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 世德錄은 先代의 文獻 모음집이 아
세덕록 선대 문헌
 니라 顯祖들의 學德節義 忠孝등을 그 時代 최고 大德碩學들이
현조 학덕절의 충효 시대 대덕석학
 稱頌한 贊文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러나 글의 題目과 體制도 多
칭송 찬문 제목 체제 다
 樣하고 쓰는 이도 百餘人에 이르며 쓰는 時期도 1690年 肅宗代
양 백여인 시기 년 숙종대
 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것이다.

邦家の 離亂과 私家の 艱難속에서도 이처럼 잘 보존하여 오다
방가 리란 사가 간난
 가 暮景을 當하여 禮記의 不明不仁을 免하는 뜻으로 羅州丁氏
모경 당 예기 불명불인 면 나주정씨
 世德錄이라는 命題로 發刊하였으니 慕蓮翁의 지극한 孝誠이 아
세덕록 명제 발간 모연옹 효성

谷城의 梧岡祠에 配享되셨다. 德이란 무엇인가? 道라는 眞理
 를 人間이 精誠을 다해 實踐하면서 얻어진 結果가 바로 德이니
 일찍이 蘇東坡가 말하지 않았던가. 나라가 興盛해지려 할 적에는
 반드시 代代로 德을 쌓은 臣下가 厚하게 베풀고도 그 應報를
 다 받아 누리지 않은 이가 있어 後에 그 子孫이 文德을 지키는 太
 平盛世의 君主와 더불어 天下의 福을 누리게 된다고...

祖國 大韓이 盛大한 때를 만나는 날 代代로 德을 쌓은 丁氏
 家門이 큰 福을 받게 되기를 期待하며 地理的 故鄉인 蓮盤과
 精神的 故鄉인 儒門이라는 貴重한 價置를 모두 지키는 데 成功한
 慕蓮 先生의 大德을 思慕하는 마음과 先代 世交의 깊은 因緣으로
 인하여 不肖는 跋文을 감히 辭讓하지 못하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戊戌 重陽節 勉菴 冢孫 崔鎮弘 謹識
 무술 중양절 면암 총손 최진홍 근지

南耘丁君翼燮行狀
 남운정군익섭행장

君諱翼燮. 改諱海鵬. 字遠翼. 號南耘. 丁氏其先押海人. 高
 麗大別相都元帥悅爲上祖. 太子太傅忠烈公允宗. 門下侍
 中公壽. 佐命功臣純佑. 昭格暑令白隱宗甲. 繩歸田里. 冶隱
 入于金烏山. 公與林卓. 歸于錦城山中. 朝鮮太祖. 有召命不

起. 獻義自靖. 恥齋克隆. 端宗癸酉文科大司諫. 及端宗遜
기 헌 의 자 정 치 재 극 음 단 종 계 유 문 과 대 사 간 금 단 종 손
 位. 契家入于永平之聖德山下. 每於端廟辰. 入越峴臺. 北向
위 설 가 입 우 영 평 지 성 덕 산 하 매 어 단 묘 진 입 월 현 대 북 향
 痛哭. 思庵彦奎. 仁祖丙子. 扈駕南漢山城. 以勞勩除端川府
통 곡 사 암 언 유 인 조 병 자 호 가 남 한 산 성 이 노 예 제 단 천 부
 使. 於君七世以上. 府使有孫曰道一號南隱. 近齋朴文獻公
사 어 근 칠 세 이 상 부 사 유 손 왈 도 일 호 남 은 근 재 박 문 헌 공
 門人. 文行俱著. 始居于谷城之蓮洞. 是生翊相. 卽君之高祖
문 인 문 행 구 저 시 거 우 곡 성 지 연 동 시 생 익 상 즉 근 지 고 조
 也. 曾祖獻斗號杜谷. 祖文教號野隱. 受業于吾先子蘆沙先
야 증 조 헌 두 호 두 곡 조 문 교 호 야 은 수 업 우 오 선 자 노 사 선
 生門. 以孝贈都正. 考大覲號石蓮. 早從崔勉菴先生受學. 與
생 문 이 효 증 도 정 고 대 현 호 석 연 조 종 최 변 암 선 생 수 학 여
 弟大瑑友愛甚篤. 築相宜亭. 庚戌屋社. 杜門自靖而終世. 門
제 대 용 우 애 심 독 축 상 의 정 경 술 옥 사 두 문 자 정 이 종 세 문
 人築壇寓慕. 有遺稿行于世. 妣全州崔氏三淳女. 全州李氏
인 축 단 우 모 유 유 고 행 우 세 비 전 주 최 씨 삼 순 녀 전 주 이 씨
 東宇女. 咸陽吳氏基萬之女. 俱有閨範. 君崔氏出. 辛亥正月
동 우 녀 함 양 오 씨 기 만 지 녀 구 유 규 범 근 최 씨 출 신 해 정 월
 七日時降辰也. 自幼穎悟. 甫上學. 不煩程督而自能知. 沉潛
칠 일 시 강 진 야 자 유 영 오 보 상 학 불 번 정 독 이 자 능 지 침 잠
 究玩. 未嘗有倦色. 事兩繼母也. 無異所生. 溫清以時. 定省
구 완 미 상 유 권 색 사 양 계 모 야 무 이 소 생 온 정 이 시 정 성
 無曠. 及其遭艱. 非服役不脫經衰. 非病甚不御厚味. 日一展
무 광 급 기 조 간 비 복 역 불 탈 경 쇠 비 병 심 불 어 후 미 일 일 전
 墓. 風雨不廢. 以親命贄謁于弦窩高先生. 得聞爲學之大要.
묘 풍 우 불 폐 이 친 명 지 알 우 현 와 고 선 생 득 문 위 학 지 대 요
 自後益自省重動作. 猷爲. 惟師訓是則. 持身以清謹. 交友以
자 후 익 자 성 중 동 작 유 위 유사 훈 시 즉 지 신 이 청 근 교 우 이
 道義. 性愛山水. 凡遇一叢佳處. 徜徉而不知返. 與朋友作自
도 의 성 애 산 수 범 우 일 총 가 처 상 양 이 불 지 반 여 붕 우 작 자
 居而惟其孝友之德. 端懿之義. 足以行於家而及於人者. 日
거 이 유 기 효 우 지 덕 단 의 지 의 즉 이 행 어 가 이 급 어 인 자 일
 斤斤而不自足. 蓋雖天植之美而得於學者爲多. 使之得長
근 근 이 불 자 족 개 수 천 식 지 미 이 득 어 학 자 위 다 사 지 득 장

年而究業則. 必有可觀而偶疾. 以庚寅五月二十一日竟不
년 이 구 업 즉 필 유 가 관 이 우 질 이 경 인 오 월 이 십 일 일 경 불
 起. 年僅四十. 其疾革也. 招家人託以善養老父. 至於家間
기 년 근 사 십 기 질 혁 야 초 가 인 탁 이 선 양 노 부 지 어 가 간
 事. 一未及焉. 以不終養爲窮天之恨焉. 訖出遠近之識君者.
사 일 미 급 언 이 불 종 양 위 궁 천 지 한 언 부 출 원 근 지 식 근 자
 惻惻如喪其屬. 葬本郡蓮洞村後負坤原. 配豐川盧氏準鉉
측 측 여 상 기 속 장 본 군 연 동 촌 후 부 곤 원 배 풍 천 노 씨 준 현
 之女. 弘窩士豫后. 婦德甚備. 鄉薦其烈孝有褒賞. 生五男二
지 녀 홍 와 사 예 후 부 덕 심 비 향 천 기 열 효 유 포 상 생 오 남 이
 女. 男宗杓. 娶玉川趙正秀女. 次奎赫. 娶光山金在根女. 次
녀 남 종 표 취 옥 천 조 정 수 녀 차 유 혁 취 광 산 김 재 근 녀 차
 奎重奎淳奎完. 女適延日鄭景澤. 密陽朴鍾甲. 餘幼不盡錄.
규 중 규 순 규 완 녀 적 연 일 정 경 택 밀 양 박 종 갑 여 유 불 진 록
 嗚呼悲夫. 以君忠厚之姿. 謹慎之行. 早就有道之門. 趨向已
오 호 비 부 이 군 충 후 지 자 근 신 지 행 조 취 유 도 지 문 추 향 이
 定而進取無所沮. 宅心制行. 要不失儒者節度. 此可以見君
정 이 진 취 무 소 저 택 심 제 행 요 불 실 유 자 절 도 차 가 이 견 군
 之志也. 宗杓能守志不惑. 非有受於庭訓然乎. 亦可尚也. 懼
지 지 야 종 표 능 수 지 불 혹 비 유 수 어 정 훈 연 호 역 가 상 야 구
 其幽光之或泯. 謁余以狀行. 余於君家世稔之熟矣. 安能以
기 유 광 지 혹 민 알 여 이 장 행 여 어 군 가 세 임 지 숙 의 안 능 이
 不文辭. 遂取實錄而槩括之. 以俟知者擇焉
불 문 사 수 취 실 록 이 은 팔 지 이 사 지 자 택 언

歲壬寅朦月 日 幸州 奇老章 撰
세 임 인 몽 월 일 행 주 기 노 장 찬

남운정군 익섭 행장

군의 휘는 익섭이요 고친 휘는 해봉 호는 남운인데 정씨의 선계는
 압해인이다. 고려 때 대별상 도원수를 지낸 열은 상조가 되고 래자래
 부를 지낸 충열공 윤종과 문하시중 공수와 좌명공신 순우와 소격서령
 백은 종갑은 줄줄이 시골로 돌아왔는데 야은은 금오산으로 들어가고
 공은 임탁과 더불어 금성산중으로 돌아 왔었다.

조선 태조께서 조정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일어나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스스로 조용히 지냈고 치재 극음은 단종 계유 1463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대사간이었는데 단종이 왕위를 양여할 때 가정을 거느리고 영평의 성덕산 아래로 들어가 살며 매년 단종의 제사 때는 월현대로 들어가 북향하여 통곡했고 사암 언규는 인조 병자호란 때 왕을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공로로 단천부사에 제수되니 공의 7세 이상이요 부사공의 손자 도일은 호가 남은으로 근재 박문헌공의 문인으로 문행이 함께 뛰어났는데 처음으로 곡성의 연동에서 살았다. 이 분이 익상을 낳으니 균의 고조부이다.

증조는 현두 호는 두곡이요 조부는 문교 호는 야은인데 나의 선조 노사선생 문하에서 수업하고 효행으로 도정에 증직되고 부친 대현의 호는 석연인데 일찍 최면암 선생에게 쫓아가서 수학하고 아우 대응과 더불어 우애가 매우 돈독하여 상의정을 지었다. 경술년 나라가 망함에 문을 닫고 조용히 지내다가 세상을 마치니 문인들이 제단을 쌓아 사모하였고 유고가 있어서 세상에 행해지다. 모친은 전주최씨 삼수의 따님과 전주이씨 동우의 따님과 함양오씨 기만의 따님인데 다 가정의 규범이 있었는데 균은 최씨가 낳으니 신해 1919년 정월 7일은 생신날이다. 어려서부터 뛰어나게 영리하여 겨우 입학하여서부터 번거롭게 과정을 독촉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능히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익힐 줄 알았고 일찍 게으른 빛이 있지 않았다. 두 계모를 성김에 생모와 다름이 없었고 따듯하고 서늘함을 때에 맞추고 혼정신성을 비우지 않았다. 상을 당하여는 일할 때가 아니면 상복을 벗지 않았고 병이 심하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날마다 성묘하면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폐하지 않았다. 부친의 명령으로 현와 고선생을 폐백으로 뵈옵고 학문하는 대강을 얻어들은 후부터 더욱 스스로 살피고 동작을 무겁게 하며 꾀하는 것을 오직 스승의 가르침대로 하니 이것인즉 몸가짐을 맑고 삼가하는 것으로서 하고 벗을 사귀되 도의로써 한 것이다. 천성

이 산수를 사랑하여 무릇 한 떨기 아름다운 곳을 만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올 줄을 모르고 벗과 더불어 감동하며 스스로 즐겼고 오직 그 효도하고 우애하는 덕과 단아하고 아름다운 의리는 족히 집안에서 행하고 남에게 미치는 것을 날마다 환히 살피면서도 스스로 족하게 여기지 않으니 대개 비록 하늘이 심은 아름다움이지만 학문에서 얻은 것이 많은데 장수하여 학업을 연구하였다면 반드시 불만한 것이 있었을텐데 우연히 병을 얻어 경인 1950년 5월 21일에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니 나이 겨우 40에 죽은 것이다. 집사람을 불러놓고 늙은 부친을 잘 봉양하라고 부탁하고 집안일을 하나도 말하지 않아 끝까지 봉양 못한 것이 하늘에 사무치는 한이 된다고 하였다. 부고가 나가니 원근에서 군을 아는 사람들이 그 혈족의 초상을 당한 것같이 슬퍼했다. 본군 연동촌후 선산하 곤좌에 장사지내다. 배위는 풍천노씨 준현의 따님인데 흥와 사예의 후손이다. 부인의 덕이 심히 갖추어져 향중에서 그 열효를 추천하여 포상이 있었다. 5남 2녀를 낳으니 남 종표는 옥천 조정수의 따님에게 장가 가고 차남 규혁은 광산 김재근의 따님에게 장가가고 차남은 규중 규순 규완이요 딸은 연일 정경택과 밀양 박종갑에게 출가했다. 나머지는 어려서 다 기록하지 않는다.

슬프고 슬프다. 군의 충후한 바탕과 근신한 행동으로 일찍 도가 있는 문하에 나아가 추향을 이미 정하고 나아감에 막힐 것이 없었다. 마음에 두고 잊지 않는 태심과 행동을 절제하는 제행은 선비의 절도를 잃지 않기를 요한 것이니 이에 가히 군의 뜻을 보겠다. 종표는 능히 뜻을 지키고 의혹되지 않으니 가정교훈을 받지 않았다면 그럴겠는가. 또한 가상스럽다. 그 아늑한 빛이 혹 꺼질까 두려워하여 나에게 행장을 지어 주길 아뢰니 내가 군의 집안과는 세교가 오래라. 어찌 글 못하는 것으로써 사양하리요. 드디어 실록을 취하여 곧게 바로 잡고 아는 사람이 가려 주길 기다린다.

행주 기로장 지음

南耘公墓碣銘

남 윤 공 묘 갈 명

南耘丁君翼燮旣歿。葬谷城郡石谷面蓮洞先考墓下坤原。
남 윤 정 군 익 섭 기 몰 장 곡 성 군 석 곡 면 연 동 선 고 묘 하 곤 원

莊軒奇老章公。斌爲排其行治。可以不朽於百世。椎刻辭久
장 현 기 노 장 공 빈 위 배 기 행 치 가 이 불 후 어 백 세 추 각 사 구

病之餘。難於伸紙。入思其孝思。不可愒。君一諱海鵬。字遠
병 지 여 난 어 신 지 입 사 기 효 사 불 가 팔 군 일 휘 해 봉 자 원

翼。南耘別號也。押海人。系出高麗都元帥悅。世襲簪組。至
익 남 윤 별 호 야 압 해 인 계 출 고 려 도 원 수 열 세 습 잠 조 지

昭格暑令白隱宗甲。國革歸錦城山中。獻靖沒世。恥齋克隆。
소 격 서 령 백 은 종 갑 국 혁 귀 금 성 산 중 헌 정 몰 세 치 재 극 용

仕朝鮮文科大司諫。莊陵遜位。入永平聖德山。不復出世。思
사 조 선 문 과 대 사 간 장 등 손 위 입 영 평 성 덕 산 불 복 출 세 사

菴彦奎。仁祖丙子。扈駕南漢。官端川府使。七世以上顯祖
암 언 규 인 조 병 자 호 가 남 한 관 단 천 부 사 칠 세 이 상 현 조

也。南隱道一。師近齋朴文獻公。移家谷城。爲君五世祖。高
야 남 은 도 일 사 근 재 박 문 헌 공 이 가 곡 성 위 군 오 세 조 고

祖翊相。曾祖杜谷獻斗。祖野隱文教。師蘆沙奇先生。孝贈都
조 익 상 증 조 두 곡 현 두 조 야 은 문 교 사 노 사 기 선 생 효 증 도

正。考大覲號石蓮。受業于勉菴崔先生。門人築壇釋菜。有遺
정 고 대 현 호 석 연 수업 우 면 암 최 선 생 문 인 축 단 석 채 유 유

稿行于世。妣全州崔氏三淳女。全州李氏東宇女。咸陽吳氏
고 행 우 세 비 전 주 최 씨 삼 순 녀 전 주 이 씨 동 우 녀 함 양 오 씨

基萬女。崔夫人以隆熙紀元後辛亥正月七日生。君賦性極
기 만 녀 최 부 인 이 용 희 기 원 후 신 해 정 월 칠 일 생 군 부 성 극

孝。務悅嚬志。事異親若所生。有事則必稟。有命則必從。和
효 무 열 친 지 사 이 친 약 소 생 유 사 즉 필 름 유 명 즉 필 종 화

氣怡聲。未嘗少懈。以親命從師弦窩高先生。禮義經旨。覈玄
기 이 성 미 상 소 해 이 친 명 종 사 현 와 고 선 생 예 의 경 지 핵 현

蹟微。庚寅夏偶得疾。刀圭罔效。以有親在堂而不能終孝。爲
색 미 경 인 하 우 득 질 도 규 망 효 이 유 친 재 당 이 불 능 종 효 위

徹天之恨。泫然而逝。五月二十一日也。得年僅四十。君娶豐
철 천 지 한 현 연 이 서 오 월 이 십 일 일 야 득 년 근 사 십 군 취 풍

川盧氏準鉉女.生五男二女.男宗杓奎赫奎重奎淳奎完.延
천 노 씨 준 현 녀 생 오 남 이 녀 남 종 표 규 혁 규 중 규 순 규 완 연
 日鄭景澤.密陽朴鍾甲婿也.宗杓生又鎮圭鎮允鎮仲鎮.奎
일 정 경 택 밀 양 박 종 갑 서 야 종 표 생 우 진 규 진 윤 진 중 진 규
 赫生茂鎮堂鎮乙鎮.奎重生元鎮甲鎮.一鎬.奎淳生永鎮京
혁 생 무 진 당 진 을 진 규 중 생 원 진 갑 진 일 호 규 순 생 영 진 경
 鎮.奎完生光鎮虎鎮三鎮.君承襲詩禮.就正於有道之門.篤
진 규 완 생 광 진 호 진 삼 진 군 승 습 시 예 취 정 어 유도 지 문 독
 行孝友.秉心塞淵天.若假之以年則.其所蘊之德.必有宣著
행 효 우 병 심 새 연 천 약 가지 이 년 즉 기 소 온 지 덕 필 유 선 저
 於世.而未能焉.慨惜也己.惟椒聊蕃衍.盈盈升斗.不食之
어 세 이 미 능 언 개 석 야 기 유 초 료 번 연 영 영 승 두 불 식 지
 報.其在斯歟.銘曰豐於賦嗇于年.人不能無憾天.椒聊蕃升
보 기 재 사 여 명 월 풍 어 부 색 우 년 인 불 능 무 감 천 초 료 번 승
 斗盈.敦詩禮繼家聲.銘于石揭佳城
두 영 둔 시 예 계 가 성 명 우 석 계 가 성

檀君紀元四千三百十二年 己未 九月 日
단 군 기 원 사 천 삼 백 십 이 년 기 미 구 월 일

豐山 洪錫憲 撰
풍 산 홍 석 희 찬

남운공묘갈명

남운 정공 익섭이 이미 죽어서 곡성군 석곡면 연동 선고묘하 곤원에 장사 지내니 장헌 기노장 공이 빛나게 그 행적을 배열하여 백세에 이르도록 썩지 않게 하였다. 비에 새길 글은 오랜 병 끝이라 글짓기가 어려웠으나 그 효도를 생각하니 가히 근심스럽게 할 수 없다. 군의 휘는 해붕이요 자는 원익이며 남운은 별호다. 압해인이니 계통은 고려 도원수 열에서 나오니 대대로 이어온 벼슬 집이다. 소격서령 백은 종 갑에 이르러 나라가 바뀌자 금성 산중으로 돌아와 고요함을 지키다 세상을 마쳤고 치재 극음은 조선조에 문과에 합격하여 대사간이었는데 단종이 양위함에 영평 성덕산으로 들어가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고

사암 언규는 인조 병자호란 때 임금을 남한산성으로 모셨고 벼슬이 단천부사였는데 7세 이상 현조다. 남은 도일은 근재 박문헌공을 사사하고 곡성으로 이사오니 군의 5세조요 고조는 익상이요 증조는 두곡 현두요 조부는 야은 문교인데 노사 기선생을 사사하고 효행으로 도정에 증직되고 부친 대현의 호는 석연인데 면암 최선생에게 수업하였다. 문인들이 제단을 쌓아 제사지내고 유고가 있어 세상에 행해지다. 어머니는 전주최씨 삼순의 따님 전주이씨 동우의 따님 함양오씨 기만의 따님인데 최씨부인이 융희 기원후 신해 1911년 정월 7일에 군을 낳으니 타고난 성질이 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 뜻을 기쁘게 하는데 힘썼고 다른 어머니를 성김에도 낳은 어머니와 같이 하였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고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좃으며 화한 기운과 화열한 음성은 일찍이 조금도 해이되지 않았다. 부친의 명령으로 현와 고선생에게 종사하여 예의와 경지의 오묘함을 밝히고 정묘함을 깨우쳤다. 경인 1950년 여름에 우연히 병을 얻어 갖은 영약도 효과가 없어 부모가 계시지만 효도를 마치지 못함을 철천지한으로 삼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죽으니 5월 21일인데 나이가 겨우 40세이었다. 풍천노씨 준현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5남 2녀를 낳으니 남은 종표 규혁 규중 규순 규완이요 연일 정경택 밀양 박종갑은 시위다. 종표는 우진 유진 윤진 증진을 낳고 규혁은 무진 당진 을진을 낳고 규중은 원진 갑진 일호를 낳고 규순은 영진 경진을 낳고 규완은 광진 호진 삼진을 낳았다. 군이 시예를 이어받고 도가 있는 문하에 나아가 옳고 그른 것을 질문하여 바로잡고 효도와 우애를 독실하게 행하였으며 잡아 지키는 마음이 성실하고 깊었다. 하늘이 만일 나이를 빌려주어 오래 살았다면 그 마음에 쌓여 있는 덕이 필연코 세상에 들쳐 나타났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슬프고 애석할 따름이다. 오직 초나무 무성하여 대나 말에 가득찬 것처럼 자손이 번성하니 먹어버리지 않고 보답한다 함이 여기에 있는 것인가. 명하노라. 타고난 품성은 풍부하지만 나이에는 인색하

였네. 사람이 능치 못하여 하늘을 감탄케 할 수는 없으나 초나무 번성하여 대나 말에 찻네. 시예를 돈독히 하여 가문의 명성을 이었으니 돌에 새겨 묘소에 게시하네.

풍산 홍석희 지음

南耘公遺稿序

남 윤 공 유 고 서

夫士之類多矣. 有孝順焉者. 遺逸焉者. 有豪傑焉者. 此三者其氣像則迥別. 而至于心志之確一也. 近世浴川石谷坊. 詩壇文藪. 磊落相望. 而南耘丁公諱翼燮其較著者也. 公生
부사지유다의 유효순언자 유일언자 유호걸언자 차삼
 育詩禮之庭. 遊學高明之門. 承襲石蓮先公之遺業. 精熟弦
자기기사즉회별 이지우심지지확일야 근세육천석곡방
 窩先生之傳旨. 孝聞遠播. 文譽長振. 適值不辰. 拋却名利.
시단문수 뇌락상망 이남윤정공휘익섭기교저자야 공생
 日與同氣. 逍搖山水煙霞之中. 且耕且讀且觴且詠. 快然自
육시례지정 유학고명지문 승습석연선공지유업 정숙현
 得. 飄飄乎脫塵俗而畢生. 年纔四十矣. 惜乎. 天若假之以
와선생지전지 효문원파 문예장진 적치불신 포각명리
 年. 其瞻博擴充之境. 烏可量也. 至若詩文. 清雅灑落. 可賞
일여동기 소요산수연하지중 차경차득차상차영 쾌연자
 可欽. 然此豈輕重於公乎. 夷考公之一生. 當可謂之孝順底
득 표표호탈진속이필생 년채사십의 석호 천약가지이
 士者歟. 遺逸底士者歟. 抑亦謂之豪傑底士者歟. 此則必有
년 기섭박확충지경 오가량야 지약시문 청아쇄락 가상
 世之公評. 在不敢質言焉. 公之胤宗杓君. 亦孝謹人也. 勤
가흠 연차기경중어공호 이고공지일생 당가위지효순저
 蒐其散稿. 編成一卷. 囑余于校. 蓋以世交也. 縱知不堪. 何
사자여 유일저사자여 억역위지호걸저사자여 차즉필유
세지공평 재불감질언언 공지윤종표운 역효근인야 근
수기산고 편성일권 축여우교 개이세교야 종지불감하

能終辭. 旣而復請弁文. 殊因所感而有一說焉. 雖然. 余之
능 종 사 기 이 복 청 변 문 수 인 소 감 이 유 일 설 언 수 연 여 지
 所感者. 公之稿也. 稿之所載者. 公之糟粕也. 傳曰. 言者心
소 감 자 공 지 고 야 고 지 소 재 자 공 지 조 박 야 전 왈 언 자 심
 之聲也. 世之見是稿者. 不以稿見公. 而以其言見公之心性
지 성 야 세 지 견 시 고 자 불 이 고 견 공 이 이 기 언 견 공 지 심 성
 之天則. 亦庶幾矣乎
지 천 즉 역 서 기 의 호

惟庚申季 月上弦日 順興 安泰曾 序
유 경 신 계 월 상 현 일 순 흥 안 태 증 서

남운공유고서

대법 선비의 부류는 많으니 효도하며 순종하는 이도 있고 벼슬하지 않고 숨어 사는 이도 있고 호걸스러운 이도 있으니 이 세가지는 그 기풍의 걸모양은 다르지만 마음과 뜻의 확고함에 이르러선 한가지다.

근세에 옥천(곡성군의 옛 이름)의 석곡면에 시인들(詩壇)과 문인(文藪)들이 근세고 활발하기가 서로 대등한데 남운 정공 익섭이 그 중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공이 시례의 가정에서 낳아서 자라고 높은 스승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는데 선친인 석연공의 유업을 이어받고 현와 고선생의 가르친 요지를 정미롭게 익혀 효자라고 들리는 이름이 멀리 퍼지고 문학의 명성이 길게 떨쳤지만 마침 아난때를 만나 명예와 이익을 포기하여 물리치고 날로 동료들과 함께 산수의 경치 좋은 곳을 소요하면서 또는 밭 갈고 또는 글 읽고 또는 술잔을 기울이고 또는 읊으며 상쾌함을 스스로 얻고 티끌 세상에서 벗어난 곳에서 가벼히 나부끼다 삶을 마치니 나이 겨우 40이라 애담도다.

하늘이 만일 나이로써 빌려주었다면 넉넉하고 넓으며 넓히어 충실할 경지를 어찌 헤아리겠는가. 시와 문장은 맑고 우아하며 깨끗하고 속기가 없어 가히 감상할 만하고 가히 흠탄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이 공에게

가볍고 무거움이 되겠는가.

공의 일생사를 공정하게 논한다면 당연히 효순한 선비라고 할 것인가. 유일한 선비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호결스러운 선비라고 할 것인가. 이는 반드시 세상의 공적 비평이 있을 것이니 감히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겠다. 공의 큰아들 종표군 또한 효성스럽고 근신한 사람이라 부지런히 그 흠어진 원고를 모아 한 권의 책을 만들고 나에게 교정해 줄 것을 부탁하니 대개 대대로 사귀어 온 것으로써 그런 것이다. 모두 알기에는 감당하지 못하나 어찌 끝내 사양하리요. 교정을 마치니 다시 서문을 칭하기에 특별히 느끼는 바로 인하여 한 말을 두련다.

비록 그러나 내가 느낀 것은 공의 유고요 유고에 실려 있는 것은 공의 찌꺼기다. 전에 이르길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라고 했으니 이 유고를 보는 사람은 유고로써 공을 보지말고 그 말로써 공의 심성의 하늘을 본다면 또한 거의 알 것이다.

경신 상순 순흥 안태증 서

南耘公遺稿跋

남 윤 공 유 고 발

余與丁友宗杓再遇. 而未知其家世之詳也. 後獲見其王考
 여 여 정 우 종 표 재 우 이 미 지 기 가 세 지 상 야 후 획 견 기 왕 고
 石蓮公之遺稿. 而得知其學問淵源之深長矣. 一日宗杓. 負
 석 연 공 지 유 고 이 득 지 기 학 문 연 원 지 심 장 의 일 일 종 표 부
 其先考南耘公遺稿一冊. 請爲之跋而泣下曰. 我先人生值
 기 선 고 남 윤 공 유 고 일 책 칭 위 지 발 이 읍 하 왈 아 선 인 생 치
 倭治苛酷之日. 彼方禁我邦之語. 公每乘假集數里. 教之以
 왜 치 가 혹 지 일 피 방 금 아 방 지 어 공 배 승 가 집 수 리 교 지 이
 我國之諺語. 訶詰責之. 拘之數月得釋. 然不少懈焉. 且不幸
 아 국 지 언 어 가 힐 책 지 구 지 수 월 득 석 연 불 소 해 언 차 불 행
 嬰于奇疾. 遽爾中身. 其時吾不知省事. 然今己年長則. 固知
 영 우 기 질 거 이 중 신 기 시 오 부 지 성 사 연 금 기 년 장 즉 고 지

先人之平生結精惟在耳. 願吾子勿靳也. 余亦爲之一涕以
선인 지평생 결정유재이 원오자불근야 여역위지일체이
 諾之. 閱其稿. 公素聰穎之姿. 承襲乎野隱石蓮父祖之家學.
락지 열키고 공소 총영지자 승습호야은 석연부조지가학
 薰陶乎高弦窩之門屏. 若其學業之成就. 與夫秉心之醇厚
훈도호고현와지문병 약기학업지성취 여부병심지순후
 正直. 奇莊軒. 洪城南之狀碣備述之矣. 夫公之所著論. 不止
정직 기장현 홍성남지장갈비술지의 부공지소저론부지
 此而隨書棄之. 不爲屑屑傳後之計. 故今所餘者. 祇文數篇
차이수서기 지 불위설설전후지계 고금소여자 기문수편
 詩數百首耳. 蓋其爲詩. 格調清雅. 取材膽饒而鼓鑄淘洗之
시수백수이 개기위시 격조청아 취재섬요이고주도세지
 妙. 有不逮焉. 然殆可與李海石. 柳南江. 不媿爲儔匹. 余嘆
묘 유불체언 연태가여이해석 류남강 불괴위주필 여탄
 近世浴川詩人之多也. 雖然. 公當邦家離亂之時. 而年纔四
근세욕천시인지다야 수연 공당방가이란지시 이년재사
 十而歿. 天若假之以年則. 其所學所成. 豈止于此而已哉. 宗
십이몰천약가지이년즉기소학소성기 지우차이기재종
 杓亦佳士也. 勤勤蒐拾於紙堆之中. 繕寫一卷將欲付印而
표역가사야 근근수습어지퇴지중 선사일권장욕부인이
 廣布之. 一爲宗杓孝思之深而賀之. 一爲浴川詩道之盛而
광포지 일위종표효사지심이하지 일위욕천시도지성이
 賀之
하지

光復後初庚申菊黃節 長興 魏啓道 跋
광복후초경신국황절 장흥 위계도 발

남운공유고발

내가 정우 종표와 더불어 두번 만났으나 그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내력은 자상하게 알지 못했는데 뒤에 그 조부 석연공의 유고를 얻어 보고 그 학문연원의 심장함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종표가 그의 선고 남운공 유고 한 권을 짚어지고 와서 발문을 청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내 선인이 왜정치하의 가혹하던 시절에

사시며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금할 때 공이 매양 틈을 타서 두어 마을 사람들을 모여 우리나라 언문을 가르친다는 말이 소문이 나서 꾸짖으며 구속했다가 수개월만에 석방되었으나 조금도 해이하지 아니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기이한 병을 얻어 급하게 중년에 졸하니 그때엔 내가 일을 살필 줄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이미 나이가 장성하였기에 선인의 맺어진 정신이 오직 여기에 있음을 알았으니 원컨데 선생님은 아끼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 나도 또한 한번 눈물을 흘리고 나서 승락하고 그 유고를 펼쳐 보았다. 공이 본래 총명한 바탕으로 야은, 석연의 가학을 승계하고 고현와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그 학업의 성취함과 다만 병심의 순후하고 정직한 것 같은 것은 기장현, 홍성남의 행장과 묘갈명에 갖추어 기록되었다. 공의 저술이 이것에 그치지 않으나 글을 지을 때마다 버리고 후세에 전하는 계획에 힘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다만 문 두어편과 시 수백수 뿐이다. 대개 그 시의 격조는 맑고 아름다우며 취재는 넉넉하나 고주하고 도세함의 미묘함에는 미치지 못하나 아마 이해석과 류남강으로 더불어 짝이 되기에는 부끄럽지 않으리라.

내가 근세에 옥천(곡성의 옛 이름)에 시인이 많음을 감탄하며 놀랐다. 비록 공이 나라가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나이 겨우 40에 죽었으니 하늘이 만일 나이를 빌려 주었다면 그가 배운 것을 성취함이 어찌 여기에 그쳤을 것인가. 종표도 또한 아름다운 선비라 부지런히 종이 무더기 속에서 주워 모아 한권의 책을 엮어 장차 인쇄하여 널리 반포하고자 하니 하나는 종표의 효도하는 생각이 깊음을 축하하고 하나는 곡성에 시도가 왕성함을 축하한다.

광복후초 경신년 국화절에
장흥 위계도 발

豐川盧又玉女士孝烈碑銘 并序
풍천노우옥여사효열비명 병서

孝烈婦盧又玉女士. 其先豐川人. 弘窩士豫之后. 曾祖刑曹
 효열부노우옥여사 기선풍천인 홍와사에지후 증조형조
 叅判光升. 大考義禁府都事喆壽. 皇考準鉉. 皇妣安東權氏
 참판광승 대고의금부도사철수 황고준현 황비안동권씨
 斗熙之女也. 世居咸陽之大安里. 生於李韓純祖丁未九月
 두희지녀야 세거함양지대안리 생어이한순조정미구월
 二十一日. 年十七. 歸于羅州丁翼燮. 司諫院大司諫克隆之
 이십일일 년십칠 귀우나주정익섭 사간원대사간극응지
 后. 舅石蓮大暉. 居谷城之蓮盤里. 事崔勉菴益鉉有儒望. 鄉
 후구석연대현 거곡성지연반리 사회면암익현유유망향
 人享于採山壇. 夫君號南耘. 游高弦窩光善之門. 有遺藁. 女
 인향우채산단 부군호남운 유고현와광선지문 유유고여
 士自入門. 侍舅事夫. 極其惋樂. 行祭延賓. 率忧而行. 財恤
 사자입문 시구사부 극기완낙 행제연빈 술우이행 재출
 窮族. 義諭躁隣. 百行備具. 而不意夫君偶患風痺. 累載委
 궁족 의유조린 백행비구 이불의부군우환풍비 루재위
 席. 藥不替手. 夜不交睫. 醫言血補可得傅生. 女士潛入密
 석 약불체수 야불교첩 의언혈보가득부생 여사잠입밀
 室. 割臂受血碗而注之. 果然得蘇. 三載再發. 年四十竟至罔
 실 할비수혈완이주지 과연득소 삼재재발 년사십경지망
 極. 一慟而絕而復蘇. 猶以下從爲志. 宗族懇諭曰. 舅老鰥在
 극 일통이절이복소 유이하종위지 종족간유왈구로환재
 堂. 諸幼呱呱裹襁褓. 是誰養且恤之哉. 女士遂止之. 奉舅撫
 당 제유고고과강보 시수양차출지재 여사수지지 봉구무
 幼. 誠勤彌至. 累蒙鄉道之褒. 己亥正月二十六日沒. 年五十
 유성근미지 루몽향도지포 기해정월 이십육일몰 년오십
 有三. 葬于蓮洞村後夫君墓合封焉. 有五男二女. 男宗杓奎
 유삼 장우연동촌후부군묘합봉언 유오남이녀 남종표규
 赫奎重奎淳奎完. 女婿鄭京澤朴鍾甲. 宗杓男又鎮圭鎮允
 혁규중규순규완 여서정경택박중갑 종표남우진규진윤
 鎮仲鎮. 奎赫男茂鎮唐鎮乙鎮. 奎重男元鎮甲鎮一鎬. 奎淳
 진중진 규혁남무진당진 을진 규중남원진갑진일호 규순

男永鎮京鎮.奎完男光鎮虎鎮三鎮.今其鄉人士.悼念其孝
남 영 진 경 진 . 규 완 남 광 진 호 진 삼 진 . 금 기 향 인 사 . 도 념 기 호
 烈.不忍竟湮其蹟.欲樹一石於其里.宗杓君.具狀乞銘於
열 . 불 인 경 인 기蹟 . 욱 수 일 석 어 기 리 . 종 표 군 . 구 장 걸 명 어
 余.銘曰.行貴維三.忠與孝烈.存一猶難.矧伊雙絕.嗚呼豐
여 . 명 왈 . 행 귀 유 삼 . 충 여 효 열 . 존 일 유 난 . 신 이 쌍 절 . 오 호 풍
 川.行驚深馨.旣碑鄉口.奚俟余銘
천 . 행 지 심馨 . 기 비 향 구 해 . 여 명
 乙亥光復後初壬戌歲暮 文學博士 眞城 李家源 謹撰
을 해 광 복 후 초 임 술 세 모 . 문 학 박 사 . 진 성 . 이 가 원 . 근 찬

풍천노우옥여사 효열비명 병서

효열부 노우옥 여사의 선계는 풍천인인데 흥와 사예의 손이다. 증조는 형조참판 광승이요 조부는 의금부도사 철수 부친은 준현이요 어머니는 안동권씨 두희의 따님이다. 대대로 함양의 대안리에서 살았고 조선조 순종 정미 1907년 9월 21일에 출생하고 나이 17세에 나주 정익섭에게 출가하니 사간원 대사간 극음의 후손이다. 시아버지는 석연 대현인데 곡성 연반리에서 살면서 최면암 익현을 스승으로 섬겨 유림의 촉망이 있었고 고을 사람들이 채산단에 제사 지냈다.

부군의 호는 남운인데 고현와 광선의 문하에서 종유하였고 유고가 있다. 여사가 시집에 들어와서부터 시아버지를 모시고 지아비를 성김에 그 유순하고 즐거움을 극진히 하였고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맞을 때 정성을 다하여 행했고 제물로 궁한 일가들을 구휼하고 성질이 조금하여 떠드는 이웃들을 타이르는 등의 백가지 행실이 구비되었는데 뜻밖에 부군에서 중풍을 얻어 여러 해를 자리에 누우니 약 다림에 다른 사람과 교체하지 않고 밤엔 잠을 자지 않았다. 의원의 말이 피를 보충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니 여사가 가만히 밀실로 들어가 둔부를 배어 피 한 사발을 받아 입에 쏘아 넣으니 과연 소생하였다가 삼년만에 다시 발

병되어 나이 40세에 마침내 망극에 이르니 슬피 울다 기절하였다가 다시 소생하였는데 오히려 남편 따라 죽으려고 뜻을 삼으니 종족들이 간절하게 타이르면서 시아버지가 늙은 홀아비로 살아있고 어린것들은 울어대며 강보에 쌓여있는데 이들을 누가 봉양하고 또 보살 필 것이냐고 하니 여사가 드디어 중지하고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어린것들을 어루만져 기르는데 지성스럽고 부지런함이 더욱 지극하여 여러 차례 향당과 도의 포상을 받았다.

기해 1959년 정월 26일에 죽으니 나이가 53세이다. 묘는 부근묘와 합봉이다. 5남 2녀를 두니 남은 종표 규혁 규중 규순 규완이요 시위는 정경택 박종갑이다. 종표의 아들은 우진 규진 윤진 증진이요 규혁의 아들은 무진 당진 을진이요 규중의 아들은 원진 갑진 일호요 규순의 아들은 영진 경진이요 규완의 아들은 광진 호진 삼진이다. 이제 고을 사람들이 그 효열을 슬프게 생각하여 차마 끝내 그 자취를 묻어 버릴 수 없다 하고 한 개의 돌을 그 마을에 세우고져 하니 종표 군이 행장을 갖추어 명을 나에게 빌리려 함에 명하련다. 행실 중 귀한 것이 오직 셋이니 충과 효와 열이다. 한 가지만 보존하는 것도 오히려 어렵거늘 하물며 저 두 가지 뛰어 남이야!

아~ 풍천이여 행동은 굳세고 마음은 향기롭네.

이미 마을 사람들 입에 비를 세웠으니 어찌 나의 명을 기다릴손가.

을유년 광복 후 첫 입술 세모에
문학박사 진성 이가원 삼가지음

慕蓮說

모 연 설

蓮有似乎君子何哉以其生於淤泥而不染如君子之居濁世

연 유 사 호 군 자 하 재 이 기 생 어 어 니 이 불 염 여 군 자 지 거 락 세

而不淄磷也谷城丁君宗杓甫石蓮公之孫也公師事淵齋宋

이 불 치 인 야 곡 성 정 군 종 표 보 석 연 공 지 손 야 공 사 사 연 재 송

先生得聞君子儒之學能潔澡身行不染乎流俗故甫又繩其
선생득문군자유지학능결조신행불염호유속고보우승기
 武自少年時其有超凡之氣出入乎先生長者之門周旋於禮
무자소년시기유초범지기출입호선생장자지문주선어예
 儀翰墨之場誠妙士也日過余而言曰述菴公嘗造弊慮也錫
의한묵지장성묘사야일과여이언왈술암공상조폐려야석
 號以慕蓮某惶縮不敢請其說焉今公已千古矣願下一轉語
호이모연모황축불감청기설언금공이천고의원하일전어
 以究公之志也余曰不亦善夫今舉世皆濁耳人無羽化之術
이구공지지야여왈불역선부금거세계탁이인무우화지술
 則雖欲高飛遠舉不可得也其必皆濁而獨清盡醉而獨醒則
칙수욕고비원거불가득야기필개탁이득침진취이득성칙
 豈非人中之君子而花中之蓮乎是甫傳家之訣而述菴之意
개비인중지군자이화중지연호시보전가지결이술암지의
 歟凡事無一蹴可到之理慕之久則必有可到之日然則慕之
여범사무일축가도지이모지구즉필유가도지일연즉모지
 當奈何常志石蓮公之志常行石蓮公之行亭亭淨植於污濁
당나하상지석연공지지사상행석연공지행정정정식어오탁
 之中則甫似蓮乎蓮似甫乎必有言之者矣
지중즉보사연호연사보호필유언지자의

樂軒 鄭孝鉉 河東人 大田市慕義洞 己酉一九六九年
낙헌 정효현 하동인 대전시모의동 기유일구육구년

모연설

연이 군자와 같음이 있으니 어째서인가? 그 진흙에서 나서 더러움에
 물 들여지지 않음이 군자가 탁세에 살면서도 검어지거나 갈려지지 아니
 함 같기 때문이다. 곡성 정군 종표보는 석연공의 손자라. 공에서 연재
 송선생을 사사하여 군자유의 학문을 얻어듣고 몸과 행실을 깨끗이 하여
 유속에 물들지 아니하였는데 손자가 그 자취를 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무리에서 뛰어나더니 높은 선생들의 문하에 출입하여 예의와 학문을
 익혀서 훌륭한 선비가 되었다. 어느 날 나에게 들려서 말하기를, “전에
 술암공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모연이라고 졸호를 주셨으나 그때 너무나

죄송하여 그 뜻을 물어보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공께서 돌아가셨으니
 원컨데 한 말씀을 주셔서 공의 뜻을 풀어주십시오” 하거늘 내가 말
 하기를, “그 뜻이 또한 좋지 않으나. 지금 세상 모두 혼탁하니 사람이
 날아다니는 기술이 없으즉 비록 높이 날아 멀리 가버리고자 하나 그러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이 흐릴 때에 홀로 맑고 모든
 이가 취해 있을 때 홀로 깨어나 있으즉 어찌 사람속에 군자와 꽃 속에
 연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 집의 전해 내려오는 비결이며 술암공의 뜻일
 것이네. 천하에 모든 일이 한번 힘을 써서 성취하는 이치가 없으니
 사모하기를 오래하여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날이 있으리라.” 그렇
 다면 사모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항상 석연공의 뜻을 뜻하며
 석연공의 행실을 행하여 더러운 진흙 속에서 깨끗이 피어나는 연꽃
 같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연꽃이 그대 같을 것이며 그대가 연꽃 같으리라.

세 기유 낙헌 정효현 술

慕蓮私稿序

모 연 사 고 서

吾黨有慕蓮雅士. 純眞其資質. 汪洋其度量. 有人所不及者
 오 당 유 모 연 아 사 순 진 기 자 질 왕 양 기 도 량 유 인 소 불 급 자
 存焉. 以述先報本修己治人爲己任. 而其心未嘗一日不在
 존 언 이 술 선 보 본 주 기 치 인 위 기 임 이 기 심 미 상 일 일 부 재
 於述先報本. 而汲汲然惟恐其事之終不成也. 卽事窮理者
 어 술 선 보 본 이 급 급 연 유 공 기 사 지 종 불 성 야 즉 사 궁 리 자
 亦過人焉. 而至誠所到. 亦無不成矣. 其述先事業之耀人耳
 역 과 인 언 이 지 성 소 도 역 무 불 성 의 기 술 선 사 업 지 요 인 이
 目者. 甚多而其平生有五大事業之烜赫. 其一則其王考石
 목 자 심 다 이 기 평 생 유 오 대 사 업 지 환 혁 기 일 즉 기 왕 고 석
 蓮先生配享于梧崗祠. 而竟成俎豆之禮. 其二則雅士自擔
 연 선 생 배 향 우 오 강 사 이 경 성 조 두 지 례 기 이 즉 아 사 자 담

設庠. 以門子弟及同閤後輩勉學就正則. 其誠力之超出尋
설 상 이 문 자 제 급 동 한 후 배 면 학 취 정 즉 기 성 력 지 초 출 심
 常. 萬萬而可仰可尚者亦多焉. 其三則蓮盤丁氏祖子孫三
상 만 만 이 가 앙 가 상 자 역 다 언 기 삼 즉 연 반 정 씨 조 자 손 삼
 世文獻. 進言于谷城文化院. 以郡費之協助翻譯成帙頒于
세 문 헌 진 언 우 곡 성 문 화 원 이 군 비 지 협 조 번 역 성 질 반 우
 世. 其四則先代相宜亭頽落莫甚. 而周旋建議于谷城郡守.
세 기 사 즉 선 대 상 의 정 퇴 락 막 심 이 주 선 건 의 우 곡 성 군 수
 得其可而一新先亭. 溪山增輝矣. 落成之日本郡官憲暨湖
득 기 가 이 일 신 선 정 계 산 증 휘 의 낙 성 지 일 본 군 관 헌 기 호
 南儒林得參而賀之. 其五則晚年被選于谷城鄉教典校. 而
남 유 립 득 참 이 하 지 기 오 즉 만 년 피 선 우 곡 성 향 교 전 교 이
 任期中振作儒風扶植斯道. 而諸般事業推進造成. 焦爛之
임 기 중 진 작 유 풍 부 식 사 도 이 제 반 사업 추 진 조 성 초 란 지
 功勞亦不尠矣. 大者如是則小者難可枚舉矣. 蓋將由此而
공 로 역 불 선 의 대 자 여 시 즉 소 자 난 가 매 기 의 개 장 유 차 이
 論雅士之事業則. 豈可使之沒沒無傳而遂已乎. 噫雅士之
론 아 사 지 사업 즉 기 가 사 지 물 물 무 전 이 수 기 호 희 아 사 지
 事業. 其本已在是矣. 若彼文詞之末則非雅士之所急. 而又
사업 기 본 이 재 시 의 약 피 문 사 지 말 즉 비 아 사 지 소 급 이 우
 何足爲重輕乎. 其學問則承襲家學. 謹守力行而造詣益深
하 즉 위 중 경 호 기 학 문 즉 승 습 가 학 근 수 역 행 이 조 예 익 심
 矣. 一生所著詩與文. 積在中衍. 而其督胤又鎮君. 方爲哀稗
의 일 생 소 저 시 여 문 적 재 건 연 이 기 독 윤 우 진 군 방 위 부 졸
 而讐校于湖之大家李栢淳. 亦賴翻譯于金永雄斯文. 將付
이 수 교 우 호 지 대 가 이 백 순 역 퇴 번 역 우 김 영 응 사 문 장 부
 錡劂. 謁余請玄晏文矣. 不佞不敢當而親誼所在. 亦不得辭
기 궤 알 여 청 현 안 문 의 불 념 불 감 당 이 친 의 소 재 역 부 득 사
 也. 德山金澤洙斯文所撰慕蓮行錄詳且明矣. 以余管見. 不
야 덕 산 김 택 수 사 문 소 찬 모 연 행 록 상 차 명 의 이 여 관 견 부
 復橫豎. 撮其梗槩敍之如右. 慕蓮爲誰. 姓丁氏貫羅州. 啣宗
복 횡 수 활 기 경 개 서 지 여 우 모 연 위 수 성 정 씨 관 나 주 함 종
 杓字堦杓. 慕蓮其號也. 蓮乎勉旃勉旃
표 자 훈 표 모 연 기 호 야 연 호 면 전 면 전

歲著雍困敦之夏至前三日己丑 東江老夫 柳漢相 敍
세 저 응 곤 둔 지 하 지 전 삼 일 기 축 동 강 노 부 류 한 상 서

모연사고서

우리 유림에 모연이란 훌륭한 선비가 있으니 그 진실한 자질과 넓은 도량은 못사람들이 미치지 못할 바가 있다. 선대의 업적을 잇고 근본을 잇지 않으며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림으로써 나의 책임을 삼아 그 마음이 하루도 슬선보본에 있지 아니함이 없어 오직 그 일을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어떤 일을 연구함도 남보다 더하고 또 정성을 쏟으니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하리오.

그 선업을 이은 것 중에 남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일이 많으나 특별히 다섯 가지만 든다면 첫번째는 그 조고 석연선생을 오강사에 추배하여 제사를 올리게 하는 일이고, 두번째는 조고가 돌아가시자 집에 서당을 설치하여 문자제와 고향 후배들이 면학하여 바른길로 가게 하였으니 그 정성이 보통사람에게 월등함이고, 세번째는 연반정씨 삼세의 문헌을 관청의 협조를 받아 번역하여 세상에 반포함이고, 네번째는 선대의 정자인 상의정이 퇴락하자 관청에 건의하여 증수함에 산천도 빛을 더하였고 호남의 유림이 응집한 가운데 훌륭한 낙성식을 가졌던 일이고, 다섯번째는 만년에 곡성향교 전교에 피선되어 유품진작과 선속고양에 심혈을 기울였고 제반사업을 추진 조성하는데에 노심초사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는 일이었다. 그 큰 사업이 이와 같으니 작은 일은 날날이 거론할 수 없다. 아사의 훌륭한 업적이 이와 같으니 어찌 전하게 함이 없으리오.

슬프다. 아사의 사업은 그 근본됨이 이러한 실행에 있고 저 문사의 지엽적인 것은 아사의 급무가 아니니 어찌 비중을 두었으랴.

그러나 그의 학문은 자연스럽게 가학을 이어받아 힘써 행함으로써 조예가 깊어졌다. 일생에 지은 시문이 상자에 쌓여 있는지라 그의 장자 우진균이 수집하여 호남의 대가이신 송담 이백순께 수교를 하고 또 김영응 사문에게 번역을 의뢰하여 장차 인쇄에 붙이고자 하면서 나에게 서문을

청하거늘 내 감히 당치 않으나 정의가 있기에 사양하지 못하였다. 덕산 김택수 사문이 지은 행록에 소상히 기재되었으므로 나의 천견으로 횡설수설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만을 모아서 위와같이 서술하노라.

모연은 누구인가. 성은 정씨요 관향은 나주요 이름은 종표요 자는 훈표요 모연은 그 호이다.

모연이여 힘쓰고 힘쓸지어다.

무자 하지전삼일 기축에 동강노부 류한상은 쓰노라.

慕蓮丁公私稿發刊辭

모 연 정 공 사 고 발 간 사

먼저 慕蓮 丁宗杓 仁兄의 私稿發刊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모 연 정 종 표 인 형 사 고 발 간 축 하

慕蓮 兄은 庭學과 연원이 深長한 명문에서 生長하여 文行과
모 연 형 정 학 심 장 생 장 문 행
도의를 갖추고 述先裕後에 篤實한 儒學者이다. 일찍이 慕蓮 兄
술 선 유 후 독 실 유 학 자 모 연 형
의 曾祖이신 野隱 丁文教公은 학행이 고매하여 吾先子 蘆沙
중 조 야 은 정 문 교 공 오 선 자 노 사
先生께 나아가 師事하였고 祖考이신 石蓮 丁大睨 先生은 도의
선 생 사 사 조 고 석 연 정 대 현 선 생
와 淸德을 갖춘 선비로써 崔勉菴 先生을 從學하여 梧岡祠에
청 덕 최 면 암 선 생 종 학 오 강 사
스승과 함께 配食되었으며 또한 先考이신 南耘 丁翼燮公은 高
배 식 선 고 남 윤 정 익 섭 공 고
弦窩 先生께 受學하여 식견과 조행이 卓越하였다. 일찍이 일
현 와 선 생 수 학 탁 월
家三代의 遺集이 발간됨으로써 舊韓末 蘆沙 勉菴 弦窩 先生과
가 삼 대 유 집 구 한 말 노 사 면 암 현 와 선 생
같은 道學文章과 衛正斥邪의 학문사상적 淵源을 이어서 일방의
도 학 문 장 위 정 척 사 연 원

石蓮丁先生事蹟錄

師表로 존경을 받았으니 慕蓮 兄의 훌륭한 선비자질은 家學에서
사 표 모 연 형 가 학
 緣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후에 亡賢弟의 採堂遺稿를 발간하
연 유 망 현 제 채 당 유 고
 였고 今次에 慕蓮 兄의 私稿가 發刊되면 一家에 三代四稿가
금 차 모 연 형 사 고 발 간 일 가 삼 대 사 고
 발간되는 것이니 어찌 稀貴한 일이라 아니할 수 있으리오. 이외
희 귀
 에도 石蓮 蓮源錄과 採山齋 唱酬詩文集과 蓮盤丁氏三世文獻
석 연 연 원 록 채 산 재 창 수 시 문 집 연 반 정 씨 삼 세 문 헌
 을 발간하고 先亭인 相宜亭을 重修하였으며 石蓮先生을 梧岡
선 정 상 의 정 중 수 석 연 선생 오 강
 祠에 追配하고 先大夫人 盧氏의 孝烈碑를 건립하는 등 先祖
사 추 배 선 대 부 인 노 씨 효 열 비 선 조
 를 顯彰하는 肖孫의 道理를 다하였다. 門任이 되어서는 始祖
현 창 초 손 도 리 문 임 시 조
 大陽君 神道碑 建立과 族譜 編纂에 賢勞하였으며 谷城鄉校
대 양 군 신 도 비 건 립 족 보 편 찬 현 로 곡 성 향 교
 典校에 被選되어서는 鄉校誌 發刊 및 大成殿 解體 補修 제반
전 교 피 선 향 교 지 발 간 대 성 전 해 체 보 수
 사업을 推進 完了하고 儒風을 振作시키는데 커다란 業績을 남
추 진 완 료 유 풍 진 작 업 적
 겼다. 慕蓮兄은 평생에 이처럼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모 연 형
 자연스러운 家學 속에 스스로 努力하여 鄉中人士의 忠孝를 表彰
가 학 노력 향 중 인 사 충 효 표 창
 하는 글과 花朝月夕에 高朋佳友와 文酒로 相酬하고 高山書院
화 조 월 석 고 붕 가 우 문 주 상 수 고 산 서 원
 風詠契를 비롯한 각급 詩社에 참여하여 읊은 詩가 한권을 이룬지
풍 영 계 시 사 시
 라 發刊에 즈음하여 兩家의 淵源世誼가 있음을 믿고 不顧不拙
발 간 양 가 연 원 세 의 불 고 불 졸
 하고 慕蓮 兄의 概略을 적어 祝刊辭에 가름하는 바이다.
모 연 형 개 략 축 간 사

檀紀 四千三百四十一年 立秋節
단 기 사 천 삼 백 사 십 일 년 입 추 절

裕堂書室 聿修軒 主人 奇浩仲 謹識
유 당 서 실 율 수 현 주인 기 호 중 근 지

慕蓮私稿跋文

모 연 사 고 발 문

慕蓮_{모 연} 丁翁_{정 응}을 先賢_{선 현} 祠宇_{사 우} 享祀_{향 사} 時에 한두번 帷_관이다가 年_관 進_선 觀_회 善_회 會_회
 에 參_참 與_여 하면서 자주 帷_대였는데 大_대 暑_서 에도 衣_의 冠_관 을 整_정 齊_제 하고 儒_유 者_자 風_풍
 貌_모 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一_일 見_견 에 法_법 家_가 의 어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 後_후 로 先_선 師_사 魏_위 晚_만 翠_취 先_선 生_생 의 遺_유 集_집 을 보다가 翁_옹 의 先_선 府_부 君_군 이
 신 南_남 耘_윤 公_공 遺_유 稿_고 跋_발 文_문 이 收_수 錄_록 되어 있음을 보았고 또 慕_모 蓮_연 翁_옹 께
 서도 先_선 師_사 別_별 世_세 時_시 에 輓_만 詞_사 로 吊_조 問_문 하셨음을 알게 되어 더욱 尊_존 敬_경
 해마지 않았다. 그러던 중 늦은 봄 어느 날 翁_옹 의 私_사 稿_고 한 軸_축 을 보
 이면서 “_번 譯_역 出_출 刊_간 하려 하니 자네가 수고를 아끼지 말게」 하거늘
 我_아 非_비 其_기 人_인 이라 再_재 三_삼 固_고 辭_사 하였으나 不_불 獲_획 하여 敢_감 忘_망 愚_우 陋_루 하고 猥_외
 濫_람 되게 翻_번 譯_역 하였더니 不_불 可_가 無_무 一_일 言_언 이라 하여 跋_발 文_문 을 命_명 하거늘
 罪_죄 上_상 罪_죄 의 悚_송 懼_구 함을 禁_금 치 못하면서 奇_기 異_이 한 因_인 緣_연 이라고 生_생 覺_각 하였다.
 翁_옹 은 剛_강 毅_의 篤_독 實_실 한 資_자 質_질 로 傳_전 統_통 的_적 인 儒_유 學_학 家_가 庭_정 에서 生_생 長_장 하며
 王_왕 考_고 石_석 蓮_연 先_선 生_생 의 庭_정 訓_훈 을 承_승 襲_습 하였으나 王_왕 考_고 府_부 君_군 의 透_투 徹_철 한 排_배 日_일
 行_행 蹟_적 과 先_선 府_부 君_군 의 早_조 歿_몰 로 家_가 事_사 를 主_주 幹_간 하면서 三_삼 餘_여 之_지 暇_가 로 做_주 工_공
 였다. 天_천 性_성 이 淳_순 厚_후 하고 至_지 孝_효 하여 先_선 王_왕 考_고 및 先_선 考_고 妣_비 喪_상 에 無_무 違_위
 家_가 禮_례 하고 七_칠 男_남 妹_매 의 長_장 男_남 으로 友_우 愛_애 가 敦_돈 篤_독 하였다. 一_일 生_생 을 艱_간 苦_고
 中_중 에 살면서도 祖_조 上_상 의 顯_현 彰_창 事_사 業_업 을 枚_매 擧_거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룩

慕蓮私稿跋文

모연사고발문

嗚呼. 此余之舍伯慕蓮先生私稿也. 竊惟人之生活順逆. 係
오 호 차 여 지 사 백 모 연 선 생 사 고 야 절 유 인 지 생 활 순 역 계
 于生長環境. 而多少分者或有矣. 念昔舍伯. 生于倭治. 父祖
우 생 장 환 경 이 다 소 분 자 혹 유 의 염 석 사 백 생 우 왜 치 부 조
 排日. 是以被壓百端. 家勢甚窮. 年纔七八. 不就學業. 力行農
배 일 시 이 피 압 백 단 가 세 심 궁 년 재 칠 팔 불 취 학 업 역 행 능
 務. 猶不免根皮. 僅僅延命. 嘗以三餘. 受業于王考石蓮先生.
무 유 불 면 근 피 근 근 연 명 상 이 삼 여 수 업 우 왕 고 석 연 선 생
 王考歿後. 獨自習于採山齋. 床不捲書而常日在之. 螢雪攻
왕 고 몰 후 독 자 습 우 채 산 재 상 불 권 서 이 상 목 재 지 형 설 공
 苦. 豈可以言語形容哉. 家勢稍饒. 設塾延師. 使門子弟及地
고 기 가 이 언 어 형 용 재 가 세 초 요 설 숙 연 사 사 문 자 제 급 지
 域俊士. 日來學習. 以遂自身未工之恨. 其後以校宮事及宗
역 준 사 일 래 학 습 이 수 자 신 미 공 지 한 기 후 이 교 궁 사 급 종
 中事. 歷訪國中著名人士. 文酒交遊. 資性溫厚. 以孝事父祖.
중 사 역 방 국 중 저 명 인 사 문 주 교 유 자 성 온 후 이 효 사 부 조
 以友撫諸弟. 以義待宗戚. 以敬處公事. 有功於宗事及儒事
이 우 무 제 제 이 의 대 종 척 이 경 처 공 사 유 공 어 종 사 급 유 사
 者多矣. 舍伯平生. 精力及事行. 盡在此書. 或有讀此稿者. 可
자 다 의 사 백 평 생 정 력 급 사 행 진 재 차 서 혹 유 독 차 고 자 가
 疑一人平生. 如何遂行如此多事者必有矣. 誰於善俗補世.
의 일 인 평 생 여 하 수 행 여 차 다 사 자 필 유 의 수 어 선 속 보 세
 不爲輕重. 而然於吾家不啻爲重寶而已矣. 日長侄又鎮. 恐
불 위 경 중 이 연 어 오 가 불 시 위 중 보 이 기 의 일 장 질 우 진 공
 議於舍伯私稿刊行事. 我亦卽贊曰. 忽然思之. 王考及先考.
의 어 사 백 사 고 간 행 사 아 역 즉 찬 왈 홀 연 사 지 왕 고 급 선 고
 及仲兄採堂遺稿已刊. 今又刊舍伯私稿則. 一家三世四稿.
급 중 형 채 당 유 고 이 간 급 우 간 사 백 사 고 즉 일 가 삼 세 사 고
 實爲頒布于世. 此豈不爲吾先代力行清德乎. 叔侄相顧而不
실 위 반 포 우 세 차 기 불 위 오 선 대 역 행 청 덕 호 숙 질 상 고 이 불
 禁感祝焉. 噫今刊之役深謝諸賢協助. 而略述所懷如右焉
금 감 축 언 희 금 간 지 역 심 사 제 현 협 조 이 약 술 소 회 여 우 언
 壇君紀元四三四一年戊子立秋節 胞弟奎完盥手敬跋
단 군 기 원 사 삼 사 일 년 무 자 입 추 절 모 제 유 완 관 수 경 발

발문

오호라 이는 나의 사백 모연선생의 사고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활에 조금 여유롭고 여유롭지 못함이 생장환경에 관계되어 다소 나뉘어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사백께서는 왜정시대를 만나 왕고 석연 및 선고 남운 부군의 강력한 배일 행위로 온갖 핍박을 받아 가세가 심히 곤궁하였다. 소학교에 들어가야 할 나이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농사일을 하면서도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하는 실정이었다. 그러함에도 틈틈이 왕고께 수업함을 게을리 아니하였고 왕고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홀로 재산재에서 자습하되 일을 하면서도 책상 위에 책을 항상 펼쳐놓고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그 고생스럽게 공부하였던 정경을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으리오. 그 후로 가세가 조금 넉넉하여집에 서당을 설치하고 스승을 맞이하여 문중의 자제들과 지역의 준수들로 하여금 와서 공부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을 이루려함이 있다. 그 후로는 향교의 일과 종중의 일로 극중의 저명인사들을 역방하며 문주로 교유하였다. 천성이 온후하여 부조를 효로써 섬기고 우애로써 여러 아우들을 어루만지며 정의로 일가친척을 대하고 공경으로써 모든 일을 처리하여 종사와 유사에 공헌함이 지대하였다. 사백의 평생 정력과 사행이 이 책에 모두 모아져 있으니 혹 이 책을 읽는 이가 있다면 한사람이 일생동안 어떻게 이와같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자가 반드시 있으리라. 비록 풍속을 교화하여 세상에 큰 보탬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우리 집안에서는 증보로 여길 뿐만이 아니다.

어느 날 장질 우진이 조심스럽게 사백의 사고 간행사로 와서 의논하거늘 내 또한 즉시 찬동하면서 문득 생각하니 왕고 및 선고와 증형 채당 유고가 이미 간행되었거늘 이제 또 사백 유고를 간행하면 일가삼세사고가 세상에 반포함이 되니 이 어찌 우리 조상님의 노력하신 청덕이 아니리오 하고 숙질간에 서로 돌아보며 자축함을 금하지 못하였다.

슬프다. 이번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일에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제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소회를 위와 같이 약술하나이다.

단군기원 4341년 무자 입추절 포제 유완은 손을 씻고 공경히 받합니다.

書

一接清儀.久而不忘.非吾子動人之深.焉能如是耶.歲新緬
 일 접 청 의 구 이 불 망 비 오 자 동 인 지 심 언 능 여 시 야 세 신 변
 惟.寓中體履佳勝.學味日入蔗境否.顛望孝一齒.又添百
 유 우 중 체 이 가 승 학 미 일 입 자 경 부 용 망 효 일 치 우 접 백
 劣.益浩歎浩歎.所惠尊先石蓮稿奉讀.以回可以想.有行有
 렬 익 호 탄 호 탄 소 혜 존 선 석 연 고 봉 독 이 회 가 이 상 유 행 유
 文.又能裕後.使君能繩遵祖武.拔於流俗也宜乎.述菴公錫
 문 우 능 유 후 사 군 능 승 준 조 무 발 어 유 속 야 의 호 슬 암 공 석
 嘉以慕蓮也.雖欲下一轉語.以明其意而顧以鈍筆.安能形
 가 이 모 연 야 수 욱 하 일 전 어 이 명 기 의 이 고 이 둔 필 안 능 형
 容其十一乎.然亦不可以終默.茲構數行以送.只領其相與
 용 기 십 일 호 연 역 불 가 이 종 묵 자 구 수 행 이 송 지 령 기 상 여
 之意.無負述菴鄭重之意而已.諒只如何
 지 의 무 부 슬 암 정 중 지 의 이 기 량 지 여 하

樂軒 鄭孝鉉 河東人 大田市 慕義洞 己酉一九六九年
 낙 현 정 효 현 하 동 인 대 전 시 모 의 동 기 유 일 구 육 구 년

서

그대의 맑은 의표를 한번 접한 이후로 오랫동안 잊지 못하겠으니 그대
 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덕이 있지 않다면 가능하겠는가. 새해에 멀리서
 생각하노니 객지에서 건강하고 학문에도 진척이 있는지 그러하기를 우
 러러 바라노라. 나는 또 한살을 더 먹고 온갖 것이 용렬하니 탄식만 나
 을 뿐이구려. 은혜롭게 보내주신 선왕고 석연 고를 봉독하니 학문과 행의
 가 높으시고 또 후손을 잘 훈육하여 그대로 하여금 능히 조부의 뒤를

이어 유속에서 빼어나게 하였음을 상상하고 남음이 있었다오. 그러기에 슬암공이 모연이라 석호한 뜻을 더욱 알게 되었다오. 비록 붓을 들어 모연이란 뜻을 더 밝히고 석연공의 훌륭하신 학문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하나 나의 둔필로 어찌 그 하나라도 형용하리오. 그러나 또한 끝까지 묵묵할 수 없기에 이에 두어줄을 엮어 보내노니 그 존경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또 슬암공의 정중하고도 깊은 뜻을 저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네.

기유 낙헌 정효현

書
서

吾友宗杲君.法家拂士也.旣爲哀稔先集.頒于世.以其祖石
오 유 종 표 군 법 가 필 사 야 기 위 부 졸 선 집 반 우 세 이 기 조 석
蓮先生.因浴儒之公議.追配梧岡祠.其孝其誠超出尋常萬
연 선 생 인 욱 유 지 공 의 추 배 오 감 사 기 효 기 성 초 출 심 상 만
萬而求之於古或有之.今世罕見也.而亦可云善繼善述也.
만 이 구 지 어 고 혹 유 지 금 세 한 전 야 이 역 가 윤 선 계 선 술 야
又有奇事.浴鄉文化院長金吉榮氏.以其蓮盤丁氏三世文
우 유 기 사 욱 향 문 화 원 장 김 길 영 씨 이 기 연 반 정 씨 삼 세 문
獻拔萃成編.是誠浴鄉之文化暢達.而俾其浴鄉之民戶戶
헌 발 취 성 편 시 성 욱 향 지 문 화 창 달 이 비 기 욱 향 지 민 호 호
而習讀也.何其偉矣盛矣哉.印役告畢.宗杲君開發刊會紀
이 습 독 야 하 기 위 의 성 의 재 인 역 고 필 종 표 군 개 발 간 회 기
念.其先業之懿.而延賓呼韻.漢相亦參席末.不可無一辭之
념 기 선 업 지 의 이 연 빈 호 운 한 상 역 참 석 말 불 가 무 일 사 지
讚.故忘拙構呈.茲敢曰.詩呼哉.效嘖呵呵愧愧.一家三傑
찬 고 망 졸 구 정 자 감 왈 시 호 재 효 빈 가 가 괴 괴 일 가 삼 걸
續鍾生.好怍淵源大業成.野老曾聞沙上訣.石賢不墜勉翁
속 종 생 호 작 연 원 대 업 성 야 노 증 문 사 상 결 석 현 불 추 면 응

聲.德音純粹光風暖.道味深長霽月清.寶唾而今收拾了.世
성 덕 음 순 수 광 풍 난 도 미 심 장 제 월 청 보 타 이 금 수 습 료 세

人誦識我公名
인 송 식 아 공 명

戊寅 一九九八年

東江 柳漢相 儒州人 潭陽郡 昌平面 海谷里
동 강 류 한 상 유 주 인 담 양 군 창 평 면 해 곡 리

서

나의 벗 종표 군은 법가의 훌륭한 선비라 이미 선부군의 문집을 발간하여 세상에 반포하고 그 조고 석연 선생을 향유들의 공의를 걸쳐 오강사에 추배케 하였으니 그 효성이 보통에서 뛰어남에 옛날에는 혹 그러한 사람이 있었으나 지금은 드물게 볼 수 있는 일로 선계기지 하고 선술기사자라고 이룰만하다.

또 특이할 만한 일은 곡성 문화원장 김길영씨가 그 연반정씨 삼세문헌을 발췌하여 한권의 책으로 엮어냈으니 이는 곡성의 문화를 창달하는 일로써 곡성군민들로 하여금 호호마다 소장하여 익히게 함이니 어찌 그렇게 위대한가. 인쇄가 끝나 발간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이 일을 영원히 기념하고자 하객들에게 경거일장씩을 구하니 나 또한 말석에 참여하여 한마디의 찬사가 없을 수 없기에 망쥘하고 구정하니 이 어찌 시라고 하리오.

효빈일 따름이니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시월

일가에서 삼걸이 연속으로 태어나서 / 좋은 연원 가지며 대업을 성취했네
야로는 일찍이 사상결을 들었고 / 석연옹은 면옹성을 실추하지 아니했네
덕음이 순수함은 광풍처럼 온화하고 / 도미가 심장함은 제월이 맑듯하네
유문을 지금에 수습하여 엮어내니 / 세인들이 우리 공의 명성을 칭송하네.

무인 1998년 동강 류한상

書

君常冥壇先施為禱而況其墓主
之文獻乎氏之為一丹如彼海也何怪
秋涼彫兮

經禮清祿法法祝切正竊念利行
送符而壽傳又輯修富治政要語而
公諸一世為 先為師之道至矣
君之矣安得不欽欽且樂道之也事
尚晉尚不崇新法生亦未遂識傳
本厚 志之地也萬事生何異於不
畜德也

戊辰八月旬三日
權 忠 夫 拜

보통의 안부도 먼저 살피기가 어려운 것이거늘 하물며 귀중한 문헌
임에랴. 은혜를 입어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러러 살피건데
서늘한 가을에 존체 강녕하시다 하니 감축드립니다. 그윽히 생각하니
유고를 간행하여 후세에 전하시고 또 수신제가 치국하는 요긴한 말
들을 수집하여 일세에 공표하니 선존사 도학이 지극함이 되도다. 어찌
공경하여 그 일을 말하지 않으리요. 마땅히 나아가 뵈고 사례하여야
하나 농촌의 실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니 혹 후히 용서하여 주시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나머지는 여기에서 그치고 예를 갖추지 못하노라.

무진 8월 10일 권희문 재배

書

湖空落々居日世生因根時復或^奉時
 者深荷不外面令伊清範久違音信阻積
 歲又垂暮矣深^{孤燈}夜皓首相憇何嘗不耿耿
 於朝暮耶去番一次致書于先祠松堂後
 淹滯返矣竊想此宗之身曩未快終未獲成
 奄棄於土中人遠此承訃祗增悼歎惡善好
 學可不見此世未推近頃來
 靜中經体事錢進增康况得與古人唯諾子
 帳抱房穩待同堂尊少會節感濟平吉^此
 濛仔直視耳拙忘至此老死地頭百廢交侵只
 是一空殼而已嗚且虛何所謂鵝湖漫錄者借
 出於同人若誘兒輩所任訛誤未甚忘言及
 此愧汗無已伏願高明倘不鄙^私而收錄否
 鑒不備頓^禮
 丙子除月 拙長末浚 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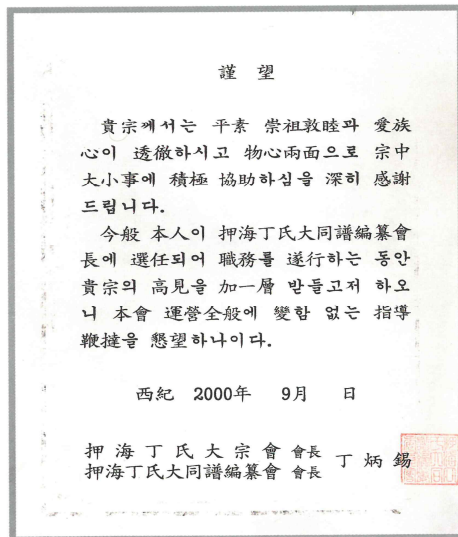
영호남이 멀고 머나 사는 세대와 조상님이 같으므로 때로 후 받
 들어 모시면서 깊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식이 적조하고
 한해가 또 저므니 깊은 밤에 그리워하는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 전번에
 한번 광주 송당 일가 편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지체되었다가 반려가
 되었더군요. 그윽히 생각해 보니 이 일가가 신병이 있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얼마 뒤에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보니 그 선을 좋아하고
 학문을 즐기던 모습이 그림습니다. 문안드리지 못한 요즈음에 송구영신의
 때를 당하여 도체 강녕하시며 집안도 편안하십니까? 저는 늙은 몸에
 백병이 침노하니 빈 꺾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탄식한들 이제 어찌하리
 오. 요즈음 아호만록을 남에게 빌려 아이들에게 읽어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고명께서도 후 비속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수령하시렵니까?
 나머지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병자 선달 즐 종말 식 배



功勞牌 涉外丁宗杓
공로패 섭외정종표

貴下는 宗親會任員으로 始祖大陽君 神道碑 및 宗會館建立 祭閣
 귀 하 종 친 회 임 원 시 조 대 양 군 신 도 비 종 회 관 건 립 제 각
 二棟重修 等 本會運營에 物心兩面으로 積極協助하였을 뿐만 아니
 이 동 중 수 등 본 회 운 영 물 심 양 면 적 극 협 조
 라 平素 祖上을 爲하는 崇高한 精神과 宗親間的 和睦과 發展에
 평 소 조 상 위 승 고 정 신 종 친 간 화 목 발 전
 寄與한 바 至大하여 後孫들의 龜鑑이 되어 그 뜻을 功勞牌에 담아
 기 여 지 대 후 손 귀 감 공 로 패
 드립니다.

西紀 一九八六年 十一月 二十三日 丁氏宗親會長 丁奎成
 서 기 일 구 팔 육 년 십 일 월 이 십 삼 일 정 씨 종 친 회 장 정 규 성



表彰文(성균관제 08- 126호)
표창문

今按全羅南道谷城鄉校通文則. 管內石谷坊蓮盤里. 典校
금안전라남도곡성향교통문즉 관내석곡방연반리전교
 慕蓮丁宗杓. 系出羅州. 高麗檢校大將軍忠烈公諱允宗后.
모연정종표 계출나주 고려검교대장군충렬공휘윤종후
 野隱諱文教. 蘆沙奇正鎮先生門人. 以孝通政大夫敦寧府
야은휘문교 노사기정진선생문인 이효통정대부돈녕부
 都正. 石蓮諱大睞. 勉菴崔益鉉先生門人. 梧岡祠配食. 遺稿
도정석연휘대현 면암최익현선생문인 오강사배식유고
 淵源錄刊行. 南耘諱翼燮. 弦窩高光善先生門人. 遺稿刊行
연원록간행 남운휘익섭 현와고광선선생문인 유고간행
 以考祖曾三世也. 公生癸酉. 承襲庭訓. 孝事父母. 友於昆
이고조증삼세야 공생계유 승습정훈 효사부모 우어곤
 季. 奉先殫誠. 家素清貧. 勤儉生活. 獎學事業盡力. 自宗中
계 봉선탄성 가소청빈 근검생활 장학사업진력 자종중
 社會團體. 褒賞多端. 儒道精神透徹. 大成殿重修. 鄉校誌發
사회단체 포상다단 유도정신투철 대성전중수 향교지발
 刊. 駐車場擴張. 及校內外諸般事寄與至大. 性本強直. 固守
간주차장확장 급교내외제반사기여지대 성본강직고수
 禮度. 儒風振興. 律而善哉. 鄙等在於首善之地. 此至行美
예도 유풍진흥 위이선재 비등재어수선지 지차지행미
 德. 不可含嘿. 故茲以表彰. 貴鄉士林. 永傳樹風善俗之資.
덕 불가함묵 고자이표창 귀향사림 영전수풍선속지자
 益加勉之企望焉
익가면지기망언

壇君紀元 四三四年 戊子五月 日
단군기원 사삼사일년 무자오월 일

成均館長 崔根德
성균관장 최근덕

谷城鄉校 僉座下
곡성향교 침좌하

표창문(성균관 제08-126호)

이제 전라남도 곡성향교 통문을 살펴보니 관내 석곡면 연반리에 전 전교 모연 정종표는 나주에서 출생하였으니 고려 검교대장군 충렬공 휘 윤종의 후예라.

야은 휘 문교는 노사 기정진 선생 문인이니 효로써 통정대부 돈녕부 도정이요 석연 휘 대현은 면암 최익현 선생 문인으로 오강사에 배식되고 유고와 연원록이 간행되었으며 남은 휘 익섭은 현와 고광선 선생 문인으로 유고가 간행되었으니 공의 고, 조, 증조 삼세라.

공이 계유에 출생하여 가훈을 이어받아 부모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선영을 받들며 정성을 다하였다. 집이 본래 가난하였으나 근검히 생활하여 장학사업에도 진력하니 종종과 사회단체로부터 포상이 많았었다. 유도정신도 투철하여 대성전을 중수하고 향교지를 발간하였으며 주차장을 확장하고 교내 제반 시설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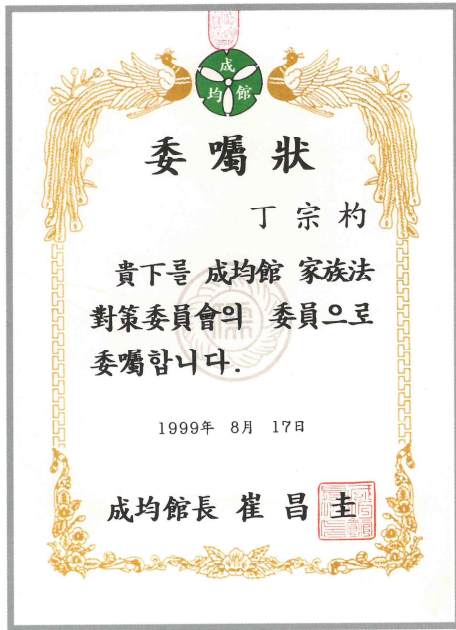
성품이 본래 강직하여 예도를 고수하고 유품을 진작하니 자랑스럽도다. 비등히 성균관에 있으면서 이 지행과 미덕을 가히 함묵할 수 없는 고로 이에 표창하니 귀향의 사람들은 미풍양속의 자료로 영전하여 더욱 권면하기를 바라노라.

단군기원 4341년 무자 5월 일

성균관장 최근덕

곡성향교 첩좌 하

委囑狀成均館
위촉장성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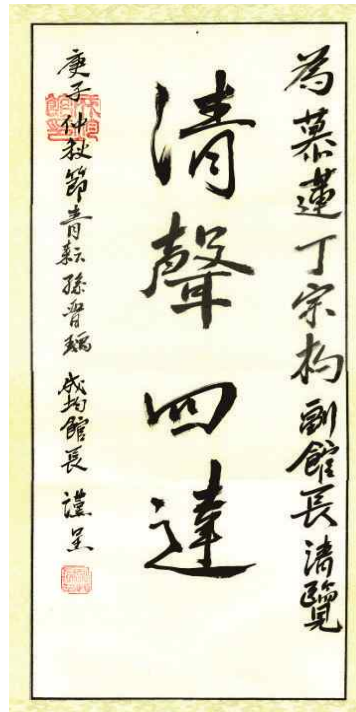


成均館副館長告由寫眞
성균관부관장고유사진



成均館長 孫晉瑤 副館長 丁宗杓
성균관장 손진우 부관장 정종표

委囑狀成均館長
위촉장성균관장



成均館副館長
성균관부관장

慕蓮羅州丁公宗杓紀績碑文
모연나주정공종표기적비문

地靈人傑이라 谷城의 國師峯과 天皇峯 사이에서 慕蓮公이
 지령인걸 곡성 국사봉 천황봉 모연공
 태어났으니 그 말이 如合符節이로다. 公의 先代는 麗朝에 諱 允
 여합부절 공 선대 려조 휘 윤
 宗이 太子太傅로 系世祖요 諱 宗甲은 昭格署令으로 麗亡에 節
 종 태자태부 계세조 휘 종갑 소격서령 여망절
 義를 지켜 李太祖가 여러번 불렀으나 不就하고 羅州로 南下하였으
 의 이래조 불취 나주 남하
 며 三傳하여 諱 克隆은 端宗祖 大司諫이니 丙子禍로 入永平
 삼전 휘 극용 단종조 대사간 병자화 입영평
 聖德山하고 諱 彦奎는 丙子胡亂에 南漢山城에서 仁祖를 모신
 성덕산 휘 언규 병자호란 남한산성 인조
 功으로 端川府使가 되고 諱 道一 號 南隱이 南平에서 谷城으로
 공 단천부사 휘 도일 호 남은 남평 곡성
 移住하니 公의 六代祖라. 高祖 諱 獻斗 號 杜谷은 學高德明하
 이주 공 육대조 고조 휘 헌두 호 두곡 학고덕명
 고 曾祖 諱 文教 一諱 碩璜 號 野隱은 蘆沙 奇先生 門人이니
 증조 휘 문교 일 휘 석황 호 야은 노사기선생 문인
 孝로 通政敦寧府都正에 贈職되고 祖 諱 大睨 號 石蓮은 崔勉
 효 통정돈녕부도정 증직 조 휘 대현 호 석연 최면
 菴를 事師하여 採山齋에서 教學不倦하니 當時 名儒雅士가 多
 암 사사 채산재 교학불권 당시 명유아사 다
 出其門하고 梧岡祠에 配享하다. 考 諱 翼燮 號 南耘은 弦窩高
 출기문 오강사 배향 고 휘 익섭 호 남운 현와고
 先生께 受學하여 文行甚備하고 妣는 豐川盧氏 準鉉女로 婦德
 선생 수학 문행십비 비 풍천노씨 준현녀 부덕
 兼備하여 有孝烈碑하다. 公이 癸酉年 十月 十六日에 出生하니 天
 겸비 유효열비 공 계유년 십월 십육일 출생 천
 姿가 純實하였고 十八歲에 先考께서 逝去하니 依禮治喪하였
 자 순실 십팔세 선고 서기 의례치상
 다. 또 王考께서 棄世하자 居喪中에 明師를 招聘하여 門子弟를
 왕고 기세 거상중 명사 초빙 문자제
 教育하고 王考門人들과 設壇享祀 및 遺墟碑를 豎立하였으며
 교육 왕고문인 설단향사 유허비 수립

또 石蓮遺稿 및 淵源錄과 考南耘遺稿를 發刊하고 王考를 勉
석연유고 연원록 고남운유고 발간 왕고 면

菴先生 祠宇인 梧岡祠에 追配하였다.
암선생 사우 오강사 추배

이어서 始祖公 神道碑 豎立 및 各派譜牒을 編纂하였고 谷城
시조공 신도비수립 각파보첩 편찬 곡성

鄉校 大成殿重修 및 鄉校誌를 發刊하였으며 道內外 院祠宇
향교 대성전중수 향교지 발간 도내외 원사우

의 院任과 蘆沙先生을 崇慕하는 風詠契의 首長이 되어서는
원임 노사선생 숭모 풍영계 수장

所任에 竭力하였고 晩年에는 始祖公 神道碑銘으로부터 公의
소임 갈력 만년 시조공 신도비명 공

文字에 이르기까지 家傳 文獻을 整理하여 羅州丁氏世德錄을
문자 가전 문헌 정리 나주정씨세덕록

出刊하고 成均館 副館長에 選任되어서는 先代教旨 및 公 關
출간 성균관 부관장 선임 선대교지 공관

聯圖錄을 收集하여 慕蓮隨藏錄을 出刊하다. 公의 言論은 正
련도록 수집 모연수장록 출간 공언론 정

直하고 舉止는 沈着하여 일찍이 모가 난 言行을 하지 않으며 義
직 거지 침착 언행 의

理에 對해서는 徹底히 是非를 가리어 말하므로 사람들에게 尊敬을
리 대 태저 시비 존경

받았으며 配는 玉川趙氏니 四男二女를 두었다.
배 옥천조씨 사남이녀

嗚呼라. 家勢貧寒하고 早年失怙하였으나 孝事父祖하고 友撫
오호 가세빈한 조년실호 효사부조 우무

諸弟하며 三餘篤工하고 廣交名士하여 儒冠道服으로 實行儒行
제제 삼여독공 광교명사 유관도복 실행유행

하니 一生之中에 何爲其多事耶아 讚曰
일생지중 하위기다사야 찬왈

天皇峯 높이 솟고 蟾津江 길이 흘러 慕蓮公 精氣받으니 年愈
천황봉 섬진강 모연공 정기 연유

高而德彌邵로다 餘暇에 篤工하여 學行이 높으니 平生에 하는 일
고이덕미소 여가 독공 학행 평생

이 繼志述事함이요 어진 子孫 두었으니 家道가 永昌하리로다
계지술사 자손 가도 영창

歲在二千二十年庚子歲暮 光山 金永雄 謹識
세재이천이십년경자세모 광산 김영웅 근지

慕蓮隨藏錄序

모 연 수 장 록 서

嗚呼라 이 책은 谷城 蓮盤里 羅州丁氏 端川府使 諱 彦奎 直
오 호 곡 성 연 반 리 나 주 정 씨 단 천 부 사 휘 연 규 직
 系孫이 隨藏해 온 文獻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慕蓮宗杓翁은
계 손 수 장 문 헌 모 연 종 표 응
 湖南의 詩禮집안으로 平素 수집한 문헌과 國中 유림들과 往復書
호 남 시 례 평 소 국 중 왕 복 서
 簡 및 教旨, 院祠祭官, 望帖, 成均館 任員 通文 등 지금까지 保
간 교 지 원 사 제 관 망 첩 성 균 관 임 원 통 문 보
 存해 오며 집안에 전해온 글이 여러 편이 있으나 아직까지 印刷에
존 인쇄
 을리지 못했다.

요즈음 世道가 날로 비뀌기는 때에 전해 온 累拾 百言이 기록된
세 도 누 습 백 언
 文籍이나 寸緒나 片牘 등을 金玉처럼 소장해 왔다. 그러나 慕蓮
문籍 촌 서 편 록 금 옥 모 연
 翁은 다만 이것을 많다 여기지 않고 대개 德行을 根本으로 삼아
응 덕 행 근 본
 왔기에 학문은 여사로 여겼다. 그러나 平素 소장한 遺品들이 후 끝
평 소 유 품
 내 먼지 낀 箱子속에 보관한 遺物이 되고 만다면 平生 珍重히 소
상 자 유 물 평 생 진 중
 장해 온 뜻이 果然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 연

대개 慕蓮翁은 대대로 文獻가의 賢裔로 그 靑氈의 유물을 잘
모 연 응 문 헌 현 예 청 진
 保存하고 있었으니 그 깊은 생각과 思慮 깊은 뜻이 누가 이보다 더
보 존 사 려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教旨와 玄冕의 文은 先代부터 珍藏해 온
교 지 현 안 문 선 대 진 장
 物件이기에 더욱 所重한 文書이다. 그러나 눈을 돌리는 순간 후
물 건 소 중 문 서
 시 散失될까 싶어 한 책으로 만들어 가정에 珍貴하게 所藏할 수
산 실 진 귀 소 장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당시 碩德과 名儒와 서로 往來한 분들의 名
석 덕 명 유 왕 래
 單을 모두 收錄하였으니 충분히 當時를 論할 수 있고 또 충분히 友
단 수 록 당 시 논 우
 誼를 돌이켜 볼 수 있을 것이다.

辛丑年 正月 日 珍原 朴景來 謹書
신 축 년 정월 일 진 원 박 경 래 근 서

慕蓮隨藏錄祝刊辭
모 연 수 장 록 축 간 사

谷城 石谷 蓮盤은 羅州 丁氏 世居地이다. 近古에 儒學者 石蓮
곡 성 석 곡 연 반 나 주 정 씨 세 거 지 근 고 유 학 자 석 연
 先生이 文學과 行義로써 世上에 著名하여 後學養成에 注力
선 생 문 학 행 의 세 상 저 명 후 학 양 성 주 력
 하였으니 慕蓮宗杓章甫가 바로 그 嗣孫이다. 儀容이 端雅하고
모 연 종 표 장 보 사 손 의 용 단 아
 意志가 篤實하며 文識이 膽富하고 儒業에 從事하여 谷城 鄉校
의 지 독 실 문 식 섬 부 유 업 종 사 곡 성 향 교
 典校와 成均館 副館長과 여러 祠宇의 院長을 歷任하여 斯文
전 교 성 균 관 부 관 장 사 우 원 장 역 임 사 문
 發展에 寄與하였다. 慕先之誠이 至極하여 先代 三世遺稿를
발 전 기 여 모 선 지 성 지 극 선 대 삼 세 유 고
 編刊하고 相宜亭을 지키며 先祖의 恩惠를 追慕하고 또 累代의
편 간 상 의 정 선 조 은 혜 추 모 누 대
 先墓에 碑碣 牲石을 모두 갖추었으니 이 또한 사람들의 行하기
선 묘 비 갈 생 석 행
 어려운 바다. 나와 더불어 先誼가 있어 交契가 甚密하니 어느
선 의 교 계 심 밀
 날 나의 瑞石書室을 訪問하여 歡談對酌하며 말하기를, “내가 少
서 석 서 실 방 문 환 담 대 작 소
 時에 倭政의 迫害를 겪고 家勢가 기울어 勉學의 機會를 얻지
시 왜 정 박 해 가 세 면 학 기 회

못하고 於焉間 白髮老境에 이르러 平生事를 回顧하니 成就
어 언 간 백 발 노 경 평 생 사 회 고 성 취
한 바 없어 自嘆不已하였는데 不意에 知己之友가 나를 위해
자 탄 불 이 불 의 지 기 지 우
實錄을 編刊코저 한다는 말을 듣고 悚愧하여 挽留하였으나
실 록 편 간 송 괴 만 류
友情이 至極하여 마침내 拒否하지 못하고 恩惠에 感謝할 뿐이
우 정 지 극 거 부 은 혜 감 사
니 그대 또한 나를 위해 一言을 記錄함이 어떠한가” 하여 그 말
일 언 기 록
을 듣고 自量해 보니 交誼상 不文의 辯明으로 固辭할 수 없어
자 량 교 의 불 문 변 명 고 사
默然히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사람의 處身이 어렵다. 무릇 선
묵 연 처 신
비란 窮해도 義理를 잃지 않고 達해도 道理를 떠나지 않아야 함
궁 의 리 달 도 리
은 聖賢의 訓戒이다.” 오늘의 現實을 보면 時代가 變遷하여
성 현 훈 계 현 실 시 대 변 천
西歐風潮가 世上에 汎濫함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 救濟하
서 구 풍 조 세 상 범 랑 구 제
기 어려운 이때를 당해 依然히 自立하여 世波에 들들지 않고
의 연 자 립 세 파
先代의 儒業을 굳게 지키고 孝友로써 世人들에게 模範을 보
선 대 유 업 효 우 세 인 모 범
이니 오늘날 보기 드문 일이다. 공이 아니면 누가 이러한 일을 할
공
것이며 本 實錄이 虛飾이 아니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不
본 실 록 허 식 불
佞이 近年에 眼疾이 尤甚하여 執筆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喜
녕 근 년 안 질 우 심 집 필 희
消息을 듣고 一言을 아니할 수 없어 強然히 執筆하여 右와
소 식 일 언 강 연 집 필 우
같이 記錄하고 所請에 應하여 恭賀하는 바이다.
기 록 소 청 응 공 하

辛丑(2021)年 正月 下瀚日
신 축 년 정 월 하 한 일

原任 成均館副館長 曲阜 孔 鍊 雄 撰
원 임 성 균 관 부 관 장 곡 부 공 연 응 찬

慕蓮隨藏錄祝刊辭

모연수장록축간사

대체적으로 뜻있는 學者들이 자료를 편집하여 書冊으로 刊行
 한 것은 過去와 現代의 자료를 未來 後學들에게 精神을 바로
 세우고 學問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 湖南 땅 谷城 고을 石谷面 蓮盤 마을은 羅州丁氏 二百餘
 年 世居地인데 國師峰과 天皇峰의 精氣를 받아 태어난 듯한 慕
 蓮 丁宗杓翁께서는 湖南의 巨儒 祖考인 石蓮先生 遺稿와 羅
 州丁氏 世德錄을 비롯 몇 권의 書冊을 刊行하였고 最近 翁께서
 所藏한 先祖님들의 古文書와 本人이 成均館을 비롯 書院 祠宇
 로부터 받았던 推戴狀과 望帖 등을 한권의 책으로 편집하여 隨藏
 錄이라 이름하고 세상에 간행하였다. 不佞은 翁과 더불어 淵齋
 先生의 道學과 忠節이 살아 움직이는 文忠祠의 任員이기에 그
 崇祖慕賢의 精神을 누구보다 잘 알고 尊敬해 온 처지이다.

大成至聖 孔夫子께서 말씀하기를, “말이 忠信하고 행실이 篤
 敬하면 비록 蠻貊의 국가라 하더라도 생활할 수 있지만 말이 忠
 信하지 않고 행동이 篤敬하지 않는다면 비록 조그마한 州里라 하
 더라도 생활을 할 수 없다” 고 하셨으며 朱夫子께서는 “그 뿌리
 를 잘 북돋아 그 枝葉을 무성하게 하여야 한다” 고 하셨다. 道德
 教育이 쇠퇴해 간 혼돈의 길목에서 慕蓮翁께서는 言忠信과 行篤
 敬

敬의 정신으로 그 뿌리를 북돋아 그 枝葉을 무성하게 하라는 朱
경 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隨藏錄 발간을 眞心으로 頌
자 수 장 록 진 심 송
祝하나이다.
축

辛丑歲首에 成均館顧問 朴來鎬 기록하다
신 축 세 수 성 균 관 고 문 박 래 호

慕蓮隨藏錄跋

모 연 수 장 록 발

禮記에 이르기를 先祖의 德行이 있음에도 알지 못함이 不仁
예 기 선 조 덕 행 불 인
이요 알고도 傳하지 못함이 不明이라 하였다. 이 明言에 부끄럽지
전 불 명 언
않으신 선비가 계시니 바로 谷城 石谷 蓮盤里에 慕蓮 丁宗杓
곡 성 석 곡 연 반 리 모 연 정 종 표
先生이시다. 慕蓮께서는 成均館副館長이셨고 谷城泮宮과 高山
선 생 모 연 성 균 관 부 관 장 곡 성 반 궁 고 산
書院 湖南風詠契 等 首長을 歷任하셨던 高明達士이시다. 慕
서 원 호 남 풍 영 계 등 수 장 역 임 고 명 달 사 모
蓮翁께서는 累代의 遺集인 高祖考 杜谷處士 諱 獻斗와 曾王
연 응 누 대 유 집 고 조 고 두 곡 처 사 휘 헌 두 증 왕
考野隱 諱 文教와 王考 石蓮 諱 大暉 先考 南耘 諱 翼燮
고 야 은 휘 문 교 왕 고 석 연 휘 대 현 선 고 남耘 휘 익 섭
累代의 文集 및 亡賢弟 採堂 諱 奎赫의 遺稿 그리고 本人
누 대 문 집 망 현 제 채 당 휘 규 혁 유 고 본 인
慕蓮私稿 等 一家五代私稿와 또 羅州丁氏世德錄을 傳于世하
사 고 등 일 가 오 대 사 고 나 주 정 씨 세 덕 록 전 우 세
였으니 이는 肯構肯堂의 올바른 姿勢요 堦簾相和의 義로운
증 구 증 당 자 세 훈 지 상 화 의
趣旨가 아니리오. 今是에 또 남아있는 文獻中에 아직 登載치
취 지 금 시 문 헌 중 등 재
못한 珍藏 靑氈寶物을 愛之重之하고 惟恐失之하여 慕蓮隨藏錄
진 장 청 전 보 물 애 지 중 지 유 공 실 지 모 연 수 장 록

이라 이름하여 出版한다. 慕蓮께서는 心的으로 이제야 緊張이 좀
 풀리실 것이니 그동안의 勞苦와 焦思에 感動되어 저절로 고개
 가 숙여지고 尊敬스럽다. 慕蓮翁께서 居住하신 境內에 相宜
 亭과 採山齋가 保存하여 世傳되고 있으니 이는 兄弟間에 友
 愛하고 宗族間에 和睦團結하라는 先代의 教示가 아니리오 이
 러한 環境속에서 生長하신 慕蓮께서는 德行을 根本삼고 學問은
 餘事임이 生活化되신 眞선비요 儒學者이다. 그 例로써 먼저
 仙化하신 賢弟 採堂公을 위하여 當時에 名士였던 竹史 崔先
 生을 特別히 모셔와 書堂을 차려서 工夫시켰고 王考이신 石蓮
 丁大暉 先生을 崔勉菴 諱 益鉉先生의 祠宇인 梧岡祠에 配
 享하는데 盡力하셨다.

本 隨藏錄은 先代의 文獻中 가장 값지고 貴重한 物件들으로써
 오랫동안 잘 保存되고 감춰졌다가 이제야 世上에 나와 확연히
 來世에 알리고 傳함이라. 이에 慕蓮翁은 禮記에 이르는 不仁
 과 不明의 허물을 免하는 契機가 되었으므로 隨藏錄 發刊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면서 跋文에 代하나이다.

歲 辛丑 (2021年) 淸和之節
 文化 柳晏重 謹稿

採堂記

채 당 기

浴川之蓮盤山中. 隱居行義. 不求聞達. 讀古人書. 行古人
욕천지연반산중 은거행의 불구문달 독고인서 행고인
 行. 杜門謝交. 深藏不售者. 卽丁斯文採堂子也. 採堂子爲
행 두문사교 심장불수자 즉정사문채당자야 채당자위
 誰. 啣奎赫. 而韓末巨學. 配食于梧岡祠者. 石蓮先生之肖孫
수 함규혁 이한말거학 배식우오강사자 석연선생지초손
 也. 以紹述先業. 爲當時之屈指者. 慕蓮雅士之仲弟也. 有是
야 이소술선업 위당시지글지자 모연아사지중제야 유시
 祖有是孫. 有是兄有是弟. 不問可知其名家子弟也. 慕蓮兄
조유시손 유시형유시제 불문가지기명가자제야 모연형
 恒言. 吾弟採堂君之文行. 超勝於劣兄云矣. 介其弟而與余
항언 오제채당군지문행 초승어열형운의 개기제이여여
 接面. 承誨非止一再. 一見知其面. 再見知其心. 其文詞能而
접면 승회비지일재 일견지지면 재견지기심 기문사능이
 不言其能. 其見識博而不言其博. 忠敬篤行. 與今世人之售
불언기능 기견식박이불언기박 충경독행 여금세인지수
 能遂利者. 不可同日語. 而擬重於古君子可矣. 日採堂子之
능수리자 불가동일이 이의중어고군자가의 일채당자지
 季氏奎完君. 謁余于瑞石寓居. 囑其仲氏之採堂號記. 爲兄
계씨규완군 알여우서석우거 촉기중씨지채당호기위형
 揚扆. 是亦嘉尚也. 丁門之三鳳文彩益輝. 而奚獨專美於荀
양흘 시역가상야 정문지삼봉문채익휘 이해독전미어순
 家之八龍耶. 感其墳簾之相好而欲記之. 奈余不文. 何冒濫
가지팔룡야 감기훈지지사호이욕기지 내여불문 하모람
 敍之. 古人之於山. 可採者多矣而今採堂子之可採者何也.
서지 고인지어산 가채자다의이금채당자지가채자하야
 採芝歟. 採薇歟. 採菜歟. 採藥歟. 以採扁號意實有在. 殷運
채지여 채미여 채채여 채약여 이채편호의실유채 은운
 將訖. 伯夷登首陽而採薇而歌焉. 秦政方虐. 四皓入商山而
장흘 백이등수양이채미이가언 진정방학 사호입상산이
 採芝而歌焉. 是皆心清事達者之吁嗟乎世衰道微也. 垂名
채지이가언 시개심청사달자지우차호세쇠도미야 수명

于萬世.曷可勝言哉.目今世衰道微.莫今若採堂子.入蓮盤
 山.中.或採菜而療其飢.或菜藥而補其身.不欲見世之渾濁.
 不欲聞世之混雜而然矣.噫與古之人其採雖殊.其趣則有
 所同.而願學伯夷之清.四皓之仙無疑焉.採堂子之可採者
 若是則.不患不到古君子之域矣.願君益採尤採.垂名于萬
 世.可期可希

光復後 庚辰清和節 東江 柳漢相 敘
 광복후 경진청화절 동강 류한상 서

채당기

곡성의 연반 산중에서 의리를 행하며 자정으로 살아가되 영달을 멀리 하고 고인의 경서를 읽으며 고인의 덕행을 실천으로 사회풍진을 막고 오래토록 깊이 간직한 선비는 정사문 채당이다. 채당은 누구를 말함 인고 함자는 규혁이니 한말의 대학자로 오강사에 배향하신 석연 선생의 손자이다. 선조의 유업을 이어 받아 온 당시의 명성 높은 모연 아사의 아우이니 훌륭한 조상에 이와 같은 훌륭한 후손이 있고 훌륭한 형 아래 이와같은 훌륭한 아우가 있으니 묻지 않아도 명가의 자제임을 알 수 있도다. 모연 형이 항상 말하되, “나의 아우 채당군의 문학과 덕행은 열악한 형보다 초월하다” 칭찬하였다. 그 아우는 나와 더불어 면접함이 한두 차례가 아닌데 한번 보매 그의 면목을 알 수 있고 두 번 보매 그 마음을 알 수 있어 그의 문장이 능함에 그 능함을 말할 수 없고 그의 박식함을 보고 그 박학함을 말할 수 없도다. 충성과 공경과 독실한 행동이 이 세대에서 능히 따라올 자를 같이 말할 수 없으니 가히 옛

군자에 비유하겠도다. 하루는 채당의 동생 유완군이 나를 광주의 서실에 찾아와 그 중형의 채당 호기를 청하여 형을 위해 천양함이 또한 가상하도다. 정씨가문의 세 봉황은 문채가 더욱 빛나니 어찌 홀로 순씨가문의 여덟 응 만이 아름다우리요. 그의 우애심에 감동되어 내 어찌 불문으로 외람히 펼 수 있을까. 옛 사람 이 산에 올라 캐는 이 많았으나 이제 가히 채당의 채는 뜻이 무엇인지 지초를 캐는 것인가 고사리를 캐는 것인가 나물을 캐는 것인가 약초를 캐는 것인가 채로써 아호를 삼은 뜻은 실로 은나라의 윤이 장차 다함에 백이숙제가 수양산에 올라가 고사리를 캐며 노래하였고 진나라 정치가 가혹함에 네분의 신선이 상산에 들어가 지초를 캐며 노래하였으니 이는 모두 마음이 맑아야 모든 일이 달성한다는 의의이다.

아! 세상이 쇠퇴하고 도덕이 희미하는데 이 분들은 명성을 만세에 떨쳤으니 어찌 가히 모두 말할 수 있는가. 지금의 쇠퇴한 세상과 도덕이 희미한 때에 채당같은 이가 있어 연반산에 들어감은 혹시라도 채소를 캐어 배고픔을 면하고 혹은 약초를 캐서 몸보신을 하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혼탁함을 보고자 함이 아니며 세상사 혼잡함을 듣고자 해서 그러함이 아니로다.

아! 옛사람과 더불어 그 캐는 일이 비록 다르나 그 취미인즉 같으니 백이의 맑은 절개와 상산사호의 정신을 배우는 뜻에는 의심이 없도다. 채당의 가히 캐는 일이 이와 같은 즉 옛 군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이 없으리니 것을 기약하며 원컨대 그대는 더욱 캐고 또 캐서 명성을 만세에 드리울 것을 기약하며 또 바라노라.

광복후 경진 청화절 동강 류 한 상 지음

採堂遺稿序

채당유고서

日浴川鄉校典校丁慕蓮宗杓氏。訪余於瑞石書室。示一冊
일 욱 천 향 교 전 교 정 모 연 종 표 씨 방 여 어 서 석 서 실 시 일 책

曰是亡弟某之遺篋殘藁也。刊之責宜其子若孫。而世俗日
왓 시 망 제 모 지 유 협 잔 고 야 간 지 책 의 기 자 약 손 이 세 속 일

變。後事未可知也。故余手欲發刊。不使泯沒而傳於後也。請
변 후 사 미 가 지 야 고 여 수 욱 발 간 불 사 민 몰 이 전 어 후 야 청

子閱稿兼爲弁文何如。余與慕蓮交密。誼不可辭。又感於愛
자 열 고 검 위 변 문 하 여 여 여 모 연 교 밀 의 불 가 사 우 감 어 애

弟之情。乃閱其稿。蓋詩與文若干篇耳。文雖不多。其宜典
제 지 정 내 열 기 고 개 시 여 문 약 간 편 이 문 수 불 다 기 의 전

實。其辭平淡。詩亦言志敘懷。淳朴切實。反有勝於穿鑿巧
실 기 사 평 담 시 역 언 지 서 회 순 박 절 실 반 유 승 어 천 착 교

僻。雕飾浮華者存焉。又文奚必以責哉。常聞公經亂後。家勢
벽 조 식 부 화 자 존 언 우 문 해 필 이 책 재 상 문 공 경 란 후 가 세

甚艱。急於耕農。不暇讀書。惟待三餘自習之。此其勤苦勞
심 간 급 어 경 농 불 가 독 서 유 대 삼 여 자 습 지 차 기 근 고 노

力。不其嘉尚乎。昔日見公數次。知其才質。似有所成就。不
력 불 기 가 상 호 석 일 견 공 수 차 지 기 재 질 사 유 소 성 취 불

幸未得長壽。得年六十三以卒。豈不哀惜乎。而况文字極貴
행 미 득 장 수 득 년 육 십 삼 이 졸 기 불 애 석 호 이 황 문 자 극 귀

之時。猶存抄稿。是不幸中幸耳。且公與伯兄慕蓮。湛樂友
지 시 유 존 초 고 시 불 행 중 행 이 차 공 여 백 형 모 연 담 락 우

愛。有似乎先世相宜亭事。可謂不愧爲文獻世家之後裔也。
애 유사 호 선 세 상 의 정 사 가 위 불 괴 위 문 헌 세 가 지 후 예 야

蓋人之傳後。不必以文而以其行也則。公孝友勤飭之行。可
개 인 지 전 후 불 필 이 문 이 이 기 행 야 즉 공 효 우 근 칙 지 행 가

範於人。文亦傳家保存。其所謂傳後不泯者此也。閱稿後以
범 어 인 문 역 전 가 보 존 기 소 위 전 후 불 민 자 차 야 열 고 후 이

其所感。弁卷而塞責云
기 소 감 변 권 이 새 책 운

歲癸未臘月下澣 曲阜孔鍊雄敘
세 계 미 납 월 하 한 곡 부 공 연 응 서

채당유고서

곡성향교 전교 정모연 종표씨가 나를 서석서실로 찾아와 한권의 책을 보이며 이르되 이는 고인이 된 아우가 남긴 유고인데 발간할 책임이 마땅히 그의 자손들에게 있으나 세상일이 날로 변해 가니 뒷일을 알 수 없도다. 그러므로 나의 손으로 발간하여 민몰되지 아니 하고 후세에 전하고자 하니 청컨대 그대가 시고를 열람한 후 책 머리글을 써 주심이 어떠한가 하니 나와 모연은 우의가 교밀한 바 가히 사양치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아우 사랑의 정에 감동되어 이에 그 시고를 열람해 보니 시와 문 약간 편이라. 문장이 비록 많지 않으나 그 뜻이 순박하고 절실하여 도리어 깊이 교묘히 꾸며 화사함보다 낫도다. 또한 문장이 많음으로써 귀하다 하리오. 일찍이 듣건대 공이 난세를 겪으면서 가세가 심히 어려워 농사에 급급한 나머지 독서할 겨를이 없어 오직 삼여 공부로 자습하여 이에 이르렀으니 그의 근면한 노력이 가상치 않은가! 옛날에 공을 두어 차례 뵈었을 적에 그의 재질이 크게 성취하리라 여겼는데 불행히 장수를 누리지 못하고 나이 겨우 63세에 별세하였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 하물며 문자가 지극히 귀한 때에 오히려 유고라도 남아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로다.

또 공과 백형인 모연과는 우애로 즐겼으니 선세의 상의정 고사와 같아 가히 문헌세가의 후예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다. 대개 인물이 후세에 전해지는데는 반드시 학문으로만 빛나는 것이 아니요 행실에 의함인즉 공의 효성과 우애와 근면한 행실이 가히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문장 또한 가보로 전해지며 보존이 되어 민몰되지 않고 후세에 전해짐이 이와 같도다.

시고를 열람한 후에 그 소감을 머리글에 올려 책임을 면할까 한다.

계미년 12월 일

곡부 공연응 지음 전주 이재철 국역

採堂羅州丁公墓表

채 당 나 주 정 공 묘 표

浴川之南石谷蓮盤後麓乾坐原。四尺之封。採堂丁公之幽
 욱 천 지 남 석 곡 연 반 후 록 건 좌 원 사 척 지 봉 채 당 정 공 지 유
 宅也。諱奎赫字性杓。其先羅州人。高麗朝諱悅。都元帥拜平
 택 야 휘 규 혁 자 성 표 기 선 나 주 인 고 려 조 휘 열 도 원 수 배 평
 章事。是爲上祖。傳至三世。諱允宗檢校大將軍。太子太傅。
 장 사 시 위 상 조 전 지 삼 세 휘 윤 종 검 교 대 장 군 태 자 태 부
 諡忠烈。諱公壽。上將軍門下侍中。諱純佑。佐命功臣。勳業
 시 충 열 휘 공 수 상 장 군 문 하 시 중 휘 순 우 좌 명 공 신 훈 업
 大著。名垂竹帛。麗末諱宗甲。文科官至昭格署令。而李太祖
 대 저 명 수 죽 백 려 말 휘 종 갑 문 과 관 지 소 격 서 령 이 이 태 조
 登極。累徵不就。曰安作二姓之臣。遂南下錦城。又數傳諱克
 등 극 누 징 불 취 월 안 작 이 성 지 신 수 남 하 금 성 우 수 전 휘 극
 隆號恥齋。官大司諫。八傳諱彥奎號思菴。丙子亂扈駕南漢。
 용 호 치 재 관 대 사 간 팔 전 휘 언 규 호 사 암 병 자 란 호 가 남 한
 賜勳券除端川府使。諱道一號南隱。自南平始居于谷城。卽
 사 훈 권 제 단 천 부 사 휘 도 일 호 남 은 자 남 평 시 거 우 곡 성 즉
 公之六代祖也。高祖諱獻斗號杜谷。學高德明。曾祖諱文教
 공 지 육 대 조 야 고 조 휘 헌 두 호 두 곡 학 고 덕 명 증 조 휘 문 교
 一諱碩璜號野隱。受業于蘆沙奇先生。得聞大義。以孝薦贈
 일 휘 석 황 호 야 은 수업 우 노 사 기 선 생 득 문 대 의 이 효 천 증
 通政敦寧府都正。祖諱大暉號石蓮。事師於崔勉菴與宋淵
 통 정 둔 념 부 도 정 조 휘 대 현 호 석 연 사 사 어 최 면 암 여 송 연
 齋奇松沙。道義相交。築愛蓮亭士林吟詠。作相宜亭。與弟石
 재 기 송 사 도 의 상 교 축 애 연 정 사 립 음 영 작 상 의 정 여 제 석
 峰大瑤墳麓相和。又於採山齋。教學不倦。當時名儒雅士。多
 봉 대 용 혼 지 상 화 우 어 채 산 재 교 학 불 권 당 시 명 유 아 사 다
 出其門。有遺稿傳世。配梧岡祠。考諱翼燮號南耘。執贄于弦
 출 기 문 유 유 고 전 세 배 오 강 사 고 휘 익 섭 호 남耘 집 지 우 현
 窩高先生。文行甚備有遺稿。妣豐川盧氏。準鉉其考。婦德兼
 와 고 선 생 문 행 심 비 유 유 고 비 풍 천 노 씨 준 현 기 고 부 덕 겸
 備有孝烈碑。以丙子九月二十一日。生公于蓮盤。昆季五人。
 비 유 효 열 비 이 병 자 구 월 이 십 일 일 생 공 우 연 반 곤 계 오 인

序居其二.有幼異質.儀表清秀而早襲庭訓.從師讀書.嚴立
서 거 기 이 유 유 이 질 의 표 청 수 이 조 습 정 훈 종 사 독 서 업 립
 課程.雖行道寢食之除.暗想默誦.不知不措.文藝夙就.同
과 정 수 행 도 침 식 지 제 암 상 묵 송 부 지 불 조 문 예 숙 취 동
 門師友.莫不推重.適因庚寅動亂.家勢漸衰.未得讀書.而
문 사 우 막 불 추 중 적 인 경 인 동 란 가 세 접 쇠 미 득 독 서 이
 三餘之暇.不爲傳廢.夜以繼日.由是造詣頗深.惟以踐履務
삼 여 지 가 불 위 전 폐 야 이 계 일 유 시 조 예 파 심 유 이 천 리 무
 本.勤儉治產.居家事親.承順無違.居喪盡禮.與兄弟友愛
본 근 검 치 산 거 가 사 친 승 순 무 위 거 상 진 례 여 형 제 우 애
 甚篤.諸宗族敦睦相勸.交朋友信義并至.處事接物.不失尺
심 독 제 종 족 돈 목 상 권 교 붕 우 신 의 병 지 처 사 접 물 불 실 척
 寸.人無間言.所居堂上.以探堂揭顏.東江柳先生作記而讚
촌 인 무 간 언 소 거 당 상 이 채 당 계 안 동 강 류 선 생 작 기 이 찬
 美曰.隱居行義.不求聞達云云.日與鄉秀講學不倦.聞風請
미 왈 은 거 행 의 불 구 문 달 운 운 일 여 향 수 강 학 불 권 문 풍 칭
 益者甚衆.而庠舍不能容.所著詩文.不爲不多.而無意掇
익 자 심 중 이 상 사 불 능 용 소 저 시 문 불 위 불 다 이 무 의 철
 拾.其餘存者詩多文少.此是公之平生大概也.己卯十月五
습 기 여 존 자 시 다 문 소 차 시 공 지 평 생 대 개 야 기 묘 십 월 오
 日卒.壽六十三也.鄉隣嗟悼.士友輓誄者亦多.配光山金氏
일 졸 수 육 십 삼 야 향 름 차 도 사 우 만 퇴 자 역 다 배 광 산 김 씨
 丙根女.文肅公周鼎后.丁丑年六月三日生.有婦德.尚今無
병 근 녀 문 숙 공 주 정 후 정 추 년 육 월 삼 일 생 유 부 덕 상 금 무
 恙.育三男三女.長男茂鎮.娶羅州林氏佶澤女.節度公后.
양 육 삼 남 삼 녀 장 남 무 진 취 나 주 임 씨 길 택 녀 절 도 공 후
 次堂鎮乙鎮.女適慶州金壽山.平澤林春在.允善未笄.孫海
차 당 진 을 진 녀 적 경 주 김 수 산 평 택 임 춘 재 윤 선 미 계 손 해
 運長房所生.餘不記.噫公以明敏篤實之姿.家學淵源.早年
운 장 방 소 생 여 불 기 희 공 이 명 민 독 실 지 자 가 학 연 원 조 년
 立志.不墜先業.詩禮爲本.教子訓姪.各有成就.且夫宗中
입 지 불 추 선 업 시 예 위 본 교 자 훈 질 각 유 성 취 차 부 종 중
 大小事.及鄉里巨細案件.莫不舉理煥釋.人多敬服焉.日公
대 소 사 급 향 리 거 세 안 건 막 불 거 리 환 석 인 다 경 복 언 일 공
 之伯氏谷城典校慕蓮甫來余.泫然言曰.亡弟雖有才智.未
지 백 씨 곡 성 전 교 모 연 보 내 여 현 연 언 왈 망 제 수 유 재 지 미

得展其所蘊先逝.慨歎何及.使其季弟奎完.以其所撰行狀.

득 전 기 소 온 선 서 개 탄 하 급 사 기 제 제 규 완 이 기 소 찬 행 장

囑余不朽文.感其情狀.不敢終辭.敘次如右.以示來後云爾

촉 여 불 후 문 감 기 정 장 불 감 종 사 서 차 여 우 이 시 래 후 운 이

歲甲申 二千四年 新正 光山 金善駟 撰

세 갑 신 이 천 사 년 신 정 광 산 김 선 일 찬

채당나주정공묘표

곡성의 남쪽 석곡면 연반리 후록 건좌원에 사척 분묘는 채당 정공의 유적이다. 휘는 유희이요 자는 성표이며 채당은 그 호이다. 선대는 나주인으로 고려조에 휘 열은 도원수로 평장사에 제수되었으니 상조이고 3세를 전하여 휘 윤종은 검교대장군 태자태부이고 시호는 충열이며 휘 공수는 상장군 문하시중이고 휘 순우는 좌명공신으로 훈업이 크게 나타나 이름이 청사에 실려있다. 고려말에 휘 증갑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소격서령에 이르렀고 이태조가 등극하여 높은 벼슬로 여러번 초빙하였으나 나아가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어찌 두 성의 신하가 되리오” 하고 도리어 남쪽 금성으로 내려왔다. 또 두어 대를 지나 휘 극릉 호치재는 벼슬이 대사간이요 8전하여 휘 언규 호 사암은 병자 1636년 난에 어가를 남한에 호종한 공으로 훈권을 받았고 단천부사에 제수되었으며 휘 도일 호 남은은 남평으로부터 곡성에 처음으로 입향하였으니 곧 공의 6대조이다.

고조의 휘 헌두 호 두곡은 학고덕명하였으며 증조의 휘 석황 휘 문교 호 야은은 노사 기선생에게 수업하여 대의를 득문하였고 효천으로 통정대부 돈영부도정에 증직되었으며 조의 휘 대현 호 석연은 최면암 선생에게 사사하였고 송연재 기송사 제현과 더불어 도의로써 서로 사귀었다. 애연정을 수축하여 사림들과 음영하였으며 또한 상의정을 지어 석봉 대용과 함께 화락하게 지냈고 이어 채산재에서 교학을 게을리

아니하였으니 당시의 명유와 아사들이 그 문하에서 많이 배출되었고 유고가 세상에 전해지며 오강사에 배향되었다.

고의 휘 익섭 호 남운은 현와 고선생에게 집지하여 문학과 행실이 겸비하고 유고가 간행되다. 어머니는 풍천노씨로 증현은 그 아버지이다. 부공과 모덕을 모두 갖추었으며 효천으로 효열비가 서 있다.

공은 병자 1936년 9월21일에 석곡면 연반리 집에서 5형제 중 2남으로 태어나니 어려서부터 특이한 기질이 있고 의표가 청수하였다. 일찍부터 정훈에 승습되었고 스승을 쫓아 글을 읽음에 엄하게 과정 세웠으며 비록 길에 다니고 잠자며 밥 먹는 시간이라도 암상하고 묵송하되 알지 못한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아니하니 문예가 숙취하여 동문의 사우들이 모두 추증하였다. 때마침 경인동란으로 인하여 가세가 점점 쇠하여 온전한 공부를 할 수 없었으나 틈틈히 공부를 계속하여 폐하지 아니하고 밤을 낮 삼아 노력하니 이로 말미암아 조예가 깊어졌도다.

천리로써 근본을 삼아 근검으로 살림을 이루었고 평상시 어버이를 섬김에 승순하여 어짐이 없었다. 상을 당하여 예를 다하였고 형제와 더불어 우애가 심독하였으며 모든 종족들과 돈목을 서로 권하고 봉우들과 사림에 신의로 하였으며 일을 처리하거나 행동할 때 촌척의 실수가 없으니 사람들의 이간이 없었다. 거처한 당상에 채당이라 현판을 걸었으니 동강 류선생이 호기를 지어 찬미하여 이르기를, “숨어살며 의를 행하고 문달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였다. 날마다 향수들과 더불어 강학을 게을리 아니하니 풍문을 듣고 배우려 찾아온 사람이 심히 많아 상사에 넘쳤다. 지은 시문이 적지 아니하되 유집을 만들 뜻이 없어 유실되었으나 전해움이 시가 더 많고 문은 좀 적다. 이상이 공의 평생동안의 대개이다.

공이 기묘년 1999년 10월 5일에 63세로 졸하니 향린이 슬퍼하고 만사가 심히 많았도다. 배 광산김씨는 병근의 따남으로 문숙공 주장의 후로

정축년 6월 3일생으로 부덕이 있고 오늘날 무양하다. 3남 3녀를 두었는데 장남 무진은 나주임씨 따님에게 장가들었으니 절도공 길택의 후이다. 차남은 당진과 을진이고 여는 경주 김수산 평택 임춘재에게 시집갔고 막내딸 윤선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손에 해운은 장방 소생이고 나머지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아~ 아! 공은 명민하고 독실한 자질로서 연원과 가학을 이어 조년에 뜻을 세우고 선업을 실추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시와 예로서 근본을 삼아 자질을 훈도함에 각각 자질에 따라 성취시키고 또 종종 대소사와 향리의 크고 작은 안건을 이치에 맞도록 해결치 아니함이 없으니 사람마다 공경하고 승복하였다. 어느 날 공의 백씨인 곡성향교 전교 모연 보가 나를 찾아와 현연히 말하기를, “망자가 된 동생인 채당이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었으나 그 포부를 펼쳐 보지도 못하고 나보다 먼저 떠났으니 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그 계제 규완으로 하여금 그가 지은 가장을 나에게 불후문을 청하니 형제간의 정상에 감동되어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서술하여 후세에 전하노라.

갑신 2004년 신정에 광산 김선일 찬

採堂羅州丁公行狀

채 당 나 주 정 공 행 장

公諱奎赫.字性杓.採堂其號.姓貫羅州丁氏也.高麗朝有諱

悅號檜軒.大別相都元帥.拜平章事.上祖.三傳諱允宗.官

檢校大將軍.太子太傅諡忠烈.諱公壽.上將軍門下侍中.諱

純佑.佐命功臣.以上登載於麗史.三傳諱宗甲號白隱.文科
순유 좌명공신 이상등재 어려사 삼전회종감 호백은 문과
 官昭格暑令.李太祖登極.累徵不就.曰安作二姓之臣.遂南
관소격서령 이태조등극 누징불취 왈안작이성지신수남
 下錦城.數傳諱克隆號恥齋.官大司諫.八傳諱彦奎號思菴.
하금성수전회극용호치재 관대사간 팔전회언유호사암
 丙子胡亂扈從南漢.賜熏券除端川府事.諱道一號南隱.自
병자호란호종남한 사훈권제단천부사 휘도일호남은 자
 南平始居于谷城.是公之六代祖也.高祖諱獻斗號杜谷.曾
남평시거우곡성 시공지육대조야 고조휘헌두호두곡 증
 祖諱文教號野隱.以孝薦贈通政大夫敦寧府都正.受業于
조휘문교호야은 이효천증통정대부돈녕부도정 수업우
 蘆沙奇先生.祖諱大暉號石蓮.事師於崔勉菴.從遊宋淵齋
노사기선생 조휘대현호석연 사사어최면암 종유송연재
 奇松沙諸賢.築愛蓮亭.與士林吟詠.作相宜亭.于與弟石峰
기송사제현 축애연정 여사림음영 작상의정 우여제석봉
 大瑤.友愛甚篤.塤箎湛樂.講於採山齋.以後進養成爲己
대용 우애심독 훈지담낙 강어채산재 이후진양성위기
 任.教學不倦.以士林公薦.追配於梧岡祠.學文瞻富.所著
임 교학불권 이사림공천 추배어오강사 학문섬부소저
 甚多.有遺稿傳于世.考諱翼燮號南耘.受業于弦窩高先生.
심다 유유고전우세 고휘익섭호남운 수업우현와고선생
 文行甚備.遺稿刊于世.妣豐川盧氏準鉉之女.弘窩士豫后.
문행심비 유고간우세 비풍천노씨준현지녀 홍와사예후
 婦德兼全.奉舅姑極盡誠孝.奉君子承順無違.夫病危篤.刺
부덕겸전 봉구고극진성효 봉군자승순무위 부병위독자
 臀受血注口延命三載.以孝烈鄉薦有褒賞.豎孝烈碑也.公
등수혈주구연명삼재 이효열향천유포상 수효열비야공
 以丙子九月二十一日.生于谷城郡石谷面蓮盤里第.五雁
이병자구월이십일일 생우곡성군석곡면연반리제 오안
 序居其二.自幼穎悟超常.及其上學.自知讀書.一字半句.
서거기이 자유영오초상 급기상학 자지독서 일자반구
 不爲放過.及長資質清秀.儀表出凡.早襲庭訓.沉潛默究.
불위방과 급장자질청수의표출범 조습정훈 침잠묵구
 未嘗有倦色.就學于大方家.思欲大成而家勢漸貧.雖不得
미상유권색 취학우대방가 사욕대성이가세점빈 수부득

肆力於大義貫通.不至傳廢.朝耕暮讀.十年如一日.經史子
사 력 어 대 의 관 통 불 지 전 폐 조 경 모 독 십 년 여 일 일 경 사 자
 集.無不探究.有未解處則一一就質於當時碩德君子.唯唯
집 무 불 탐 구 유 미 해 처 즉 일 일 취 질 어 당 시 석 덕 군 자 유 유
 否否之間.覺得大義.由時學業稍進.才知益明.又以踐履爲
부 부 지 간 각 득 대 의 유 시 학 업 초 진 재 지 익 명 우 이 천 리 위
 本.居家事親.承順無違.昆季友篤.壘簾相和.處宗族以情.
본 거 가 사 친 승 순 무 위 곤 계 우 독 훈 지 상 화 처 종 족 이 정
 接朋友有信.教子義方.御家有度.承上接下.不失其義.明
접 붕 우 유 신 교 자 의 방 어 가 유 도 승 상 접 하 불 실 기 의 명
 於事理.鄉黨冤枉曲直.及宗中大小事.舉理煥皙.隣里婚
어 사 리 향 당 원 왕 곡 직 급 종 중 대 소 사 거 리 환 석 인 리 혼
 喪.不問親疎.隨力必助.由是稱頌者甚多焉.所居燕室.採
상 불 문 친 소 수 력 필 조 유 시 칭 송 자 심 다 언 소 거 연 실 채
 堂揭號.柳東江翁作記而讚美.古人之於山.可採者多.而今
당 게 호 류 동 강 응 작 기 이 찬 미 고 인 지 어 산 가 채 자 다 이 금
 採堂子.採芝採薇採菜菜藥.林泉自娛.逍遙自適.以採自號
채 당 자 채 지 채 미 채 채 채 약 임 천 자 오 소 요 자 적 이 채 자 호
 云云.日與鄉秀諸子.責忠課孝爲己任.三十餘年.教之不
운 운 일 여 향 수 제 자 책 충 과 효 위 기 임 삼 십 여 년 교 지 불
 倦.由是遠近賴而成就者多.而所著詩文亦多.而不爲傳後
권 유 시 원 근 회 이 성 취 자 다 이 소 저 시 문 역 다 이 불 위 전 후
 計.遺失殆半.季弟奎完.撤拾於斷爛之餘.而至今藏在巾笥
계 유 실 태 반 계 제 규 완 철 습 어 단 란 지 여 이 지 금 장 재 건 사
 云.而上公之平生大概實事也.己卯十月五日寅時考終.得
운 이 상 공 지 평 생 대 개 실 사 야 기 묘 십 월 오 일 인 시 고 종 득
 年六十三歲.隣問弔者嗟歎.門人士林.輓誄者相繼.葬于谷
년 육 십 삼 세 인 문 조 자 차 란 문 인 사 림 만 회 자 상 계 장 우 곡
 城石谷蓮盤村後麓.大谷上端丁坐原.配光山金氏丙根其
성 석 곡 연 반 촌 후 륙 대 곡 상 단 정 좌 원 배 광 산 김 씨 병 근 기
 考.文肅公周鼎后.丁丑年六月三日生.婦德甚備.無恙在
고 문 숙 공 주 정 후 정 축 년 육 월 삼 일 생 부 덕 심 비 무 양 재
 堂.育三男三女.男長茂鎮.娶羅州林氏節度公后佶澤女.次
당 육 삼 남 삼 녀 남 장 무 진 취 나 주 입 씨 절 도 공 후 길 택 녀 차
 堂鎮乙鎮.女適慶州金壽山.平澤林春在.允善未笄.孫海運
당 진 을 진 녀 적 경 주 김 수 산 평 택 임 춘 재 윤 선 미 계 손 해 운

長房所生. 餘不記. 噫公天資明敏. 孝友根性. 父病暫不離
장 방 소 생 여 불 기 희 공 천 자 명 민 효 우 근 성 부 병 잠 불 이
 側. 求藥侍湯盡誠敬. 居喪哀毀滅性. 送終極遵禮制. 三年如
측 구 약 시 탕 진 성 경 거 상 애 훼 멸 성 송 종 극 준 예 제 삼 년 여
 一. 奉偏慈尤致誠敬. 山採川漁以供甘旨. 親志喜悅矣. 奄遭
일 봉 편 자 우 치 성 경 산 채 천 어 이 공 감 지 친 지 희 열 의 업 조
 內艱. 喪葬祭禮亦如前喪. 且夫先山守護及諸般宗事. 莫不
내 간 상 장 제례 역 여 전 상 차 부 선 산 수 호 급 제 반 종 사 막 불
 周旋. 而事兄如嚴父. 愛弟甚篤. 有無共之. 公之伯氏慕蓮.
주 선 이 사 형 여 엄 부 애 제 심 독 유 무 공 지 공 지 백 씨 모 연
 與余舊交. 觀善會員也. 以紹述先業. 現谷城文廟典校矣. 日
여 여 구 교 관 선 회원 야 이 소 술 선 업 현 곡 성 문 묘 전 교 의 일
 以季弟奎完所撰家狀. 請余爲行錄. 誼不敢終辭. 依其家狀.
이 계 제 규 완 소 찬 가 장 청 여 위 행 록 의 불 감 종 사 의 기 가 장
 滋筆刪削. 以待立言君子之裁擇焉
자 필 산 삭 이 대 입 언 군 자 지 재 택 언

甲申二千四年初正 文化 柳晏重 敘
갑 신 이 천 사 년 초 정 문 화 류 안 중 서

채당나주정공행장

공의 휘는 유희이요 자는 성균이며 호는 채당이니 본관은 나주정씨이다. 고려 조의 휘 열 호 회헌은 대별상 도원수 평장사의 벼슬에 오른 분으로서 상조요 3세를 전하여 휘 윤종은 대장군 태자태부 검교이며 시호는 충열이요 휘 공수는 상장군 문하시중이요 휘 순우는 좌명공신이니 이상은 고려사에 등재된 현조이며 3전하여 휘 종갑 호 백은은 문과급제하여 소격서령이니 이래조 등극 후 누차 소명하였으나 어찌 두 임금을 섬기리요 하고 나아가지 않았으며 드디어 남쪽인 나주로 내려왔다. 몇 대를 지나 휘 극릉 호 치재는 대사간이요 팔대를 지나 휘 언규 호 사암은 병자호란에 남한산성까지 임금을 모신 공으로 후원을 하사받고 단천부사에 제수하고 휘 도일 호 남은은 남평으로부터 비로소 곡성에 사시게 되어 공의 6대이다. 고조는 휘

현두 호 두곡이요 증조 휘 문교 호 야은은 효행으로 통정대부 돈영부도정에 증직되었으며 노사 기선생에게 수업하고 조 휘 대현 호 석연은 최면암 선생에게 사사 후 송연재 기송사 제현과 증유하였다. 애연정을 짓고 선비와 더불어 시를 읊었고 또한 상의정을 지어 아우 석봉 대응과 우애를 돈독히 하며 서로 즐겼으며 재산재에서 후진양성에 힘써 가르치고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으니 유림의 천거로 오강사에 배향하였으며 학문이 깊어 저술이 많아 유고가 세상에 전해있고 부친 휘 익섭 호 남운은 현와 고선생에게 수학하여 많은 문행을 쌓았으며 유고가 간행되었다.

모친 풍천노씨는 증현의 딸이요 홍와 사예의 후손으로 부덕을 겸한 바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해 받들며 남편 공경은 뜻에 따라 어김이 없더니 남편이 위중한 병환에 처하자 허벅지 살을 베어 약으로 쓰고 손가락의 피를 내어 수혈하며 삼년간 연명케 하니 향리의 천거로 효열의 포상을 받았으며 효열비가 서 있다. 공은 병자 1936년 9월 21일에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본가에서 5형제 중 2남으로 태어나니 어려서부터 영리하여 배움에 나아감에 스스로 독서할 줄 알고 한자라도 헛되이 지나쳐버리지 않았다. 장성하여서는 자질이 청수하고 용의가 비범하여 일찍이 가훈을 익히며 묵묵한 가운데서 연구에 잠기되 한번도 권태의 빛이 나타나지 않았었다. 명문의 선생을 찾아 학문을 크게 이루고자 하였으나 낮에는 농사하고 밤에는 글 읽기 십년을 하루같이 경서와 사기와 성현서를 탐구하지 않음이 없고 해득하지 못한 곳은 일일이 당시의 석학군자에게 질의하여 문득 대의를 깨닫게 되었으며 학업은 점점 나아가고 재주와 지혜가 더욱 밝아져 실천으로 근본을 삼았다. 집안에서는 부모의 뜻을 어김이 없이 받들고 형제와는 우애로 화합하며 종족간에는 정을 친구와는 신의를 자녀들의 교육은 의리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절치는 법도로 행하되 승상 접하에 그 의리를 잃지 않았고 사리에 밝아 마을의 시비곡직과 원한관계와 종중의 대소사를 이치에 맞게 처리하며 이웃의 혼인 상사에는 친·불친을 불구하고 힘에 맞게 도우니 그때마다 칭송하는 이가 많았다. 거처하는 거실에 채당이라

액자를 걸어 놓으니 류동강 옹이 호기를 지어 찬미하되 “고인도 산에서 캐내는 일이 많았으나 이제 채당은 지초, 고사리, 나물, 약초 캐는 일로 산수의 자연을 즐기며 노니는데 채의 뜻을 담고 호를 택했다” 고 술하였다. 날마다 향리의 수재들과 더불어 충과 효사상을 과제로 정하여 30년을 열심히 교육하여 원근에서 성취한 제자가 많았으며 저술한 시와 글이 많았으나 후세에 전할 계획을 하지 않아 태반이 유실되었다. 말제 아우 규원이 수습한 나머지 지금까지 상자속에 감추어 있으니 이상은 공의 평생 사적의 대강이다.

기묘 1999년 10월 5일 인시에 별세하니 나이 63세로 이웃 고을에 이르기까지 문상하며 슬퍼하는 이가 많았으며 문인과 유림의 만사가 이어왔다. 묘지는 곡성 석곡 연반촌 후록 대곡상단 정좌에 안장하였다. 부인 광산 김씨는 병근의 딸이요 문숙공 주정의 후손으로 정축년 6월 3일에 태어나 부덕을 갖춘 바 집안을 태평하게 하고 3남 3녀를 두었으니 장남 무진은 나주임씨 절도공 진의 후 길택의 따님을 취처하고 차남은 당진이요 3남은 을진이며, 여는 경주 김수산과 평택 임춘재에게 각각 출가하고 윤선은 미혼이며 손자에 해운은 장남 소생이며 이하는 모두 기록치 않는다.

아~ 공은 천성이 명민하고 효성과 우애심이 뿌리내려 부친의 병환에는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백방으로 약을 구하였으며 상사에는 슬픔이 극에 달하여 실성할 정도였으며 초상장제를 예에 따라 극진히 봉행하고 3년을 하루같이 집상하며 편모에게 더욱 정성을 다하여 산에서 나물을, 냇가에서 고기잡아 봉진하며 아버이를 항상 즐겁게 하였다. 어머니 상사에도 상장제례 절차를 부친상 때와 같이 증행하고 선산수호와 모든 가정사를 모두 주선하며 형님을 아버지와 같이 받들고 아우 사랑이 돈독하되 유무간에 같이 나누고 지냈다. 공의 백씨 모연은 나의 옛 친구로 관선회원이며 선조의 유업을 이어받아 곡성향교 전교이다. 어느 날 규원이 지은 가장문을 제시하며 나에게 행장문을 청하니 정의로써 사양치 못하고 흐린 붓으로 정리하여 후세에 의견을 바로 세우는 학식 높은 선비의 채택을 바란다.

2004년 갑신 정초 문화 류안중 지음, 전주 이재철 국역

石蓮丁先生事蹟錄跋文

석연정선생사적록발문

삼가 생각하건데 이 浩浩한 宇宙空間에 文字記錄이 없으
 면 天地萬物에 이름과 그 성질을 무엇으로 區別하여 밝힐 수
 있으며, 또한 前後 歷史가 無窮한 세월속에 記錄이 없으면
 사람의 모든 行爲를 증거할 수 없을 것이다. 小生の 王考에게
 훌륭하신 여러 學者님이 心力을 다하여 記錄하여 주신 文獻이
 상자에 가득하여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石蓮丁先生事蹟錄
 이라 이름하고 별도로 선생의 七代祖이신 단천부사 諱
 彦奎를 비롯하여 先生의 直系 子孫에 이르기까지 그 文獻을
 모아 附錄에 登載 編輯하고 보니 우리 家門에 얼마나
 所重한 家寶인가.

오호라. 우리 先祖님의 바르게 살아오신 精神을 追慕
 하고 心力을 다하여 著述하여 주신 여러 學者님들에게
 眞心으로 感謝드리고, 끝으로 우리 後孫들은 이 책을 精讀
 하여 祖上님들께서 바르게 살아오신 精神을 본받아 日常
 生活에 도움이 되기를 懇切히 바라노라.

甲辰年 十月 日
 갑진년 십월 일

石蓮丁先生 家孫 宗杓 謹上
 석연정선생 총손 종표 근상

石蓮丁先生事蹟錄

석연정선생사적록

發行日：光復後再甲辰(2024)年 9月 日

發行處：石蓮精舍 採山齋

發行人：丁宗杓 (☎010-4121-3715)

全南 谷城郡 石谷面 蓮盤里 568

監修：金永雄

印刷處：瑞南企劃 (☎062-223-2476)